**Chapter 1. 개관**

**목적**

CPI의 Form434의 주요 목적은 초기의 버전 Form 480(Gough,1957)과 Form 462(Gough,1987)의 목적과 동일하다. 즉, 수검자의 현실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해석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묘사는 친구들과 동료들에 의해 정확히 인식되어야 하고 미래 행동을 예측하고 이전의 행동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프로파일을 해석하는 심리학자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에게 과학적 연구와 통계 정보가 유용하겠지만, 해석자에게 있어서는 해석 경험이나 직관적 기술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에 대한 사례연구는 필수적이다. 다행히도, McAllister's(1996) 해석 가이드 및 조직심리학회에서 CPI 사용에 대한 Meyer와 Davis(1992)의 저서, 개인들의 CPI 사용을 위한 Groth-Marnat(1990)의 지시서, Craig(1999)의 임상적 해석집, 창조성(Gough,1992), 편견(Gough & Bradley,1993)과 직업 계획(Gough,1989)과 같은 특정 준거와 관련된 사례분석을 포함하는 여러 종류의 자료들이 있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검사의 목적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명료화하고 이해하기 위해, 일상에서 사용하는 변수들과 개념들을 사용하여 개인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변수 중에서 패턴과 프로파일의 형태는 모든 개인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가리킨다. 해석자의 과업은 검사의 척도와 이런 프로파일에 의해 제공된 증거를 통해 개인을 의미 있는 전체로 통합하는 것이다. 검사가 측정하는 일상의 변수들(예를 들어, 주도성, 사교성, 자기통제, 융통성)은 folk 개념 (concepts)으로 여겨진다- 즉, 개념(concepts)은 대인관계로부터 야기되었고, 연관되었으며, 사람이 집단을 형성하고 사회적 기능을 구성하는 어디에서나 나타난다.

이런 folk 개념은 개인의 특성을 평가하는 매력적인 방식을 만들었다. 이것은 매일 요구되는 사회적 관계와의 관련성, 일상 언어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발생과 생존과 같은 보편성 때문에 매력적이다. 또한 성격 이해를 위한 훌륭한 기술적이고 분석적인 체계가 있다. 게다가, 이런 개념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측정 기술은 환영받는다. 심리학적 평가에서 그 자체의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근원으로부터 끌어낸 유용한 다양한 검사 도구를 갖는 다는 것은 뚜렷이 구별되는 강점이다. 이런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전문가는 평가를 수행하는 특정 상황에 따라 보다 정확히 도움이 되는 검사 도구를 가려서 선택할 수 있다.

**5가지 원리**

CPI를 사용하는 심리학자들과 사람들은 검사의 구성과 타당성을 관리하는 기초 원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 근본적인 가정이나 원리가 있다(Gough,1995). 이런 원리는 먼저 아래에서 간단히 설명한 후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겠다.

*원리 1.* 이 원리는 “무엇이 성격의 속성을 평가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folk 개념에 기반을 둔 CPI의 척도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든 그들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성격에 대한 평범한 구성개념들이다.

*원리 2.* 이 원리는 개방 체계(open system) 원리라고 칭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척도가 체계에 포함되어 있을까?”라는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 원칙은 충분히 많은 척도들이 포함되어 있어, 단일 척도(드문 경우)나 두 세개 또는 네 개 척도(일반적 경우)로부터 대인관계 행동의 중요하고 되풀이되는 형태가 예측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중요한 기준이 기존 척도로 예견할 수 없다고 판명되면, 새로운 척도가 체계에 추가될 것이다. 만약 어떤 문항의 집합이 필요한 특성을 거의 혹은 전혀 측정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제거될 것이다. CPI가 처음 구성된 이후로 척도는 이 원리에 따라서 추가되거나 제거되어왔다.

*원리 3.* 이 원리는 수단적 원리로 불리며 “각 척도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 성격 평가에서,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대답이 있다. 하나는, 여기서 정의적(difinitional) 접근으로 특성 측정의 견지에서 척도를 보고, 최대한의 내적 일치도를 갖고 서로에 대해 최소한의 상관을 가지며 요인분석 매트릭스에서 올바른 배치를 갖는 척도 개발을 추구한다.

다른 하나인 수단적인(instrumental) 접근은 다른 한편으로, 각 척도에 대해 두 가지 준거를 명시한다: (a)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합리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 (b) 어떤 이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 의미있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그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수단적/실제적 목적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이전의 수많은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Gough,1968a,1987,1989).

*원리 4*. 이 원리는 지형적(topographical) 원리로 불린다. “척도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을 다룬다. 원리는 검사의 척도가 동일한 목표로 서로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일상생활에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만큼 동일하게 개념이 활용된다. 다른 말로, CPI의 목표는 직교성(orthogonality)이나 심리측정적 독립성이 아니다.

*원리 5.* 이 원리는 측정의 증대(intensification) 원리라고 불리며, “측정이 단일한 ‘key 차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는가, 또는 이런 차원 내의 양상이 각각 척도화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한다. CPI의 주요 주제(내향성/외향성 등)는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함축성과 미묘함을 암시하는 상호 상관된 측정 군(family)에 의해 평가된다. 예를 들어, Class 1에서 7가지 척도를 포함하고, 자기 확신, 안정과 관계적 위치가 표현되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Class 2 또한 개인 내 가치와 자기-통제의 영역을 나타내는 7가지 척도를 갖는다.

**CPI Form 434의 구성**

CPI Form 434는 434문항으로 이전 버전인 Form 462에 비해 28문항이 적다. Form 462에서 제외된 28문항은 1991년 미국 장애인 법에 의해 금지된 것을 포함하며 대부분 공정 고용법에 위배되거나 사생활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몇 개의 문항은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만한 것이었다. 그 예는 “나는 과음한 적 없다.”와 “나는 구역질이나 구토로 고통 받고 있다.”, “나는 오직 유일한 종교가 있다고 확신 한다.”(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나는 키 큰 여성을 좋아 한다.”(이의가 제기된 문항).

20개 folk 척도에 대한 채점은 남성 3,000명 여성 3,000명, 총 6,000명의 표본을 근거로 컴퓨터 기록으로 구성되었다. Form 462와 Form 434간의 점수 패턴을 비교하기 위해 Form 434의 척도는 Form 462의 척도와 동일한 길이를 유지했다. 예를 들어, 만약 Form 462에서 두 문항이 제외된다면, Form 434에 남아있는 문항 중에서 2문항이 척도 내에서 대신한다. vector 3 척도는 생활방식과 자아실현의 수준이 도표 형식으로 기록된다.

심리 검사에 대해 자주 질문되는 것은, “문항의 길이와 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이다. 결정요소 중 하나는 평가하는 변수의 수로, 많은 문항들이 타당도 평가를 필요로 한다. CPI에 원리 1과 2는 측정의 영역으로써 folk 개념과 대인관계 행동의 중요하고 되풀이되는 형태를 예측하고, 개념화를 가능하게 하는 약 20가지 차원이 필요하다. 그렇다-아니다를 선택하는 문항에서 문항에 차등을 두고, 채점의 충분한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 25~30문항이 필요하며,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20개 척도는 500~600문항이 소요된다. 그러나 척도 내 문항 중 일부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 전체 문항은 434문항을 유지한다. 좀 더 길어진 검사와 좀 더 짧아진 검사들은 부록 C에서 언급한다. 예를 들어, 원형 MMPI는 566문항이었고 현재 MMPI-2는 567문항이다. 성인 MMPI는 478문항이다. 각각의 예에서, 척도화 된 변수의 길이와 개수는 서로 비례한다. 경험에 바탕을 둔 방식은 검사의 범위가 좁아질수록 문항의 수는 줄어들고, 측정 범위가 넓어지거나 좀 더 많은 것을 포함하게 되면 문항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표 1.1는 Form 434버전에 20개 folk 척도와 3개의 vector 척도, 그들의 길이, 새로운 문항의 수 그리고 Form 462에서 채점된 척도와 Form 434에서 현재 채점된 척도간의 상관을 제시하고 있다. 덧붙여, 척도의 이전 득점과 현재 득점에 대해 남성, 여성 각각 3,000명의 동일한 연령의 프로파일 규준 표본을 계산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있다.

23가지 차원에 대한 Form 462와 Form 434 버전 간의 상관은 동일한 방식으로 채점했을 때 .96에서 1.00에 이른다. 이런 계수들은 CPI에 대한 이전 연구 결과가 안전하게 Form434을 일반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남성에 있어서 척도간의 차이는 0.24의 전체 평균을 갖는 0에서 1.11(안녕감 척도)의 범위에 걸쳐 있다. 여성은 0.29의 평균을 갖으면서 범위가 0에서 1.50(안녕감 척도)이다. 안녕감 척도에서 차이는 장애를 나타내는 7개 문항을 다른 문항으로 교체했기 때문일 수 있다. 원점수 평균에서 일반적으로 적은 차이는 척도에 대한 비교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암시한다.

Form 462에서부터 이어진 folk 척도와 3개의 vector 척도를 포함하여 13개 특별한 목표나 연구 척도가 지정된 장면과 시험관의 재량에 따라 사용하기 위해 제공된다. 이중 8개는 Form 462를 위한 매뉴얼(Gough,1987)에 포함된다. 즉, Mp(Managerial Potential; Gough,1987), Wo(Work Orientation, Gough, 1985), CT(Creative Temperament, Gough, 1992), B-MS와 B-FM(Baucom's unipolar scales for masculinity and feminity; Baucom, 1976, 1980; Baucom & Danker-Brown, 1984; Baucom & Weiss, 1986), Anx(Anxiety; Leventhal,1966,1968), D-SD(Dicken's scale for socail desirability; Dicken, 1963), 그리고 D-AC(Dicken's scale for acquiesence; Dicken, 1963).

새로운 5개 특별한 목표 척도는 리더십 잠재력(Leadership), 우호성(Amicability), 법/규범 지향성(Law Enforcement Orientation), 강인함(Toughmindedness), 그리고 Nar(Narcissism; Wink &Gough, 1990)를 포함한다.

**개방 체계**

CPI의 최초 연구 버전은 548 문항을 포함했고, 현재 프로파일에 기록된 20개 folk 척도 중 15개가 포함되었다. CPI Form 480은 1956년에 출판되었고, 3가지 새로운 척도가 첨가되었다; 사회적 존재감(Social Presence), 자기수용(Self-acceptance), 자기통제(Self-control). 또한, Form 548에서 채점된 여러 척도는 제외되었다. 예로는 신경성피부염(neurodermatitis(Gough, Allerhand, & Grais, 1950))에 대한 척도의 개념은 folk 개념의 이론적 모델과 조화하기 힘들었다. 1986년 Form 480 버전은 Form 462로 대체되었고 2개의 새로운 척도가 추가되었다; 공감성(Empathy; Hogan, 1969; Johnson, Cheek, & Smither, 1981), 독립성(Independence; Gough, 1989). vector 3 척도는 성격구조의 직육면체(cuboid) 모델을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28문항은 Form434(CPI, Third Edition) 개발을 위해 Form462에서 제외되었고 5가지 특별 목표 척도가 추가되었다.

CPI가 개방체계에 따라 변화를 겪어온 유일한 검사도구는 아니다. 아마도 심리학적 평가에서 개방 체계의 기본이 되는 예는 Strong 흥미 검사이고, 이것의 문항은 1927년 400문항 이상에서(Strong,1943), 399(Campbell, 1976,1974), 325(Campell, 1977; Hansen,1984), 현 버전 317문항(Harmon, Hansen, Borgen, & Hammer, 1994)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척도들이 The Strong에서 제외되었고, 많은 새로운 척도들이 Holland's(1973)의 6가지 일반 직업 주제에 대한 측정을 포함하며 추가되었다.

**도구적 VS 정의적 목적**

심리학적 측정에서 척도의 목적에 관해 두 가지 관점이 주목받았다. 하나는 정의적 목적(the definitional)이다. 이 접근은 척도를 심리학적 변수를 명시하거나 정의하는 것으로 본다. 외현적 또는 암묵적인 지능의 평가에 대한 초기의 많은 연구들은 이 관점을 받아들였다. 이 시각을 구체화하는 초기의 유명한 견해(Boring, 1923)는 “지능은 검사를 통해 측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성격 검사에 대한 특성 개념 또한 정의적 관점으로부터 유래된다.

정의적 관점에 대응하는 것이 도구적 목적(the instrumental)이다. 도구적 관점은 척도의 목적이 공리주의나 실용주의이며, 측정에 대한 타당도 평가는 이런 준거를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주도성 척도가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 의해 주도적이고, 강하고, 자기 확신이 있고, 지략 있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 덧붙여, 그런 것들이 주도적이라고 합의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논리에 의해 CPI는 이런 수단적이거나 실리적인 관점과 명확하게 일치된다.

측정에 대한 정의적 관점과 도구적 관점 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검사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명시된 준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정의적 측면에서, 선택의 준거는 척도 내 문항이 체계적으로 영역의 분명한 내용의 표본을 뽑는 정도, 문항들이 상호 관련되는(가능하다면 동질적이고 단일요인 척도를 만들기 위해) 정도, 그리고 측정의 의미와 연결된 형식에 대한 문항 원본의 일치성을 포함한다. 주도성에 관해서, 정의적 관점으로부터 예상되는 문항들은 “나는 주도적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지배적이라고 생각한다.”, “주도적인 것이 좋다.”, “나는 책임을 맡아 다른 사람을 지시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리더십에 타고난 재능이 있다.” 그리고 “나는 대화를 시작하고 대부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이다. 정의적 지침을 기반으로 한 척도들의 문제점 중 하나는, 척도의 의도를 알기 쉽고, 속이는 것도 쉽다는 것이다.

도구적 측면에서 정의적 접근의 준거들은 단지 수단이기에 평가의 진정한 목표나 목적을 성취한다면, 정의적 접근의 준거들에 의해 문항들이 묶이지 않는다. 도구적 접근의 준거는 사람들을 분류하는 정도와 검사의 목적에 맞게 관련된 행동을 예측하거나 확증하는 정확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책임감에 대한 척도가 모두가 책임감이 강하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양심적인 사람(고득점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분류하거나 또는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의지하기 어렵고, 변덕스럽고, 단정치 못한 사람(저득점자)을 분류하며, 신뢰성과 근면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한다면, 문항간 일치가 낮거나, 순차적으로 다면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

도구적 준거에 의해 개발된 척도는 종종 명확한 문항과 미묘한 문항 모두를 섞어 놓기도 한다. 미묘한 문항은 문항 해석으로 척도 간의 집합과 채점의 방향을 쉽게 알기 어렵다. Form 434(CPI, 세 번째 판) 주도성(Dominance)척도는 “나는 모임에서 직책을 맡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결정을 해야 할 때 자연스럽게 나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리고 “내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아니다’에 득점)과 같은 확실한 문항을 포함한다. 이것은 또한 “나는 가끔 잘 모르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한다.”(‘그렇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인 교육세를 낼 필요가 없다.”(‘아니다’) 그리고 "나는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오지 않았다.“(‘아니다’)와 같은 보다 미묘하고 명확하지 않은 문항을 포함한다.

도구적 척도들은 일반적으로 경험적 문항 분석 방법으로 개발된다. 경험적 문항들은 외현적이거나 비검사적 기준과의 관계를 통해 문항 선택과 채점의 근거를 세운다. 경험적 문항 분석 방법은 문항의 내용이 겉으로는 측정의 객관성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문항을 허용하며, 또한 겉으로는 관련이 있지만 사실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데 실패한 문항을 배제한다.

**지형적 목적**

지형적 원리는 CPI folk척도 간의 상관이 대인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동일한 개념들 간의 상관을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각 척도는 folk 개념에 의해 사용 되었던 것과 같은 개념 하에 포함된 무리나 복합체의 질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있다. 예를 들어 독립성은 자급자족과 타인으로부터의 거리나 분리 모두를 나타낸다. 검사에서 독립성 척도는 이런 구성요소를 모두 담고 있어야 한다. 관찰자에 의한 형용사 서술(부록 D)에서는 독립성 척도의 고득점자들이 이 두 가지 요소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형용사 ‘개인적인(individualistic)’은 1,828명으로 구성된 6가지 다른 표본에서 .20의 중앙값을 갖는 .16에서 .25에 걸친 상관을 갖는다. 형용사 ‘독립적인(independent)’의 상관은 .22의 중앙값을 갖는 .16에서 .32에 걸쳐있고, ‘자신감 있는(confident)’의 범위는 .28의 중앙값을 갖는 .21에서 .32에 걸쳐있다. 요약된 18개의 계수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거나 확률 0.5 수준을 넘어선다.

지형적 원리는 또한 평가자나 관찰자들이 척도 간 상관을 사용할 때 동일한 개념간의 상관에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인터뷰와 집단 토의 그리고 비공식적 상호작용에 의해 평가한 198명의 대학 2학년생 표본에서, 독립성에 대한 staff 평가와 사회적 예민성이나 공감은 .63으로 상호관련이 있다. 이런 결과는 독립성과 공감성 척도 간의 상관이 .60의 영역에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각 set의 3,000명의 현재 규준 표본에서, 독립성 대 공감성에 대한 상관계수는 남성 .53 그리고 여성 .58이다.

보다 포괄적인 지형적 분석을 20가지 folk 개념으로 나타내기 위해 6가지 형용사의 작은 무리를 사용하여 수행했다. 예를 들어, 자기통제 척도는 온건한, 참을성 있는 그리고 자기 통제적인으로 표시되고 용감한, 충동적인, 해로운으로 표시된다. 독립성 척도에서는 6가지 형용사가 자신감 있는, 독립적인, 개인주의적인, 의존적인, 얌전한, 유순한이다. 지적 효율성 척도(Intellectual Efficiency)는 빈틈없는, 영리한, 합리적인, 무딘, 신경질적인, 지력이 모자라는 이다. 20 ACL 집단은 6가지 객관적인 표본과 내적으로 관련이 있다. 아내와 동료에 의해 기술된 236명 남성, 3명의 동료에 의해 묘사된 194명 남자 대학생; Institute of Personality Assessment and Research에서 10명의 관찰자 패널에 의해 평가 된 612명의 남성; 남편과 동료에 의해 평가된 236명의 여성; 3명의 동료에 의해 평가된 192명의 여대생; 그리고 10명의 관찰자 패널에 의해 묘사된 358명의 여성. 6개의 20\*20 매트릭스는 각각의 표본에 대해 20\*20 CPI 매트릭스와 상관이 있었다. 결과는 남성 배우자, r=.76; 남학생, r=.78; 남성 평가자, r=.80; 여성 배우자, r=.73; 여학생, r=.80; 그리고 여성 평가자, r=.95. 매우 명확하게, CPI의 folk 척도간의 상관은 관찰자가 사용한 것과 동일한 개념간의 상관으로 수렴한다.

CPI에 대한 공통된 비판은 척도간의 상관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남성의 규준 표본에서 folk 척도의 20\*20 매트릭스는, 계수가 .42의 중앙값을 갖는 -.25(사회적 존재감 척도와 대인민감성 척도)에서 .82(자기통제 척도와 호감성 척도)의 범위에 걸쳐있다. 여성의 규준 표본에서 매트릭스는, 범위가 .42의 중앙값을 갖는 -.40(독립성 척도와 대인민감성 척도)에서 .84(자기통제 척도와 호감성 척도)에 이른다. 이 평가들을 다른 검사들에서 발견되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웩슬러 성인 지능검사에서, 20살에서 34살의 표본에서 10가지 하위척도는 .44의 중앙값을 가지며 .16에서 .72에 걸친 상관을 보인다. MMPI에서 Kassebaum, Couch와 Slater에 의해 보고된 13\*13매트릭스는 .33의 중앙값을 가지며 -.28에서 .83에 걸친 상관을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것은 문항 중복(하나이상의 척도에서 나타난 문항)으로 이것은 심리측정의 쟁점중 하나이다. 한 가지 견해는 중복의 양이 적다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관점과 중복은 어떤 희생을 치루더라도 피해야만 한다는 양립된 주장이 있다. 중복을 피해야한다는 사람들의 주요 주장은 그것이 다변량 검사의 상호 상관적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한 요인차원을 변화시키고 또한 애매하게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만약 문항 중복이 탐지할 수 있고, 요인구조에 혼란스러운 영향을 주는지를 경험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검사간의 비교를 허용하기 위해 중복의 양은 또한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다. 여러 다른 검사들과 비교에서 CPI의 척도 간 중복의 특성을 먼저 찾아보자, 그리고 그 후에 영향에 대해 출판된 연구들이나 CPI의 요인 구조에서 중복 영향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자.

CPI에서, 두 척도 간에 10개 이상의 문항을 공유하는 한 가지 예시가 있다. 이것은 자기통제 척도의 38문항과 호감성 척도의 40문항 사이에서 나타난다. 이 두 척도는 12문항을 공유한다. 주도성과 독립성, 사교성과 사회적 존재감, 독립적 성취와 지적 효율성 척도와 같은 다른 몇몇 척도는 8개 문항을 공유한다. 자기수용 척도는 자기통제 척도와 4문항을 공유하지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채점된다. 척도간의 중복은 CPI보다 MMPI에서 더 높다. F와 Sc척도는 모두 동일하게 채점된 15개 문항을 공유한다. D와 Pt는 유사하게 채점된 13개 문항을 공유하고 Hs와 Hy는 20가지 중복을 하며 유사하게 문항을 채점한다. 중복의 범위는 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와 Strong Interest Inventory에서 더 높다.

두 척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채점된 공통 문항의 수와 두 척도의 길이에 근거한 두 척도간의 상관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다. 이런 공식이 문항을 공유하는 CPI척도의 153쌍에 적용되어질 때, 계수의 범위는 .00의 중앙값을 가지며 -.17에서 .29에 이른다. MMPI에서 동일한 공식을 3가지 타당도 척도와 10개 임상척도간의 78개의 중복 쌍에 적용했을 때, 상관의 범위는 .04의 중앙값을 가지며 -.15에서 .46에 이른다. MMPI에서 Hs와 Hy에 대한 중복계수는 예외로, 상관은 최고로 낮으며 .00에 수렴한다.

CPI의 상관 매트릭스와 요인 구조에서 문항 중복이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이 주제에 관한 4개의 연구가 있다(Cohen & Farley, 1977;Farley & Cohen,1974,1980; Roger & Shure,1965). 문항 중복의 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3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하나는 모든 중복 문항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들의 특수한 문항들에 대한 척도를 채점한다. 두 번째는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쌍으로 무선적으로 두 개의 척도에 중복문항을 할당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중복에 의해 만들어진 상관의 크기에 따라 척도간의 계산된 상관을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책임감과 사회성 척도는 동일한 방향으로 채점된 3개의 공통된 문항을 가지고 있다. 중복 공식의 적용은 .07의 상관을 산출한다. 남성의 .65와 여성의 .60의 관측된 상관은 요인분석에 전에 .07로 낮아진다.

모든 연구의 결과들은 추출된 요인과 그것들의 결과가 모든 4가지 조건(위의 3가지 다른 조정으로 채점된 척도)하에서 동일하게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반영하여, Rogers와 Shure(1965)는 CPI 척도에 쌓여있는 대인간이나 개인 내적 주제가 척도간의 중복된 몇 개의 문항만큼 사소한 어떤 것에 의해 수정되기에는 너무 강력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Farley와 Cohen(1980)는 중복문항 사용할 때 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중복 없이 가능한 것 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평가가 적은 문항으로 실시 될 수 있다.

**척도의 의도**

위에서 설명했듯이, 검사 척도의 의도는 (a) 특정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행동할지 예측하는 것이며, (b) 대인 관계에서 중요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묘사되는 개인들을 식별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들은 심리학적 특성을 정의하고 상호관계가 없는 변수의 요인 매트릭스를 발생시키는 공통된 심리측정적인 목적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즉, 어떤 척도의 명칭이 학술용어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할 때조차 심리학적 특성을 정의내리거나 평가하는 것에 관하여 제기된 주장은 없다. 또한, 지형적 원리에 관해 논의되어진 것처럼, 척도 간 상호상관은 직교 관계의 임의적 모형 보다 오히려 folk 척도에서 동일한 개념간의 상호상관과 일치해야 한다.

특성 개념과 어떤 연결고리도 없는, 분류상이나 예언적인 의미를 갖는 척도의 개념화는 스트롱 흥미검사(Harmon, Hanson, Borgen, & Hammer,1994)를 참조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리학자를 위한 Strong 척도를 생각해보자. Strong에서 이 척도가 단순하고, 단일차원이며, 단일요인 주제가 있을지라도 물리학자나 물리주의의 특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주장은 수단적이고 실용적인 사고이다. 이 척도에서 고득점자들이 물리학자들과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학자처럼 묘사되고, 물리학자들이 행하고 말하는 것을 행동하고 말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확증되는 범위에서, 척도는 중요하고 가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예들에서 더 나아가, 물리학자에 대한 척도가 다른 척도, 예를 들어 수학자와 상관이 없다는 주장은 아니다. 사실, 이 두 척도는 CPI의 folk 척도에 대한 20\*20매트릭스에서 발견된 것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상관이 있다. 이것이 두개의 Strong 척도가 불필요하고, 굉장히 많이 중복되며, 심리 측정적으로 가치가 없거나, 하나는 제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본질적인 상관이 실질적으로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수리적인 관심과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에 대한 척도가 수리에 대한 척도와 강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대부분의 수학자들 역시 물리에 대한 흥미와 재능을 가지고 있다. 물리에는 관심이 없는 수학자와 같은 예외가 소수이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보다는 두 척도를 모두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두 척도에서 일치하지 않는 점수를 갖는 사람들은 드물게 확인된다.

CPI로 다시 가서, 주도성 척도와 사회적 존재감 척도를 생각해보자, 규준 표본에서 그들의 상관은 남성은 .59 그리고 여성은 .60이며 두 척도 모두 대인관계 스타일과 자기 확신을 나타내는 class 1에 해당된다. 이런 두 척도에서 더 높고 더 낮은 점수의 의미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차이가 존재할까? 부록 E의 California Q-set(Block, 1961)의 100문항과 CPI의 상관 결과는 관찰자에 의해 묘사된 547명의 남성과 393명의 여성을 포함한다. 어떤 Q-sort문항에서, 주도성 척도와 사회적 존재감 척도간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 26번 문항에 대해서(생산적인가?), 주도성 척도와의 상관은 남성 .21과 여성 .29이다(양쪽 계수는 0.1의 수준을 넘어 유의미하다); 그러나 사회적 존재감 척도와의 계수는 남성 .00과 여성 .09(둘 다 0.5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못하다). 58번 문항에 대해서(“감각적 경험을 즐기는”), 주도성 척도에 대한 수치는 남성 .06과 여성 .03이다 그런데 사회적 존재감 척도와의 상관은 남성 .18과 여성 .24이다. 46번 문항에 대해서는(“개인적 상상과 공상, 소설적 사색에 몰두하는”), 주도성 척도에서 고득점자들은 공상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남성과 여성에 대해 -.24와 -.20의 상관으로 표시되며; 그런데 사회적 존재감 척도는 남성 -.04과 여성 .04의 상관을 갖으며 이런 점에서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다.

연합된 행동의 영역에서(Buss & Craik,1983a), 정보는 David M. Buss가 연구한 88쌍의 표본을 이용할 수 있다. 각 동료는 다른 사람에 의해 최근 행동을 평가 받는다. 1과 0의 가중치를 사용하여, 행동은 176명의 전체 표본에 대한 CPI 척도와 관련이 있다. 주도성 척도와 가장 큰 양적 상관을 갖는 5가지 행동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말을 많이 한다.”(r=.34), “집단에서 책임을 진다.”(r=.32),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한다.”(r=32), “모임에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익힌다.”(r=.30), “모임에서 처음 말을 시작 한다.”(r=.28). 주도성 척도 해석에 중점을 두는 친사회적인, 문제해결의, 우세한 함의는 명확하게 이런 행동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적 존재감 척도에서, 가장 큰 양적 상관을 갖는 5가지 행동은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한다.”(r=.44), “파티에서 거의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r=.38), “파티에서 춤을 준다.”(r=.36), “지루한 파티를 활기 띠게 하는데 앞장선다.”(r=.34),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춤췄다.”(r=.33). 사회적 존재감 척도에서 높은 점수로부터 숙련된 해석가가 찾은 쾌락을 추구하고, 자발적이며, 외견상 자기과시욕이 강하다는 해석은 이런 행동들에서 나타날 수 있다. 두 척도가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원인 또한 주목할 만하다. 주도성 척도의 함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정치적 생활에서처럼, 중대한 사업을 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이는 곳에서 중요한다. 사회적 존재감 척도의 함의는 비공식적 장소, 파티,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쾌한 경험이 목적인 장소에서 더 중요하다.

순응적 성취(Achievement via ConFormance)와 독립적 성취(Achievement via Independence)척도는 Class 3에 해당한다. 두 척도는 지적 성취의 학문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예측을 포함하는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다. 규준표본에서, 그들의 상관은 남성 .55와 여성 .50이다. Block의 100 Q-sort 문항들에서 5명 이상의 관찰자에 의해 설명된 547명의 남성과 393명의 여성의 표본에서, 순응적 성취 척도와 독립적 성취 척도간의 흥미로운 차이가 있다. 7번 문항에 대해(“다양한 영역에서 보수적인 가치에 찬성한다.”) 순응적 성취 척도와의 상관은 남성 .14 그리고 여성 .20인데, 독립적 성취 척도와의 상관은 -.13과 -.22이다. 4개의 모든 계수는 통계학적으로 .01의 수준을 넘어 유의미하다. 50번 문항(“행동과 태도가 예측할 수 없고 변하는 경향이 있는가?”)은 독립적 성취 척도(남성 -.06과 여성 -.04의 계수)와 관계가 없다, 하지만 -.18과 -.32의 상관이 보여주는 것처럼, 순응적 성취 척도에서 낮은 점수와 연관되었다. 51번 문항(“순수하게 지적이고 인지적인 문제에 가치를 둔다.”)은 순응적 성취 척도와 적당한 양의 관계를 갖고 있다. 하지만, 남성 .31과 여성 .45의 계수를 갖는 독립적 성취 척도와 더 강한 관련이 있다. 또한 순응적 성취 척도에서 높은 점수에 의해 예언된 규칙준수와 자기단련의 성향을, 독립적 성취 척도는 보다 창조적이고 지적인 성향과 관련된다.

마지막의 간단한 예는 사회성(Sociability) 척도와 자기통제(Self control) 척도를 사용한다. 두 척도는 Class 2에 해당되며, 양쪽 모두 사회관계의 기준과 가치에 상관되어 있고, 양쪽 모두 규칙 준수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Block의 문항 중 2개는 사회성과 자기통제 척도 간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인용될 수 있다. 15번 문항(“가상놀이, 거짓말, 유머의 사회 기술적 수완이 있다.”는 남성과 여성 .04와 .06의 상관에서 보여지 듯 사회성 척도 점수와 연관이 없다. 그러나 남성 -.12와 여성 -.21의 부적 상관은, 비록 규모면에서는 적당할지라도, 이런 종류의 행동이 거의 혹은 전혀 척도의 고득점자 사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84번 문항(“쾌활한”)은 사회성 척도와 남성 .20과 여성 .19로 상관이 있으나, 남녀 모두 자기통제 척도와는 .05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결과는 사회성 척도에서 고득점자들은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자아가 마찰이 없고, 자동화되어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 그러나 자기통제 척도에서 고득점자들은 규칙 준수가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 지각적 행동이며, 심리적 에너지의 소모를 요구한다. 자기통제 척도에서 고득점자들이 보이는 과도한 통제는 분노나 폭력성의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분출에 대한 잠재성과 연관되어 있다.

**문항 수준에서의 고려사항**

CPI Form 434에서 171문항은 MMPI(Hathaway & McKinley,1943)에서 가져왔다; 이 문항들 중 158문항은 또한 MMPI-2(Butcher, Dashlstrom, Graham, Tellegen,& Kaemmer,1989)에 나타나있다. 어떤 CPI 척도는 고안된 준거에서 높거나 낮게 분류된 사람들에 대한 문항승인 비율을 대조하면서 처음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성 척도는 처음 광범위한 사회적 활동을 기록한 사람들과 전혀 하지 않거나 적은 활동을 기록한 사람들에 관하여 MMPI에서 대조되는 문항 승인 비율에 의해 고안되었다(Gough,1952b). 지적 효율성(Intellectual Efficiency; Gough,1953b)과 같은 척도들은 MMPI와 원본 문항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며, 호감성(Good Impression; Gough,1952a) 척도와 같은 다른 척도들은 원본 문항으로부터 대부분 가져오거나, 그대로 사용하였다.

MMPI를 위해 쓰여 진 문항이나 수집된 문항들에서, Hathaway와 McKinley는 자주 사용되고 단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포함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했고,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런 객관성이 보장될수록, 응답자들이 규칙적이고 안정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CPI의 새로운 문항들은 이런 동일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었다. 검사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언어는 방법상의 문제이고 우연히 구성된 것이 아니다. Schinka와 Borum(1994)는 CPI Form462에 대해 이런 목표가 합리적으로 잘 이뤄졌다고 제안했다. 이 분석에서 한 문항 당 평균 단어의 수는 11.92개였고, 단어 당 한음절의 평균수는 1.37개였다. 종합적으로, CPI는 5.22의 계산된 값으로 표시되는 것처럼 5번째 단계 수준에서 읽기 쉬웠다. NEO-PI-R(Costa & McCrae,1992)는 5.71단계 수준이었다. Personality Research Form(Jackson,1967)은 5.22단계 수준이었다. 읽기에 가장 어려운 개인 척도는, 4개의 검사 연구에서 검사된 66개 중에서, 8.97단계 수준의 16PF에 Factor N(private, observant, shrewd)이었다. CPI에서 읽기에 가장 쉬운 척도는 4.11의 단계수준인 지적 효율성 척도였고, 가장 어려운 것은 6.53의 단계수준인 독립적 성취 척도였다.

또 다른 가이드라인은 문항을 가능한 자아동질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자아동질적 문항은 응답자들이 자신의 마음과 맞다고 생각하거나 의견을 내놓는 것이 보상행동으로 여겨지게 한다. 이런 문항의 예는 “나는 내 생각을 말하는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진술에 “그렇다”로 대답하면서 어떤 만족감을 느낀다. 어떤 문항은 동조성 척도로 채점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하기 때문이다. 그 문항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차이를 두려는 문항이 아님을 알더라도, 긍정적인 정서가 여전히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자아동질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는 동조성 척도에 대한 두 번째 예는 “누군가가 나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면, 싸울 것이다.”이다.

세 번째 고려사항은 응답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항을 가능한 한 미묘하게 만드는 것이다. 미묘한 문항은 어느 척도에 해당되는지 추측하기 어려우며, 단지 문항을 읽는다고 득점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문항을 살펴보고, 문항에서 추론되는 척도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로 어떻게 측정되는지 살펴본다.

1. 모든 국민은 개인적인 이익을 다소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집단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반대한 구성원들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3. 자녀가 없는 사람은 교육세를 낼 필요가 없다.

4. 나는 그다지 올바른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4가지 문항을 사회적 책임감, 시민의 의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4개 문항 모두 주도성 척도(“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로 채점되지만, “주도성”은 결코 언급되지 않는다. 단지 첫 번째 문항만 책임감 척도에 포함된다.

여기에 또 다른 일련의 4가지 문항이 있다. 이것들은 그들이 나타내는 척도에 대해 적당히 미묘한 수준의 요소들이다.

1. 불타는 것이 매혹적으로 보인다.

2. 경기나 게임을 할 때는 내기를 해야 더 재미있다.

3. 나는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4.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위의 문항은 모두 책임감 척도로,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로 채점된다. 이 중 두 번째 문항만 지적 효율성 척도에 해당된다.

물론, 많은 명확한 문항들 또한 검사에 포함되어있고, 대부분의 folk 척도에서 그들은 미묘한 문항들보다 수가 많다. 그러나 명확한 문항은 그들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각 척도에서 선택한 비검사 기준과의 관계 때문이거나 또는 척도에서 문항들에 의해 정의된 심리 측정적 주제와의 연관성 때문이다.

**척도 개발의 방법론**

CPI는 때때로 경험적 방법론의 원형적인 예로써 언급되어진다. 척도 개발에서 경험적 방법들은 비검사 기준과 검사에 대한 반응, 예측하려는 결과나 목표 간의 관계를 최대화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문항의 선택과 조정에 대응하는 문항 분석을 요구한다.

내적 신뢰도 분석과 같이 대조적인 방법은 측정의 목적과 연관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들로 시작하여, 이 문항들 간의 상관 연구에 의해 가장 일관성이 적은 문항들을 제거하는 작업까지 모두 평가된다. 비록 두 방법이 모두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연구의 유용한 척도가 두 방법에 의해 개발되어 질 수 있다(Gough & Bradley,1992a).

CPI는 총 20개의 folk 척도가 있고, 이 중 13개는 경험적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이 13개의 척도는 주도성, 지위상승 욕구, 사교성, 독립성, 공감성, 책임감, 사회성, 관용성, 순응적 성취, 독립적 성취, 지적 효율성, 예민성, 대인민감성 척도이다.

20개 척도 중 4개 척도(사회적 존재감, 자기수용, 자기통제, 융통성)는 명백하게 내적 신뢰도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3개의 나머지 호감성, 동조성, 안녕감 척도는 경험적이나 내적 신뢰도 분석을 포함하는 혼합전략에 의해 개발되었다.

표1.2 20개 folk 척도와 의미

**프로파일과 해석**

CPI에서 20개 folk척도는 주도성과 독립성 같이 상호작용하고, 사회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특성으로부터 유래한 결과를 제시한다. Class 1에서는 대인관계상황에서의 안정감, 자신감, 성향을, Class 2에서는 규범지향성과 개인적인 가치를, Class 3에서는 개인의 인지적, 지적 스타일과 성취 경향을, Class 4에서는 주변 상황을 대하는 개인의 스타일을 측정한다. 벡터척도는 따로 제시된다.

대인민감성 척도를 제외한 모든 척도는 높은 점수는 전통적으로 변수에서 선호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고, 낮은 점수는 덜 선호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척도의 이런 공통된 방향성은 강함(strength)을 나타내는 고득점과 약함(weakness)를 나타내는 저득점으로 프로파일의 해석을 단순화한다. 표1.2는 프로파일에 제시되는 20개 folk 척도를 나열했고, 각각의 고득점과 저득점이 나타내는 의미를 제시했다.

CPI의 초판(Gough,1957)에서는 6,200명의 남성과 7,150명의 여성 표본을 기초로 한다. CPI Form 462 버전이 1987년에 소개되었을 때, 분류된 규준 표본은 남성, 여성 각각 1,000명으로 구성되었다고 소개했다. 1956년도 표본은 약 50%의 고등학교 학생, 다양한 직업을 가진 성인과 대학생과 약 12%의 비행청소년과 교소도 수감자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규준은 Form 480 버전에 어느 정도 충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1986년 Form 462에서 두 가지 새로운 기준 표본이 모아졌다. 이것은 고등학교 집단(25%),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30%), 비행청소년과 교도소 수감자(13%), 그리고 주로 관리직과 전문직의 나머지 성인으로부터 추출한 남성 1,000명과 여성 1,000명이었다. 그 결과로 평균 점수가 위치와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된 척도에서 약간 더 높았다. 새로운 표본의 Form에서는 남녀 각각 3,000명의 기준이 이용되었다. 각 표본에서 50%는 고등학교 검사에서, 13.3%는 비행청소년과 교도소 수감자, 16.7%는 대학교 재학생(졸업생은 제외) 그리고 20%는 주로 비전문직이나 비관리직에서 나왔다. 대략 50%의 표본이 Form 462버전 출판 후의 실시된 검사로부터 나왔다. 새로운 표본의 Form에서 예비 검사는 버전 이전에 두 가지에 의해 성립된 프로파일 패턴과 형태가 현재의 Form을 완전히 따른다고 제시했다.

CPI에 대한 기준이 새로운 표본보다 좀 더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다. 특히, 부록 B에서 20개의 folk 척도, 3개의 vector 척도와 13개의 특별한 목적 척도에 대한 원점수 평균과 표준편차는 남성의 52명 표본과 여성 42명의 표본으로 구성됐다. 동일한 통계치가 또한 모의 결과와 프로파일 Form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복합 표본이 부록 B에 제시되었다. CPI에 대해 출판된 거의 모든 연구들은 이전 작업의 비교할 수 있는 표본과 새로운 표본의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원점수 값으로 정보를 기록한다. 경찰이나 법 집행 담당자 집단과 같은 특별한 프로파일은 어떻게 새로운 집단이 직접적으로 특정 기준과 관계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개발되었다(Robert,1995b). 부록 B에서 기록된 특정 기준 집단에 이익이 되는 다른 방법은 철저한 검토 하에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프로파일과 함께 관련 있는 평균 프로파일을 이끌어낸다. 예를 들어, 만약 검사가 신임 경영진 대상으로 수행된다면, 부록 B에 기록된 185명의 남성 임원에 대한 평균 프로파일은 흥미로울 것이다.

CPI에 대해 종종 제기되는 질문은 이것이 소집단에서 사용되었을 때 타당도가 있냐는 것이다. 이런 물음에 관련된 연구들이 준비되었다. 미국 인디언, 흑인에 대해 18개, 중국인에 대해 13개, 히스패닉계에 대해 12개, 일본에 대해 16개, 그리고 다른 집단에 대해 13개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전 문화에 걸친 검사에 대해 9개 기록이 있다. CPI의 현 29개의 외국어 버전이 있으며, 8개국에서 출판 되었다. 미국 밖과 영어 외 언어로 출판된 연구는 100개가 넘는다. 대부분 이런 연구들은 미국 내 소수집단에 사용할 때 검사의 타당도를 지지한다. 예를 들어, 대인민감성 척도에서 Baldwin(1987)는 흑인 학생들과 백인 학생들 간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Pfeifer과 Sedlack(1974)는 백인 학생들의 학년을 예측했던 CPI 척도로 동일하게 흑인 학생의 대학 학년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Casey(1986)는 백인 학생들 중에 고등학교 낙제생과 관련된 CPI 척도가 히스패닉계 학생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밝혔다. 반면에 Davis, Hoffman과 Nelson(1990)은 책임감과 순응적 성취 척도와 경영 잠재력 지표를 포함한 여러 척도에서 인디언이 백인보다 낮은 점수를 득점했다고 밝혔다. CPI가 소수 집단에 사용될 때 타당도와 유용성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프로파일의 해석 단계**

**Step 1**. 프로파일은 먼저 호감성, 동조성, 안녕감 척도에서 검사한 점수로 일반적인 신뢰성에 대해 재검토 되어져야한다. 호감성(긍정편향 지수)에서 원점수 30점 이상은 지나치게 선호되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려는 시도를 암시한다. 동조성 척도에서 원점수 24점 이하는 반응의 불규칙성을 나타내며, 이는 무작위적이거나 부주의한 대답 때문이다. 안녕감 척도에서 원점수 20점 이하의 점수는 심각한 개인적 문제의 가능성이나, 부정적으로 보이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CPI에서는 긍정편향지수, 부정편향지수, 무선응답에 대한 타당도 척도를 제공한다. 개인에 대한 연구에서 왜곡된 프로파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대한 표본에 대한 연구나 선호하는 인상을 만들어야 하는 압력이 있는 집단의 검사에서, 왜곡되거나 부분적으로 왜곡된 프로파일이 때때로 나타나기도 한다.

**Step 2**. 프로파일은 3개의 vector 척도나 직육면체 모델로 구분되어져야 한다. 모델에서 제공된 Vector 3 척도는 개인의 일반 역량이나 유능성 뿐만 아니라, 성격상의 목표, 대인관계 전략과 예측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할 것이다.

**Step 3.** 척도와 프로파일의 높낮이를 생각해보자. 고득점은 대체로 뛰어난 기능을 나타낸다. 그러나 거의 모든 척도에서 점수가 너무 높을 때는 태도 표현에서의 문제점들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주도성 척도에서 좀 더 높은 점수는 리더십, 주도성의 친사회적 태도표명과 자기 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원점수 약 32점 이상 수준에서는 항상 권력을 추구하는 거만한 행동, 자기 과신과 무례한 성향의 위험을 갖고 있다. 자기통제 척도에서 감정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억제의 문제는 원점수가 32점 이상일 때 예측되어질 수 있다. 자극을 넘어서는 통제가 발생될 때, 감정의 폭발적인 격발과 함께 예측되어질 수 있다. 융통성 척도에서 적응력, 변화에 대한 수용, 창의적인 사고에 대한 재능은 원점수 20에서 21 정도의 높은 점수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이상일 경우, 성급하고, 쉽게 화내는,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의 어려움이 예측될 수 있다. 숙련된 검사의 사용은 척도의 이런 곡선형의 함축적 의미와 그들의 뉘앙스에 대한 섬세한 인식을 필요로 한다.

**Step 4.** 척도간의 형태와 패턴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업상황에서, 순응적 성취와 독립성 성취 척도간의 균형은 중요한 것일 수 있다(Domino,1968,1971). 순응적 성취 점수가 높고, 독립적 성취 척도에서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목표가 합의되거나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 명백히 구분되어져 있는 구조화된 과정과 전공분야에서 좋은 수행을 한다. 독립적 성취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순응적 성취 척도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받은 학생은 이런 상황에서는 수행이 좋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설정한 목표와 개인의 독창력을 요구하는 상황을 좋아하며 이 상황에서 좋은 수행을 한다. 주도성 척도 점수는 높지만, 공감성 척도에서 평균이하의 점수를 받은 매니저들은 부하 직원에게 서투르고 불쾌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잘 훈련되고 통찰력이 있는 사용자에게 맡겨진다면, CPI는 정확하고 통찰력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검사에 대해 교육받지 않고 직관적 재능이 부족하거나 직관적 사고에 저항하는 사람에 맡겨진다면, 검사는 평범하고 때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개인 사례 분석에 대해 숙련된 경험은 CPI의 적절한 전문적인 사용의 필수조건이다.

**검사 진행**

CPI는 오프라인 검사와 온라인 검사로 실시 가능하며, 보통 검사 시간은 45분에서 60분 정도이다. 검사는 14~15세 이상의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읽는 것이 느린 사람들이나 특정한 환경에서는 검사를 두개 이상의 세션으로 나눈다. 검사의 목적과 사용에 대해 수검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그들의 주의와 협조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질문이 단어, 구나 문항의 의미에 대한 것이라면, 시험관은 대답해줘야 한다. 문항의 개념이나 목적의 설명에 관한 질문은 수검자들에게 그들 자신이 판단하도록 격려함으로 잘 처리해야 한다. 만약 3문항 이상에 답하지 않았다면, 채점 프로그램을 통해 주의를 주도록 한다.

**프로파일**

CPI 프로파일은 CPI 프로파일 보고서와 CPI 전문 해석 보고서가 있다. 프로파일 보고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긍정편향, 부정편향, 무작위로 대답한 반응을 찾아내기 위해 경험적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검토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vector 척도에 의해 분류된 유형 정보와 삶의 만족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세 번째 부분은 20개 folk 척도를 표준점수를 포함하여 그래프로 나타낸다. 네 번째 부분은 20개의 folk 척도와 7개 업무지향 척도의 표준점수를 나타낸다. 프로파일 보고서는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해석자는 전체 데이터를 고려하여 해석을 완성해야 한다. 전문해석 보고서는 5가지 부분으로 되어있다. 앞부분은 프로파일 보고서에 제시된 것과 유사하지만, 각 척도에 대해 세밀한 해석적 설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척도 조합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Chapter 2. The Three Vector Scales**

**척도의 배경**

몇 년 동안 CPI척도의 Folk 개념은 4개나 5개의 주요 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예를 들면, Bouchad, 1961; Gowan, 1958; Johnson, 1957; Mitchell & Pierce-Johns, 1960; Springob & Streuning,1964;Veldman & Pierce-Jones,1964). 1970년대와 1980년대 연구는 또한 유사한 구성의 4개나 5개의 1차 요인을 확인했다(예를 들어, Lorr & Burger, 1981; Burger, Pickett & Golman,1977). 미국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 구조는 다른 나라에 CPI의 적용에서 잘 유지되고 있다.;중국 본토(Yang & Gong,1993), 이스라엘(Levin,1971;Levin & Karni,1981), 말레이시아(Awang & Loekmono), 스페인(Seisdedos,1992), 그리고 불어권 스위스(Gendre,1966). 게다가, 요인 구조는 예를 들면, 젊은 과학자들(Parloff, Datta, Kliman & Handlon,1968)과 세 가지 지식층 각각의 사람들처럼, 미국 모집단 내 다양한 종류의 하위표본에서 확증되었다(Shure & Rogers,1963).

Megargee의 CPI Handbook(Megargee,1972)에서 가장 잘 설정된 CPI 요인의 두가지는 (a)외향성, 자기 확신, 독단적인 자기 확신과 사회적 태도와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과 (b)훈련된 효율성, 개인적 성실성과 사회적 순응에 의한 적응으로 언급된 것이 있다. CPI의 그 이후의 확정된 요인 분석은 주로 이 두 주제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5가지 CPI 요인의 요인 분석(Burger, Pickett & Goldman, 1977)은 두개의 두 번째 수준 척도를 발견했다. Fx와 F/M을 제외한 모든 Folk 척도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하를 가진 것과 Re, So, Sc와 F/M에 중요한 부하를 갖는 것들이다. 첫 번째 2차 척도는 자아실현과 개인적 순응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규칙준수와 고분고분한 성향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두 가지 주요 주제에 대한 강력한 증거-대인관계에 대한 태도와 확신, 그리고 전통 가치에 대한 개인 내의 지지자-는 Nichols와 Schnell(1963)로 하여금 그들이 개인적 성향(Personal Orientation)이나 Po척도 그리고 가치 지향(Value Orientation)이나 Vo척도라고 부르는 두 가지 새로운 척도를 개발하게 만들었다. Po척도는 특히, Do, Sy, Sa에서 프로파일 시트의 첫 번째 부분의 Folk 척도와 가장 큰 상관을 갖는다.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계수는 Sy와는 .86과 .84 그리고 Sa와는 .78과 .79이며, 각 성은 Do와 .86의 계수를 갖는다. 프로파일 시트의 두 번째 부분에서 Folk 척도와 Po의 상관은 상대적으로 적당하였다. 예를 들어, So와 남성은 .17, 여성은 .16이며, Sc와는 남성 .00, 여성 -.05 였다. 그러나, Wb와의 상관은 .41 그리고 .37이었다.

Vo척도의 상관은 두 번째 부분에서, 특히 Sc, Gi, Wb, Ac에서 Folk 척도와 가장 큰 상관을 갖는다.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Sc와 남성은 .85, 여성은 .84이며, Gi와는 남성 .84, 여성 .82, Wb와는 .77, .81,그리고 Ac와는 .78, .82였다. 그러나, Vo 또한 첫 번째 부분의 척도와 상당한 상관을 갖는다. 예를 들어, Cs와는 남성 .54와 여성 .49, In과는 .47, .44이다. CPI의 1986년 판에서 기록된 기준 표본에서, Po와 Vo와의 상관은 남성 .29 그리고 여성 .25였다.

Po와 Vo는 적당한 상관이긴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p<.01)하기 때문에, 그리고 Sector 1 Folk 척도와 Vo가 오히려 큰 교차상관이기 때문에, 대인 관계적이고 개인 내적인 주제에 대해 좀더 순수하고 좀더 초점을 맞춘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노력의 지침은 Po와 Vo척도 자체로, 그리고 Karni와 Levin(1972)에 의한 CPI의 then-new smallest space분석으로 CPI(Megargee,1972, 1960년대 연구 요약)에서 수행된 많은 요인 분석에 유용하였다. 최소 공간 기술(Guttman,1968;1982)은 그들 간의 총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하학적 격자에 어떤 일련의 상관된 변수들을 배치한다. 두 변수간의 거리는 그들의 상관의 크기의 역이다. 이렇게, 높은 상호상관을 갖은 변수들은 가장 작은 공간격자에서 함께 뭉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낮거나 부적 상관을 가진 변수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려는 경향이 있다.

Karni와 Levin의 분석(Karni & Levin,1972;Levin & Karni,1970)은 CPI의 Hebrew 번역판으로 이스라엘에서 실행한 검사와 처음 출판된 매뉴얼(Gough,1957)에 있는 미국인 규준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림 2.1은 시각적 형태로 자료를 제시한다. 양쪽의 최소 공간 디스플레이에서 척도 위치에 대한 점검은 내포된 두 가지 측을 분명히 제시했다. 수평축은 한쪽 끝은 Do, Sy, Sa와 Sp가 같은 척도로 정의되었고, 다른 쪽은 Gi, Sc와 F/M으로 정의되었다. 수직 축은 높은 쪽은 Cm, So, Re 그리고 Ac로 가장 잘 정의되고, 낮은 쪽은 Py, Ai와 Fx로 정의된다. 디스플레이의 중심은 3가지 척도 Wb, To와 Ie의 작은 군집이었다.

실질적으로 결국 3-Vector척도로 판명되어진 것을 개발하기 위해, 각각의 3가지 내재적 척도는 경험적 index를 사용하였다. 먼저, 점수는 Sc, Gi와 F/M의 총점에서 Do, Sy와 Sa의 총점을 뺀 것으로 정의된다. 두 번째에서, 점수는 So와 Cm을 더하고 Fx를 뺀 것으로 계산하였다. 세 번째로, Index는 Wb, To와 Ie의 총합으로 제공된다. CPI기록에서 모든 사례의 횡단면에서 끌어낸 1,000의 남성과 1,000명의 여성의 분리된 표본에서, 3가지 경험적 표시는 검사에 있는 각 문항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이런 상관관계적인 배열이 3가지 표시 중 어떤 한가지와 상당한 상관을 갖고 있는 문항을 찾아냈다. 그러나 다른 두 표시와는 .00이나 .00에 가까운 상관을 가졌다. 오직 소수의 문항만이 이런 엄격한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문항들이 다른 두 가지와의 상관보다 3가지 주제중 하나와만 구별되게 더 큰 상관을 갖는 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런 방법으로 3개의 초기 Vector(또는 구조적인)척도는 검사에서 제외되었다. 예측했듯이, 3척도의 점수가 상호 상관일 때, 계수는 3가지 주제의 독립적 측정으로 받아들여진 척도에 대해 .00과는 아주 멀다.

지금까지, 3가지 주제의 의미에 대한 심리학적 공식화 또한 계속 발전되어 왔다. 처음에는 외향성-내향성과 유사하지만 다른 피상성과 내재성으로 개념화되었다. 피상적인 목적으로 개인 점수는 쌍방향적이고, 대인관계 생활의 명확한 보상과 처벌에 대한 반응과 반응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내재적인 목적으로 개인 점수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경향이 적고, 자신의 사생활을 방어하고, 예절을 지키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두 번째 Vector는 한쪽은 의문스러운 기준 경향으로부터 다른 쪽은 순조로운 성향에 이르기까지 모두 개념화되었다. 이 두 번째 주제에서 고득점자들은 양심적이고, 규칙을 준수하고, 실용적인 사람으로 가정된다. 그런데 저득점자들은 저돌적이고, 변덕스럽고 틀에 박히지 않은 사람으로 가정된다.

세 번째 Vector는 처음부터 자아실현, 응답자들이 그들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도의 지수로써 그리고 그들 자신의 성향과 관련된 특수한 잠재력을 달성하는 것으로써 보여 진다. 척도 개발 작업이 진전 되었을 때 그리고 고득점과 저득점의 사람들에 대해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 정보가 축적되었을 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관점이 구체화된다. 말하자면, 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부터, 세 번째 Vector에서 점수는 자기개발이나 성취의 지수로 제공되며, 내적 조화와 자아실현의 합리적인 좋은 수준에 대한 자기 관점에 대해 줄곧 의심으로 찬 자아개념, 낮은 존중감, 좌절로 이르는 지수로 제공된다. 두 번째 관점은 다른 것에 관한 것이며, 심리학적인 역량의 개념을 역설한다. 저득점자들은 삶의 요구에 불충분하게 대처하며, 정신적 외상이나 스트레스를 처리하는데 능숙하지 못하다. 고득점자들은 그들의 재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반대의 상황 하에서 조차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해낸다. 세 번째 관점은 전문적인 부분으로, 자아 통합을 하는 핵심개념이었다. 이 세 번째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그들의 자아 기능을 서투르게 통합하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그들의 행동의 영향에 대해 통찰력이 없다. 반대로, 고득점자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좀더 잘 통합하며, 좀더 통찰력이 있고, 자신을 위협하는 것을 처리하는데 좀더 탄력 있게 반응한다.

3가지 Vector 척도의 개발에 관해, 각각의 열 다섯 가지 버전과 같은 것은 최소한의 상호상관, 어떤 문항 중복의 결핍 그리고 Folk 척도 표시를 정의하는 3가지와의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졌다. 약 5년간 이런 노력을 했다. 결국, 1980년대에, 필수적인 자질을 지닌 3가지 척도가 사용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었다. 이런 척도의 첫 번째 발표는 CPI(Gough,1987)의 462-문항 버전을 위한 매뉴얼에서 였다. 그것이 처음 소개될 때, v.1은 34문항, v.2는 36문항, v.3는 58문항으로 되어 있었다. v.3이 굉장히 많은 문항으로 구성된 이유는 자기개발이나 역량이나 자아 통합의 7수준에서 응답자의 분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CPI의 Form 434에서, 3척도는 동일한 문항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v.2에서 2문항이, v.3에서는 4문항이 변경되었다. 이런 변경은 Form 462에서 28문항을 제외시키는데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었다. 남성 3,000명과 여성 3,000명의 현재 규준 표본에서 세 가지 척도에 대한 신뢰도 Alpha 계수는 v.1에서 .81과 .82, v.2에서는 .76과 .78이며, v.3에서는 .89와 .88이였다. 동일한 표본에서 남성에 대한 세 가지 척도간의 상관은 v.1과 v.2는 -.05, v.1과 v.3은 -.20, 그리고 v.2와 v.3은 .10이였다. 여성에 대한 동일한 세 상관은 .03, -.21 그리고 .06이었다.

**Vernon's Circumplex**

Vector1과 2가 CPI의 모든 이전의 요인 분석으로부터 첫 번째 두 요인과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이것은 검사의 Karni-Levin 최소 공간 분석에서 두 가지 내재적인 척도를 추론할 수 있으며 사실 그로부터 유래되었다. 진정 기초적이거나 근본적인 것으로써 이런 두 Vector를 보는 다른 이유가 존재할까? 기초 척도를 확인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여러 척도들을 제시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예를 들어, Dimensions of Personality에서 저자 Eysenck(1947)는 육군 근무당번표로부터 700명의 남성 환자에게서 39문항을 처리했던 요인 분석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4요인을 확인했지만,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먼저 그는 일반적 신경증으로 분류했고 다음으로 히스테리적 기분저하증이나 외향성-내향성의 양극성 차원으로써 분류했다. 두 가지 기초적 주제의 결과로 발생된 연구의 인상적인 프로그램은 준거의 광대한 다양성에 관해 연구했다. Eysenck의 연구에서 세 번째 핵심척도인 정신질환은 후에 나타났다(예를 들어, Eysenck,1992를 보자). CPI모델에서 Vector 1은 Eysenck의 내향성-외향성 차원과 연합하게 된다. 하지만 v.2는 개념적으로 Eysenck의 신경증성 축과 다르다.

여러 중요한 분석이 MMPI에서 핵심차원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Welsh(1956)에 의한 분석 중 하나는, 불안과 억압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주제를 발견했다. Appendix C에서 보여 지듯이, v.1은 Welsh R과 상당한 상관(남성 .38과 여성 .44)이 있고, v.2와 Welsh는 낮은 부적상관(남성 -.31과 여성 -.20)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1과 R, v.2와 A의 개념(목적)은 매우 다르고, 서술적이고 전기적인 자료로 바꿀 때 그들의 확장된 함의는 다소 관련이 없다. Block(1965)은 MMPI의 기초로써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자아 통제의 주제를 제의했다. Block의 모델에서 회복탄력성은 비록 Vector3과 흥미로운 유사점을 가지고 있지만, CPI에서 v.1과 v.2 주제들과는 상관이 없다. Block의 자기 통제는 Vector2와 약간은 개념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Block의 차원이 한편에서는 과도통제에 대하여 다른 편에서는 과소통제를 강조한다는 중요한 차이가 남아있다. v.2에서 점수는 한편에서 비신경증의 규칙을 선호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다른 편에서는 규칙을 의심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성격구조와 성격의 기초적 논제에 대한 주제에 대한 또 다른 접근에서, Welsh(1975)는 origence와 intellectence의 개념을 소개했다. origence는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사고와 표현을 이끌어 내는 힘을 언급한다. 그런데 intellectence는 합리성와 현실성 검사의 원리를 언급한다. 여러 상황에서 행동에 대한 origence와 intellectence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측정의 창설에 관한 Welsh의 책은 결국 역작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두 가지 차원과 v.1와v.2의 주제 간의 어떤 연결은 최고로 빈약하다.

성격심리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사용되어지는 두 차원의 도식 중 하나는 Leary(1957)가 개발했다. 그것의 원형에서, 차원은 사랑 대 미움과 지배성 대 순종성으로 설명되어진다. Wiggin(1979)는 대인관계 특성의 분류학으로 힘(또는 지배성)과 온정(또는 사랑)의 주요 축을 제안했고, 후에(Wiggins,1995) 이것이 그의 지배성과 애정 어린 양육의 주요 차원에서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의 기초가 되었다.

CPI 3-Vector모델과 가장 가까운 것은 Personality Tests and Assessments에서 저자 Philip Vernon(1953)에 의해 설명된 원형이다. 요인 분석 작업에 대한 그의 개관으로, 그는 “가장 침투력이 있거나 멀리 퍼지는 차원은 의존할 수 있음으로 명명될 것이다. 인내력, 목적성, 부동성과 좋은 성격의 혼합”(p.12). Vernon은 성격구조에서 다른 기초 주제로써 외향성-내향성을 확인했다. Vernon의 모형의 그래픽 디스플레이는 그림 2.2이다.

비록 Vernon이 그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 표준적인 전문용어보다는 정신병리학적 전문용어에서 좀더 많이 끌어냈지만, Vernon의 외향성-내향성 축은 분명히 CPI의 v.1 척도에 의해 성립된 차원과 유사하다. Vernon의 의존할 수 없음-의존할 수 있음 축은 v.2척도에 의해 정의된 차원과 유사하다. 한 가지 중요한 조건: Vernon의 축은 평가적 언어와 경멸적인 용어로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 그런데, v.2는 양쪽 끝에서 부정적이거나 차별적 함의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v.2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득점한 사람은 의문스러운 기준 경향에 의해 구분되어진다. 이것은 부정적이거나 변덕스러운 행동뿐만 아니라, 창조적이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방법으로 표현된다. v.2의 높거나 기준을 선호하는 극에서 또한, 행동은 불필요한 인습, 맹종, 경직된 자아 통제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기대에 호의적으로 반응하면서 변화한다. Vernon의 다이어그램에서, 히스테리적 기분저하증의 Eysenck의 주요 축은 하위 주제로서 나타나며, 지배성-순종성의 Leary의 주요축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한다.

**The v.1 Scale**

v.1 척도의 목적은 관여, 참여적 경향과, 외향성으로부터, 다른 쪽은 분리, 사생활에 대한 요구, 내향성에 이르는 연속체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포함된 Sc, Gi와 F/M와 제외한 Do, Sy, Sp와 Sa의 준거에 대한 문항분석에 의하여, 34문항은 좋은 문항 간 결합력을 갖고 있으며, 척도 v.2와 v.3과 상대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확인되었다.

6,000명의 전체 규준표본에서, 문항 간 매트릭스의 주요 축 요인 분석은 1.00이나 그 이상의 고유치를 가진 9가지 요인을 산출했다. 2.00이나 그 이상의 값을 갖은 4가지는 Kaiser의 일반적인 베리맥스 기법에 의하여 유지되고 교체된다. 18문항이 요인1에서 가장 큰 부하를 갖고, 9문항이 요인2에서 가장 큰 부하를 갖으며, 4문항이 요인3에, 3문항이 요인4에 할당되었다. (1)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좋은 리더가 될 것이다.”(아니다) "나는 집단에서 주로 리더 역할을 하는 편이다."(아니다),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아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같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그렇다); (2) "나는 기회가 있으면 약간 잘난 척 하는 경향이 있다."(아니다), "나는 남들의 이목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아니다), "나는 가끔 내가 해낸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좋아한다."(아니다); (3)"나는 신문사의 해외 특파원이 되고 싶다."(아니다), "연극배우나 영화배우가 되고 싶다."(아니다); (4)"나는 시끌벅적한 큰 모임을 좋아한다."(아니다) "나는 시끌벅적한 모임이나 행사를 좋아한다."(아니다)

다른 척도와 측정을 가진 v.1의 상관은, Appendix C에서 기록했듯이, v.1의 의미를 명백히 하는 것을 도와 준 계수에 대해 재검토 되어졌다. 다음의 각각의 예에서, 첫 번째 상관은 남성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상관은 여성의 것이다. MMPI Si(사회적 내향성), .57과 .57; MBTI E-I(내향성), .51과 .54; *Maudsley Personality Inventory*(외향성), -.62와 -.44;Guilford-*Zimmerman Temperament Survey*(사회성), -.57과 -.60; *Comrey Personality Scales*(외향성), -.62와 -.51; *Personality Reaserch Form*(지배성), -.68과 -.83; *Personality Reaserch Form*(Exhibition), -.67과 -.77; *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히스테리성 인격장애), -.47과 -.71; *Goldberg's Five-Factor Markers*(외향성에 대한 형용사 척도), -.55와 -.58; 16PF 요인 H(모험적인, 대담한), -.51과 -.53; *Omnibus Personality Inventory*(사회적 외향성), -.53과 -.77; 그리고 *Bem Sex-Role Inventory M*(남성성), -.69와 -.67이다. 예상했듯이, v.1은 내향성에 대한 측정과는 양적으로 외향성에 대한 측정과는 부적으로 상관이 있다. 자기 확신, 자기각색과 박력을 암시하는 측정은 v.1과 부적상관이고, 억제, 금지와 관련된 측정은 정적상관이다.

v.1에서 점수의 함의와 관련된 또 다른 정보원은 척도 의미에 따라 기록상의 표본의 순위로부터 유래한다. 표2.1은 49명의 남성과 39명의 여성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 남성의 경우, 가장 최고의 고득점자는 정신병치료 환자, 수학자, 감옥에 있는 젊은 성인(19-21세) 그리고 고등학생들이다. 이런 각각의 집단은 내적이나 사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다. 환자들의 통합성에 대한 투쟁, 수학자들에게는 고독한 지적인 개념화, 수감자에게는 비사회적 행위의 결과들과 학생들에게는 성인의 정체성의 확립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v.1에서 최저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대인관계 세계에 활발한 개입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군장교, 판매부장, 미 사관학교 생도, 가석방과 보호관찰 감독관, 아일랜드에 있는 사업 활동성 창시자, 상담심리를 졸업한 학생과 MBA학위 지원자들이었다.

v.1에서 여성의 최고점은 수학자, 감옥 수감자, 고등학생, 약대 학생과 정신과 환자들이었다. 여성 표본 중에 최저점은 MBA 지원자, 법대 학생, 의예과 과정의 학생, 아이들을 위한 책의 비평가와 경찰관 응시자들이었다. 두 가지 배열에는 흥미로운 대립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동용 책을 쓰는 남성과 여성작가들은 각기 17.90과 19.41의 평균을 갖고 있다. 그런데 아동용 책의 비평가들은 남성, 여성 모두 15.00의 평균을 보인다. 작가들은 좀 더 내부 지향적으로 나타나며, 비평가들은 명백한 대인 관계적 세계에 대해 좀 더 적응한다.

v.1 척도의 평균과 관련된 좀 더 직접적인 정보는 관찰자들의 묘사와 평가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철저한 생애인터뷰는 v.1점수가 매우 유용했던 540명의 남성과 379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인터뷰의 마지막에서, 면접관은 인터뷰동안 만들어진 관찰을 기록한 99개 문항의 체크리스트를 완성했다. 1의 dummy 가중치는 각각의 체크된 문항으로 할당되었고, 공백으로 남겨진 각 문항에 대해 0의 dummy 가중치를 할당했다. 다음에 이런 99문항들은 v.1척도에 있는 각각의 남성과 여성의 점수와 상관이 있었다. 모든 CPI척도에 대한 완성된 일련의 상관은 Appendix G에서 볼 수 있다. v.1척도에서, 가장 큰 정적 상관을 보이는 4문항과 가장 큰 부적 상관을 보이는 4문항을 아래에 열거한다. 상관은 남성과 여성의 순으로 되었다.

말수가 적고 과묵한(.23, .20)

생각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16, .24)

움직임의 느린 속도(.16, .23)

자신에 대한 불확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17, .18)

유난히 자신이 있는; 거의 어떤 상황에서든 적응할 수 있다고 느낀다(-.27, -.25)

좋은 인상을 만든다; 효율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가지고 있다(-.20, -.21)

재치있고 활기찬,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16, -.31)

인터뷰 받는 것을 재미있어하는 것처럼 보인다(-.15, -.18)

면접관에 의한 이런 관찰은 v.1의 고득점자들이 좀더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보다 소심하며 그들의 느낌과 생각을 기꺼이 표현하지 않거나 표현할 수 없고, 좀 더 자신을 의심한다. 인터뷰 받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보였던, v.1에서 저득점자들은 표현적이고 활발하고 높은 수준의 자기 확신을 분명히 보여준다. 물론, 각 문항에 대한 양류상관은 매우 낮았다(비록 모든 것이 통계적으로 확률 .01수준에서 유의미할지라도).

3일 평가에서 하루에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던 547명의 남성과 393명의 여성의 표본은 Block의(1961) California Q-Set의 분석에 유용했다. 각 평가자들은 5명 이상의 패널에 의해 Q-Set에서 설명된다. 그들의 개개의 Q-Sort 공식이 구성되었고, 그 다음에 합의에 의한 Q-Sort는 Block의 방법으로 구분된 현출성에 대한 분류로 재배열되었다. 카테고리는 9개의 번호로 구별하며, 매우 독특하고 현출성 있는 것에서 아래로는 매우 특색 없는 것에 이르는 것으로 등급이 매겨진다. 9의 dummy 가중치에서 1은 각 카테고리에서 문항들에 할당되어지며, 그 다음에 100문항은 v.1에 점수와 각기 남성과 여성과의 상관이 입증되었다. 100 Q-Set 문항들과 CPI의 척도에 대한 완성된 상관 리스트는 Appendix E에서 나타낸다. 가장 큰 정적 상관을 갖는 5문항과 가장 큰 부적 상관을 갖는 5문항은 아래에서 제시한다. 상관은 남성과 여성의 순으로 제시된다.

어떤 확실한 행동의 진행에 자신을 맡기길 싫어한다; 행동을 지연하거나 피하는 경향이 있다(.39, .37)

현실이나 상상의 위협에 취약하다; 일반적으로 두려워하는(.32, .35)

좌절과 역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포기하거나 물러선다(.30, .38)

필요와 요구에 대한 과도한 통제, 과도하게 긴장을 압박하고, 불필요하게 즐거움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31, .31)

순수하게 순종적인; 지배성을 불편 없이 받아들인다(.34, .37)

단호한 방식으로 행동한다(-.40, -.38)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37, .36)

언어적으로 유창하다;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다(-.30, -.40)

권력 지향적이다;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권력을 평가한다(-.27, -.36)

고득점자와 저득점자에 대한 묘사의 유형은 명백하게 Q-Sort 문항에서 다르다. 고득점자들은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취하는 것을 주저하며 심리적으로 상처받기 쉽고, 억제적인 자아 방어를 사용하며, 타인의 지배성에 순종한다. 저득점자들은 단호하며, 말이 많고, 사회적인 태도를 지니며, 언어가 유창하고 확신에 차있다. 그들은 또한 그들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권력을 평가하고 그들이 타인을 통제하거나 타인의 권력 이상을 갖고 있는 위치를 찾으려고 한다.

v.1의 마지막 증거는 *Adjective Check List*(Gough & Heilbrun,1983)에 기술된 관찰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236명의 남편이나 파트너와 236명의 아내나 파트너로 구성된 한 쌍의 표본에서, 각 커플의 구성원은 300문항에서 상대방을 평가한다. 1의 dummy 가중치는 체크된 형용사에 할당되며 공백으로 남겨진 것은 0의 dummy 가중치를 부가한다. 많은 남자대학생 모임의 194명 구성원 표본에서, 각 남성은 3명의 동료에 의해 ACL에서 평가된다. 평가는 매우 기술적인 형용사에 +2점, 적당히 기술적인 형용사에 +1점, 중립적이거나 모호한 단어에 0점, 적절하게 기술적이지 않은 형용사에 -1점을 그리고 매우 비 기술적인 형용사에 -2점을 부과한다. 3명의 관찰자로부터 프로토콜이 모아지고 다음에 각 합계는 각기 남자대학생 모임에 따라 표준화된다. 동일한 절차를 여자대학생 모임에 속한 192명이 표본으로 수행한다. 다음 두 표본은 Institute of Personality Assessment와 Research in Berkeley에서 한 철저한 평가로부터 가져왔다. 각 평가자들은 10명의 스텝 구성원에 의해 ACL에서 평가되고 다음 3가지 개인 프로토콜이 스텝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유되어진다.

프로토콜에서 체크된 형용사에 대한 1의 tally 가중치와 공백으로 남겨진 형용사에 대한 0의 tally 가중치를 사용하여, 합의된 묘사에서 총합계는 0(형용사를 체크한 관찰자가 없다)에서 10(그 단어를 모든 관찰자가 체크한)까지 변한다. 이런 ACL합계는 612명의 남성과 358명의 여성에게 유용했다.

표2.2는 모든 6개의 표본에 대해 v.1과 최고의 정적 상관을 갖는 12개의 형용사와 최고의 부적 상관을 갖는 12개의 형용사를 제시한다. CPI의 척도에서 ACL 관찰자 기술의 완성된 리스트는 Appendix D에서 주어진다.

v.1에서 높은 점수와 관련된 한 형용사 집단은 과묵, 조용, 수줍음과 행동을 삼가는 것을 나타낸다. 주의, 억제력과 소심함 조차 또한 나타난다. v.1에서 저득점자는 다른 말로, 공격적이고 단호하고, 재치가 있고, 자발적이며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기술된다. 저득점자들은 외향적이고 사교적이지만,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묘사는 한편으로는 참여와 자기 현시성에서 나온 연속체를 묘사하는 것에서 다른 편으로는 고립과 내재성으로 묘사되는 척도의 개념과 조화를 이룬다.

**The v.2 Scale**

v.2 척도의 목적은 한 극단인 의문스러운 규칙에서 다른 한 극단인 선호하는 규칙까지의 연속선을 평가하는 것이다. 문항 분석에 대한 첫 번째 준거는 So와 Cm의 합에서 Fx에 대한 점수를 뺀 것이다. 문항들이 초기의 득점(marker)과 상당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v.1과 v.3에 대한 득점(marker)과는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도록 한다. 결국, 36문항은 필수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6,000명의 규준표본에서, 임시 매트릭스에서 요인 분석을 수행했다. 프리젠테이션을 단순화하기 위해, 10개 중에 1.00 혹은 그 이상의 고유치를 가지는 단지 처음의 4개 요인만을 유지하고 표준 베리맥스 방식으로 회전했다. 요인 1에서 문항들은 거의 전적으로 즐거운 가정생활(home life)과 어린시절의 회상을 다룬다. 예를 들어,　“우리집은 항상 화목했다”(그렇다), "우리 가족은 늘 행복했다"(그렇다), "부모님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였다"(아니다)

요인 2에서 문항들은 개인적 책임감(일반적으로, 시민으로서의 활동에서, 그리고 개인에 대한)의 개념을 다룬다. 대표적인 문항들은　“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다소 엄격한 태도를 취한다”(그렇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그렇다), "선출된 공직자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그렇다). 요인 3에서 문항들은 작업 습관, 개인적 조직, 일상을 좋아함에 초점을 맞춘다. 대표적인 문항들은　“나는 규칙적인 생활방식이 내 성격에 맞다고 생각한다”(그렇다), "나는 항상 내 일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체계화한다"(그렇다), "사람들은 내가 꾸준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한다"(그렇다). 요인 4에서 문항들은 사소한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의 부정과 불법적인 충동과 같은 문제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나는 이따금 규칙을 깨고 좀처럼 하지 않을 것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즐긴다”(아니다), "나는 어렸을 때 가끔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아니다).

부록 C에 자세히 제시된 다른 검사나 측정치와 v.2와의 상관관계로부터, 그 척도의 의미를 나타내는 몇몇 예를 여기에 제시할 것이다. 각각의 예에서, 첫 번째 계수는 남자 표본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계수는 여자 표본에 대한 것이다. 예들은 다음과 같다: *Hogan Personality Inventory*(신중함), .63, .51; *Personality Research Form*(Order), .44, .51; *Personality Research Form*(인지구조), .38, .53; *Omnibus Personality Inventory*(현실적 관점), .47, .41; *Goldberg Five Factor Makers*(의존성에 대한 형용사 척도), .33, .40; Barron's scale for Personal Complexity, -.57, -.53; Barron's scale for Independent of Judgment, -.51, -.44; *Omnibus Personality Inventory*(충동표출), -.44, -.45; MBTI J-P scale(인식형), -.54, -.45.

리스트에서 정적 상관은 질서 정연함(orderliness), 분명하게 구조화된 가치, 그리고 실용성을 강조한다. 부적 상관은 개성(individuality), 개인적 복잡성(personal complexity), 그리고 알고 싶어 하는(inquiring) vs. 판단하는 사고방식을 강조한다.

v.2에 대한 평균 점수에 따른 49개의 남성과 39개의 여성의 기록 표본의 순위는 표 1,2,3에 있다. 연속선의 선호하는 규준과 존중받는 규칙 극단은 남자에게는 판매 관리자, Ireland에서 기업 간부, West Point 사관생도, 은행 매니저, 우수 시민에 추천된 학생, 육군 장교; 그리고 여자에게는 우수 시민에 추천된 고등학생,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 국립 고등학교 과학 박람회(fair) 참가자, 리더로 임명된 고등학교 학생이다. 연속상의 의문스러운 규칙에서 남성 표본은 청년 수감자, 고등학교 징계 문제자, 청소년 범죄자, 심리학과 대학원생, 유토피아적인 종교적 코뮌(공동체)의 거주자, 예술 대학(institute)의 학생을 포함한다. 가장 낮은 점수를 가진 여성 표본은 심리학과 대학원생, 법 전공의 학생, 유토피아적인 종교 코뮌의 멤버, 창조적인 작가, 예술 대학 학생, 청소년 범죄자를 포함한다. 현실의 창조적인 재구성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르주아 세계에서의 이탈, 반항하는 그리고 규칙을 위반하는(rule-violating) 행동까지 의심하는 성향이 이들 표본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v.2 척도에 대한 점수와 가장 강하게 연합되는 관찰변인을 언급하기 위해서 99 문항의 면접자 체크 리스트를 살펴보자. 완전한 리스트는 부록 G에 있다. 아래에 인용된 것은 가장 큰 정적 상관을 가지는 4개의 문항과 가장 큰 부적 상관을 가지는 4개의 문항인데, 504명의 남성에 대한 것은 첫 번째 계수이고 379명의 여성에 대한 것은 두 번째 계수이다.

대체로 가족생활은 매우 행복했다. (.16, .29)

집에서 예의 바르고 공손한 행동의 기준을 강조했다.(.22, .13)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23, .17)

단정하게 꾸미고 옷을 잘 입는다(.16, .13)

가정과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다.(-.20, -.17)

면접대상자는 부모님과 큰 마찰이 있었다.(-.12, -.27)

면접대상자는 부모중의 한 명 또는 모두를 부끄러워했다.(-.12, -.27)

자신이 고등학교에서 능력보다 낮은 성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21, -.11)

**Chapter 2. The Three Vector Scales\_(1) 후반부**

비록 상관관계는 매우 낮지만, 모두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v.2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는 하지만 어린 시절, 외모에 대한 주의, 강한 종교적 신념을 묻는 문항들을 더 많이 체크 했다. v.2의 규범 지향성 관련 문항에서 사람들이 더 자주 응답한 문항들은 가정에서 불화와 불안과 고등학교에서 낮은 성취를 포함한다.

다섯 명 혹은 그 이상의 관찰자에 의한 성격의 California Q-Set은 성격 평가 프로젝트에서 연구된 547명의 남자와 393명의 여자에 대한 점수와 관련 있다.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5문항과 가장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5문항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E에 있다. 각 문항의 첫 번째 계수는 남자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자에 대한 것이다.

다양한 영역에서 보수적인 가치를 좋아한다.(.28, .35)

까다롭다.(.29, .32)

인기, 정확한 행동, 사회적 압력 등과 같은 용어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26, .27)

책임감 있고 독립적이다.(.21, .30)

선악에 대해서 엄격하다.(.18, .32)

반항적이고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30, -.39)

개인적 환상과 공상, 허구적인 생각에 빠져있다.(-.22, -.29)

행동과 태도가 예측 불가능하고 변하기 쉽다.(-.20, -.34)

특성상 기한을 연장한다; 사람들이 도주 할 수 있는지를 본다.(-.20, -.28)

제멋대로이다.(-.17, -.30)

관찰자은 Q-sort에서 v.2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인습적이고, 보수적이며, 규칙을 존중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준다. v2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그들은 또한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까다롭게 보인다. v.2에서의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규칙을 시험하고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인다. 규칙에 대한 질문은 환상과 허구적 생각에 대한 문항에서 알 수 있다.

관찰자들이 기술한 형용사의 상관관계는 표 2.3에서 있다. 배우자에 대한 형용사 체크리스트(ACL)에서 부부가 각자 상대방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동료 기술에서, 형용사에 대한 5단계 가중치를 둔 형식을 사용해서 3명의 동료가 각각의 사람들을 평가했다. 남성 612명과 여성 358명의 평가에 대해서, 10명의 관찰자가 각각의 사람들을 ACL에 대해 기술했는데, 이들의 개인적인 체크 리스트는 종합하여 합산했다. 6개의 각 하위표본에서, 300개의 형용사가 v.2 척도에 대한 점수와 관련 있었다. 이 상관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D에 제시했다. 표 2.4는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가지는 12개의 문항과 가장 낮은 부적 상관을 가지는 12개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v.2에 대한 더 높은 점수와 연관된 12개의 형용사들은 ‘양심적인, 보수적인, 인습적인’과 같은 용어를 포함한다. 또한 ‘능률적인, 근면한, 철저한’과 같은 작업 습관이 속하는 집단도 있다. 구조에 대해서는 ‘조직된 그리고 실용적인’과 같은 용어로 표시되는데, 체계적인 형용사에 의해 전체적으로 재조직된다. v.2에 대해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과 관련된 형용사로는 ‘비인습적인, 모험을 좋아하는, 충동적인, 장난스러운과’ 같은 속성이 포함되고, ‘때때로, 도를 넘는, 반항하는, 무모한, 무질서한’과 같은 용어로 묘사된다. 냉소적인 사람들로 묘사된 경우에는 v.2에 대해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규범에 대해 의심하는 경향과 관련하여 일반화된 의심, 불신의 부분일 수 있을 것이다.

**The v.3 Scale**

v.3 척도의 구성 목적은 자기실현, 혹은 심리적 유능감, 자아 통합의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다. v.3에 대한 점수는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는 정도와 성취감/실현에 대한 응답자 자기 보고와 관련있다. 수준 1 혹은 2에서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문화와 그리고 내적으로 갈등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수준 6과 7의 사람들은 자신을 삶의 환경과 조화로우며,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잘 사용하고, 합리적으로 자기 실현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심지어 수준 7에서도 보고한 심리적 상태는 완전한 만족 혹은 어떤 이상적인, 준(거의)완전한 정도의 자기실현의 하나는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보통 관찰자의 관점에서, v.3에 대한 점수는 심리적 유능감의 원지표-개인이 인생의 요구와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정도-를 제공한다. 전문가적인 관찰자의 관점에서, v.3 척도는 자아 통합 즉, 추동하고, 원하고, 통제하는 정도를, 자아 방어는 상대적으로 갈등 없이 기능하는 것을 나타낸다.

v.3 척도의 개발을 위해서, Wb, To, Ie에 대한 점수가 합해지고, 이 합계는 해당 척도와 상관지어진다. 3개의 득점 척도는 Karni와 Levin(1972)이 연구한 the smallest-space analyses의 중심에서의 선택되었다. Wb는 일반적인 심리적 그리고 육체적 안녕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 To는 대인관계적인 성숙도와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의 측정치로 해석될 수 있고, Ie는 인지적인 영역에서 효능감의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v.3에 대한 점수는 자아 통합의 7개의 범주를 수립하는데 사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v.1과 v.2에서 필요했던 것 보다 더 많은 문항들이 필요하다. 물론 전과 같이, v.1과 v.2와 결합되지 않고 최소한으로 연합되는 반면에, v.3에 대해서 선택된 문항들은 주제를 가지고 결합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척도의 목표는 3개의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는 벡터 척도를 제안하고, 어떤 문항 중첩도 없이 모형에서 상응하는 이론적인 차원에 각각을 맞추는 것이다.

목록에서 제한한 문항 수는 v.3의 구조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v.3에서 좋은 문항은 때때로, v.1과 높은 정적 상관을 가진다. 이 경우에, v.1과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v.3 문항을 찾아야 한다. 원하는 속성을 나타내는 척도를 만들도록 v.3 문항의 완전한 문항 구성에 대한 연구는 불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척도의 문항에 적합한 58 문항을 선별하였다.

해당 척도에서 내적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항 간 매트릭스의 주축 요인 분석을 6,000명(3,000명의 남자와 3,000명의 여자)의 표본에서 수행했다. 1.00 혹은 그 이상의 나타내는 11개의 요인을 발견했다. 해당 척도의 논의를 위해, 처음 4개만을 유지하고, 베리맥스 절차를 사용해서 분석했다.

요인 1은 대부분 긍정적인 정서,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탄력적인 자기 통제를 다루는 22개의 문항을 포함한다. 예시가 되는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나는 가끔 별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고 신경질이 난다.”(아니다), "가끔 기분이 나빠지면 아무도 나를 말릴 수 없다."(아니다), "때때로 나는 일을 시작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아니다), "종종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난다."(아니다)등을 포함한다. 요인 2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신임을 나타내는 16개의 문항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내심 남을 돕는 것을 꺼려한다.”(아니다), "이득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것이다."(아니다), "사람들은 실제보다 더 남을 걱정하는 척 한다."(아니다) 요인 3은 또한 16개의 문항이 포함되고, 대부분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수용하고 타인의 복지를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문항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소수집단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아니다),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아니다),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면, 결국 내가 손해를 본다."(아니다)이다. 요인 4는 주요한 부하를 가지는 4개의 문항을 가지는데, 그 중 3개는 과학과 연구를 하는 것의 흥미를 나타낸다.

부록 C에서 v.3과 다른 척도와 측정치 간의 상관관계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문항에서, 첫 번째 계수는 남성 표본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성에 대한 것이다. 정적 상관은 *Guilford-Zimmerman* 정서적 안정성 척도(.54, .52)와 객관성(.65, .62)과 친절(.53, .44)에 대한 GZTS 척도; 개인적 통합(.56, .50), 낮은 불안 수준(.55, .58), 이타주의성(.47, .46), 비인지적 기질(-.43, -.53)에 대한 *Omnibus Personality Inventory* 척도; MMPI K, .68, .64; 자아 강도(.44, .51)에 대한 Barron의 척도, 개인적 건강(.46, .53)에 대한 Barron의 척도; Loevinger의 문장 완성 검사에서의 자아 발달 수준(.48 여성, 남성은 포함하지 않음); NEO-AC-PI N(불안정성), -.45, -.38; *Maudsley Personality Inventory* 불안정성(-.48, -.60); 공격적인 성격(-.59, -.50), 경계성 성격(-.52, -.46), 편집증적 성격(-.57, -.50), 사고 장애(-.59, -.45)에 대한 *Millon Clinical Multiaxial Inventory* 척도. 일반적으로, v.3은 좋은 적응, 자아 강도, 안정성, 객관성, 그리고 이타주의를 나타내는 측정치와 정적 상관을 가지고, 불만, 인지적 기능 저하, 불충분감의 측정치와 부적 상관을 가진다.

v.3 척도에서 남성과 여성 표본의 순위는 이 장의 후반(3개의 벡터 혹은 큐보이드 모형에 대한 부분에서)에 표 2.8에 제시되어 있다. 남성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순위의 9개의 표본은 모두 전문적인 집단 혹은 전문 직업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12개의 표본에서, 어린이 책 비평가의 적은 표본만 전문가로 알려졌다. 학술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은 대부분 물리학, 수학, 전기 공학과 같은 영역에서 박사 이상 급에 있었다. 다음 3개의 표본은 모두 박사과정 학생이었다. 낮은 점수를 보인 11개 표본에서, 6개는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가장 낮은 4개은 청소년 범죄자, 청소년 당국 병동, 수감자, 징계 문제자였다.

여성들의 경우, 높은 점수를 나타낸 5개의 표본은 모두 다양한 전문가적 자격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낮은 점수를 나타낸 5개는 표본에서는 정신과적 환자, 일반 고등학교 학생, 청소년 범죄자, 징계 문제로 지명된 고등학교 학생, 수감자였다. 두 집단의 차이는 더 높은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 또는 높은 성취를 이룬 집단과 실패에 대처하는 자아 방식과 유사했다. 또한 두 집단의 차이에서 더 젊은 사람의 순위가 더 낮은 연령의 발달적인 주제도 있었다.

생애 인터뷰를 실시한 남성 504명과 여성 379명의 표본에서, *Interviewer's Check List*에서 v.3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가지는 4개의 문항과 가장 낮은 부적 상관을 가지는 4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에서 훌륭한 학생이었다.(.14, .29)

폭넓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한다.(.14, .15)

상대적으로 신경증적인 경향과 다른 형태의 불안정성에서 자유로운 것 같다.(.14, .14)

아버지는 자신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었다.(.10, .18)

고등학교나 그 이전에 첫 성적 경험을 가졌다.(-.27, -.20)

문법 및 단어 용법에서 실수를 한다.(-.24, -.20)

성적 문제에 몰두한 것 같다.(-.14, -.14)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21, -.09)

생애 인터뷰에서의 8개의 기술은 자아실현, 혹은 유능감, 혹은 자아통합에 속하는 것으로 v.3의 개념화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 인다. 개별적인 문항은 낮은 상관을 보였지만(비록 16개의 계수 중 14가 .01 수준 혹은 그 이하에서 유의미했지만), 이는 해석이 신중하고 가설로 설정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흥미롭고 정확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자멸적이거나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2개의 문항은 성적 관심에 중심을 두고, 낮은 점수를 나타낸 사람들은 면접자에게 그런 문제에 몰두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보다 더 일찍 명백한 성적 행동을 보고했다.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와 관련한 마지막 문항은 부분적으로 여성에 대한 척도와 관련 있었지만, 남성 표본에서는 v.3와 -.21의 상관을 가졌다. 즉, 양육에 대해서 물었을 때 v.3에 대해서 낮은 득점을 한 남자는 그들이 매우 좋아하지 않거나 아이를 돌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대답했다. 이것은 v.3 척도에 대한 낮은 점수를 나타낸 사람에 의한 어린이 돌보기와 양육에 대한 몇 가지 흥미 있는 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Block(1961)의 California Q-set에서 100개의 문항과 v.3와의 상관은 남성 547명과 여성 393명에 대해서 부록 E에 자세한 사항은 나와 있다. 각각은 5명 혹은 그 이상의 관찰자 패널이 기술했다.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가지는 5개의 문항과 가장 낮은 부적 상관을 가지는 5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지적이고 인지적인 문제를 진정으로 높이 평가한다.(.24, .35)

폭넓은 범위의 흥미를 가지고 있다.(.17, .26)

자신에 대해서 높은 목표/포부를 가지고 있다.(.21, .18)

철학적인 문제; 예를 들어 종교, 가치, 삶의 의미 등에 관심이 있다.(.17, .21)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13, .29)

자멸적이다.(-.16, -.15)

사소한 좌절에 과잉 반응하는; 성마른(-.13, -.17)

삶에 속고 희생되었다고 느낀다, 자기 동정(-.13, -.14)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불편해 한다.(-.11, -.20)

실제로는 존재 인식을 거부함으로써, 불안과 갈등을 다룬다.; 억압적이거나 해리적인 경향(-.14, -.11)

이 20개의 상관관계는 낮지만, 19개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v.3의 높은 점수는 지적이고, 정신적인 것, 넓은 범위의 흥미를 나타내고, 자신에 대해 높은 포부/야망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된다. v.3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자멸적이고, 사소한 근심에 과잉 반응하고, 복잡함을 불편해 한다. 덧붙여, 그들은 삶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생각하고, 부정하고 퇴행하는 행동을 통해 불안과 갈등을 대처한다.

부록 D에서, 관찰자들의 중요 형용사 기술은 표 2.5에 제시하고 있다. v.3에 대한 더 높은 점수와 관련된 용어 사이에서 지적 능력, 사고의 명확성(특히, 능력 있는, 명확한 사고, 선견지명이 있는, 통찰력이 있는, 지적인, 논리적인, 합리적인)을 포함하는 집단이 있다. 해당 용어 중의 2개(공정한, 관대한)는 친사회적 태도를 암시하고, 상상적인 용어는 흥미의 좁은 부분으로써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과 합쳐서 생각하고, 창의적인 성취에 대한 잠재력을 나타낸다.

v.3에 대해서 낮은 점수를 보인 사람들은 냉담한, 혼란스러운/지리멸렬한, 지독한 그리고 대인관계적인 면에서 차가운, 옹졸한, 잔소리 심한, 편견을 가진, 화를 잘내는, 의심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자아 통합의 낮은 수준은 유치하고 피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v.3 척도의 최근 타당도 연구(Weiser & Meyers, 1993)는 v.3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내적 지향, 자존심, 불안의 낮은 수준에 관해 위에서 언급한 추정의 일부를 확증하는 경향이 있다. 125에서 140명의 남성과 352에서 388명의 여성의 표본에서, *Personal Orientation Inventory*(Shostrom, 1963)의 내적 지향성 척도와의 상관은 .41과 .48, *State-Trait Anxiety Index*(Spielberger, Gorsuch, Lushene, Vagg & Jacobs, 1983)의 특질 불안 척도와는 -.37, -.54를, Coopersmith(1981)의 자존심 inventory와는 .43과 .52의 상관을 얻었다.

**Summary of the Scales**

CPI의 세 개의 벡터는 Karni와 Levin(1972)의 smallest space analyses에서 식별할 수 있는 측정의 대상을 더욱 치밀하게 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비록 해당 벡터들이 CPI의 요인 분석적 연구와 어느 정도까지 양립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요인적인 방법으로 개발되지 않았고, 사실 검사의의 요인 구조와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CPI Form 434에 대한 요인 분석적 자료는 3장을 보라) 벡터 1은 처음에 Do, Sy, Sp, Sa의 합에서 Gi, Sc, 그리고 F/M의 합을 뺀 것으로 정의했다. 처음 4개의 척도는 CPI의 요인 1에 가장 큰 부하를 나타내지만, Gi와 Sc는 그들의 가장 큰 부하를 요인 2에서 가졌고, F/M은 요인 5의 주요한 정의이다. 벡터 2는 처음에 So 더하기 Cm 빼기 Fx의 준거에 대해서 개발했다. 3장에서, So가 요인 2에 가장 강하게 부하하고, Cm은 남자에 대해서는 요인 3에, 여자에 대해서는 요인 4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Fx는 남자에 대해서는 요인 4, 여자에 대해서는 요인 3의 2개의 주요한 공헌자 중 하나이다. 벡터 3은 Wb 더하기 To 더하기 Ie로 구성된 득점이다. 요인 분석은 이 세 척도를 다른 차원에 두는데, Ie는 요인 1에 그리고 다른 두 척도는 요인 2에서 발견된다.

세 벡터 측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초기의 준거로 사용된 folk 척도의 복합물은 그들 간의 높은 상호상관 때문에 그 자체로는 모형에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두 개와 최소한의 관계를 가지는 각각의 벡터에 대한 문항을 선택함으로써, 낮거나 0에 가까운 상호상관을 가지는 척도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남・여 3,000명을 구성된 규준 표본에 대한 관찰치는 다음과 같다: v.1 대 v.2, 남자에 대해서 -.05, 여자에 대해서 .04; v.1 대 v.3, 남자에 대해서 -.20, 여자에 대해서 -.21; v.2 대 v.3, 남자에 대해서 .10, 여자에 대해서 .06. 프로파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folk 척도와 상관이 있을 때, v.1은 Sector 1에서의 척도와 높은 부적 상관을 가지고 다른 세 개 부문에서의 척도와는 명백히 더 낮은 계수를 가진다. 벡터 2는 Sector 2에서의 척도와 높은 정적 상관을 가지지만, 다른 세 개의 부문에서의 척도와는 명백히 더 낮은 상관을 가진다. 벡터 3은 프로파일의 4개의 부문 모두에서의 척도와 높은 정적 상관을 가지는데, 남자에 대해서 -.02, 여자에 대해서 -.23인 F/M과의 계수만 제외된다. 이런 결과는 사람(v.1, 대인 관계적 벡터), 사회활동의 가치와 사회적 규범(v.2, 개인 내적인 벡터), 자신(v.3, 자기실현 벡터)으로의 주요한 지향성을 묘사하는 것으로 세 개의 벡터를 공식화 할 수 있다.

기초 차원이 외향성-내향성 그리고 독립성-의존성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부터, 처음 두 개의 벡터는 또한 양립할 수 있지만 Vernon(1953)의 성격 구조에서의 기본 주제 연구에서 도출된 것은 아니다. 벡터 1은 Vernon의 외향성-내향성 차원에 다소 일치하고, 벡터 2는 Vernon의 의존성-독립성 연속선과 부분적인 유사성을 가진다. 하지만 벡터 2에 관해서 중요한 차이는 Vernon의 presentation에서의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평가적이고 부당한 함의가 v.2에서 없다는 것이다. 3벡터 모형에서 세 번째 벡터는 불만족, 무능력감, 형편없는 대처 능력의 낮은 극단에서 자기 실현, 유능감, 자아 통합의 다른 극단까지의 차원을 따라서 응답자를 배열한다.

**The Three-Vector Model**

3벡터 모형의 내포되고 투사된 심리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기하학적 형태는 큐보이드이다. 그림 2.3은 이 형태에서의 그 모형을 보여준다. v.1과 v.2에 대한 중간척도 구분은 4개의 사분면을 정의한다. 알파 사분면은 참여적인, 외향적인 상태에서 v.1 점수와 일반적 호의 또는 일반적 동조 성향을 예언하는 v.2 점수에 의해 정의된다. 베타 셀은 v.2에서 일반적 호의와 v.1에서 내향적이거나 내부적으로 지향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감마는 일반적 질문을 질하고 참여적이고, 델타는 사생활을 추구하고 일반적 의혹을 제기한다. v.1과 v.2가 상대적으로 상관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25%의 규준 응답자들을 각각의 사분면에서 기대할 수 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사분면은 삶의 방식이나 생활양식을 소개하고, 이것들의 몇몇 함의는 뒤의 텍스트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세 번째 벡터에서, 실현, 혹은 유능감, 혹은 자아 통합의 7개의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구분점수가 설정되었다. 그래서 각각의 4개의 생활양식에 대해서, 개인들은 보통의 스트레스와 유능감의 중간수준을 통과하는 것에 대한 수준 1과 연합된 절망과 좌절에서 수준 7과 연합된 자기실현까지에 배치될 수 있다.

표 2.6은 생활양식에 관해서 응답자를 분류하는데 사용된 v.1과 v.2 척도에 대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구분점수를 제공한다. 표 2.7은 7개의 수준에 대해서 구분점수(남자와 여자 모두에 대해서 같은)를 제공한다. 어떤 모호함이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 대신에 표 2.6과 표 2.7에서는 사용한 원점수를 새로운 규준적인 기반으로 검사를 개발해야 한다.

v.1과 v.2척도에서 남자의 규준 표본보다 여자의 규준 표본이 더 점수가 높기 때문에(부록 B), 구분 점수는 여자가 조금 더 높다. v.3에서는 남자와 여자간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CPI의 1986년 판(Gough, 1987)에서 규준 표본에 대해 수립된 유형/수준 빈도는 개인의 프로토콜을 해석하고 또한 집단을 기술하는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변화를 최소화하고, CPI의 숙련된 사용자들이 최소의 혼란을 줄이고, Form 434에 해당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벡터 척도에서 새로운 구분 점수는 이전의 규칙에서 제공된 결과와 비슷하도록 설정하였다. 표 2.8은 각 성의 1,000명의 1986년 규준 표본과 새로운 프로파일 규준 집단 모두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다. 1987년 표본에 대해서, 4개의 생활양식의 각각에 대해서 원했던 숫자는 각 영역에서 500명이었다. 현재 구분 점수를 사용한 총계는 505명의 알파, 483명의 베타, 520명의 감마, 492명의 델타이다. 남자와 여자 단독으로는, 각 유형의 원했던 합계는 250이었다. 이 숫자에서 조절하는 편차는 베타 남성, 감마 여성, 델타 남성, 델타 여성에 대해서 관찰되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이 편차는 유형 자격의 해석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래에 제시될 해석적인 정보가 사실상 각 4개의 방향 아래에서 분류된 사람들로부터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v.3에 대한 7개의 각 수준에 대해 원했던 비율은 8, 12, 19, 22, 19, 12, 8이었다. 1987년 2,000명의 총 표본에 대해서 실제 비율은 이 숫자에 거의 일치했다. 그래서 새로운 구분점수가 Form 462의 검사에서 사용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 같다.

표 2.8은 또한 새로운 프로파일 규준 표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유형 빈도에 관해서, 이 표본은 이전의 것과 약간 다르다. 이제는 1,490명의 알파, 1,842명의 베타, 1,206명의 감마, 그리고 1,462명의 델타가 있고, 비율로 표현하면, 상대적으로 24.8, 30.7, 20.1, 24.4이다. 베타는 다소 과잉 반영되고, 감마는 다소 과소 반영된다. 현재 규준 집단은 또한 이전의 집단보다 자아 통합이나 자기실현 연속선에서 다소 더 낮은데, Level 1, 2, 3에서 12.2, 18.4, 24.4의 비율을 가지고, Level 5, 6, 7에서는 비율이 감소한다. 빈도에서 이 차이는 유형이나 수준 분류에 해석적인 의미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아래에 제시하고 있는 관찰된 자료 및 다른 자료는 3벡터 모형에 대한 현재의 알고리즘에 의해 분류된 사람에 기초한다.

표 2.9는 남성의 기록된 표본에서 유형 분류에 대한 자료이고, 표 2.10은 여성 기록된 표본에 대한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알파 범주에는 27개의 남성 표본이 있는데, 즉 이 표본은 어떤 다른 세 개의 유형보다 알파의 더 높은 빈도를 가진다.

알파 범주에서 반 혹은 그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8개 중 5개는 리더십 직위나 그런 직위에 대한 훈련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성의 경우 17개의 표본은 알파 범주에 있었다. 이 중 4개는 50이나 그 이상의 비율을 나타냈다.: 상업적 작가, 경찰 후보자, 임명된 리더, 추천된 우수 시민. 마취 전공의, 경찰 지원자, 일반 대학생처럼, 두 성 모두에 대해서, 교육학, 의학, 시력 측정학의 학생은 알파였다. 고등학생의 4개의 하위집단은 또한 남여 모두에 대해서 알파였다: 리더, 우수 시민으로 추천된 매력적인 사람들, 국립 과학 학회에 참가한 사람들.

단지 5개의 남자와 4개의 여자의 기록된 표본만이 베타 범주였는데, 이 중 두 개는 공통적이었다. : 수학자와 일반 고등학생. 두 성의 가장 강한 베타 표본은 교도관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들에 대한 비율은 50보다 낮았다. 베타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이 있고,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소중히 하고 보호하고, 사회적 규준에 동의하거나 적어도 수용한다.

50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4개를 포함하여, 각 성에 대해서 12개의 감마 표본이 있었다. : 여성 법과 대학원생, Rajneeshi colony의 회원(여자와 남자), 의과 대학 예과 교육과정의 여자. Rajneeshipuram 회원 외에, 짝지어진 표본은 예술 대학 학생, 심리학과 대학원생, 어린이 책 비평가, 사회 복지학 대학원생, 청소년 범죄자, 샌프란시스코 지역 거주자, 건축학과 학생을 포함한다. 감마는 대인 관계적 활동의 진행 중인 흐름, 재무적인 가치, 문화가 제공하는 다른 보상에 관여하지만, 인습과 사회가 그것을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가 하는 관습에는 회의적이다.

결국, 델타 범주에 남성 4명과 여성 5명의 표본이 있었는데, 오직 하나의 표본(창의적인 여성 작가)만이 50% 이상의 빈도를 나타냈다. 두 리스트에서의 공통적인 것은 고등학교 징계 문제를 받은 경우와 수감자였다. 델타 범주에서 성공적인집단이라고 부르는 것의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이 생활양식은 어떤 타고난 불충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를 들어,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음악가, 매우 이론적인 과학자 같은 델타가 뛰어난 장면에서 표본의 부족 때문이다. 또한 여성 작가와 약대 여대생이 델타 범주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유형 멤버십에서 몇몇 흥미로운 대조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것이다. 남자 MBA 후보자들은 현저하게 알파였고, 반면에 여자 MBA 후보자들은 감마인 경향이 있었다. 조직문화에서, 알파는 규칙을 준수 하고, 회사의 전통을 수용하며,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할 것이다. 같은 장면에서, 감마는 종종 겉으로 보기에 회사에 대해 작고 변덕스러운 기대를 가지고 반목하고 규칙에 의문을 갖는 것 같지만, 또한 승진하고 싶어 할 것이다. 남자 의과 대학 지원자(의대 예과 학생도 역시)는 알파인 반면에, 여자 의대 예과 학생은 감마인 경향이 있었다. 의과 대학 그 자체는 남자 의대생 사이의 알파의 우세함에서 암시되듯이, 알파 환경인 것처럼 보인다. 만일 가능하다면 알파 남성 지원자는 기대와 체계에 맞추고 따를 것이다; 이에 반해서, 여자 지원자는 만일 가능하다면 전통을 덜 따르고, 덜 수용하고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여성들 사이에서, 어린이 책의 작가는 델타인 경향이 있는 반면에, 그런 책의 비평가는 감마인 경향이 있었다. 미술, 음악, 글쓰기로서 자기표현은 종종 델타 사이에서 발견되는 반면에, 비평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서 결점을 찾고 해석하는 능력은 감마 사이에서 잘 발달된다.

표 2.11은 v.3 척도에서 각 7개의 수준에서 분류된 각 표본(남성과 여성)에서 사람들의 비율이고, 척도에 대한 평균의 순위로 정렬했다. 가장 높은 순위의 남성 표본은 45명의 학술 연구 과학자로 구성된다. 이들은 물리학, 수학, 컴퓨터 과학, 전기공학과 같은 영역에서 고급학위를 가지고 있고, 로켓 공학이나 우주 과학을 연구하는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 중 어떤 사람도 수준 1,2,3에 분류되지 않았고, 71.1%는 수준 6,7이었다. 시력측정학의 학생이 수준 6,7에서 64%로 다음이었고, 다음으로 심리학과 대학생이 2개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 60.3% 나타냈다. 수준 1,2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남성 표본은 청소년 범죄자, 청소년 당국 병실, 수감자, 고등학교 징계 문제자를 포함했다. 여성 집단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의 표본은 시력측정학 학생, 심리학과 대학원생, 의대생,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으로 상대적으로 수준 6,7에서 68, 64.2, 63.4, 57.1의 비율을 나타냈다. 남성의 경우, 청소년 범죄자, 고등학교 징계 문제자, 수감자가 수준 1,2에서 상대적으로 40, 51.2, 54.8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낮은 쪽의 끝이었다.

표 2.11에서의 정보는 개인별 프로토콜을 해석하는데 유용하다. 알파-5로 분류된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를 살펴보자. 수준 5는 전체 규준에 대해서 매우 높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남학생 중 단지 9.7%만이 수준 5나 그 이상이다.

따라서 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해서, 좋은 대인 관계적 기술이나 훌륭한 리더십 잠재력을 나타낸다. 다른 예는 감마-4로 분류된 여자 심리학과 대학원생이다. 수준 4는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중간점이지만, 지정된 하위표본에서, 단지 12.5%만이 수준 4 혹은 그 이하의 점수를 가진다. 그래서 적어도 프로그램의 규칙과 기대에 대한 적응의 중간 정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v.3 점수가 수준 2이고 의대 예과에 들어가려고 하는 대학생은 어떤가? 의대에 입학할 기회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남자와 여자 의대생 사이에서, 그 누구도 이처럼 낮은 v.3 점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Chapter 3. Reliability and Factor Analysis**

Reliability

이 장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측정된 CPI 척도들의 신뢰도와 검사의 요인차원에 대한 척도들의 조정에 관한 통계적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척도 내 문항간 상호상관에 의해 평가되는 신뢰도에 관하여 많은 검사들이 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문항간 동질성은 CPI의 목적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는 20개의 folk 척도들 중 13개는 경험적인 방법론에 의해 개발되었고, 준거의 검증없이 단지 증명된 관계에 대해서만 문항을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경험적인 기법은 종종 좋은 예측력과 변별력을 갖는 문항들을 산출하지만, 각 문항간에는 거의 상관이 없다. 실제로 단지 예측의 관점에서 본다면, 준거와 관련되는 문항간 상호상관이 낮을수록 척도는 더 강력할 것이다. 척도개발과 대조되는 내적일관도 기법은 전형적으로 그 내용이 측정의 목적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의 수집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문항간 상호상관을 조사하고 각 문항의 총점수와의 상관을 조사함으로써, 검사와의 낮은 합치를 보이는 문항들은 삭제된다. 이러한 기법은 척도들이 높은 문항간 동질성을 갖게끔 만들지만, 타당도가 nontest 준거와의 예측적, 분류적 관계라고 개념화된다면 그것 자체로는 타당도를 증가시키지 못한다. 어떤 의미에서 알파계수와 같은 single-trial 문항간 동질성 측정치의 크기는 단지 내적일관도나 척도구성의 경험적 방법들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지표일 뿐이다.

CPI form 434의 모든 36개 척도들의 single-trial 문항간 신뢰도계수와 검사-재검사 상관값이 표 3.1에 제시되었다. 프로파일 보고서 양식을 토대로 3000명의 남성표본과 3000명의 여성표본, 6000명의 전체표본에 대해 알파계수를 산출하였다. 검사-재검사 상관은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11학년 때 검사하고 12학년이 되었을 때 재검사하였다. 여성표본에서는 대학교 4학년때 검사하고 5년 후에 재검사를 실시하였으며(Helson & Moane, 1987; Helson & Wink, 1992), 성인남성 표본에서는 대략 40세에 검사를 실시하고 25년 후에 재검사하였다(Dudek & Hall, 1991). 여자대학생 표본은 여성들 사이의 life span phenomena에 관한 Ravenna Helson의 연구에서 얻어졌다(Helson & Roberts, 1994; Helson, Roberts, & Agronick, 1995; Helson, Stewart, & Ostrove, 1995). 성인남성들은 미국의 건축설계자에 관한 MacKinnon과 Hall의 연구로부터 얻어졌다(Hall & MacKinnon, 1969; MacKinnon, 1962).

20개의 folk 개념 척도들에 대해, 남성표본에서의 알파계수는 F/M 척도의 .43에서 Wb 척도의 .84의 범위를 보였으며 .76의 중앙치를 가졌다. 여성표본에서는 F/M 척도의 .43에서 Wb 척도의 .85의 범위를 보였고 .76의 중앙치를 보였다. 전체표본에서 알파계수는 Py 척도의 .62에서 Wb 척도의 .84의 범위, .77의 중앙치를 가졌다. 세 개의 벡터 척도들에 관한 알파계수는 위의 모든 세 표본에서 .76 이상을 나타냈고 중앙치는 .82였다. 13개의 special purpose 척도들에서 전체표본에 대한 알파계수는 낮게는 Leo 척도의 .45, Dicken's Ac 척도의 .47, Leventhal's Anx 척도의 .49에서부터 높게는 Mp 척도의 .81, Lp 척도와 Baucom's Ms 척도의 .88까지 나타났다.

다음으로 검사-재검사 상관을 살펴보면, 남자 고등학생 표본에서는 Cm 척도의 .44에서 Sc 척도와 V.3 척도의 .77의 범위를 보였다. 여자 고등학생 표본에서의 범위는 Leo 척도의 .41에서 Ie 척도의 .80이었다. 전체 고등학생 표본에서는 Cm 척도의 .51에서 F/M 척도의 .84의 범위를 보였다. 20개의 folk 척도들에서 중앙치는 .68이었다.

5년 후에 재검사를 실시한 Helson의 91명의 여성표본에서, folk 개념 척도들은 Ac 척도의 .36에서 Sc 척도의 .73까지의 상관을 가졌으며 중앙치는 .56이었다. 세 개의 벡터 척도들은 각각 .70, .65, .68의 계수값을 가졌다. 13개의 special purpose 척도들은 Anx 척도의 .43부터 Ami 척도의 .70까지의 범위를 나타냈다.

25년 후에 검사를 실시한 44명의 건축설계사 표본에서, folk 척도들의 상관은 F/M 척도의 .37에서 Do 척도의 .82의 범위를 보였고 중앙치는 .58이었다. 세 개의 벡터 척도들의 계수값은 각각 .74, .71, .59였다. 13개의 special purpose 척도들은 Anx 척도의 .40에서 B-Ms 척도의 .84까지의 범위를 가졌다. 여기서의 표본 수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n=44), 이러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시간에 따른 척도들의 안정성의 지표라고 볼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표 3.1에 제시된 문항간 상관과 검사-재검사 상관은 경험적인 기법에 의해 개발된 검사들에서 통상적으로 발견되는 값과 유사하다. 위에서 말하였듯이 경험적인 방법론에서 그 목적은 유의미한 nontest 행동을 예측하고, 문항간 공변량의 증가보다는 관찰자의 평가와 기술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이 주어졌을 때, 척도 내 문항간의 적절한 동질성이 수용가능하고 예상될 수 있다.

Factor Analysis

1장에서 axioms 1과 3에서 논의했듯이, CPI는 요인분석적 방법으로 개발되지 않았다. 요인적인 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16PF(Cattell, 1946; Conn & Rieke, 1994), Comrey's Personality Scales(Comrey, 1970), Guilford-Zimmerman Temperament Survey(Guilford, Guilford, & Zimmerman, 1978)와 같은 검사들을 사용할 수 있다. CPI의 척도들은 일상용어 목록에서 추출되었고 개념들의 folk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일치되게끔 고안되었다. 즉 CPI 척도들 간의 상호상관에 관하여 고안된 목적은 측정치들간의 직교성보다는 오히려 개념들의 folk 사용에서의 공변량과 부합한다. CPI가 nontest 준거에 초점을 두고 척도간 상호상관을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검사는 아니다. MMPI와 Strong Interest Inventory와 같이 잘 알려지고 널리 사용되는 검사들도 동일한 논리로부터 도출되었다.

그 사용에 있어서 요인분석의 능력과 정밀성 때문에, 많은 심리학자들은 성격의 변인들을 정의하기 위한 방법임에 틀림없다고 믿고 있다. 심리학에서 요인분석의 논리와 적용에 관한 논문에서 Lykken(1971)은 세 가지 사용법을 지적하였다 : 자료 축약 - 크고 다루기 어렵게 조합된 측정치들을 보다 작고 유사한 동질성의 형태로 축약할 수 있는, 차원적 가설의 검정 - 다양한 측정치들에서 어떤 기본적 개념의 존재를 조사하기 위한, 분류측정(taxonometrics) - 요인적인 theme가 측정의 기본적인 단위라고 생각될 때. Lykken의 결론에 따르면, 앞의 두 적용에 대해선 수용가능하지만 세 번째 적용에 대해선 심각한 비판이 발생할 수 있다. 성격의 핵심 변인들을 밝혀 내는데 있어 요인분석의 사용에 관한 Lykken의 두 가지 주요 비판 중, 첫째는 변인들의 독립적인 또는 nontest 검증이 좀처럼 시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법이 동의반복적이며, 둘째는 요인적으로 선택된 변인들이 비요인적인 방식으로 구성된 변인들의 예측력보다 우월하다고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Paul Meehl(1993)은 요인분석의 비판에 대한 네 가지 의문을 제안하였다. 그 중 한 가지는 요인적으로 구성된 측정치들이 다른 방법에 의해 구성된 측정치들보다 nontest 준거를 보다 잘 예측한다고 기대할 수 있는가이다. Meehl의 대답은 특정 준거를 예측하는 것과 같은 순전히 도구적인 과업에서는 요인분석을 시행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중다회귀(multiple regression), 판별분석(discriminate function), actuarial table과 같은 직접적이고 적절한 절차를 사용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적은 추출된 차원의 수가 초기변인들의 선택과 수에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결론은 자의적이며, 변인들의 범위와 수에 관한 명확히 일치된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지 영역에서의 초기의 요인화는 통상적으로 5~7개의 요인들을 명시하였지만, guilford(1967)는 120개의 차원들을 제안하였다.

Lykken과 Meehl의 분석에 비추어 볼 때, 성격에서의 기본적인 theme가 3개, 5개, 7개 등이라는 주장들은 회의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CPI에서 프로파일 sheet의 20개 folk 측정치들은 대인간 행동의 중요하고 반복적인 형태들의 전부는 아닐 지라도 대부분을 예측하고 개념화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인다. 20개 중 어느 것이 미래에 거의 쓸모가 없다고 판명된다면, 그것은 삭제될 수 있다. 이것이 개방형 체계 원칙(open system axiom)이 의미하는 바이다. 이는 검사 내에서 발견되는 구조적 theme가 간과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2장의 cuboid나 3-벡터 모형에서 보았듯이, 개인들의 protocols의 해석은 벡터 점수를 살펴보는 것으로 상당히 향상될 수 있다. 이 단계를 지나면, 해석은 folk와 special purpose 척도들의 형태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개별적인 의미와 특징으로 이동한다.

CPI 척도들의 상관행렬은 물론 요인분석의 방법으로 조사될 수 있다. 요인분석을 실시하면, 세 개의 고순위의 벡터 척도들이 추출되고, Dicken의 두 가지 반응-양식 척도가 도출되게 된다. 또한 어떤 분석이던지 그 목적은 기저에 있는 theme를 탐지하는 것이지, folk와 special purpose 척도들에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변인들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매뉴얼에서 척도간 상호상관들은 3000명의 남성과 3000명의 여성의 프로파일 보고서 표본으로부터 표 3.2에 제시되었다. 20개의 folk 척도들에 대하여, 상관의 범위는 남자에서는 -.25에서 .82까지 나타났고 .40의 중앙치를 보였다. 여자표본에서는 -.40에서 .84의 범위, 중앙치는 .42였다. 두 성별 모두에서 가장 높은 상관은 Sc와 Gi간이었다. 남성표본에서 가장 낮은 상관은 Sp와 F/M간이었고, 여성표본에서는 In과 F/M간이었다.

20개의 folk 척도들과 11개의 special purpose 척도들에 대한 주축분해 요인분석이 성별에 대해 각각 실시되었으며, 고유치가 1.00이상인 요인들만 선정하는 Kaiser normal 직교회전으로 분석하였다. 각 분석에서 5개의 요인이 이 준거에 부합하였으며 표 3.3에 제시되어있다. 남성의 요인3이 여성의 요인4에 가장 잘 부합하고, 남성의 요인4가 여성의 요인3과 가장 잘 부합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두 성별 모두 요인과 부하값들의 결과가 유사하였다.

요인 1은 보고서 양식의 첫 번째 섹터에 있는 7개의 척도들(Do부터 Em까지)에 가장 높게 부하되었고, special purpose 척도에서는 Lp와 B-Ms에 높게 부하되었다. ascendance의 개념이 이러한 부하값들과 양립가능하며, 이 요인을 통해 제안되는 명칭이다.

요인 2는 Sc, Gi, Wo, Ami 척도에 가장 큰 정적 부하를 가지며 Nar 척도에 대해서는 큰 부적 부하값을 보였다. 두 번째 부하값은 또한 Re, So, Wb, To 척도에서 나타났다. dependability의 개념이 이러한 형태와 관련이 있으며, 이 요인을 통해 제안되는 명칭이다.

남성의 요인 3과 여성의 요인 4는 Cm과 부적 부하를 가진 So, Wb, Anx 척도들로 가장 잘 정의된다. conventionality가 합당한 대안일 지라도, 이 요인을 통해 제안되는 명칭은 communality이다.

남성의 요인 4와 여성의 요인 3은 Ct와 Fx 척도에 가장 큰 정적 부하를 가지며, 2차 부하는 Ai와 To에 높게 나타났다. 이 요인을 통해 제안되는 명칭은 originality이다.

요인 5는 여성성/남성성 측정치들에 의해 정의되며, 특히 정적 부하의 F/M, B-Fm 척도와 부적 부하의 B-Ms 척도이다. 이 요인을 통해 제안되는 명칭은 femininity/masculinity이다.

이러한 5개의 요인들은 Megargee(1972)가 18개의 folk 개념들로 보고한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CPI에 대한 20개의 요인분석 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Megargee는 합의적인 차원들로 (1) extraversion, assertive self-assurance, or interpersonal effectiveness; (2) personal integrity, disciplined effectiveness, or conformity; (3) communality, modal response, or conventionality; (4) flexibility, nonauthoritarian attitudes, or adaptive autonomy; (5) femininity or emotional sensitivity versus masculine toughness 으로 결론내렸다.

**Chapter 4. The Detection of Invalid Protocols**

An Overview of the Development of Validity Scales

자기보고에 근거한 심리학적 평가에서, 타당도 또는 정확성에 관한 문제는 불가피하다. 이는 선발상황에서처럼 자기-비판(self-criticism)이 약점으로 보이고 자기-강화(self-enhancement)가 장점으로 보여질 수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행해질 때 특히 그러하다. 집단검사의 경우에, 평가에 의해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무선적으로 혹은 별 의미없이 대답할 수 있다. 어떤 성격검사이던지 해석자는 이러한 응답 형태들이 신뢰롭지 못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protocols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해 알아야만 한다.

초창기의 자기-보고식 검사에서부터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주의하였다. 예를 들어 Spencer(1938)는 일부 개인들이 성격 질문지에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신뢰롭지 못한 응답들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Kelly, Miles, Terman(1936)에 따르면 거짓반응(faking)은 쉽게 나타나고 그로 인해 점수들이 조작될 수 있다. Vernon(1934)은 응답자들이 검사의 목적을 아는 것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관심으로부터 protocol의 타당도를 통제하기 위한 시도와, 위조(falsification)나 가장(dissimulation)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들이 도출되었다. 최초의 시도 중 하나는 Hartshorne과 May(1928)의 방법인데, 그들은 어린이들의 정직성에 대한 연구에서 improbably true assertions에 관한 거짓응답(Lie)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에서 어떤 아이의 점수가 높을수록, 거짓되고 자신에게 유리한(self-serving)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Humm과 Wadsworth(1934)는 기질(temperament)에 관한 검사에서 질문에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은 문항의 총 숫자의 점수(tally)로써 No Count를 사용하였다. 특정 빈도를 넘어서서 이러한 점수(tally)는 성격적 문제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려는 과도한 경향을 제안하였다. Adams(1941)는 성격 기술문에 자신이 유사한가 다른가를 말하도록 요구받는 응답자들에게 질문 대신에 기술적 진술문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Ruch(1942)는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형태의 검사에 응답하도록 한 후에, 매우 호의적인 인상을 주게끔 하라는 지시 하에 다시 검사를 실시하였다. 두 가지 protocols를 비교해 본 결과, 정답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낳고, 정상적인 것과 fake good인 응답지 간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한 척도로써 채점될 수 있는 문항들이 규명되었다.

두 가지 이상의 invaildity를 탐지하기 위한 개별적인 측정치를 제공하는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MMPI; Harthaway & McKinley, 1940, 1943)가 등장하기 전까지, 여러 초창기의 성격검사들은 invalid protocols를 탐지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들 중 한 두 가지를 통합하는 방식이었다. 최초의 측정치는 응답되지 않은 문항들의 점수(tally)이거나 ‘cannot say' 점수였다. 초기에는 30개의 응답되지 않은 문항들의 비공식 준거점수(cutoff)가 제안되었으나, 이후에 Brown(1950)은 이 지표를 해석하기 위한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두 번째 MMPI 측정치는 Hartshorne과 May의 연구에서 모형화된 Lie 척도였다. 세 번째는 채점(scored direction)을 통해 매우 드물게 응답된 64문항으로 구성된 F 척도이었다.

처음 MMPI가 출판된 지 몇 년 후에 K 또는 Correction 척도가 추가되었다(McKinley, Hathaway, & Meehl, 1948). K 척도의 기능은 병리학(Pathology)의 측정치 점수가 너무 낮은 정신의학적 환자들과 동일한 척도에서 너무 높은 점수를 받은 비환자들의 protocols를 규명하는 것이다. 분류적인 용어 측면에서, 전자집단은 false negatives, 후자집단은 false positives라고 부른다. 응답자들의 K 점수에 따른 MMPI의 진단적 척도 점수의 조정은 두 가지 유형의 오류의 감소시킨다. 이후에 K 척도는 자기-표현(self-presentational) 양식의 지표로써 이해되기 시작했는데, 높은 점수들은 자기에 대해 호의적이고 방어적으로 볼 것이라고 예상되며 낮은 점수들은 자기-비판적이고 심지어는 자기-거부적(self-rejecting)인 태도를 예상할 수 있다. 성격검사에서 자기-표상(self-disclosure와는 반대되는)의 역할에 대한 유용한 분석은 Johnson(1981)의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기보고식 성격검사의 척도에 관한 통찰력 있는 해석은 자기-표상의 심리학을 설명하여야만 한다. 검사자들은 MMPI의 거의 모든 문항에 대해 피검자들이 응답하게끔 설득하도록 숙련되었기 때문에, ‘cannot say' 점수는 유의미하게 감소되어 요즘은 종종 보고되지 않는 반면에 L, F, K 척도들은 해석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척도들에 의해 다루어지는 주제들-발현가능한 자기-과장(self-aggrandizement), 이상한 응답이나 무선 응답,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가치에 대한 지나친 강조-은 어떠한 검사에서도 간과될 수 없다.

세 가지 척도들의 유형이나 결합 또한 연구되어왔다. MMPI의 의도적인 가장(dissimulation)에 관한 연구(Gough, 1947)에서는, F 척도의 원점수에서 K 척도의 원점수를 뺀 지수가 위장된 protocols를 감지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F 척도에서 K 척도를 빼는 측정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10보다 큰 차이는 faking bad와 연관이 있고, -10보다 큰 차이는 faking good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다.

문항수준에서의 MMPI 후속연구(Gough, 1954)는 정상인 표본과 정신병 환자집단의 정답률이 대략적으로 동일하지만 사람들에게 병상을 가장해보라고 요구했을 때의 정답률은 유의미하게 다른 74개의 문항들을 밝혀냈다. 이 Ds(dissimulation) 척도는 MMPI의 연구와 실용 모두에서 자주 사용되어왔다.

Fake Bad, Fake Good, and Random Answers

CPI를 개발하는데 있어, Ds 척도는 personal distress 혹은 faking bad의 과장에 대한 유용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척도의 길이(74문항)와 극단적인 정신병리학의 여러 declaration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956년에 처음 출판된 CPI에서는 44문항으로 줄였었다. 또한 정신건강과 개인적 안녕감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하여 채점 방향은 역으로 하였다. 이 Wb(well-being) 척도는 CPI의 1986년 버전에서는 38 문항으로 축소되었다. CPI 434 버전에서 Wb 척도는 역시 38문항을 담고 있지만 초기 버전으로부터 7문항을 삭제하였고 검사 내에 이미 있었던 7개의 다른 문항으로 대체하였다.

또 다른 응답 특성(faking good)을 평가하기 위한 두 번째 CPI 척도는 정상적인 지시문과 fake good하라는 지시문으로 검사를 실시한 Ruch(1942)의 방법에 의해 개발되었다. CPI의 Gi(good impression) 척도에서, 지시문은 응답자들에게 그들이 매우 원하는 직무에 지원하는 상황을 상상하거나 훌륭하고 칭찬 받길(praiseworthy) 원하는 상황을 상상하도록 요구하였다. 실험적인 문항들은 사람들이 매우 호의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고자 할 때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직감과 직관에 기초하여 Ruch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사용했던 버전들의 수정되고 업데이트된 버전들을 포함하고 있다. 문항분석 결과 대조되는 두 가지 조건일 때 정답반응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40개 문항을 규명하였다. CPI의 1986년 버전에서 이러한 문항들 중 5개 문항이 삭제되었고 다른 5개 문항으로 대체되었다. 현재의 434문항 버전에서의 Gi 척도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세 번째 CPI validational 측정치는 Communality(cm)이며, MMPI F 척도에서 Hathaway와 McKinley가 사용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즉 매우 높은 비율로 ‘true'라고 응답된 문항들은, 좀처럼 ’true'라고 응답되지 않아서 Cm 척도에서는 ‘false'라고 채점되는 또 다른 하위문항들로 구성된, 척도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Cm 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응답자들이 표준적인 혹은 modal로 검사에 반응했음을 의미하는 반면 낮은 점수는 무선적이거나 매우 비규범적인 반응일 가능성이 크다. CPI의 1956년 버전에서 Cm 척도는 28개 문항이었다. 1986년 버전에서는 높은 쪽 극단에서의 보다 큰 변별을 위해 38개 문항으로 증가시켰다. 현재의 434 문항 버전에서 Cm 척도는 여전히 38개 문항이며, 1986년 버전과는 2개 문항이 변화되었다.

Wb, Gi, Cm 척도들은 정상적인 protocols에 대한 중요한 해석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매뉴얼의 많은 지면에 걸쳐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protocols의 발견에 그 초점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에서 세 가지 척도들은 분석의 처음 단계에 해당된다. 원점수로 봤을 때, 30 이상의 Gi 점수는 faking good을 의미한다. 20 이하의 Wb 점수는 심각한 성격적 문제나 fake bad 응답형태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24 이하의 Cm 점수는 응답의 비전형성(atypicality)과 단순히 무선적인 응답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모든 개인의 프로파일에서 이 세 가지 타당도 지표들은 그들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 조사되어야 한다.

보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서 이러한 막연한(impressionistic) 조사는 세 가지 타당도 지표들의 결합과 다른 척도들의 추가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1956년 버전에서는 fake good, fake bad, 무선적인 protocols를 감지하기 위한 공식(equation)이 개발되었다(see McAllister, 1986, p.66). 그 척도들이 타당하지 않은 응답들을 규명하는데 효과적이었을 지라도, fake bad와 random equation에서의 점수가 각각 대략 .95로 상관이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 계수가 의미하는 바에 따르면, fake bad equation은 무선으로 응답된 protocols를 감지하는데 있어 random equation만큼 효과적이며, random equation은 fake bad protocols를 감지하는데 fake bad equation만큼 효과적이게 된다. 그러나 fake good equation은 다른 두 equation의 점수와 본질적으로 상관이 없고 fake good protocols를 잘 밝혀내는 점수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A Decision-Tree Format

CPI 1986년 판에서는, 세 가지 새로운 공식이 Kevin Lanning(1989)에 의해 개발되었고 새로운 decision-tree format으로 적용되었다. 첫 번째 단계로, fake good 공식의 점수는 fake good 분류를 위한 이 공식의 규정에 부합하는 protocols를 가려내는데 사용된다. 그 후에 살아남은 protocols는 두 번째인 fake bad 공식에 의해 두 가지 집단-fake bad or random과 valid or within normal limits-으로 분류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fake bad 혹은 random으로 분류된 모든 protocols가 random 공식으로 조사되고 fake bad 혹은 random으로 하위분류된다. 실험적으로 산출된 fake good, fake bad, random protocols의 규명을 최대화하고, 정상적인 archival files에서 protocols의 잘못된 분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 가지 공식에 대한 준거점수(cutting scores)가 설정되었다. 1986년에 사용된 2000개의 프로파일 규준표본에서, 12개의 protocols가 fake good으로 분류되었고, fake bad에는 9개, random은 14개가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 가지 공식과 decision-tree 적용에 의해 정의되는 invalidity가 정상적인 검사에서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찰관에 지원하는 남성표본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높은 비율로 발생하였다; 84명의 남자가 그러한 application을 보였으며 fake good으로 분류된 protocols는 10.7%였다.

Protocol Validity Equations

프로파일 sheet의 다른 척도뿐만 아니라 타당화 척도 문항들의 변화 때문에, form 434의 공식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분석이 필수적이었다.

Fake good = 41.225 + .273Do + .198Em + .538Gi - .255Wb - .168Fx

Fake bad = 86.613 - 1.000Cm - .191Wb + .203Ac - .110Fx

Random = 34.096 + .279Gi + .201Wb + .225Py + .157Fx

이 세 가지 공식에는 원점수가 사용되었다. 점수가 60.60이상이라면 fake good 알고리즘에 따라, 그 protocol은 fake good에 해당된다. fake bad 점수가 59.50 이상이라면 그리고 random 점수가 48.01 미만이라면, 두 개의 공식에 따라 그 protocol은 fake bad라 부른다. fake bad 점수가 59.50 이상이고 random 점수가 48.01 이상이라면, 그 protocol은 random이라 부른다.

그 밖의 모든 protocols는 정상적 또는 타당한 것으로 분류된다.

표 4.1은 세 가지 척도에 대한 실험표본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fake good, fake bad, random으로 분류된 protocols의 수와 퍼센티지를 제시하고 있다.

실험적으로 fake good mode로 응답한 남성과 여성표본 모두에서 어떠한 protocols도 fake bad나 random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102개의 protocols 중 64개(62.7%)는 정확히 fake good으로 분류되었다. 100개의 fake bad protocols 중에서 fake good으로 분류된 것은 없었으며, 81개는 fake bad로 분류, 3개는 random으로 잘못 분류되었다. 100개의 응답 sheet들이 난수표(random-number table)에 따라 작성되었다. 이 중 66개는 정확히 random으로 분류된 반면, 24개는 fake bad로 분류되었다. 컴퓨터로 계산된 1,000개의 무선 protocols의 결과는 64.6%가 random, 22.5%가 fake bad로 분류되었다.

표 4.1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은 얼마나 많은 protocols가 valid나 normal로 잘못 분류되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fake good하라고 요구하였던 학생표본으로부터 나온 protocols 중에서, 64개는 탐지되었고 36개는 탐지되지 않았다. fake bad 시도에서는 102개의 protocols 중에서 84개가 invalid로 분류되었고 18개는 탐지되지 않았다. 컴퓨터로 산출된 1,000개의 무선record에서, 871개는 invalid로 분류되었고 129개는 탐지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fake good protocols는 대략 64%, fake bad protocols는 약 84%, random protocols는 약 87% 정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는 fake good 공식이 44개의 남성표본에 대해 적용된 결과이며, 표 3은 34개의 여성 표본에 대해 동일한 공식이 적용된 결과이다. 남성표본에서 가장 높은 빈도의 fake good protocols를 보인 표본은 서해안의 중소도시에서 경찰관에 지원하려는 883명의 표본이었고, 그 비율은 7.5%였다. 차례로 그 다음으로는, optometry의 박사과정에 지원하려는 남성들이 5.0%의 비율을 보였고, 연구 프로젝트에서 검사된 청소년 보호감찰관들이 4.6%의 비율을 보였다. 7.1%의 비율을 보인 집단은 표본크기가 매우 작은(N=14) 발명가 club에 소속된 남성들 표본에서 관찰되었다. 4% 이상의 비율을 보인 또 다른 집단은 49명의 banking branch managers 집단과 41명의 카톨릭 성직자 집단이었다. aspiring inventors 집단을 제외하고 이러한 집단들은 정직하고, 윤리적이고 자기-규율적인 사람으로 자기-표상을 요구받는 검사 상황이었다. 남성표본 중 17개의 표본은 fake good protocols를 하나도 보이지 않았으며, 다른 것들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다양한 지역의 25개 학교에서 검사된 4,611명의 남자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단지 8개(0.2%)만이 fake good answer sheets로 나타났다.

34개의 여성 표본들 중 3개 표본이 4.0%보다 큰 비율의 fake good을 보였다. 경찰관 지원여성이 8.5%, optometry 박사과정 지원여성이 6.0%, secondary 여교사가 4.8%의 비율을 보였다. 표본들 중 17개 표본에서는 fake good protocols가 하나도 없었으며, 5개 표본에서는 0.5%이하의 비율을 보였다.

faking good은 연구장면과 조작적(operational) 장면에서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났다(직무에 지원하거나 교육과정의 admission 장면에 비해). 심지어 경찰관의 경우, 공식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들은 종종 그 점수가 60을 넘지 않는 한 훈련이나 그 직무에서 잘 수행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4.4는 남성표본에 적용된 fake bad와 random 알고리즘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두 가지 종류의 invalidity에서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보인 집단은 41명의 정신과 환자들 집단이었다(4.9%).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의 fake bad protocols를 보인 집단은 196명의 감옥 수감자 집단이었다(3.6%). 44개의 표본 중 28개에서, fake bad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CPI archival 자료의 남성표본들에서 faking bad는 상대적으로 드문 현상임이 드러났다.

무선으로 응답된 protocols는 다소 더 빈번하였으며, 23개의 표본만이 random protocols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 조건하에 검사된 4,611명의 고등학생 전국표본에서, 59명이 무선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조건하에 검사된 3,235명의 대학생 표본에서는 8명이 무선적으로 응답하였다. 그 비율이 각각 1.3과 0.2로 낮을 지라도, 연구에서의 합당한 예방책은 그러한 protocols를 막는 것이다.

여성 표본에서의 fake bad와 random 빈도는 표 4.5에 제시되었다. 34명의 여성 정신과 환자 중 3명(8.8%)이 fake bad protocols를 보였다. 다른 표본들에서의 fake bad protocols는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34개 표본 중 25개는 하나도 없었다. random을 가장 많이 보인 집단은 182명이 random protocols로 분류된 4,823명의 고등학생 집단이었다. 이 여고생 표본에서 invalid record의 총 숫자는 237개였으며, 이 237개 중 random protocols의 비율은 77%였다. 여고생들이 이러한 유형의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을 때 그들은 무선이나 무의미한 응답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4,611명의 남자 고등학생 표본에서 invalid record의 총 숫자는 105개였다(fake good 8개, fake bad 38개, random 59개). 여고생 집단에서의 random records는 적당히 보통 수준이었던 반면, 4,126명의 여대생 집단에서는 단지 6명만이 random protocols를 보였다.

fake good, fake bad, random 응답의 알고리즘으로부터 도출되는 분류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protocol이 이러한 방법으로 fake good으로 분류된다면, 이는 그러한 protocol을 만들어내는 개인의 동기적 의도라고 확신적인 진단이 내려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분류는 특정 protocol이 이러한 현상에 대한 규준적 모수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나 있고, 그 protocol의 사용이나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응답의 신뢰성이나 신빙성에 대해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는 위험 신호일 수 있다. 특정 protocol이 명확한 해석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타당한지에 대한 결정은 검사 상황, 피검자의 지식, 관찰적․nontest source로부터의 단서들, 프로파일에서의 점수들의 형태 등에 기초하여 내려지는 전문적인 판단이다.

**CHAPTER5. 대중척도의 해석**

**기술적 자료와 관찰적 자료의 원천**

이 단원의 목적은 해석자가 개인에 대한 대중척도에 대한 높고 낮은 정도를 해석할 때 타당하고, 예측가능하며, 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이다. 정보의 대부분은 관찰자에 대한 묘사와 순위를 매기거나, 각 척도와 비슷한 표본을 그리는 것 등에서 얻어진다. 이런 이유로, 각 척도에 대한 한 가지 표본에 대한 논의만 하는 것은 피해야하며 새로운 척도도 고려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CPI 검사의 각 척도들의 목적은 이미 이전에 기술되었듯이, 개인들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예측하는 것이며, 그런 사람들을 어떤 일관적이고 의미 있는 용어로 정의하는 것에 있다.

기존에 발생된 보고서들에서는 개인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는 CPI 검사의 측정도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이 예측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다른 매우 유용한 정보의 원천 중의 하나는 Buss 와 Craik의 행동빈도(act frequency)에서 점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David Buss 의 매뉴얼에 따르면, 그는 친절하게 89명의 커플들의 데이터를 통해 가능한 비공식적인 행동빈도를 발견하였다. 각각의 커플들은, 남자의 경우에는 그의 아내나 파트너가 순위를 평가하였고, 여자들은 그녀의 남편이나 파트너가 특정한 행동들에 대한 순위를 매겼다. 순위는 8단계로 평가할 수 있었고, ‘최근 3개월동안 한 번도 관찰되지 않았다’에서 부터, ‘같은 기간 동안 1번 있었다’, ‘2번 있었다’ 그리고 ‘매주 여러 번 관찰되었다’ 등으로 평가되었으며, 매일의 빈도수도 계산하였다.

더미변수(가변수)는 0부터 8까지 값이 존재하였고, 총 샘플에서 20개의 CPI 척도 각각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총 샘플에서 하위 샘플들과 성별에 대한.

왜냐하면 한 남성이 그의 아내에 대한 유효한 순위를 매기지 않아 N의 값이 남성은 88, 여성의 89명으로 총 177명이였다. 각각의 CPI 척도에 대해서 5개의 가장 큰 긍정적이고 5개의 가장 부정적인 상관관계들이 보고되었다.

각 척도들의 기술상관관계는 캘리포니아 Q-set의 아직 발행되지 않은 인생 역사 인터뷰의 체크리스트의 ACL의 항목들로부터 찾을 수 있으며, 발행되지 않은 개인간 Q-sort 에서 찾을 수 있다. 형용사 자료는 6개의 다른 표본들을 통해 만들어 졌다. 첫번째 표본은 ACL의 300개-항목에 의해 분류되어지는 236명의 남자 그리고, 같은 짝으로 이뤄진 동일하게 남편에 의해 평가된 236명의 여성들로부터 얻어졌다. 각각의 확인된 항목들은 더미변수 1로 할당되었고, 각각의 확인되지 않은 항목들은 0의 값을 가졌다. 300개의 항목들은 CPI 척도와 상관관계를 가진다. 세번째 표본은 각각의 패널들에 의해 합산되었고, 표준화되었다. 동료들에 의해 ACL에 대해 평가된 194명의 남자 대학생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매우 기술적인(+2), 대체로 기술적인(+1) 중립 혹은 무관한(0), 기술적이지 않은(-1) 그리고 매우 기술적이지 않은(-2)으로 평가 되어졌다. 평가는 그들의 사교그룹 안에서 표준화 되었다. 네 번째 표본은 192명의 여자 대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개인들은 그들의 동료에 의해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같은 여학생 그룹 안에서 표준화되어 합산되었다. 다섯번째 표본은 버클리에 있는 IPAR 센터의 심화 프로그램에 의해 평가되었다. 10명의 관찰자가 각 평가자의 ACL을 관측했다. 어떤 척도이건 점수가 0에서부터 10까지 점수가 매겨졌다. 여섯번째 표본은 IPAR

캘리포니아 Q-set는 남자 547명, 여자 343명을 평가한 샘플이다. 각 평가자들은 100개의 Q-set 항목들에 의해 평가되었고, 5명에서 8명의 평가자들이 독립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들의 Q-formulation이 구성되었고, 각 항목들은 빈도수에 따라서 재배열되었는데, Jack Block(1961)에 의해 구체화된 각 항목들의 현저성에 따라 9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인생사 인터뷰를 통해 얻은 504명의 남성과 379명의 여성들로부터 데이터를 얻게 되었다. 90분의 인생사에 대한 인터뷰 후, 인터뷰어가 99개의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평가자의 품행, 말투, 가정환경, 청소년기 경험 그리고 현재 활동들을 평가했다. 체크된 항목들은 더미 값인 1을 부여했고, 빈칸으로 남겨진 항목들은 더미 값 0을 가졌다. 그런 다음 이 점수는 각각의 CPI 항목들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인관계 Q-sort의 50개의 항목들에 대해선 200명의 남성들이 그들의 아내나 파트너를 평가하였고, 200명의 아내들은 그들의 남편이나 파트너들에 의해 평가되어 졌으며, 현저성을 띄는 항목들에 대해 5개의 단계로 분류되었다. IPAR에서 평가된 3번째 샘플인 111명의 남성들 또한 포함되었다. 각각의 피평가자들은 3명의 관찰자에 의해 Q-sort로 평가되어졌고, 3일간의 평가기간 동안 관련된 정보들이 얻어졌다. 3명의 Q-sort 평가자들은 그 후 피평가자들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였고, 항목들은 각 단계별 빈도수에 따라서 재배열 되었다. 합산된 점수는 5(가장 특징적인)부터 1(가장 특징적이지 않은)의 점수로 구성되었고, CPI 척도와도 상관관계를 보였다.

ACL의 최종 리스트들은 부록 D<E<F<G에서 찾을 수 있다.

**Dominance scale**

Do 척도는 100명의 대학생 샘플과 124명의 고등학생 샘플 중에서 동료 지명(peer nomination)과 반대되는 항목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었다. 지명자들은, 면-대면 상황에서 눈에 띄는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인 존경을 받으며, 필요하다면 상대방을 통제하기도 하는 사람들이다. 지배적인 사람들(Dominant)은 후에 안전, 안정, 개인적 바람직성 그리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각 집단에서 ‘가장 지배적인’ 후보자들과 ‘가장 덜 지배적인’ 사람들끼리 모이도록 했다.

가장 덜 지배적인 사람들은 특징이 그들 자신에 대한 주장이 약하고, 그들의 권리와 의견에 대해서 나서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척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평가자(rater)들은 지배적(dominance)인 것과 독재적인 기질 혹은 사람을 지배하려는 특질(disposition)과 혼돈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실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였다. 그저 지배적이고 싶거나 지배적이기를 희망하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지배적인 것과 (개인적 부와 같이) 계층적으로 지배적인 성질을 구분하기 위해서.

초기의 연구에서는 50명이 고지배 샘플군으로 분류되었고, 나머지 50명은 지배적 성향이 낮은 것으로 분류되었다(각각 여성이 25명 남성이 25명). 고지배군 샘플과 저지배군 샘플간에 60개의 항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32개의 특별항목이 확인되었고 28개는 MMPI 항목 이였다. 모든 학생들로부터 자기평가 점수도 얻었다. 지배자들은 ‘고지배군’ 항목들에 1포인트씩 점수를 매겼고, ‘저지배군’항목들의 점수는 1점씩 뺐다. 고등학생 샘플에서 동료평가 점수와 자기평가 점수간의 상관관계는 .44였고, 대학생 샘플에서는 .42였다. 고등학교 샘플에서 지배적인 60개 항목에 대한 상관관계는 .69 이였으며, 대학생 지배적인 샘플에서의 상관관계는 .60 이였다. 자기평가 점수와의 상관관계는 각각 .56과 .52였다.

CPI 척도의 480개 항목이 나왔을 때(1956년), Do 척도는 46개로 줄었다.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항목들과 새로운 샘플에서 발견된 또 다른 지배적인 항목들을 제외했다. 1986년에 개발된 462개의 CPI 척도에서는 Do 척도가 36개로 줄었으며, 462개의 항목들의 점수와 2가지가 다르다. Do 척도의 다른2개의 36개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는 6000명의 응답자들로 부터 얻은 프로파일 샘플에서는 .99였다.

6000개의 표준 샘플에서 Do 척도에 대한 항목간 요인분석 결과 아이겐 벨류 1.00에서 8개의 항목이 발견되었다. 편리성으로 위해 상위 4개의 요인들이 묶였고, Kaiser 의 varimax 회전방법이 사용되었다. 요인 1은 주로 “자기 자신을 리더로 생각한다”, “그룹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한다”, “타인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을 좋아한다”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요인 2는 “나는 일이나 과업에 집중하기 힘들다(false)”,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빨리 포기하는 편이다(false)”,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false)” 등 자기자제 성향을 나타내는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요인 3은 “나는 명령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계획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 결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4는 2개의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2개의 항목 모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그룹이나 국가의 활동(activities)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일반 상식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척도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리더, 지배적인 사람으로 보는 경향의 내적 묶음(cluster)가 존재하며, 일반 수준의 자기자제 성향을 가지며, 통제하고 권위적인 위치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은 적법한 일상적인 활동을 지지해야 한다는 신념을 내포하고 있다.

Do 척도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빈도분석을 한 결과에 대해 논의해보자. 177명의 샘플들로부터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5개의 행동들은 다음과 같다: 집단의 책임자다(r=.33) , 미팅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한다(r=.33). 다른 사람들 보다 할 말이 많다(r=.32),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와준다(r=.32), 집단 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안다(r=.29). 이 모든 행동들은 어떤 그룹 안에서나 미팅에서 보여질 수 있는 행동들이다. Do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들의 지배력을 그룹을 통해 표현하며, 합의된 그룹의 목적을 추구하고,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지배적이거나 우세적인 모든 척도가 같은 시사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배와 전형적인 행동에 관한 Buss 와 Craik(1980)의 연구에서, 그들은 CPI의 Do 척도를 Personality Research From 안에 있는 지배적인 척도와 함께 실험하였다. 지배적인 행동들은 RF와 더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각각의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다른 사람이 대신 일해주기를 요구한다”(.17 vs .38), “나는 테이블 제일 앞쪽 머리에 앉는 것을 선호한다”(.14 vs .35), 그리고 “나의 동료들은 나를 존경한다”(.14 vs .28).

PRF 보다 CPI 항목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 “나는 내가 흥미 있어 하는 것을 위해 돈을 간청한다” (.27 vs. 12), “나는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주도한다”(.26 vs. .14), “나는 그 시대를 선도하는 아이디어를 지지한다”(.32 vs. .17). 나열한 행동들 말고도 다른 행동들 또한 자기를 과장하는 지배적인 성향은 PRF 항목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CPI와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Do 척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다른 행동들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혹은 “그룹의 목표가 우선된다면 목표 달성을 위해 부하의 역할을 할 때도 있다” 등이 있다. E.I. Magaree와 그의 동료들이 수행한 흥미로운 연구에서, Do 척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끼리 짝지어 실험을 하였다. Do 척도가 높은 사람이 완벽하게 부하의 역할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두 사람에게 주어진 업무가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나 실험의 목적이 리더십을 평가하는 것일 때에는, Do가 높은 사람이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짝에서 나타났다. 한 가지 예외의 경우가 발견되었는데 높은 Do여성이 낮은 Do남성과 짝지어졌을 때이다. 리더십 조건에서, Do 척도가 높은 여성은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Do 척도가 낮은 남성가 리더 의자에 않도록 지휘하였다. Do 척도가 높은 여성이 팀 구성원들을 위해 일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많은 조직의 장들은 그리고 국가의 리더들은 보통 지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로, 시간을 잘 지키고, 근면성실하게 일하며 성실하게 부하의 직위에서 일한다. 사실, 목표에 대한 노력이 집합적이고 가치 있는 상황에서는 지배적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부하들에게 매우 효과적일 때가 있다. 남성과 여성에 관한 실험에 따르면, 사회적 관습에 따라 남자들이 운전을 하고, 식당에서 계산을 하며 추수감사절에 터키를 굽고 심지어 부인들보다 더 일을 잘 할 때도 있다.

다른 실험에서는(Gorecki, Dickson & Ritzler, 1981) 53명의 여대생들이 8가지 역할행동 놀이에 참여하였는데 각각의 상황들은 즉각적인 대답을 요구했다. 그 후 각 여성들은 자기확신 5가지 척도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다. 각각의 평가에 대한 52개의 응답들은 자기확신 척도를 개발하는데 사용되었다. 이 척도와 Do 척도간의 상관관계는 .61이였다. 다른 연구에서는(Gough, 1990) Do 척도와 다른 리더십 척도들간의 상관관계를 구했는데 11개의 서로 다른 샘플들의 사이즈가 164개부터 1,014개까지 다양하였다. Do 척도와의 상관관계는 낮은 것은 .13 높은 것은 .42 그리고 중간값은 .33이였다.

Do 척도와 가장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5가지 대표적인 행동들로는: “다른 사람이 말을 걸었을 때만 말을 한다”(r=.-29), “누군가 질문을 했을 때만 대화에 참여한다”(r=-.19)”, “개인적인 질문을 했을 때 단답식으로 대답한다”(r=.19), “다른 사람이 대화의 새로운 주제를 찾을 때 까지 기다린다”(r=.18), “새로운 사람이 방 안에 들어오면 조용해 진다”(r=-.17). 이 모든 행동들은 말로하는 행동들을 위미하고, 종합해 보면 Do 척도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과묵하거나, 반응이 없거나 입이 무거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Do 척도와 관련한 기술적인 면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ACL로 먼저 시작을 해보자. 표 5.1은 6명의 표본에서 얻은 Do 척도와 가장 높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12개의 형용사와, 가장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12개의 형용사들이 나열되어 있다. Do 척도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야심있고, 자기주장이 강하며, 에어지가 넘치고, 활동적이며, 자신감이 넘친다고 본다. 조용하거나 부끄러워하고, 소심하거나 내향적이지 않다. 6개의 샘플 중 4개의 샘플에서 형용사 지배적인(dominant)은 Do 척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나머지 2개의 샘플에서는 아주 근소하게 0보다 높게 나타났다. ‘순종적인(submissive)’이라는 형용사는, 다른 기준으로, 6개의 샘플 중 5개의 샘플에서 Do 척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상관계수는 6개 샘플 모두에서 -.10에 불과했다.

그러면 Do 척도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형용사의 결합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300개의 형용사들 중에서 200개가 선택되었으며, 관찰자에 의해서 가장 낮은 빈도수를 보이는 것들은 삭제되었고, 또한 자기평가에서 한 번도 선택되지 않은 형용사들도 제거되었다. 다른 2개의 동료 샘플들에서(남성 194명, 여성 192명) 형용사적인 묘사는 이미 표준화 되었다. 시그마 .10의 평균인 50의 값에서. 이 샘플들 중 612명의 남성과 358명의 여성들이 각각 묘사한 사람은 10명의 평가자들이 동시에 묘사하였고, 각각의 합계가 성별에 따라 시그마 10 중 평균값인 50으로 표준화 하였다. 이 샘플들을 통해 총 1,356명의 사람들(남성 806명, 여성 550명)의 표본이 사용되었다. 1,356명의 표본들 중, ACL 묘사는 Do 척도와 회귀분석을 하였고, 형용사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8단계가 지난 후 분석을 중단하였다. 8개의 형용사들은 Do 척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그들의 베타 값은 다음과 같았다: 야심있는(.11), 자신감 있는(.11), 어색해하는(-.90),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09), 짓궂은(-.70), 조용한(-.14), 내성적인(-.11) 그리고 부끄러움타는(-.10). 이 여덟 개의 형용사들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그 값은 .47(r2=.22)였다.

4개의 캘리포니아 Q-set 항목들이 Do 척도와 가장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547명의 남성과 393명의 여성들로부터 얻은 샘플에서 그 행동들은 다음과 같다;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남성은 .42, 여성은 .40)

사회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있고 존재감이 있으며, 사교적이다 (남성은 .36 여성은 .37)

개인적인 상황에서는 수다스럽다(남성은 .32 여성은 .34)

조언하는 것을 좋아한다(남성은,34 여성은 ,29)

어떠한 극단적인 행동에서도 혼자서 결정하는 것을 싫어한다; 결정을 지연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피한다(-.42, -.41)

자기 방어적이다(-.33,-.34)

실제의 혹은 가상의 위협이나 두려운 상황에 약하다(-.32, -.29)

940명의 샘플들을 관한한 관찰자들은 그들을 적극적이고, 순종적이지 않으며,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고, 수다스러우며, 행동을 즉각적으로 수행하거나, 조언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두려움에 자기 방어적이거나 나약하지 않은 것으로 관찰하였다.

504명의 남자와 379명의 여자들을 묘사한 인터뷰어들을 통해 4개의 항목들이 Do 척도와 가장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며, 4개가 가장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그 행동들은 다음과 같다;

드물게 자기 자신감이 넘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행동할 것으로 느껴진다(남성은 .27 여성은 .24)

좋은 인상을 준다; 뛰어난 대인관계 기술을 가졌다(.24, .20)

다양하고 적절한 단어를 사용한다(.14 .23)

유머감각이 있고, 활발하며, 대화를 이끄는 재미있는 사람이다(.16 .26)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22, -.24)

걱정과 근심이 많다(-.18, -.20)

과묵하고 말수가 적다(-.19, -.14)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16 ,-.20)

Do 척도가 높은 인터뷰 대상자들은 그들의 인터뷰어를 자신감 넘치고, 말을 유창하게 하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대인관계 Q-sort 공식을 위해 200명의 커플과 111명이 평가되었고, 가장 긍정적인,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Do 척도 3가지 행동들이 다음에 나와 있다. 첫 번째 행동의 상관계수는 200명의 남자가 그들의 아내나 파트터들을 묘사했으며, 두 번째로 상관계수가 높은 행동은 200명의여성들이 그들의 남편이나 파트너를 묘사한 것이다. 3번째 행동은 111명의 남성이 3명의 관찰자들을 평가한 결과이다.

단호하고 자신감 있다(.22,.24.43)

진취력 있고, 활동적이다;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즐긴다(.23,.23,.30)

뛰어난 리더이며; 반응을 이끌어내고 다른 사람들과 잘 협력할 줄 안다(.35,.23,.43)

사회성이 없고, 어색해하며,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20,.-.28,.-.52)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하며, 자신감이 없다(-.19,.-22.,-.46)

쉽게 당항하고, 열등감이 있다 (-.16.,-.25.,-.40)

위 행동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Do 척도가 높은 사람은 자심감이 있고, 열정적이며, 단호하고, 수다스러우며, 업무 중심적이고, 활동적이고, 진취력 있고, 설득력 있다.

그들의 지배성향은 친사회적이고, 다른 사람의 부와 공동의 목표달성 추구를 우선으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오만하거나, 자기중심적이지 않다. 타인들은 이런 사람들의 리더십과 능력을 받아들이고 이런 리더들의 충고와 지시를 받아들인다. 이와 반대로 Do 척도가 낮은 사람은 과묵하고, 자신을 불신하며, 순종적이고, 열정이 없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어색해하고, 쉽게 당황하며, 자기 방어적이고, 걱정이 많다. Do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들의 성향을 관리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될까?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업무환경, 특히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높은 점수를 보인다(원점수 합계가 34-36). 지배하려고 하며, 통제하려는 행동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가능성은 만약 특정 다른 점수가 낮으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Re 혹은 To 점수가 낮다면. 이에 대한 훌륭한 사례를 McAllister(1996)나 Meyer & Davis(1992)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CS Scale 지위상승 욕구**

CS 척도는 본래 개인이 자신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높은 지위에 가치를 두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척도는 처음에 고등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족 수입, 학력 그리고 거주형태를 평가 척도로 사용하였다. 나중에 척도들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유동적으로 변화하였고, 어른 집단의 지위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 척도에 대해 다시 정의하게 되었는데 지위의 달성이나 그 위치보다는 야망의 질에 대한 측정, 자기 확신 그리고 낙천주의가 지위를 이끄는 원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56년의 CPI에서 가져온 480 버전에서는 Cs 척도가 3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었다. 1986년의 462 버전에서는 28개의 항목으로 항목들이 감소되었다. 현재의 434 버전에서는 Cs 척도가 2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항목이 기존의 462 버전과 다르다. Cs 척도의 462 버전과 434 버전의 상관관계는 .98이며, 3,000명의 샘플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Interitem matrix가 총 6,000개의 샘플에서 실행되었고, 그 후에 요인분석을 하였다.

아이엔 값 1.00보다 높은 값에서 7개의 항목으로 나뉘었다. 이 중 4개의 항목은 카이저의 베리맥스 방법을 사용하여 회전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침착하고 자기 확ㅇㄴ을 나타내는 항목들이다. 예를들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할 거리를 찾는 것은 힘들다(거짓)”, “나는 공식적인 파티에 있으면, 불편하고 신경이 예민해 진다(거짓)”. 두 번째 요인은 심미적이고 문화적인 흥미가 있는 척 하는 행동으로 “나는 오페라에서 훌륭한 가수가 하는 노래를 듣고 싶어한다(진실)”, “나는 라디오에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진실)”. 두 번째 요인의 흥미로운 요인 중에 하나는 “나는 비싼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한다”. 요인 3은 일상생활에서의 낙천적인 정도와 자기 자신감을 나타내는 척도로 예를 들어, “미래는 너무 불확실해서 사람들은 진지하게 계획을 세운다(거짓)”, “나는 실내에 있으면 불편하다(거짓)”. 네 번째 요인은 지위와 성공에 대한 이점을 인식하는 정도로,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더 부유한 경우가 많다(거짓)”, ”나는 똑똑하지만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보다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거짓)”. 각각의 자기 보고서에는 Cs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고, 자기 확신이 있으며,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데 있어서 낙천적이고, 넓은 분야에 관심이 있으며, 돈과 지위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분석 결과 Cs 척도와 긍정적인,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각각의 5가지 행동들이 다음에 나열되어 있다. 177명의 사람들로 부터 얻은 결과이다.

-매력있고, 새로운 사람과 현명한 대화를 이어간다(.27)

-파티에서 낯선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다(.29)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긴 대화를 이어간다(.28)

-파티에서 위트 있는 농담을 한다(.29)

-파티를 기획하는 것을 주도한다(.27)

-다른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에만 대화 중간에 끼어든다(-.19)

-다른 사람을 비밀스럽게 만난다(-.17)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도록 내버려 둔다(-.16)

-친구가 들었기 때문에 같은 수업을 수강한다(-.15)

-내 자신을 스스로 속하기 보다는 소개되어질 때 까지 기다린다(-.16)

이 행동들은 CS 척도가 높은 사람들의 행동들로,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수다스러우면서, 나서길 좋아하고 재치가 있다. Cs 척도가 낮은 사람들은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며, 의견이나 소원 등을 남에게 양보한다.

부록 A에 있는 데이터들은 Cs 척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같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1,514명의 남학생들 중 그 상관관계가 .30 이였고, 1,799명의 여학생들 중에는 상관관계가 .31 이였다. 93명의 남성과 111명의 여성 샘플에서 Cs 척도는 16PF 요인 H와의 상관관계가 모험심과 배짱에서 각각.52 와 .54로 나타났다. Factor O(불안함과 자신감 없는)와의 상관관계는 각각 -.36 과 -.47 이였다. 112명의 남성과 122명의 여성들의 샘플에서 Cs는 NEO의 O요인(개방성)과는 상관관계가 각각 .32와 .38로 나타났다.

표 5.2는 관찰자에 의해 묘사된 6개의 샘플들에 대한 CS 척도에서 가장 긍정적인,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12개의 형용사들이 나타나있다. Cs 점수가 높은 사람은 야심있고, 똑똑하며, 활동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며, 세련되고 교양이 있다. Cs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조심스러우며,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조용하며 내향적이다. 동료들에 의해 묘사된 샘플(N=386)과 일반직원에 의해 묘사된 샘플(N=970)들을 합쳐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 200개 형용사들이 나왔다. 형용사들은 각각의 subsample 아래 시그마 10 중에 평균 50으로 표준화되었다. 총 1,356명의 샘플 중에서 8개의 형용사와 그 베타값들이 Cs 점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들로 나타났고, 가장 대표적이거나 대표적이지 않은 형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열정적인(17), 느긋한(.12), 그리고 재주가 있는(.11) 등은 대표적인 단어들이다. 그리고 만족하는(-.11), 흥미가 적은(-.12), 부끄러움타는(-.23), 강한(-.12) 그리고 의심 많은(-.07) 등을 대표적이지 않은 것들이다. Multiple R 값은 .41이였다.

캘리포니아 Q-set의 4가지 항목들이 Cs 척도와 갖는 가장 긍적적이고 부정적인 단어들은 547명의 남성과 393명의 여성 샘플로 부터 얻은 결과이며 다음과 같다. 각각의 피평가자들은 Q-sort에 따라서 5명 혹은 더 많은 판정단들에 의해 행동이 묘사되어졌고, 각각의 독립적인 공식들이 구성되어 배열되었다. 100개의 항목들 중에 현저함이 높은 것들끼리 9부터 1까지 점수가 매겨졌다.

진지하게 지적이고 인격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남성은 .21 여성은 .29)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다(.23, .33)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망이 높다(.29,.30)

사회적 태도와 존재감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쉽다(.26, .29)

불확실하고 복잡한 것이 불편하다(-.22, -.31)

좌절이나 어려움과 직면 했을 때 포기한다(-.21, -.31)

자기 방어적이다(-.30, -.28)

인생에서 자신이 희생양이였고 속았다는 자기 연민에 빠져있다(-.21 -.23)

Cs 점수가 높은 피평가자들은 사회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고,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지적인 문제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Cs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며, 불확실성에 익숙지 않으며, 실패했을 때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다.

99개 항목의 체크리스트에 대한 평가자들의 평가를 분석한 결과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부정적인 항목들이 아래와 같이 선택되어졌다. 504명의 남성과 379명의 여성들로부터 얻은 각각의 항목들의 Cs 상관관계가 져 있다.

재치있고 활기차며, 즐거운 대회 목록이 있다(.18, .26)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19 .29)

대단히 자신감이 넘치며, 모든 상황에 잘 적응한다(.20 .18)

좋은 인상을 남기며, 뛰어난 대인관계 기술을 가지고 있다(.19 .28)

활동적인 것에 어색하고, 어설프다(-.19 -.12)

행동이 느리다(-.13 -.23)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어렵다(-16 -.22)

문법이나 단어 사용에 실수가 많다 (-.19 -.18)

인터뷰 상황에서 Cs 점수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자. Cs 점수가 높은 사람은 기만하고, 재치 있으며, 활기차고 그들이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으며, 그들의 삶에 대해서 좋은 것들만 이야기 한다. Cs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어색해하고, 말을 더듬으며 매력이 없고, 언어 사용이 매끄럽지 못하다.

대인관계 Q-sort의 50개의 항목과 Cs 척도와의 상관관계가 아내나 파트너가 묘사한 200명의 남성들과 남편이나 파트너가 묘사한 200명의 여성들로부터 얻었으며 111명의 피평가자들이 3명 패널들에 의해 각각 묘사되었다. 가장 긍정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항목들이 아래와 같이 선택되었고, 그들의 상관관계가 나와 있다.

기획력 있고, 활동적이며, 사회적 참여를 즐긴다(.17 .18 .36)

독립적이고, 이적이며, 자기 자신을 믿고, 성취에 가치를 둔다(.19 .23 .21)

말을 유창하게 하며,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잘 표현할 줄 안다(.26 .30 .36)

따분하며,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13 -.17 -.27)

야망이 없고, 생각과 행동이 평범하고 관습적이다(-.09 -.36 -.31)

요약하면 Cs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말을 유창하게하고, 유머가 있고, 야망이 있으며, 박식하며, 인생에 대한 낙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점수가 아주 높은 사람들은(26-28점) 자기만족, 권리의식, 중산층에 대한 개념이 무감각하며 도덕적 가치와 기준이 없다(만약 내가 옳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윤리적인 것이다). Cs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함축하면 부적절성,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언어능력이 떨어지며, 어려움이나 고난에 부딪치면 쉽게 포기한다.

**Sy(사교성) 척도**

처음에 이 척도가 개발되었을 때 ‘사회적 참여 척도’라고 불렸었다. 왜냐하면 이 항목들이 개인이 참여한 서로 다른 행동들이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심리학적 목적은 사람들의 활동성, 참여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었고, 어떤 사람이 사회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고 해결책을 찾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CPI 480에서 Sy 척도는 3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었다. 462 Form 에서는 32개로 줄었다. 434 Form에서는 32개의 항목이었고, 1개의 항목이 삭제되었다. 남성 3,000명 여성 3,000명의 표본 샘플에서 462 Form과 434 Form 간의 상관관계는 .99 였다.

6,000명의 표본 샘플로부터 interitem matrix를 이용하여 얻은 요인분석결과 아이겐 벨류 1.00 혹은 그 이상의 값에서 항목이 8개로 나눠졌다. 4개의 항목은 카이져의 베리멕스분석에 의해 회전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1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가장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사회적 상황에서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고 확신에 차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항목들이다.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나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거짓), “집단 속에 있는데 나느 말해야할 적당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거짓), “나는 훌륭한 mixer 이다(진실)”.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 기능에 대한 즐거움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나는 사람들과 있는 것이 좋아서 모임 같은 것을 즐긴다(진실)”, “ 나는 춤추러 가는 것을 좋아한다(진실)”. 요인 3은 자신감을 나타내는 6개의 행동들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나는 내 주변의 그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 것같다”(진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리더가 될 것이다(진실)”. 요인 4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7개의 항목들로 구성되었으며, 예를 들면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은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진실)” ,” 나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한다(진실)”

177명의 사람들이 배우자나 파트너들에 의해 행동의 빈도를 3달 동안 평가받았다. 가장 높은 긍정적인 상관관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5가지 행동들이 다음에 나와 있다.

파티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한다(.39)

지루한 파티에 활기를 의우는 것을 주도한다(.36)

모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32)

저녁모임을 주선한다(.29)

파티에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TV를 본다(-.24)

다른 사람이 말을 걸때만 말을 한다(-.26)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기 싫을 때는 ‘모른다’고 대답한다(-.26)

하루 종일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지낸다(-.21)

개인적인 질문에 단답식으로 대답한다(-.25)

Sy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파티를 즐기며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만약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활기를 의우는 것을 주도하고 주목 받는 것을 좋아한다. Sy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최소한의 답변만 하며, 때로는 한마디 대화도 없이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이 모든 행동들은 사회성과 모두 연관성이 있다.

표 5.3은 Sy 척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24개의 형용사들이다. 6개의 다른 샘플들에서 추출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Sy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기획적이고 열정적이며 수다스럽다. 또 다른 항목으로는 자신감과 낙천성이 있다. 초기의 성향은 행동의 빈도수에서 모험심이 강하고 선두하는 형영사들의 빈도가 많아짐을 발견할 수 있다.

Sy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조심스럽고, 소극적이며, 부끄러움을 타며, 조용하다. 흥미를 가지는 분야가 제한되어 있고, 열정이 없다.

1,356개의 샘플들로부터 얻은 200개의 가장 자주 발견되는 형용사들에 대한 빈도분석결과 8개의 단어들을 발견하였고, 그들의 다중상관관계는 .43였다. 양적 베타 값을 가지는 단어들에는 야망있고, 기회주의적이며, 사회적이다. 부적 베타 값을 가지는 단어들로는 복잡한, 솔직한, 흥미가 적은, 공들인, 그리고 부끄러운 등이다. ‘야망이 있는’과 ‘기회주의적인’은 다음 사례에 나올 실제 업무 환경에서는 적용하기 흥미로운 단어 중에 하나이다.

American Telephone and Telegraph 회사의 Jacobs(1992)는 229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관리자 개발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다. 초기에 이 직원들을 고용했을 때의 CPI와 평가항목은 근무경력이 7년 혹은 이보다 더 오래된 중간 관리자들의 승진여부였다. CPI 척도 상에서 Sy 척도는 더미항목으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계수가 126명의 남성들에선 .33 이였고 103명의 여성들에선 .31이였다. At&T 기업문화에서는 높은 Sy 척도 점수가 좋은 성과와 승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547명의 남성과 393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묘사한 캘리포니아 Q-set, 각각의 사람들은 5명 혹은 그 이상의 관찰자들로부터 독립적으로 평가되었고 전체 점수를 합산하였다. 100개의 Q-set 항목들은 Sy 척도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4개의 정적상관관 부적 상관을 보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수다스러운 사람이다(.27 남성, .32는 여성)

유머를 주도한다(.26, .28)

사교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32, .35)

사회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30, .35)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동을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피한다(-.23 -.29)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가까운 대인관계는 피한다(-.31 -.29)

자기 방어적이다(-.32 \_.32)

심사숙고하고 집요하며 골몰하는 편이다(-.25 -.30)

Sy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남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수다스러우며, 사회적 행동을 하고, 유머를 주도한다.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자기 방어적이고, 심사숙고하며, 나서지 않으며, 가까운 대인관계를 맺는 것을 피한다.

504명의 남성과 379명의 여성들의 행동을 묘사한 인터뷰어들을 통해 얻은 가장 높은 정적상관관계와 부적상관관계를 보이는 4가지 행동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재치 있고, 활기차며, 흥미로운 대화를 이끈다(.15 남자, .29는 여자)

초롱초롱한 ‘개방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다(.11, .18)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뛰어난 대인관계 기술을 가지고 있다(.18, .24)

갈등이나 다른 종류의 불안 등에 대해 신경이 예민하지 않은 편이다 (.11, .18)

말을 잘 하지 않고 무뚝뚝하다, 과묵하다(-.10, -.20)

인터뷰 동안 예민하고 아팠다(-.13, -.11)

걱정과 문제가 많다 (-.17, -.23)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많다 (-.14, -.17)

Sy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활기차고 인터뷰에 대답을 잘하며, 좋은 인상을 심어줬고 신경적인 문제가 걱정에 대해 예민하지 않은 편이였다. Sy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말이 없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며, 인터뷰 중간에 아프기도 하고, 많은 걱정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50개의 대인관계 Q-sort 항목들이 3개의 다른 샘플에서 사용되어졌는데, 3개의 가장 높은 정적,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행동들이 아래에 나와 있다. 상관관계 지수가 200명의 남자, 200명의 여자 순으로 나와 있다. 각각의 샘플들의 그들의 남편이나 아내들에 의해 묘사된 행동들을 대상으로 111명의 남성 피평가자들은 3명의 관찰자들에 의해 행동이 묘사되어진 상관계수가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다.

열정적이고, 모든 상황에서 성공하고자 한다(.38, .30 .41)

진취력 있고, 활동적이며, 사회적인 활동을 즐긴다(.14, .15,.29)

훌륭한 리더이며,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협력을 잘 이끌어 낸다(.16, .20 .21)

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우며 부끄러움을 타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린다(-.31 -.27 -.43)

잘난 체하지 않고, 내성적이며, 소극적이고 행동이 단조롭다(-.12 -.21 -.39)

쉽게 당황하고, 열등감 행동의 부적절성 등을 느낀다.

Sy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활동적이고, 열정 있고,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어색하며, 잘 아프며, 단조롭다.

종합하면, Sy 척도는 그 사람의 쾌활한 사회성을 측정하는 척도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며, 진취적이다. Sy 점수가 높은 사람은 야망이 넘치고, 일을 잘 하며, 어느 곳에서든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지 않고, 신경증적인 집착, 자멸적인 성향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성향은 Sy 점수가 아주 높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사회성 정도가 어느 수준에서는 지나치거나, 부담스럽다거나 신경증에 걸린 사람 같진 않다는 것이다. Sy 점수가 평균 수준인 사람은 부끄러움을 잘 타고, 소심하며, 심사숙고하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며, 관심사의 범위가 좁으며, 사회적인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한다.

**SP 척도 (사회적 존재감)**

SP 척도는 프로파일 시트에서 첫 번째 척도 중에 4 번째에 해당하며, 포즈, 자기 확신 그리고 대인관계 스타일 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여기에 속한 7가지 척도는 사실 개인의 대인관계적 효율성 측면을 나타내는 것들이다. SP 척도에서 특히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자발적임, 활기, 융통성 그리고 사회적 질서에 순응하는 정도 등이다. SP 척도 개발과 관련된 어떠한 체계적인 설명이 있는 책이 발간된 것은 없기 때문에, 이 척도에 관련한 중요한 세부사항들은 모두 여기에 기술되어 있다. CPI 프로파일 시트의 첫 번째 버전에서는, 대인관계적 측면을 측정할 항목들이 3개뿐이었다. Do, Cs 그리고 Sy. 점차 개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항목에 대한 더 추가적인 측면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 졌다. Form 480이 나왔을 때, 프로파일 시트의 ssector 1 이 5개로 늘었다. Sp 척도와 Sa 척도가 추가되었다.

Sp는 내적 타당도 방법을 통해 개발되었다. 최초의 CPI 항목들은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기 자신감

1956년에 Form 480이 발간되었을 때 Sp 척도는 56개의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1986년에 개발된 Form 462를 준비하기 위해 56개의 항목들은 내적 관계와 내적관계와의 총 점수간의 관계 두 가지 모두가 분석되었고, 그리고 측정되지 않은 항목들 예를 들면 사회적 존재에 대한 스태프(staff)들의 평가와 사회적 포즈(poise) 그리고 확신들에 대한 관계도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결국 18개의 항목들을 탈락시켰고, Sp척도의 38 항목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현재의 Form 434의 SP 척도는 38개의 항목들로 구성되었으며, 2개가 그 이전의 버전들과는 다르다. 이 2개의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는 남성 그리고 여성 샘플들 모두에서 .98로 나타났다.

Sp 척도의 38개 항목들에 대해 6,000개의 표본을 통해 얻은 요인분석 결과 10개의 요인들로 아이겐 밸류 값이 1.00 혹은 그 이상에서 나타났다. 첫 번째 4개의 항목들은 카이져의 베리맥스 분석에 의한 회전방법으로 결과를 얻었다. 첫 번째 회전 요인은 1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공통요인이 자기자신감과 자기확신이었다. 예를 들면 “나는 내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똑똑하고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진실), “나는 자신감이 없는 편이다(거짓)”, “나는 공식적인 댄스나 파티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즐기지 않는다”(거짓). 2요인은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공통요인은 자기 확신과 주목하길 좋아한다로 구성된다. 예를들면, “나는 기회가 된다면 남들에게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진실), ”나는 주목의 대상이 되고 싶다“(진실), ”때때로 나는 종종 규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것을 즐긴다“(진실). 요인 3은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즐거움을 추구하는 척 행동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나는 항상 규칙을 잘 지킨다: 즐거움 보다는 일이 우선이다”(거짓), “나는 어떤 어려운 일 뒤에 얻은 휴식이나 방학이 아니면 진정으로 즐길 수 없다”(거짓). 요인 4는 2개의 요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나는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는 파티나 다른 행사들을 좋아한다”(진실), ”나는 소리가 크고 시끄러운 파티를 좋아한다“(진실).

부록 B는 52명의 남성과 42명의 여성 샘플들로 부터 얻은 결과이다. Sp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4가지와 가장 낮은 4가지 샘플들에 대한 평균값이 다음과 같다:

여성샘플

라즈니스푸람(rajneeshpuram) 거주자들 29

교육학 전공자 28.06

MBA 졸업예정자들 28.00

마취과의사 28.00

Faking Bad 15.54

정신의학 환자들 19.47

감옥 수감자들 21.06

비행청소년들 22.39

남성샘플

라즈니스푸람 거주자들 29.24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들 29.05

MBA 졸업예정자들 29.03

의예과 학생들 28.91

Faking Bad 15.30

정신의학 환자들 20.56

Members of club for inventors 22.79

Training School inmates 23.36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사람들은 “fake bad”에 물어본 샘플이였다. 여성의 경우에는 나머지 3개의 샘플들은 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남성샘플의 경우 3개의 가장 낮은 샘플들 중 2개는 문제점에 따라 조정되었다. 남아있는 남성 샘플은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inventions”에 대해 주말에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비공식적인 관찰이 이뤄졌는데, 그들은 은둔적이고 일반적인 문화에 대해서 그들 자신이 미미하고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높은 점수를 보인 샘플들은 라즈니스푸람 거주자들, MBA 졸업예정자들 교육학 전공자들 그리고 마취과의사들(여성) 그리고 심리학 대학원생 학생들, 의예과 전공남성들 등이였다. 점수가 높은 샘플들 사이에는 인지할 수 있는 주제 중의 하나가 독립적인 의사결정, 규범적인 관습 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변이성 등이다. 다른 주제로는 아이디어에 대한 흥미, 그리고 인지적인 추구 등이다.

다른 검사들과 SP 척도들간의 상관관계는 부록 C에 나와 있으며, 여기서 설명되어질 것이다. 55명의 남성과 51명의 여성들에서 Comerey의 감정 안정성 척도 계수가 각각 .46과 .44 였다. Comerey 척도의 외향성 척도는 .71과 .57 이였다. Sp 또한 NEO 외향성 척도와 상관관계가 각각 .56 그리고 .58 dlduTrh, maudsley 성격 척도 외향성 척도와는 상관관계가 각각 .68과 .50 이였다. 옴니버스 성격 척도의 Nonintellectual disposition 은 Sp 척도와의 상관관계가 남성은 -.45, 여성은 -.51이였다. 잭슨 성격 리서치 Form, 의 Exhibition은 Sp와의 상관관계가 .49(남성), .67(여성) 이였다. Millon의 Clinical Multiacial inventory와 Sp 와의 상관관계는 남성은 .60 여성은 .69 였다. 마지막으로 Zuckerman의 sensation seeking 척도와 Sp 척도와의 상관관계는 남성은 .64, 여성은 .60 이였다. 이 상관관계 결과들에는 일정 패턴이 보이는데, 활기넘침, 자기 멋대로임,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험적인 성향 등이다.

Sp 척도와 관련된 특정 행동들은 다음에 기술되어 있다. 이 행동들은 177명의 샘플(88명의 남성, 89명의 여성)등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 각각 행동들과 Sp 척도와의 상관관계 또한 기술되어 있다.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행동들이 먼저 나열되어 있으며, 가장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행동들이 그 다음에 나열되어 있다.

파티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한다 (.44)

파티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 한다(.38)

파티에서 춤을 춘다(.35)

지루한 파티를 띄우는 것을 주도한다(.34)

긴장된 상황에서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띄운다(.31)

말을 걸었을때만 말을 한다(-.18)

질문을 하지 않고 종교저ㄱ인 지도자의 지시에 따른다(-.21)

Walk with face to the ground (-.16)

하루종일 집에만 있는다 (-.16)

머리를 숙인체 파티에 입장한다(-.16)

5개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행동 중에서 4개는 파티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고, 나머지 3개 행동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다. Sp 척도 점수가 높은 사람들 즐거운음 추구하며 활동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재치로 긴장을 해소시킨다. Sp 척도가 낮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도해야하는 상황을 피하며, 종교적 지도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한다. 표 5.4는 Sp 척도와 가장 긍적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12개의 형용사와 가장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12개의 형용사가 나열되어 있다. 6새의 샘플들로부터 얻었으며 CPI 척도가 관찰자들에 의해 묘사되었다. 형용사의 한 ㄱㅏ지 묶음은 명석함, 유머, 넓은 흥미등이다. 다른 묶음은 자기자신감과 poise를 나타낸다. 3번째 묶음은 자발성과 융통성이다. Sp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표현을 잘하며, 이야기를 잘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며, 많은 것들에 관심이 많다.

SP척도가 낮은 사람들은 바보같이 보여지며, 감정표현을 꺼리며, 흥미를 갖는 범위가 좋으며, 조심스럽고 보수적이다. 많은 말을 하지 않으며, 참을성이 있고 사회적으로 뜻하지 않은 상황에 맞닥들이는 것을 피한다.

1356명의 샘플들로 부터 ACL에 대해 관찰한 결과 회귀분석 결과 Sp 척도가 200개의 형용사들로 추청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형용사적 묘사가 194명의 대학생 남성, 192명의 대학생 여성들로 부터 표준화 되엇으며, 612명이 남성을 평가하였고, 358명이 여성들을 평가하였다. 8개의 형용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Sp 척도와의 상관관계는 .41이였다. 문제는 프로그램이 독단적으로 8단계 후에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베타 값을 나타낸 형영사들은 ,에너지넘치고, 자기자심감, 그리고 다재다능하다 였다; 부정적인 베타값을 가진 형용사들은 복잡하고, 강압적이며, 흥미가 좁고, 공들이며(painstaking)그리고 부끄러움이 많다.

캘리포니아 Q set와 가장 높은 양적 상관관계를 보인 4개의 항목과 가장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4개의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다. 547명의 남성과 393명의 여성샘플로부터 얻은 샘플들이 각각 5명 혹은 그보다 더 많은 관찰자 패널에 의해 평가되어 졌다.

사회적 poise 와 존재감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쉽게 드러난다(남성은 .29 여성은 .29)

창의적으며 사회적 기술이 뛰어나고 유머러스하다 (남성은 .25 여성은 .26)

유머를 주도한다(남성은 .25 여성은 .24)

서로 다른 상황을 성적인 용어나 에로틱한 상황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남성은 .25 여성은 .24)

욕구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며, 지나치게 긴장하고, 불필요하게 만족감을 지연시킨다(-.26 , -.29)

자기 방어적이다 (-.24, -.30)

순수하게 순종적이고, 지배를 편하게 받아들인다(-.23, -.34)

죄책감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다)-.22, -.26)

Q 척도의 새로운 경향 중에 하나는 많은 상황을 성적인 상활으로 인지한다는 것이고, 죄책감을 최소한으로 느낀다는 것이다. 높은 점수는 social poise를 함축하며, 유모스럽고, 창의적인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낮은 점수는 통제력이 없고, 자기 방어적이며, 순종적임을 의미한다. 개별적 케이스 스터디 결과에 따르며, 위트와 유머 점수가 높으면 종종 공격적이기 쉽고,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무시 당하거나 그들의 행동에 의해 당황스러움을 트쪘을때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폄하하기 쉽다.

Sp와 관련된 특정들은 504명의 남성과 379명의 여성 샘플들의 인생 인터뷰를 통해서 얻었으며, 아래의 4개의 항목들이 가장 높은 양적상관관과례를 보이는 것들과 가장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행동들이다.

위트있고, 활동적이며, 흥미있는대화를 이끄는 사람이다(남자는 .15 여자는 .27)

평소와 다르게 자신감이 넘치고, 어떠한 상황에도 잘 맞출 수 있다(.23 남성, .17은 여성)

좋은 인상을 남기며, 뛰어난 대인관계 기술을 가지고 있다(.15 남성, .18 여성)

신경증적 증상이나 다른 형태의 불안정성, 갈등등이 거의 없다(.14 남성, .23 여성)

많은 걱정과 문제를 안고 있다 (-.20 남성 -.26 여성)

인터뷰동안 예민하고 쉽게 지쳤다(-.15 남성, -.14 여성)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있다(-.17, -.22)

강한 종교적인 믿음이 있다(-1.7 남성, -.27 여성)

Sp 척도가 높은 사람은 신경증적 걱정에서 자유로운 반면, Sp 점수가 낮은 사람은 많은 걱정과 문제를 갖고 있다. Sp 점수가 높은 사람은 평소와 다르게 자신감이 넘치는 반면, 점수가 낮은 사람은 그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심이 없고 의심이 많다.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인터뷰어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반면,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인터뷰 내내 긴장하고 쉽게 지쳐 보였다.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유머가 넘치며, 활기차고 이야기를 재밌게 한다. 점수가 넞은 사람들은 그들의 강한 종교적인 믿음에 대해 이야기 한다.

대인관계적 Q-sort에 따르면 Sp 척도와 가장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3개의 항목과 가정 부적상관관계를 보이는 3개의 항목들 (200명의 여성과 남성 그리고 그들의 배우나 혹은 파트너들로 부터 얻은 결과)이 다음에 나열되어 있다. 111명의 남성들은 3명의 평가자들에 대해 다음에 나열된 행동들에 대해 평가되었다.

진취력 있고, 활동적이며, 새회적 참여를 즐긴다(.31, .28, .40)

명석하며, 창의적이고, 자발적이며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다(.18, .19, .31)

말하기가 유창하고, 자기자신에 대해 명확하고 쉽게 표현한다(.17, .26, .26(

바보같고, 능력과 이해력이 부족하다(-.19, -.19, -.19)

사회적으로 부적응하며, 부끄러움을 많이타고, 다른사람들속에서 잘 드러내지 않는다(-.20, -.35, -.40)

통상적인 업무를 고집하며,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해 걱정한다(-.19 -.24, -.19)

요약하면, SP 척도가 높은 사람은 수다스럽고, 똑똑하며, 자발적이고, 즐거움을 투구하며, 제멋대로이며, 쾌락을추구하고, 현명하며, 창의적이고, 자기확신이 있으며, 독립적이다.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많은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걱정이 많으며, 자기 방어적이고, 수동적이며, 쉽게 포기하고, 죄책감과 자기 비난을 잘 하는 경향이 있다.

**SA (자기-수용) 척도**

Sa 척도는 개발 초기엔 개인의 가치, 성취도 그리고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내적 타당도 기술이 사용되었는데, 이런 척도들 (개인의 가치, 성취도, 자존감) 등과 관련된 항목들이 나열된 것으로 시작해 그 항목들간의 상관관계와 총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이 세가지 개념들과 가장 일치하는 항목들을 측정한다. 1956년도의 Form 480 CPI 버전에서는 Sa 척도가 34개의 항목들로 이뤄져있다. 1986년도 Form 462에는 항목들이 28개로 줄었는데 측정도구의 개념과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외적 혹은 측정불가능한 항목들 4개가 제거되었다. 현재 사용되는 Form 434 버젼 또한 Sa 척도가 2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Form 462와는 3가지 항목이 수정되었다. 이러한 변경은 Form 462에서 28개의 항목들을 제거 하면서 생긴 불가피한 것이였다. 남성과 여성의 2가지 표준 샘플로 부터 측정한 Form 434 의 현재와 이전 버전간의 상관관계가 .96이였다.

6000명의 샘플로 부터 얻은 28개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아이겐 벨류가 1.00 혹은 이상의 값을 보이는 7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카이져 베리맥스 에의한 요인회전으로 처음의 4개의 요인들이 묶였다. 첫 번째 요인의 10가지 항목들은 다른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안정감과 자신감으로 항목들이 묶였다. 예를들어, “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이야기 할 꺼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 (False),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 (false)”, 그리고 “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어렵다 (“false”).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두 번째 요인은 자기 섬김 그리고 자기 중심적 행동을 시인 하려는 경향성과 관련되었다. 예를 들면, “ 가끔 나는 의도치 않게 규율을 어기거나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즐길 때가 있다 (true)”,”나는종종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일 했을 때 반드시 시인해야만 한다 (true)”. 세 번째 요인은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긍정정인 자기 평가와 관련된 것들이다. 예를들면, “나는 학창시절 학습이 느렸다 (false)”, 그리고 “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기질을 가지고 있다 (True)”. 네 번째 요인은 모험심이나 특이한 경험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는데, 예를들어, “나는 스페인의 투우를 보고 싶다” (true), “ 나는 파티에서 다른 그 누구가 됐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 (false)”.

Sa 척도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자좀감과과 관련된 항목들의 높은 점수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회복될 수 있냐는 것이다. Hogan 과 Mankin (1970)의 초기 연구에서 총 34명의 남자 대학생들은 매번 3명 혹은 4명으로 구성된 75분짜리 미팅에 참여했는데,각각의 남성들은 7점 척도로 나머지 33명의 남성들에 대한 일반적인 호감도에 대해 평가했다; 이 점수를 합산하여 34명에 대한 평균을 내었고, CPI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Sa 척도에 대한 상관계수는 .32 였다. 하지만 호감도 평가가 가장 극단적은 2개의 샘플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상관계수는 .53으로 증가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통해 대학생 남성들간의 Sa 점수는 인지된 호감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다른 문제는 자기 수용척도가 외적매력도와 관련있는 자기평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455명의 대학생들을 상대로한 연구(Montgomery & Mathis, 1992) 에서 311명의 남성과 144명의 여성을 상태로 자신의 외적 매력도에 대한 자기 점수릴 10점척도 점수로 평가해보라고 하였다. Sa 척도와 자기 평가된 외적 매력도간의 상관관계는 .22 였다.

세 번째 연구는 기존에 Sa 척도가 중점을 뒀던 점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이라는 측면에 대한 연구이다. Taub & Hawkins ,1979의 연구에서는 18명의 대학생 남성들의 정기적인 잠버릇과 불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기록하였다. 불규칙적인 수면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잠에드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고, 매일 밤 잠에 드는 시간이 제각각이였다. 그러나 그들은 잠이 드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규칙적으로 잠에 드는 사람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며,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평균 7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다. 표준 점수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28개의 Sa 항목 모두 원점수와 동일한 점수로 변환하면 평균값이 규칙적으로 잠에 드는 사람은21.55, 불규칙적으로 잠에드는 사람은 16.42였다. 5.13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point –biserial 산관관계 계수 .64로 설명되어 진다. 이 를 통해 알 수 있는 시사점 중의 하나는 Sa 점수가 높은 사람은 그들의 심리학적인 변화를 잘 관리한다는 것이며,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에 여유가 있고, 자아를 높이고, 이를 추구하는데 더 잘 보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록 B를 보면, 52명의 남성과 42명의 여성들로부터 얻은 표준 데이터가 나와있으며, 성별로 Sa 평균이 가징 높거나 가장 낮은 샘플들의 집단이 나타나 있다

여성샘플

MBA 졸업예정자들 20.02

의예과 학생들 19.67

소설가 19.58

법대생 19.17

Faking Bad 11.14

정신과 환자 14.39

고등학생들 14.95

수감자들 15.05

남성샘플

상담심리학 전공 학생들 20.07

MBA 학생들 19.92

의예과 학생들 19.89

가석방, 보호관찰 중인 경찰관들 19.78

Faking bad 12.48

정신과 환자들 14.39

고등학생들 15.21

비행청소년들 15.28

여성의 경우, 4개 중 3개의 높은 항목들에서 대부분 권위있는 전문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이엿으며, 4번째로 높은 집단은 고아고회사나, 잡지 혹은 언로사에 종사하는 작가들이였다. 3개의 가장 낮은 샘플들은 대부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여성들이거나,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였다. 다른 샘플은 고등학생들이 였는데, 이를 통해서 양면가치, 자기 의심 그리고 정체성 문제 등이 이 나이대 젊은 학생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남성샘플 중에서 4개 중에 3개의 가장 높은 집단들도 전문적인 경력을 쌓기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이였다. 그들의 인생에서 지금 단계는 진행중이거나 현재준비중인 경력에 대한 보상을 목푶로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사람들이다. 4번째 집단은 가석방 혹은 보호관찰중인 경찰딥단이다. 이 직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흔한 선입견 중에 하나는 독재적인 태도, 개인적인 융통성이 없으며, 좌절에 대한 내공이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집단 사람들의 높은 Sa 점수는 처벌적이라기 보다 치료적인 의미를 가지며, 그들의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충족감등을 의미한다. 남성 샘플에서 Sa 척도가 가장 낮은 집단은 사기단(fake bad), 정신과 환자들, 일반적인 고등학생들, 그리고 비행 청소년들 이였다.

부록 C를 보면, CPI 척도와 다른 다양한 척도들과의 상관관계가 나열되어 있으며, Sa 척도와 가장 강한 관계를 보이는 순서대로 나와있다. 남성이 먼저 나와있고, 그 다음에 여서이 나온다. 첫번째 항목은 외향성과 사회성인데, 예를들면, Comrey 성격 척도의 외향성(.51, .61) NEO-AC 의 외향성 (.45, .62), Maudsley 성격척도의 외향성(.55, .47)과 MMPI의 사회성 이 (-.63, -.69)이다.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와 지배력이 있는 존재 등은 Guilford-Aimmerman Temperament 서베이(.53, .63)와 성격 리서치 form 의 지배성(.57,.75) 그리고 표현(.58, .68) 그리고 Millon Clinical Mutiacial inventory (.55, .68) 등이다.

남성성과의 상관관계는 Bem sex role inventory의 남성성(.57, .63)과 M+ 척도(긍정적인 남성성)는 Spence-Helmreich EPrsonal attrbutes 질문지(.57, .47)에서 얻었다. Sa 척도의 높은 점수의 좋지 않은 해석은Milon CMI의 나르시즘적 성격과의 상관관계가 .53 와 .68 이고, 16PF의 H 요인의 Bold Venturesonmeness 와의 상관관계가 .51과 .61인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5가지 행동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행동들은 다음과 같다.

집단에서 리더를 맡는다(.36)

파티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 한다(.33)

파티 속에서 자기 자신읠 활동의 중심에 높는다(.33)

파티에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한다(.35)

최신의 패션 트렌드에 맞게 옷을 입는다(.32)

누군가 질문을 해 줬을때만 대화에 참여한다(-.22)

누군가 말을 걸떄만 이야기 한다(-.22)

다른사람이 대화의 주제를 정할때까지 기다린다(-.20)

누구에게도 말걸지 않고 사람들이 많은 방에 걸어들어간다(-.20)

소개를 주도하기 보다는 소개되어 질때까지 기다린다(-.19)

개인적인 상화관계속에서 한방향으로 대화를 주도하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대화를 주도하는 것, 그리고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Sa 점수가 높은 사람은 수줍음이 없으며, 그들 자신에게 주목이 되도록 행동한다. 수다스러우며, 거의 모든 상황에서 대화를 주도한다.

이를 통해서 Sp 척도에 대해 알 수 있는 시사점이 많이 있다. 어떤 행동들은 다른 척도보다 어느 한 척도와 관련이 있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 답변상관없는 질문을 많이 한다” 는 Sa 척도와의 상관관계가 .18 이였다. 하지만 Sp 척도와는 .01이였다. “그/그녀는 그의 경력에 대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운다”는 Sa와의 상관관계가 .18 이지만, Sp와는 .04이다. “ 그/그녀는 그의 성취에 대해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는 Sa와의 상관관계는 .28 이지만, Sp와는 .10 이다. Sa 보다 Sp와 상관관계가 더 높은 행동들은 “히치하이커(남의 차를 얻어타러 다니는 사람), 차를 얻어탈 사람을 고른다”(.18 vs. .03), “ 친구들과 그/그녀의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 한다”(.23 vs. .07), 그리고 “ 의도적으로 시내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낸다”(.18 vs. .03) . Sp 와 관련된 행동은 더욱 자발적으며 활적적으로 표현하며, Sa와 관련된 행동은 자기중심적이며 자기걱정과 관련된 행동들이다.

표 5.5에 나와있는 형용사들은 6개의 다른 샘플집단으로 부터 관찰자들이 기술한 형용사들이다. 남성과 여성 두 집단은 ACL에 대해 그들의 배우자나 파트너로 부터 평가되었다. 두 집단은 모두 대학생들로 구성되었고, ACL에 기술된 것과 같이 3명의 동료들이 5단계의 평가를 걸쳐 각각의 형용사에 대한 점수를 주었다. 2개의 점수는 평가자들로 부터 얻은 점수이고, 각각은 10명의 패널들로부터 얻은 점수를 합해서 평균한 것이다. 표 5.5에는 가장 높은 양적 산관관계를 보이는 12개의 형용사들과 가장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12개의 형용사들이 나열되어 있다.

한 가지 ㅂ류 중의 하나는 활동적이고, 사회적이며 ,수다스럽고, 부끄러움이 없으며, 과묵하지 않고, 자기 안으로 숨지 않는다. 다른 부류 중의 하나는 자기 자신 혹은 자기 확신이라고 불리는 부류이다. 며개의 형용사들은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를 나타내며 자기중심주의와 관련된 것들이 Sa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또 다른 부류는 주도권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진취성이 있고, 야망이 있는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특정한 용어들에는 공격적인, 에너지넘치는, 자신감 너치는 그리고 수다스러운 등이다. 어떤 단어들은 낮은 Sa 점수와 관련이 있는데, 온순한, 조용한, 부끄러운 그리고 말을 안하는 등이다.

동료에 의해 묘사된 1356명의 샘플들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 200개가 표준화 되었으며, Sa 척도 분석에 사용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최적의 8개의 형용사들이 나오게되었다. 회귀계수는 .43 이였다. 4개의 단어들은 양적인 베타 값을 보였으며(야망있는, 진취적인, 기회주의적인, 경계하는) 4개의 단어들은 부적인 케타값을 나타났다(호기심이 적은, 노력하는, 부끄러운 그리고 긴장하는)

547명의 남성과 393명의 여성들을 통해서 캘리포니아 q-set 에 대한 측정을 하였다. 5명 혹은 더 많은 패널 관찰자들이 각각을 관찰하였다. 각각의 독립적인 q-sorting은 각가의 평가자들에게 나눠졌으며, 100개의 항목들의 점수와 Sa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장 높은 양적 상관관계를 보인 4개의 행동들과 가장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4개의 행동들의 다음에 기술되어 있따. 각각의 행동들은 547명의 남성과 393명의 여성들로 부터 얻은 값이며 각각의 회꼐계수는 첫번째 값이 남성, 두번째 값이 여성샘플에서 얻은 값이다.

독단덕으로 행동한다(.31, .37)

자기자신에 대한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28 , .29)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잘 나선다(.35 ,.38)

말을 유창하게 잘하며,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한다(.24, .40)

원래는 순종적이며 지배적인것에 쉽게 순응한다(-.30, -.32)

좌절과 역경에 부딪혔을때 쉽게 포기한다(-.29, -.36)

자기가 나서는 것을 피하며, 행동하는것을 지연시키거나 피한다(-.31, .-36)

자기 방어적이다(-.36, -.37)

이 샘플에서 Sa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독단적이며, 진취적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며, 말을 유창하게 한다,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쉽게 지배당하며, 인내심이 부족하고,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자기 방어적이다, 자기 수용 혹은 자존감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반대인 것 처럼 보여진다.

개인의 인생에 관한 심층 인터뷰가 504명의 남성과 379명의 여성을 상대로 이뤄졌다. 90분의 인터뷰 후에 인터뷰어는 99개의 항목에 대해 평가하였고, 인터뷰동안 관찰한 행동들의 특성에 대해서 점수를 메겼다. 체크된 항목에 대해서는 더미변수로 1의 값이 부여되었고 체크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0의 값이 부여되었다. 그런 후 각각의 값과 Sa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가장 높은 양적 상관관계를 보인 4개의 항목드르과 가장 낮은 부적상관관계를 보인 4개의 행동들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상관계수값은 504명의 남성으로 부터 얻은 값이며, 두번째 값은 379명의 여성들로부터 얻은 값이다.

위트있고, 활기차며, 대화를 흥미롭게 이끄는 사람이다(.28, .27)

보통과 다르게 자신감이 넘치며, 모든 상황에 잘 맞춘다(.28, .29)

미래에 대한 안정적이며, 긍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16, .17)

좋은 인상을 갖고 있으며, 대인관계 기술이 뛰어나다(.22, .21)

말수가 적다(-.18, -.18)

생각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14, -.16)

걱정과 근심이 많다(-.21, -.22)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많다(-.21, -.26)

Sa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인터뷰를 한 사람들에게 유머있고, 활기차며, 자신감있고, 긍정적이고, 대인관계기술이 뛰어나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Sa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인터뷰를 한 사람들에게 말수가 적고,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며, 걱정이 많고, 자기 방어적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4가지 행동 중 “외모가 매력적인” 항목은 Sa신드롬의 자기 수용 항목 과 관련성이 있기 떄문에 주목해야 할 항목중에 하나이다. 이 항목은 Sa 와의 상관관계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15로 나타났다.

200명의 남성과 여성들로부터 얻은 50개의 대인관계 Q-sort로 부터 얻은 관찰 데이터 분석 결과가 다음에 나와있다. 3명의 평가자들의 평가하였고, 111명의 평가자들이 참여하였다. 가장 높은 양적상관관계를 보인 행동과 가장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행동들은 다음과 같다.

진취력있으며, 활동적이다,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즐긴다(.31, .29,.25)

말을 유창하게 하며, 자신을 명확하게 잘 표현한다(.19, .31,.35)

뛰어난 리더이다; 다른사람의 협력을 잘 이끌어낸다(.20, .24, .38)

확신이 없고, 소극적이며, 매략적이지 않다; 특징이 없고, 단조로운 행동을 한다(-17, -.16,-.45)

사회적으로 어색해하며 불편해 한다; 부끄러움이 많고 소극적이다(-.28, -.31,-.48)

쉽게 당황하고 열등감이 있으며, 부적절함을 느낀다(-.19,-.28,-.43)

요약하며, Sa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며, 높은 지위와 보상이 높은 직업을 갖기위해 노력한다. 사회적인관계를 좋아하며, 다른사람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과 주목을 받는것을 즐긴다. 수다스럽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잘 표현하며, 미팅에서 대화를 주도한다. 일반덕으로 행동들이 자기고양편향(ego-enhancing)적이며, 자기방어적이지만은 않고, 자신의 높은 열망의 욕구와 일치한다. 쉽게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그러나 Sa가 너무 높으면(원점수가 26부터 28까지) 나트시즘적 성황과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Sa 점수가 너무 높은 사람은 기회주의적이고, 착취적이다.

Sa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보통 조심스럽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며, 다른사람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을 피한다. 자시의 능력에 대해 불신하며, 뒤에 숨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 한다.

**독립성 (In, Independence) 척도**

독립성 척도는 1986년에 CPI 462에서 소개되었고, 이 척도의 개발에 대해서는Newmark의 책 중 심리평가 방법에 관한 챕터에 서술되어있다 (Gough, 1989). 척도 개발 방식은, 독립성에 관한 비 검사 기준이 먼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실증적이었고, 이후에 CPI 내 항목들은, 독립성 점수 예측 능력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되었다. 분석은, 각 남성들은 그의 아내나 파트너에 의해 묘사되고 각 여성들은 그녀의 남편이나 파트너에 의해 묘사된 236명의 연인들의 샘플에서 이루어졌다. 남성과 여성 둘 다에 대해 .05 혹은 그 이상 두드러지는 상관관계를 가진 30개의 항목들이 발견되었고 이 30가지 항목들이 모여 독립성 척도에 포함되었다. 척도에 대한 교차입증을 위해, 독립성에 관한 점수들은 평가 조건이 구비된 곳에서 관찰된 198명의 대학생들의 독립성에 대한 직원 평가와 연관되었다. 평가자들은 10세에서 18세 사이에 분포했다. 각 학생에 대한 모든 평가들은 취합되어 평균이 나왔고, 독립성 점수와 연관되었다. 총 198명의 학생 샘플에 대한 타당도 계수는 .42였다. 99명의 남성들에 대한 타당도 계수는 .47이었고, 99명의 여성들에 대한 타당도 계수는 .37 이었다.

434 유형을 위해, 기존 독립성 항목들 중 한가지는 누락되었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대체되었다. 기존 유형과 434 유형의 상관계수는 당시 표준 샘플의 3000명의 남성에 대해 .99 였고, 또한 표준 샘플의 3000명의 여성에 대해서도 .99 였다. 6000명의 종합된 샘플에서는, 중간 항목 행렬에 관한 요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고유값 1의 여덟 가지 요인들이 확인되었고, 네 가지는 Kaiser의 normal varimax method에 의해 유지 및 교대(rotated) 되었다. 처음으로 교대된 요인은 단호함, 인내심, 그리고 능숙함에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나는 보통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한다고 예상한다” (“참”), “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거짓”), 그리고 “나는 일이 잘못되어갈 때 쉽게 포기하는 것 같다” (“거짓”). 두 번째 요인은 철저한 검토 하에서 자신감과 자기확신을 시사하는 항목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대중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나를 두렵게 만든다” (“거짓”), 그리고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것을 싫어한다” (“거짓”).

세 번째 요인은 자급자족력과, 타인의 소망이나 요구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 그리고 타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의지를 나타내는 항목들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항목들은, “나는 보통 나에게 기대되는 것들을 하려고 하며, 비난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거짓”),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나는 내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를 고려한다” (“거짓”), 그리고 “나에게는 충분한 친구들과 충분한 사회생활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거짓”). 네 번째 요인은 권위 있는 자리에 대한 선호도와 의사 결정 특권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항목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내가 위원회에서 일할 때 나는 책임을 맡는 것을 좋아한다” (“참”), 그리고 “나는 나 스스로 매우 ‘강한’ 성격이라고 묘사할 수 있다” (“참”).

독립성 척도를 위한 행동 빈도 데이터는 177명의 사람들 (87명의 남성 그리고 88명의 여성) 의 샘플로부터 나왔고, 그들 각각의 행동들은 배우자나 파트너에 의해 평가되었다. 그리고 나서 행동들은 독립성 척도 점수들과 연관되었고, 가장 양성적인 상관관계의 다섯 가지와, 가장 음성적인 상관관계의 다섯 가지가 아래에 등록되어있다.

그룹에서 책임을 맡는다 (.31)

파티에서 많은 사람에게 얘기한다 (.30)

그룹을 위한 목표를 세운다 (.28)

대화를 가로막는다 (.27)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25)

부모님과 방학 계획에 대해 언쟁을 벌인다 (-.17)

종교적 상담가의 지시를 의문 없이 따른다 (-.20)

고개를 떨구고 걷는다 (-.18)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므로 자신도 시장을 싫어한다 (-.17)

개인적 문제를 과장한다 (-.17)

두 개의 중요한 주제가 독립성 척도에 내제되어 있다. 하나는 자기 확신, 지략이 풍부함, 그리고 능숙함과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타인 그리고 형식적 요구로부터 자신의 거리감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기질은 위에 나와있는 행동들에서 파악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룹에서 책임을 맡고, 그리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모두, 여러 가지들 가운데, 자신감과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징표들이다.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떨어트려 놓는 것과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대화를 가로막고, 종교적 상담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시장을 대체로 싫어한다고 해서 그에 따라가지 않는 행동들에서 볼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혼자 힘으로 하고, 그렇게 해결 하기 위해 강점을 더하는 것은 적어도Helson과 Picano (1990)의 최근 연구에서 간접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들은 대학교 4학년 생으로 CPI 검사를 받은 104명의 여성들의 샘플로 작업했고, 22년 후에 다시 실시했다. 여성들은 그들의 인생 경험에 따라 네 가지 연구 분류 중 한가지에 배치되었다. 26명의 “엄마가 아닌” 그룹은 결혼을 한번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는 사람들을 포함했다. 26명의 두 번째 그룹은 이혼한 엄마들로 구성되었다. 35명의 신 전통적인 세 번째 그룹은 온전한 결혼생활 중이지만 20%의 시간 이상을 일하는 엄마들로 구성됐다. “전통적”이라고 불리는 네 번째 그룹은 유급 노동을 하지 않고 온전한 결혼생활 중인 엄마들로 구성됐다. 처음 세 그룹에 대해서 독립성 척도 점수는 22년 후 상당히 증가했다 (p < .05); 반면 전통적 여성들에 대해서는 증가율이 절반 이하였다. 처음 세 그룹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자급자족과 경제적 독립을 위한 강한 요구는 그들의 독립성 척도 점수의 두드러지는 증가와 연관되었다.

표 5.6은 총 1,828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여섯 개의 다른 샘플들에서의 독립성 척도와 가장 양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12개의 형용사들과 가장 음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12개의 형용사들을 열거한다. 각각의 샘플에서, 응답은 ‘형용사 체크 리스트’ 에서의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관찰자들에 의해 묘사됐고, 그리고 나서 300개의 형용사들에 대한 계수들은 독립성 척도 점수와 연관되었다.

양성적 상관관계의 형용사들은, 즉 독립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을 묘사하는 형용사들은, 자신감, 풍부한 지략, 투지, 그리고 진취성과 같은 특성들과 관련이 있다. ‘독립적인’ 이라는 단어는 ‘이기주의적인’ 이라는 형용사와 함께 나타난다. 척도를 위해 상정된 두 개의 주요 요소들은 (자기확신 그리고 자급자족) 그러므로 관찰자들의 반응에서 인식 가능하다.

음성적 상관관계의 형용사들은 낮은 점수의 독립성 점수와 연관되었다. 하나의 무리는, 불충분함 그리고 자기 의심의 감정을 묘사한다. 예를 들면, 온순한, 약한, 그리고 걱정하는 이라는 형용사들이 있다. 다른 무리는 과묵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조용한, 수줍은, 그리고 말수가 적은 이라는 형용사들이 있다. 어색하고 따분한 이라는 용어들은 독립성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매긴 관찰자들에 의한 다소 음성적인 평가를 시사한다.

1,356개의 샘플에서, 관찰자들의 대체로 동의하는 형용사 평정 목록(ACL) 에 대한 표준화된 점수들은, 측정에 근거한 추정으로부터 나온 묘사들의 가장 좋은 작은 조합을 발견하기 위해 독립성 척도로 퇴보되었다. 분석은 오로지 200개의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형용사들만 포함했고, 반복은 임의적으로 8 단계 후에 멈췄다. 독립성을 위한 eight-term의 형용사 평정 목록 무리는 독립성 점수와 ( = .16) 다수의 .40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세 가지 형용사들은 양성적인 beta weights를 가졌다: 자신감 있는, 이기적인, 그리고 똑똑한. 다섯 가지는 음성적인 beta weights를 가졌다: 전통적인, 불만스러운, 어수선한, 수줍음 타는, 그리고 겸손한. 독립성 척도를 위한 “외로운 늑대”라는 비유는 이러한 여덟 가지 묘사들에서 명확히 발견될 수 있다.

독립성 척도에 대해 관찰자가 기본이 된 증거의 다음 자료는 Block의 California Q-Set 에서 비롯한다. 평가 관찰자들은 547명의 남성들과 393명의 여성들에 대해 Q분류를 했다. 독립적인 Q분류들은 대체로 동의하는 집합체들로 합성되었고, 항목들은 Block에 의해 명시된 9가지의 중요 범주들에 위치됐고, 각 범주에 지정된 수만큼의 항목들이 배치되었다. 100개의 Q 분류 항목들은 그리고 나서 독립성 척도 점수들과 연관되었다. 가장 양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네 가지 항목들과, 가장 음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네 가지 항목들은 아래에 나와있다. 첫 번째 계수는 모두 547명의 남성들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모두 393명의 여성들에 대한 것이다.

넓은 관심의 폭을 가진다 (.21, .31)

적극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 (.31, .33)

사회적인 균형 (social poise)과 존재감을 가진다; 편하게 사회적으로 보인다 (.31, .25)

말이 유창하다;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다 (.26, .34)

불확실하고 복잡한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다 (-.29, -.35)

정말로 순종적이다; 통치를 편하게 받아들인다 (-.33, -.33)

좌절과 역경을 마주할 가능성이 있으면 포기하고 중단한다 (-.31, -.38)

죄책감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다 (-.30, -.30)

독립성에서 높은 점수를 갖는 수검자들은 적극적이고, 사회적으로 균형 잡혔으며, 말이 유창하고, 관심의 범위가 넓다고 보여진다 [97p. Table 5.6]. 낮은 점수의 수검자들은 애매함을 불편해하고, 순종적이고, 쉽게 패배하고, 죄책감을 잘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생사 면접관에 의해 504명의 남성들과 379명의 여성들에 대해 완성된 99개 항목의 ‘면접관의 체크 리스트’에서, 가장 양성적 상관관계에 있는 네 가지 항목들과 가장 음성적 상관관계에 있는 네 가지 항목들은 아래에 나와있다. 첫 번째 계수는 모두 남성들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모두 여성들을 위한 것이다.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어휘를 사용한다 (.18, .16)

재치 있고 활기차다; 흥미 있는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 (.17, .19)

대체로 자신감 있다; 거의 모든 상황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느낀다 (.29, .18)

인터뷰 동안 편안하고 침착했다 (.14, .14)

말수가 적고 무뚝뚝 하다 (-.15, -.12)

인터뷰 동안 불편해 하고 어려워했다 (-.14, -.14)

많은 걱정과 문제를 가진다 (-.14, -.19)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고, 스스로 능력을 의심한다 (-.19, -.30)

비록 체크 리스트 항목들과의 상관관계가 측정에서 보통 이었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05 혹은 그 이상으로 두드러진 개연성을 가진다. 독립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사 면접관에 의해 활기차고, 자신감 있고, 인터뷰를 편하게 하고, 다양하고 넓은 범주의 어휘력을 가진다고 보여지는 경향이 있었다. 독립성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말이 없고, 인터뷰를 불편해 하고, 걱정하고, 자기 회의를 가진다고 보여지는 경향이 있었다.

대인관계 행동에 대한 50개 항목의 Q분류는 세 가지 샘플에서 사용되었다. 첫 번째에서는, 200명의 남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파트너에 의해 묘사되었다. 두 번째에서는, 200명의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이나 파트너에 의해 묘사되었다. 세 번째에서는, 111명의 남성들이, 독립적인 평가들이 단일 복합체로 결합된 세 명의 평가 관찰자들에 의해 묘사됐다. 50개 항목들은 그리고 나서 독립성 척도 점수와 연관되었다. 가장 양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세 가지와 가장 음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세 가지는 아래에 나와있다. 각 항목에 대한 세 가지 계수들도 이와 같은 순서를 따른다.

태도가 단호하고 자신감이 있다 (.19, .23, .31)

말이 유창하다; 스스로를 쉽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23, .24, .25)

효과적인 리더 이다; 타인들의 반응과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 (.27, .19, .24)

순종적이다; 쉽게 항복한다; 자신감이 부족하다 (-.20, -.27, -.38)

사회적으로 어색하고 쉽게 불편해 한다; 타인들과 있을 때 수줍어하고 어색해 한다 (-.11, -.21, -.36)

쉽게 당황한다; 열등감과 무능함을 느낀다 (-.14, -.27, -.34)

이러한 주요 묘사들은 독립성 점수가 높고 낮은 사람에 대해 이미 명시됐던 것과 비슷하다.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들은 단호하고, 말이 유창하며, 리더십 기술을 가진다고 보여지는 경향이 있다. 낮은 점수를 가진 사람들은 순종적이고, 사회적으로 어색하며, 쉽게 당황한다고 보여지는 경향이 있다.

독립성 척도의 이름은 그것의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함축적 의미들, 즉 독립성과 자급자족을 강조한다. 반대 방향으로 점수가 매겨졌다면, ‘의존성’ 이라고 불렸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의존성을 측정하는 개념에 관한 큰 관심이 측정되고 있다. (Bornstein, 1992, 1993; Mills & Taricone, 1991). 의존성 측정에 널리 쓰이는 ‘대인관계 의존성 목록(Interpersonal Dependency Inventory)’ (Bornstein, 1994; Hirschfeld, et al., 1977)은 CPI 검사를 받은 145명의 남성들과 145명의 여성들의 샘플에 사용되었다. 독립성 척도와 IDI의 하위척도들 그리고 총 점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타인들에 대한 감정적 의존, -.32 그리고 -.43; 사회적 자신감의 부족, -.66, -.62; 자주성의 주장, .09, .12; 총 점수, -.62, -.66. 세 번째 하위 척도 (자주성의 주장) 는 독립성의 자아 친화적인 상태가 아닌, 방어적 책략이라고 개념화된다.

요약하자면, 독립성 척도의 상승하는 점수들은 자신감, 적극성, 목표 추구에 있어서의 인내, 관심의 폭, 좋은 언어적 스킬, 복잡하고 부담이 큰 상황에서의 자신감, 그리고 평가 상황에서 타인과 거리를 두는 힘과 성향, 이들을 가리킨다. 독립성 점수가 매우 높을 때 (28 에서 30) 가능한 문제점은 타인의 의견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거나, 타협 혹은 양보에 대해 꺼려하는 것 이다.

독립성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견해에 대해 침묵하거나, 조용히 있거나,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많은 상황에서 열등감과 무능함을 느끼고, 걱정하며, 타인들로부터 정밀하게 검사 받는 모든 일에 대해서 조심스럽다.

**공감성 (Em, Empathy) 척도**

공감성 척도는 Robert Hogan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개발되었다 (1967), 그리고 1969년에 저널 리포트에서 처음으로 묘사되었다 (Hogan, 1969). Hogan의 개념화는 더 간단해졌다. 즉, 인생이라는 게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규칙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심리에 더 혹은 덜 내재 되도록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CPI의 사회성 척도는 이 단계에 대한 숙달도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척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중요한 타인들의 필요나 소망을 위해 개인의 행동을 적응시키기 위한 직접적이거나 직접적이지 않은, 심지어 직관적으로 인지되는 단서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배우는 것을 요구한다. 공감성 척도는 이러한 태도와 기술들의 측정하는 역할로 계획되었다. 도덕성 발달의 가장 높은 수준에는,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들고 비 인간적인 제약들로부터 탈피하고, 새롭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행동하며, 사회적 기업이 건설적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필요한 수용력과 통찰력이 있다. CPI의 척도들 가운데, 아마도 v.3 척도가 이런 세 번째 수준을 측정하기에 가장 근접하게 적절한 척도이고, 독립성과 책임감 척도의 점수들에 의해 제공된 중요한 부수적 정보들도 함께 한다. 이런 이론적 개요가 적용 되든 안되든, 그리고 사회성 척도와 v.3 척도가 레벨 1, 2를 측정하는데 적절하든 아니든 간에, 공감성 척도는 그 자체로 CPI 사용자들에게 매우 유용하고 계몽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공감성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Hogan은 Block의 California Q-set에서 다섯 개의 암시하는(indicative) 항목들과 다섯 개의 금지하는(contraindicative) 항목들을 받아들였다. 암시하는 항목들 중 두 개 항목들은, “대인관계에 관련된 넓은 범위의 단서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통찰력이 있다” 그리고 “해석하는(interpreting) 상황에서 타인의 동기를 고려한다” 이다. 금지하는 항목들 중 두 개 항목들은, “역할을 바꾸지 않는다; 모두와 똑같은 방식으로 관련한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인기’, ‘바람직한 일’, ‘사회적 압력’ 등의 관습적인 용어들로 판단한다” 이다. 합의된 Q분류(Consensual staff Q-sorts)는 그 당시에 집중적인 평가 프로그램에서 연구되었고 MMPI와 CPI를 실시했던 211명의 남성들을 위해 가능했고, 성격 검사와 연구 기관(Institute of Personality Assessment and Research) 의 직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출간되지 않은 목록이었다. 항목 분석은 Q분류 기준에서 27%의 가장 낮은 점수와, 그에 대조적인 (versus) 27%의 가장 높은 점수를 남겼다(pitted). 차이점은 카이자승 검증(chi-square) 과 Fisher의 직접적 검증(exact test)에 의해 평가되었고, 64개 항목의 선택으로 이끌었다. 그들 중, 31개는 CPI에서 왔고, 25개는 MMPI에서 왔으며, 8개는 IPAR 목록에서 왔다. 공감성 척도를 이용한 초기 작업에서는 이러한 64개 항목의 유형이 사용되었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대부분의 연구들이 CPI 한가지만을 쓰게 되었다. MMPI의 25가지 항목들 중 일곱 가지가 CPI에 쓰여왔었기 때문에, 공감성 척도의 38개 항목 유형에 대해 CPI채점이 가능했다. CPI의 434개 항목 판 에서는, 이러한 항목들 중 한가지가 누락됐고, 대체 항목은 Hogan의 초기 연구에서 인용됐던 차선 항목들로부터 선택됐다. 3000명의 남성들과 3000명의 여성들의 표준 샘플의 두 가지 프로파일에 대해, 공감성 측정에 있어서 462 형식과 434형식의 상관관계는 두 성별 모두 .99 였다.

공감성의 원래 개발이 오로지 남성의 샘플에서만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여성에게 있어서 그 척도의 효용성과 타당성을 보여줄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 현재의 프로파일 표준 샘플들에 대해서는, 여성 평균이 19.44 (SD = 4.85)이고 남성 평균이 19.07 (SD = 4.70) 이었다. 부록 B에 나와있듯이, 높은 점수를 매길 것이라고 보였던 그룹은 그렇게 했다. 심리학 전공 여성 대학원생들의 평균은 24.47이었고, 심리학 전공 남성 대학원생들의 평균은 24.86이었다. 교육을 전공한 여성들은 평균이 24.03이었고, 같은 전공의 남성들은 평균이 24.32이었다. 낮은 점수를 매길 것이라고 보였던 그룹 또한 그렇게 했다. 예를 들어, 감옥에 있는 여성들의 평균은 17.10 이었고, 감옥에 있는 남성들의 평균은 17.33 이었다.

부록 C에 있는 다른 검사들과 목록들로부터 나온 점수들과 공감성이 갖는 상관관계는, 공감성 척도가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질 수 없는 정보 제공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지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강한 유대감을 보였다. 다른 변수들과의 관련성들 중에, 언급됐을지도 모르는 관련성은, 인격 목록 표 묶음(Omnibus Personality Inventory)의 내향적 사고와 실리적 인생관(Thinking Introversion and Practical Outlook) 척도들 과의 관련들 이다. 전자와 공감성 간의 상관관계는 남성에게 .54, 그리고 여성에게 .62 였고, 후자와의 상관계수는 남성에게 -.37, 그리고 여성에게 -.60 이었다. Zuckerman의 감각 추구 척도의 총 점수는 공감성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남성은 .46 그리고 여성은 .52를 보였다. Loevinger의 문장 완성 기술에 대한 그녀의 자아 발달 측정은, 오로지 여성에게만 가능했으며, 공감성과의 상관관계는 .49를 보였다. Barron의 독창성 척도는 공감성과의 상관관계에서, 남성은 .55 그리고 여성은 .56을 보였다. MMPI의 사회적 내향성 척도는 공감성과의 상관관계에서, 남성은 -.51 그리고 여성은 -.65를 보였다. 이런 증거에서 보면, 공감성 점수가 높은 사람은 활동적이고,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들은 복잡하고 창의적인 상상이 가능하고 자아의 기능(ego functioning)에서 회복력(resilient in)이 있다.

총 6,000명의 사람들의 샘플의 프로파일 표준에서, 공감성의 38개 항목들에 대한 요인 분석은 1.00 혹은 그 이상의 고유값을 가지는 아홉 개의 요인들을 찾았다. 그들 중 4개는 Kaiser의 normal varimax 방식에 의한 교대를 위해 임의적으로 유지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진보적 사상과 개인적 융통성(flexibility)이 표현되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어떻게 적절히 부끄러움을 느끼는지를 잊어버렸다” (“거짓”). “많은 사람들과의 문제는 그들이 문제에 대해 정말로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거짓”). 그리고 “나는 모든 것에 대해 공간을 갖는 것을 좋아하고, 모든 것이 제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거짓”). 두 번째 요인의 항목들은 타인들의 감정이나 소망에 대한 수용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개의치 않고, 정말로 종종 내 뜻대로 한다” (“거짓”), “나는 사람들이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계속 추측하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거짓”), 그리고 “나는 때때로 적당한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한다” (“거짓”). 세 번째 요인은 리더십, 사회적 상호관계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구술 능력에 대한 항목들을 가진다. 예를 들면, “나는 내가 보통 그룹에서 리더라고 생각한다” (“참”), “나는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참”) 그리고 “나는 보통 내가 잘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는 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거짓”). 네 번째 요인은 창의적인 시도와 지능적 시도에 대한 선호도를 가리키는 항목들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일생에 한번 혹은 그 이상 내 손으로 시를 써봤다” (“참”), 그리고 “나는 Lewis Carroll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좋아했다” (“참”)

행동 빈도 분석들은, 각각 배우자나 파트너에 의해 묘사됐던 177명의 사람들 (88명의 남성들 그리고 89명의 여성들)의 샘플에서 이루어졌다. 공감성과 가장 양성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다섯 가지 행동들과, 가장 음성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다섯 가지 행동들이 아래에 나와있다.

파티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한다 (.31)

논란이 많은 주제를 꺼낸다 (.30)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개방적인 질문들에 답한다 (.31)

그 혹은 그녀가 모르는 그룹의 대화에 끼어든다 (.32)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시작한다 (.30)

이야기를 걸어 때만 이야기를 한다 (-.25)

오로지 질문을 할 때만 대화에 참여한다 (-.20)

소개를 시작하기 보다는 소개되어지기를 기다린다 (-.18)

토요일 밤에 집에 머무르며 티비를 본다 (-.18)

대화 동안 무표정을 유지한다 (-.17)

대부분의 행동들은 타인들과의 대화와 관련이 있고, 개인적 질문에 대처하는 솔직함과도 연관이 있다. 논란이 많은 주제를 꺼낸다는 항목은 높은 점수의 공감성과 연관이 있는, 다소 비인습적임을 나타내는 항목이다.

대학생들의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Hogan과 그의 동료들의 초기 연구는 (Hogan, Mankin, Conway, & Fox, 1970) 같은 관점에서 언급될 수 있다. 학생들은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 가끔 사용하는 사용자, 비사용자, 그리고 지조 있고 단호한 비사용자 이렇게 분류되었다. 처음 두 그룹들은 공감성 평균이 일반적인 대학생들보다 두드러지게 높았다. 반면 뒤에 두 그룹들은 전반적인 대학생들과 같은 평균을 가졌다.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사회성 척도에 있어서 더 낮은 점수들로 인해, 가끔 사용하는 사용자들과 구별될 수 있다. 그리고 비사용자들은 사회성 척도에 있어서 더 높은 점수들로 인해, 단호한 비사용자들과 구별될 수 있다. 헤로인 사용자들에 대한 추후 연구는 (Kurtines, Hogan, & Weiss, 1975) 공감성과 사회성 척도와 같은 동적 상호작용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감성과 사회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보인 사람들은 마리화나를 드물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헤로인이나 다른 불법 약물들에 대해서는 비사용자인 경향이 있다. 공감성 점수가 평균이고 사회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약물 비사용자인 경향이 있다. 공감성 점수가 낮고 사회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열성적인 비사용자(nonusers with a passion)인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감성 점수가 낮고 또한 사회성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헤로인과 다른 약물들에 대해 중독될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보여진다.

공감성 척도와의 연관에 대한 관찰자들의 형용사적 묘사들이 표 5.7에 나와있다. 6개의 샘플에서, 형용사 평정 목록에서 비롯한 12개의, 공감성과 가장 양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형용사들과, 다른 12개의 가장 음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형용사들은 표에서 제시를 위해 모아져 왔다. 한 무리의 묘사들은 사회적, 자발적,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외향적인 특징과 관련이 있고, 모두 높은 공감성 점수와 관련이 있다. 다른 무리는 경험을 추구하고, 관심의 폭이 넓으며 쾌락적 욕망을 포함한다. ‘통찰력 있는(insightful)’이라는 단어는 그것이 갖는 공감성 측정 목표에 대한 직접적 적절성으로 인해 무가치하다.

공감성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사회적이고(수줍어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이고-reserved, 말수가 적고, 내향적인), 경험을 회피하며(조심스럽고, 거리끼고, 소심하고, 국한된 흥미를 가지는), 의기소침 하다고 묘사된다(우울하고 불안한).

194명의 남자 대학생, 192명의 여자 대학생들, 612명의 평가된 남성들, 그리고358명의 평가된 여성들의 부 표본에서 관찰자들의 형용사적 묘사들은 표준화되었다. [101p. Table 5.7] 그리고, 총 1,356명의 사람들의 샘플에서, 가장 빈번히 쓰였던 200개의 형용사들은 공감성 점수들로 퇴보하였고, 여덟 단계에서의 반복을 임의적으로 중단하였다. 여덟 개 묘사들의 최적의 조합은 공감성과 .42 (=. 18) 의 다중 상관관계를 가졌다. 양성적인 beta weights의 형용사들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재치 있는, 다재 다능한 이었다. 음성적인 beta weights의 형용사들은 국한된 흥미를 가지는, 얌전한, 공들이는(painstaking), 단순한, 그리고 신경질적인 이었다.

다섯 명이 더해진 심사위원 직원 관찰자들에 의해 California Q-set 에서 묘사된 547명의 남성들과 393명의 여성들의 샘플에서, 공감성 척도와 가장 양성적 상관관계에 있는 4가지 항목들과 가장 음성적 상관관계에 있는 4가지 항목들이 아래에 명시되어있다.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첫 번째 계수는 남성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성에 대한 것이다.

유머를 개시한다 (.25, .22)

창의적 놀이, 가장하는, 그리고 유머 라는 사회적 기술들에 있어서 숙련되었다 (.30, .24)

사회적 균형과 존재감을 가진다; 쉽게 사회적으로 보인다 (.33, .27)

말이 유창하다;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다 (.26, .34)

불확실성과 복잡함에 불편함을 느낀다 (-.25, -.34)

실제 혹은 가상의 위협에 취약하다; 대체적으로 두려워한다 (-.23, -.26)

자멸적이다 (-.30, -27)

실제로는 불안과 갈등을, 그것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으려 함으로써 다스린다; 억압적이거나 분열적인 경향 (-.25, -.26)

공감성 점수가 높은 수검자들은 활기차고, 재치 있고, 사회적으로 균형이 잡혀있고, 말이 유창한 것으로 보였다. 공감성 점수가 낮은 수검자들은 모호한 것을 불편해 하고, 위협에 취약하고, 자멸적이며 그들의 자기 방어에 억압적인 모습으로 보였다(repressive in their ego defenses).

공감성 척도 점수들은 다음으로, 집중적인 삶의 이력에 근거하여 504명의 남성들과 379명의 여성들에 대한 묘사들이 있는, 면접관들의 체크 리스트와 상관관계를 가졌다. 가장 양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네 가지 항목들과 가장 음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네 가지 항목들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각각의 항목들의 첫 번째 계수는 504명의 남성들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379명의 여성들에 대한 것이다.

다양하고 넓은 폭의 어휘를 사용한다 (.15, .23)

재치 있고 활기차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이다 (.21, .26)

대단히 자신감 있고, 거의 모든 상황에 맞출 수 있다고 느낀다 (.19, .22)

좋은 인상을 준다; 효과적인 대인 관계 기술들을 가진다 (.18, .20)

문법이나 단어 사용에서 실수를 한다 (-.17, -.20)

말수가 적다 (-.14, -.17)

아버지가 엄하고 권위주의 적이었다 (-.17, -.16)

움직임이 느리다 (-.14, -.15)

인터뷰에서, 공감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좋은 인상을 주고, 자신감을 표현하고, 넓은 범주의 어휘를 사용하며, 재치 있고 활기차게 얘기했다. 공감성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말수가 적었으며 행동이 느렸다.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 떠올릴 때,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엄하고 권위주의 적이었다고 묘사했다.

묘사적 근거의 마지막 출처는, 200명의 남성들은 그들의 아내나 파트너에 의해 묘사됐고 200명의 여성들은 그들의 남편이나 파트너에 의해 묘사됐으며 111명의 남성들은 세 명의 평가 직원 관찰자 심사위원들에 의해 묘사되었던, 50개 항목의 대인관계 Q 분류에서 비롯한다. 공감성과 가장 양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세 가지 항목들과, 공감성과 가장 음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세 가지 항목들은, 200명의 남성들과 200명의 여성들과 그리고 111명의 남성 수검자들에 대한 세 가지 계수들과 함께 아래에 인용되어있다.

진취적이고 외향적이다; 사회적 참여를 즐긴다 (.27, .26, .25)

영리하고 창의적이다; 자발적이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 (.17, .22, .34)

말이 유창하다; 스스로를 편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26, .27, .43)

잘난 체 하지 않고, 어색해하며, 조심성이 없다; 행동이 단조롭다 (-.12, -.15, -.37)

사회적으로 어색해하고 불편함을 느낀다; 타인과 있을 때 수줍어하고 어색해한다 (-.22, -.32, -.40)

일상에 젖어있다; 변화와 불확실성에 불안함을 느낀다 (-.15, -.23, -.13)

공감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관찰자들에 의해 진취적이고 외향적이고 영리하며 말이 유창하다고 보여진다. 공감성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잘난 체 하지 않고 어색해하며 사회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변화와 불확실성에 의해 불안함을 느낀다고 보여진다.

정리하면, 공감성 점수가 높은 것은 다재 다능하고, 사회적 통찰력이 있고, 세련됐고(urbanity), 재치 있고, 말이 유창하며 진취적임을 가리킨다. 개인들에 대한 사례 연구는, 예를 들어 과거 연구에서처럼, 주도성과 자기 수용에 대해, 매우 높은 공감성 점수와 어떠한 감춰진 음성적 연관을 갖는지에 대해 밝혀내지 못했다. 심지어 매우 높은 수준의 공감성이 함축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통찰력 있으며, 사회적 상황과 대인관계에 있어 창의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 들이다. 공감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를 타인의 심리적 틀 안에 맞추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인지할 수 있어 보인다. 게다가, 높은 점수의 공감성은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이러한 종류의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 공감성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고, 자멸적이고, 관심의 폭이 좁고, 말수가 적으며 불확실성, 변화, 그리고 복잡성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책임감 (Re, Responsibility) 척도**

책임감 척도는 처음에 (Gough, McClosky, & Meehl, 1952) 정치적 참여와 개입에 관한 대규모 연구에서 사회적 책임감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Gough, 1991; McClosky, 1969). 정치적 참여에 대해 고려하는 가설들은, 정치적 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이론을 모두 포함하여 구성한, 성격과 인지에 대한 83개의 정의된 양상에서 도출됐다. 그러나, 구성에 있어서 세 가지의 주요 요소들은 참여적인 기질, 현재의 정치와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지, 그리고 각각의 시민들이 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 들이다.

Peer nomination(또래 지명) 방법은 50명의 남자 대학생들과 50명의 여자 대학생들, 221명의 9학년 학생들, 123명의 다양한 학급의 고등학생들, 그리고 282명의 고등학교3학년생들의 샘플에 대한 초기 항목 분석에 사용되었다. 샘플 중 세 가지 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그룹 혹은 학급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사람과 가장 책임감이 적은 사람을 지명했다; 그리고 두 개의 샘플에서는 선생님들이 지명했다. 같은 수의 남성들과 여성들은 네 쌍의 기준 샘플 형성을 위해 이러한 지명에 근거하여 선택되었다: 대학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9학년 학급.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라는 개념과의 연관을 의도했던, MMPI에서 나온 항목들과 또한 특별하게 준비된 항목들은, 네 가지의 비교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가장 적게 책임감 있는 부 집합들을 구분하는 능력에 대해 평가되었다. 56가지 항목들은 이러한 선택 과정에서 살아남았고, 그 중 31개는 책임감 과의 관계가 명백했으며 25개는 미묘했다. 지명자들에게 주어졌던 책임감의 정의는, 스스로의 행동에서 비롯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의지, 신뢰성, 신용성, 책임감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갖는 의무감, 그리고 반대되는것으로서 이러한 특성들의 부재 혹은 부족, 이것들을 강조했다. 평가 프로그램에서 연구된 80명의 사람들에 대한 56개 항목들의 교차 검증은, 양성적 특성의 통합과 책임 의식 으로서의 특성들에 대한 직원 평가가 .35에 근접한 상관관계를 초래했다.

1956년에 나온 CPI의 첫 번째 출판 유형에서, 책임감의 비 검사 기준에 대해 가장 낮은 타당도를 보였던 14가지 항목들을 빼면서 책임감 척도는 42개 항목으로 줄어들었다. 42개 항목에 대해 교차 검증된 타당도 계수는 대략 .40 이었다. 1986년 CPI 462 항목 유형에서, 책임감 척도는 6개의 가장 낮은 비 검사 타당도를 갖는 항목들을 빼면서 36개 항목으로 더 줄어들었다. 현재 CPI 434 항목 유형에서는, 이러한 항목들 중 한 가지가 빠졌고, 36개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 다른 항목으로 대체되었다. 434 형식에서의 책임감 척도와 462형식에서의 책임감 척도의 상관관계는, 3,000명의 남성들과 3,000명의 여성들의 프로파일 기준 샘플 둘 다에서 .99를 보였다. 462 유형에서의 책임감 척도의 타당도에 대한 유용한 검토는, 책임감 척도가, 관찰되지 않는 업무 환경 하에서의 좋은 업무 능력과 상당히 연관 된다고 찾은 Weekes의 논문에서 찾아졌다(1993); 각성제(amphetamines)와 마리화나의 비 사용, 술을 마시지 않음; 그리고 높은 위험성의 재정적 개입에 대한 회피 및 방지. 이러한 연구들과, 개인과 함께한 작업들에서, 높은 점수의 책임감은 자기 수양 그리고 신뢰성과 연관이 있어 보이지만, 알려진 바로는, 높은 점수의 책임감은 적절할 때 관습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계몽적 방법과 연관된다.

6000명의 사람들(3000명의 남성, 3000명의 여성)의 프로파일 표준 샘플(profile norm samples)의 책임감 척도에서 나온 36개의 항목들에 대한 요인 분석은, 1.00 혹은 그 이상의 고유값을 가지는 여덟 개의 요인들을 발견했다. 그들 중 4개는 Kaiser의 normal varimax method 에 의한 교대(rotation)를 위해 임의적으로 유지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책임감에 대한 일반적 감각을 가리키는 항목들을 포함했다. 예를 들어, “아마도 몇몇 비주류 집단들은 정말로 거친 취급을 받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알 바 아니다.” (“거짓”), “우리는 우리 나라에 대해 걱정해야 하고, 기타 국가들은 그들 스스로 신경 쓰도록 해야 한다” (“거짓”), 그리고 “공공의 일에 대해 내가 걱정 하는 것은 쓸모 없다; 나는 어찌됐든 그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거짓”). 두 번째 요인은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적 행동을 가리키는 항목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나는 학교에서 징계사유로 인해 한번 혹은 그 이상 정학 당했었다” (“거짓”), 그리고 “나는 한번도 법적 문제를 겪은 적이 없다” (“참”). 세 번째 요인은 시민으로서의 시민 의식을 가리키는 항목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모든 시민들은, 비록 약간의 개인적 즐거움을 포기하더라도, 국사(national affair)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 (“참”),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세금을 면하기 위해 소득세 신고를 위조했을 때, 이것은 정부의 돈을 훔치는 것만큼 나쁜 것이다” (“참”). 네 번째 요인은 다섯 개 항목들의, 다소 다양한 그룹을 포함한다. 다섯 개 항목들 모두는 적어도 약간은, 교육과 자기수양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나는 학교에서 배움이 더딘 학생이었다” (“거짓”), 그리고 “나는 과학에 대해 읽는 것을 좋아한다” (“참”).

책임감 척도의 행동 빈도 결과들은 177명의 사람들(88명의 남성, 89명의 여성)의 샘플에서 측정되었다. 각각의 개인들은 특정한 행동의 빈도에 대해 배우자나 파트너에 의해 평가되었다. 가장 양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다섯 가지 행동들과, 가장 음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다섯 가지 행동들이 아래에 나와있다.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한다 (.26)

스케줄 일정을 바꾸지 않고 따른다 (.19)

교회에 간다 (.24) / 대강의실에서 큰소리로 질문한다 (.20)

오늘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20)

“섹시한(sexy)” 옷을 입는다 (-.18)

나이트 클럽에 간다 (-.24)

바닥에서 발견한 물건(article)을 되돌려 놓지 않는다 (-.29)

타인들이 술 값을 내게 한다 (-.23)

파티에 레코드를 가져와 다른 사람들이 스테레오를 작동하게 둔다 (-.26)

이러한 행동들은 매우 뚜렷하고 개별적이지만, 그것들을 한데 모으면, 책임감 점수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에 대한 그림을 제공한다. 높은 점수와 연관된 행동들은,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일정을 준수하고, 교회에 가고, 적절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들이 있다. 낮은 점수와 연관된 행동들은, 나이트 클럽에 가고, 도발적인 옷을 입고, 분실물을 되돌려 놓으려 노력하지 않으며, 타인들이 술 값을 내게 두고, 그리고 타인들이 그들 자신의 소장물을 이용하도록 한다.

6개의 다른 샘플들에서의 책임감과 연관이 있는 형용사적 묘사들은 표 5.8에 나와있다. 처음 두 개의 샘플에서, 남성들과 여성들은 그들의 배우자나 파트너에 의해 묘사되었다; 다음 두 샘플에서는, 대학생들이 세 명의 또래 패널들에 의해 묘사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개 샘플에서는, 남성과 여성 수검자들이 10명의 직원 관찰자 심사위원들에 의해 묘사되었다. 책임감 척도와 가장 양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12가지 형용사들과, 가장 음성적 상관관계에 있는 12가지 형용사들은 표에 기록되어있다. 표 5.8에 있는 형용사들이 여섯 개 샘플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두드러진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각의 경우에서, 모두 같은 방향(양성 혹은 음성)에 있고, 적어도 세 가지는 .05의 확률을 가진다.

책임감 점수가 높게 나온 사람들은 사실, 책임감 있고,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만 하며 양심적이라고 묘사된다. 그들은 또한 조직화 되어있고, 능률적이고, 인내심이 강하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이라고 묘사된다. 세 번째 주제(theme)는 신중하고 겸손한 서술자(descriptors)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책임감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유아적이고, 쾌락을 추구하고, 반항적이고, 무모하고, 가만히 못 있는다고 보여진다. 두 번째 주제는 교태를 부리고 과시적 이라는 용어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세 번째 함축(implication)은 부주의하고 신경질적인 형용사들에 의해 나타나졌다(betokened). 남은 항목은 의혹을 갖는 이고, 낮은 점수의 책임감이라고 알려진다.

1,356명의 사람들(386명의 대학생들과 970명의 수검자들) 의 합성 샘플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200개의 형용사들은, 8단계 후에 임의적으로 그 과정이 중단되면서 책임감 점수로 퇴보되었다(regressed onto). 책임감 측정을 위한 여덟 가지 형용사들의 가장 좋은 조합은 .42 (=.18)의 다중 상관을 가졌다. 양성적인 beta weights의 형용사들은 신뢰성 있고 잘 조직된 이다. 음성적인 beta weights의 형용사들은 모험적이고, 냉소적이고, 태평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조용하며 의혹을 갖는다 이다.

부록 E에서, 547명의 남성들과 393명의 여성들의 샘플에서의 책임감에 대해 가장 양성적 상관관계에 있는 4가지 항목들과 가장 음성적 상관관계에 있는 4가지 항목들은 California Q-Set 에서 비롯했으며 아래에 리포트 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각각의 수검자들은 다섯 혹은 그 이상의 직원 관찰자 심사위원들에 의해 Q분류로 묘사되었고, 대체적인 동의로 분류된 100개의 항목들은 책임감 점수들과 연관되었다. 상관관계들은, 처음 것은 504명의 남성들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 것은 393명의 여성들에 대한 것이다.

정말로 책임감 있고 신뢰성 있는 사람이다 (.23, .30)

생산적이다; 일을 해낸다(get things done) (.16, .30)

지능적이고 인지적인 문제들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긴다 (.26, .33)

스스로에 대해 높은 열망을 가진다 (.27, .18)

행동과 태도가 예측할 수 없고 잘 변한다 (-.15, -.27)

다양한 필요들이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경향이 있고 통제되지 않은 표현인 경향이 있다; 만족을 지연하지 못한다 (-.20, -.31)

특질상, 한계를 시험 하려고 한다; 그 혹은 그녀가 무엇을 잘 해내는지 본다 (-.31, -.22)

제멋대로 한다 (-.25, -.30)

책임감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정말로 책임감 있고, 생산적이고, 지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으며 높은 열망을 가진다고 평가된다. 책임감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변덕스럽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통제불가능하고, 규칙을 시험하며(rule-testing) 제멋대로 한다고 보여진다. [105, Table 5.8]

집중적인 삶의 이력 인터뷰들은, 인터뷰어가 일어났던 몇몇 일에 대해 묘사하는 99개 항목의 체크 리스트를 완성한 두에 504명의 남성들과 379명의 여성들에 대해 시행됐다. 체크된 항목에 1점 그리고 공란으로 남겨진 항목에 0점을 메긴 Dummy weights 들은 그 뒤에 책임감 척도의 점수와 연관 지어졌다. 책임감 척도와 가장 양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4개의 항목들과 가장 음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4개의 항목들은, 남성(첫 번째) 그리고 여성(두 번째)에 대한 계수와 함께 아래에 나와있다.

집에서 공손하고 예의 바른 행동이 강조된다 (.13, .12)

고등학교 때 우등생 이었다 (.24, .15)

미래에 대해 안정적이고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다 (.17, .23)

신경증적인 경향, 갈등, 그리고 다른 형태의 불안정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보인다 (.14, .19)

피면접자가 부모와의 큰 마찰이 있었다 (-.08, -.19)

고등학교 때 첫 성관계를 가졌다 (-.30, -.17)

고등학교에서, 경계선상에 있고(borderline) 비행적인 성향을 보였다 (-.21, -.16)

고등학교 때의 스스로가 부진아 였다고 여긴다 (-.22, -.14)

책임감 점수가 명백히 높은 사람들은, 공손한 행동의 관습적 기준에 집중하도록 주입됐었고, 학교에서 잘 했고, 안정적으로 발달했고, 미래에 대해 낙천적 견해를 가지며, 신경증과 정신적 고통의 명백한 징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보인다. 책임감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와 갈등이 있고, 그들의 성적인 경험을 고등학교 때 시작하고, 비행적인 삶을 살았으며, 학업적으로 부진아 였던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강력한 발달 사(developmental history)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생활 관점에서의 눈에 띄는 증거와 함께, 더 높거나 더 낮은 점수의 책임감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책임감 점수와 관련이 있는, 관찰자에 근거한 정보의 마지막 자료는, 200명의 남성들은 그들의 아내나 파트너에 의해 완성되고 200명의 여성들은 그들의 남편이나 파트너에 의해 완성되며, 그리고 111명의 남성 수검자들은 3명의 직원 관찰자 심사위원들에 의해 완성된, 50개 항목의 Q분류에서 비롯한다. 책임감과 관련하여, Q분류와 가장 양성적 관계에 있는 세 가지 항목들과 가장 음성적 관계에 있는 세 가지 항목들은, 남성, 여성, 그리고 수검자들에 대한 계수와 함께 아래에 나와있다.

양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다 (.19, .12, .16)

행동에 있어서 솔직하고 직접적이다; 견해가 성숙하고 현실적이다 (.14, .09, .20)

윤리와 도덕에 대한 매우 발달된 감각을 가진다; 매우 인도주의적이고 이타적이다 (.11, .19, .17)

의심이 많고 냉소적이다; 대부분의 것을 불만스러워 한다; 타인의 걱정이나 문제에 무관심하다 (-.12, -.16, -.28)

변덕스럽다(Given to moods); 종종 어렵고 다루기 힘들다 (-.22, -.14, -.11)

거칠고 저속하다; 상스럽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16, -.18, -.15)

여기에서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보통이다 그러나 높은 점수의 책임감에서는 윤리적 행동과 견해를 가리키고, 낮은 점수에서는 불신, 변덕스러움, 그리고 고집스러움을 가리킨다.

정리하자면, 높은 점수의 책임감은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성숙도, 타인에 대한 신중함, 합리적으로 계몽되어 규칙을 준수함, 공손함, 자기수양, 신뢰성, 그리고 인내심과 연관되어있다. 낮은 점수의 책임감은 충동성, 방종함, 냉소적, 고의적, 그리고 쾌락주의적 미성숙함과 연관된다.

**사회성 (So, Socialization) 척도**

사회성에 대한 46개의 항목은, 정신질환 이론 중 역할놀이(role-taking) 혹은 관점 바꾸기(perspective-taking) 이론(Gough, 1948c)과 대인관계와 관련된 비행행동의 작용에 대한 임상에 지식 기반하여 청소년 비행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64개의 항목(Gough & Peterson, 1952)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척도의 초창기 설계 당시, 고등학교 학생, 같은 학교의 징계 대상자들, 청소년 권한 피보호자(youth authority wards)들 그리고 소년원 수감자를 포함한 다섯명의 남성과 네명의 여성 표본이 고용되었다. 연구의 목표는 척도를 사회학적 연속체에 따라 개인 혹은 단체를 극단적으로 정직하고 청렴한 쪽에서부터 평범하게 규칙을 준수하는 범위를 거쳐 약간 다루기 힘든 반항적인 범위 그리고 지나치게 비사회적이고 강력하게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경향의 범위까지 분류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척도가 처음 소개된 이래 45년 동안, 점수가 사실은 사회학적 연속체(sociological continuum, see Gough, 1994, for an extensive review)에 대하여 매우 진단적인 위치에 있다는 증거가 많이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69명의 남성 표본이 사회성 점수 순서로 나열되었을 때, 덜 사회화된 모든 표본들은 29.50 이하의 평균을 가지고 있었고, 더 사회화된 모든 표본들은 평균이 그 위에 있었다. 분포에서 낮은 점수의 극단에는 폭행죄, 다중범죄, 마약 중독 전과가 있는 비행 청소년들이 있었다. 29.5점 바로 아래의 표본들은 초범, 범죄 내력은 없는 노출증 환자, 마리화나를 피우는 대학생, 그리고 가게 좀도둑들이다. 나열의 맨 위쪽에는 은행 매니저, 의대 지원자, 사업을 시작한 기업가, 그리고 공대 대학원생들이 있다. 40명의 여성 표본에 대해서는 덜 사회화된 모든 그룹에 대한 평균이 29.5 미만으로 나왔고 더 사회화된 모든 그룹에 대한 평균은 그것 이상으로 나왔다.

내표본의 차이(within-sample differene) 또한 주목할만하며 기대되는 방향이다. 한 연구에서는 (DeFrancesco & Taylor, 1993) 남자 비행청소년들을 무단결석, 통금 어기기 와 같은 작은 방황을 한 청소년들과 도둑질이나 빈집털이 같은 재산 관련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그리고 무장 강도와 같은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로 분류했다. 네번째로 테스트된 그룹의 소년들은 같은 지역에 사는 다른 연령대(15에서 16세)의 학생들이면서 전과 기록은 없는 청소년들이었다. 121명의 소년들 표본으로 이루어진 네개의 sub sample에 대해 1에서 4까지 dummy value를 매겼을 때, 46개 항목의 사회성 척도와 .71의 연관성을 보였다. 91명의 방황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세개의 sub sample에 대해서는 .48의 연관성을 보였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Edwards & Nagelberg, 1986), 식이장애가 있는 25명의 여대생과 그렇지 않은 25명의 여대생이 비교되었다. 사회성에 대한 점 2 연상관(point biserial correlation) 은 .38로, 식이장애를 가진 여성은 사회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마리화나를 이루지 않은 601명의 대학생들과 마리화나를 피운 151명의 학생의 비교에서는(Goldstein, 1974), 점 2연상관 .38을 보이며 피우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사회성 점수가 나타났다. Schalling(1978)은 사회성 척도에 대한 타당도 확인 연구에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포함된 25개의 표본을 통해 비행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이 아닌 학생들을 대조하여 .73의 연관성을 발표했다.

더 많은 최근 연구에서 (Gough & Bradley, 1992b) 비슷한 또래 및 지위의 272명의 남성 비행청소년 및 재소자들을 1088명의 비행청소년이 아닌 사람들과 비교했다. 이 비교에서 점 2연상관은 .54였다. 같은 연구에서 400명의 여성 비행청소년 및 재소자와 2266명의 평범한 대조군 여성들을 비교했을 때는 더 높은 점 2연 상관인 .58이 나왔다.

사회성에 대한 논문(Gough, 1994) 에서, 69명의 남성과 40명의 여성 표본에 대한 사회성 평균 점수의 나열은 남성의 경우 32점 이상 여성의 경우 33점 이상의 점수는 사회적 규범을 평균 이상으로 따르는 수준, 남성의 경우 30에서 31점 여성의 경우 30점에서 32점의 경우 평범한 수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26점에서 29점까지의 점수는 적당히 제멋대로인 수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25점 이하의 경우 사회적 규범이나 규율을 따르지 않는 심각한 문제 수준의 지표가 되었다.

사회성 척도의 목적 중 하나는, 사실 모든 검사에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여러 문화에 걸쳐 적용이 가능하고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다. 성격에 대한 Folk concept들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것을 뛰어넘는 공동생활의 산물로 인해 자연적으로 파생된 보편적인 것으로 어떠한 사회에 속한 개인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이해된다. 사회성 척도에 대한 초기 연구(Gough, 1956b)는 남녀 각각에 대해 비행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 간의 비교를 통해 8개의 언어와 10개의 나라 간의 문화비교적(cross-cultural) 타당성을 시험했다. 설문지에 참여한 사람의 수는 비행청소년 5052명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21772명이다. 모든 비교연구에서 비행청소년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사회성 점수는 명백하게 높게(p<. 001) 나타났다. 미국에서의 비교연구 에서는 점 2 상관 계수가 남성의 경우 .59 여성의 경우 .46으로 나타났다. 모든 다른 표본들에 대해서는 합성물로 여겨졌으며, 남성에 대해서는 .43 여성에 대해서는 .56의 점 2 상관을 보였다. Hitmax 기술을 이용하여 비행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사회성 점수 기준을 규정하였는데, 그 최적의 차이는 raw score 28점에서 나타났다. 즉, 28점 혹은 그 이상을 받은 응답자는 비행청소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수는 남성의 경우 30% 여성의 경우 20%의 기저율 가정을 뛰어넘으며, 남성에 대해서는 78% 이상의 여성에 대해서는 85% 이상의 정확성을 보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성 청도의 첫번째 버전에는 64개의 항목이 있었다(하지만 비행성 척도였기에 채점은 반대로 이루어졌다). 1956년에 CPI 480 버전에서 항목은 54개로 줄었다. 1986년의 462 버전에서는 사회성 척도가 더욱더 간략해져서 46개의 항목이 되었다. 1986 버전에서의 두개의 항목은 없어져야 했는데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과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사라진 항목은, “나는 한번도 술을 많이 취할 정도로 마셔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술을 많이 마셔왔다”였다. 두개의 사회적 행동을 구별하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던 다른 항목들은 교체되었다. 464 버전과 434 버전 간의 상관성은 3000명의 남성과 3000명의 여성 표본 모두에 대해 .99였다.

문항 간 상관분석은 6000명의 사람들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11개의 항목과 8개의 가치에 대하여 1.00 혹은 그 이상의 상관성을 보였다. 네개의 요인은 Kaiser의 normal varimax에 따라 교대를 위해 유지되었다. 사회성 척도에 대해 선행된 요인 분석(Butt, 1973; Defrancesco & Taylor, 1986; Rosen, 1977; Stein, Gough, & Sarbin, 1966)은 모두 네개에서 여섯개의 요인이 문항 간 상관의 변화에 가장 주요한 요인을 설명한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새로운 분석에서의 요인 1은 자기훈련(self-discipline)과 규칙을 지키는(rule-observing) 행동으로 구성되어있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나는 가끔 사고를 쳐서 교장에게 불려갔다” (“거짓”), “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해본 적이 없다” (“참”),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 가끔씩 도둑질을 하였다” (“거짓”) 요인 2는 낙관주의, 자신감, 긍정적인 감정의 지표가 되는 항목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나는 다른사람들이 보는 것 보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거짓”), “삶은 항상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준다” (“거짓”), 그리고 “나는 내가 나눈 것 보다 더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다” (“거짓”) 가 있다. 요인 3은 좋은 가정교육과 가족에 대한 좋은 기억의 지표가 되는 항목들이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우리 가족의 삶은 항상 행복하다” (“참”),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매우 가깝다” (“참”). 요인 4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생각과 사색적인 기질의 지표가 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있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나는 자주 타인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고 어떠한 인상을 주는가에 대해 생각한다” (“참”), “나는 자주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못한 채 얼떨결에 행동한다” (“거짓”).

한 연구(Kubicka et al, 1995)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190명의 30대 체코 젊은이들과 받아들여진 임신으로 태어난 대조군 비교를 통하여, 사회성 척도에 대한 네개의 subscale을 찾는 것을 시험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90명의 남성과 100명의 여성은 대조군에 비해 사회성 점수가 현저하게 낮았으며 또한 자신감과 어린시절의 좋았던 기억에 대한 subscale에 대해서도 낮은 점수를 보였다. 낙관주의와 자신감 부분(subscale)에 대해서는 여성 표본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남성 표본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 부분에 대해서는 원치않는 임신과 그렇지 않은 임신 표본 간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성별간의 차이는 뚜렷하게 보였다.

Collins(1997)은 사무직 종사자 범죄자와 사무직 종사자 대조군을 통해 사회성 척도에 속해 있는 네개의 subscale에 대해 확증적인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네개의 요인 구조(four-factor structure)에 대해 양쪽 표본에서 중요한 유사성을 발견하였다. 모든 네개의 subscale은 사무직 종사자 범죄자와 사무직 종사자 대조건 사이에 차이를 보였다. 대인관계에 대한 인식이 .98로 가장 큰 effect-size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자기훈련(self discipline)이 .78, 그리고 낙관주의와 좋은 감정이 d value .68로 그 뒤를 따르고, 어린시절의 좋은 기억이 d value .38이었다. 총체적인 사회성 척도에 대해서 차이는d value 1.02(비범죄자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로 매우 눈에 띄었다. D value 1.00은 하나의 표준편차에 대해 두개의 대조되는 그룹 사이의 평균 차이를 설명한다. 107명의 남자 대학생과 199명의 여대생에 대한 사회성과 어린시절 경험 간의 관계성(Kosson, Steuerwald, Newman, & Widom, 1994)은 발달에 끼치는 많은 영향에 주목할만했다. 엄마와의 갈등은 남성에게는 -.26 그리고 여성에게는 -.35의 관계성을 보였고, 아빠와의 갈등은 각각 -.43 과 -.34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비난과 사회성의 관계는 남성이 -.30 여성이 -.42를 보였다. 하지만 부모님과 연락을 한 기록의 관계성은 각각 .28과 .31로 나타났다. 사회성 점수는 또한 마리화나 혹은 코카인을 사용한 적이 없고 술도 마시지 않는 것과 뚜렷한 관련성(p< .001)을 보이며 도둑질과는 음의 상관(-.58, -.39)을 보인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사회화가 잘 된 306명의 대학생 표본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병리적(pathogenic) 어린시절 환경에서 자랐으며 일찍이 일탈행동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88명의 남성과 89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세달에 한번씩 Buss-Craik 검사가 실시되었다. 사회성에 대해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다섯개의 행동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다섯개의 행동은 아래와 같다.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여 듣는다 (.25)

회의에 시간 맞춰서 도착한다 (.20)

친구가 고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집중하여 들어준다 (.19)

교회에 다닌다 (.22)

주운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준다 (.18)

기분 안좋게 하는 농담(off-color joke)을 한다 (-.20)

히치하이킹을 한 적이 있다 (-.22)

사적인 질문에 대해 의도적으로 느리게 답한다. (-.22)

Table 5.9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 그들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비난한다.(-.21)

친한 친구가 CD를 빌려가도록 허락한다 (-.24)

이러한 행동들은 굉장히 특정적이고 좁은 범위의 행동이지만 행동들이 합쳐지면 좋은 시민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사회성 점수가 높은 사람을 보여준다. 또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비관습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드러낸다.

6개의 샘플에 포함되어 있는 1828명의 사람들의 묘사를 담은 형용사 체크리스트는 사회성 척도 점수와 연관되어있다. Table 5.9에서 보여주듯이,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12개의 단어들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12개의 단어들은 발표를 위해 선택되었다.

사회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관찰자들에 의해 성실하고, 믿을수 있고, 솔직하고, 신뢰가 간다고 묘사되었다. 또한 협조적이고, 겸손하며, 진지하고 요령있고, 타인의 감정에 예민한 사람으로 보여졌다. 또 다른 주제(theme)는 효율적이고 잘 정돈되었다고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관찰자들은 그들은 보수적이고 관습적이라고 보았다.

사회성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조심성이 부족하고, 쉽게 변화며, 정돈되어 있지 않고, 인내심이 없으며 충동적이고 배반적이고 난폭하고 신경실적-태만하고 규범에 역행하는 경향을 가리키는 표현들- 이라고 보여졌다. 시니컬하고 풍자적이라는 묘사는 다른사람에게 감정이입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묘사들은 즐거움을 쫓고 자기중심적이며 자만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관찰자의 묘사 중 사회성 척도에서의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 특정 부분집합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1356명의 사람들 표본을 통해 200개의 가장 자주 쓰이는 형용사들을 찾아내는 회귀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은 임의적으로 여덟개의 단계 이후에 멈추었다. 여덟가지 집합의 묘사 중 가장 큰 다중상관을 가진 것은 .40(R제곱=.16)이었다. Positive beta weight의 형용사들은 솔직함과 정돈됨이었다. Negative beta weight의 형용사들은 불만족하는, 태평한, 개인주의적인, 배반적인, 냉정한, 경계하는 이었다.

*California Q-Set*의 100개의 항목은, 다섯명 혹은 그 이상의 관찰자에 의해 Q-sort 상 묘사된 547명의 남성과 393명의 여성에 대하여, 사회성 점수와 상관성을 보였다. 이러한 독립적인 공식은 각각의 개인에 대하여 하나의 Q-sort로 합쳐졌고, 그 후 사회성 점수와 연관된 항목으로 합쳐졌다. 가장 큰 양의 상관을 보이는 네개의 항목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보이는 항목의 계수는 아래에 나와있다. 첫번째 계수는 547명의 남성에 대한 것이고 두번 째 것은 393명의 여성에 대한 것이다.

진실로 신뢰가 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27, .30)

꼼꼼하다 (.22, .28)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보수적인 가치를 선호한다. (.23, .30)

변함없이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한다; 스스로의 개인적인 기준이 한결같다 (.22, .28)

행동과 태도에서 예측 불가능하고 바뀔 수 있다 (-.23, -.35)

상대적으로 직접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표현에 대한 다양한 욕구; 만족을 미루지 못하는 (.21, -.35)

배반하고 부정합한 경향이 있다 (-.30, -.34)

성격 상 밀어붙이고 한계를 늘리려고 한다; 무엇을 자기가 하고싶은대로 할 수 있는 지 본다(-.27, -.28)

사회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Q-sort* 공식은 진실성과 윤리성을 강조하고 또한 점수가 높은 개인을 보수적이고 꼼꼼한다고 묘사한다. 낮은 점수의 사람은 배반적이고 쉽게 변하며 태만하고 다루기 힘들다고 보여진다.

Life history interview는 504명의 남성과 379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어있다. 각각의 인터뷰 이후에, 인터뷰어는 99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직접 관찰한 것과 세션 중 받은 인상을 기록한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체크한 것은 1 체크하지 않은 것은 0이 부여되었다. 사회성에 대해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네개의 항목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네개의 항목은 아래에 나와있다. 첫번째 계수는 504명의 남성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는 379명의 여성에 대한 것이다.

자애롭고 관대한 (.16, .27)

가족 생활이 전반적으로 꽤 행복했던 (.24, .40)

예의바른 행동이 집에서 강조되었다 (.17, .21)

안정적이고 긍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17, .28)

피면접자가 한쪽 혹은 양쪽 부모를 부끄러워한다 (-.21, -.27)

피면접자가 부모님과 큰 갈등을 가지고 있다 (-.27, -.41)

학교 혹은 집에서 행복하지 않다 (-.27, -.26)

경계선을 이끄는(led a borderline), 고등학교 때 존재하는 비행청소년 같은 (-.24, -.16)

여덟개 중 여섯개의 항목은 가족 상황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자애롭고 관대하며 가족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고 공손하고 예의바른 행동을 집에서 강조한다고 보고했다. 사회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한쪽 혹은 양쪽 부모를 창피해 하거나, 부모님과 갈등이 있고, 집에서나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아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은 또한 고등학교에서 존재할 법한 비행 행동을 한다고 보고되었다. 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은, 다시 말하자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존중하도록 사회화 된 것이다. 반면 사회성이 낮은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 혹은 부모의 통제를 거절하고 아이들이 규범을 시험하거나 어기는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많다.

관찰적 자료의 마지막 원천은 200명의 여성이 작성한 자신의 연인 혹은 남편에 대한 기록, 200명의 남성이 작성한 자신의 연인 혹은 남편에 대한 기록, 세명의 평가 직원 판단에 따른 111명의 남성에 대한 기록으로 완성된 50개 항목의 *Interpersonal Q-Sort* 에서 비롯된다.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세개의 항목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세개의 항목은 200명의 남성, 200명의 여성, 그리고 111명의 남성 피평가자에 대한 계수와 함께 아래에 나와있다.

성실하고 진지한 마인드의 사람 (.18, .22, .23)

솔직하고 행동이 직접적인; 성숙하고 현실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18, .12, .27)

잘 정돈되어 있는, 유능한, 인내심을 가진, 근면한; 가치 성취적인 (.18, .12, .27)

가만히 있지 못하고 쉽게 변하는; 다른 사람들과 생각과 행동이 다른 (-.16, -.13, -.21)

고집불통의, 배반적인, 다른사람에게 분개하는, 자기 훈련이 부족한,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파괴적인 행동의 (-.12, -.17, -.26)

기분에 따르는; 자주 어렵고 저항하는 (-.25, -.16, -.30)

사회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성실하고, 솔직하고, 잘 정돈되어 있다고 묘사된다. 낮은 점수의 사람들은 무례하고, 고집불통이고, 기분파 라고 묘사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다른 Q-sort 묘사에서 나타났던 형용사들과 비슷하고 사회성 척도의 목표와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성에서의 높은 점수는 자동화된, 갈등없는, 사회적 규범과 관습의 준수를 가리킨다. 커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높은 점수의 사람들은 부모와 널리 퍼진 문화의 표준을 쉽게 수용하라는 지시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은 믿을만 하고, 잘 정돈되어 있으며, 성실하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성 점수가 raw score 38점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으면 지나치게 순응적이고 지나첵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관습도 수용한다는 단점도 있다. 사회성 점수가 매우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약점 혹은 일탈에 대해 냉혹하고 처벌적일 수 있다.

낮은 사회성 점수는 대인관계적인 삶을 관리하는 사회적 규범을 내재화 하는 것의 실패 혹은 상대적인 실패와 또한 다른 사람의 내적 욕구 혹은 기분을 이해하는것에 어려움을 겪을 불길한 전조를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많은 갈등을 겪으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거칠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고, 지속적이고 상호적으로 보상하는 관계를 설립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또한 충동 제어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남용, 범죄, 그리고 폭행의 상황에 엮이기 쉽다.

**자기 통제 (Sc, Self-control) 척도**

자기 통제 척도는 규범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내면화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CPI의 3개 척도 중 3번째 척도이며 다른 두 개는 책임감과 사회성 척도이다. 책임감 척도에 대한 임상에서 혹은 관찰로 축적한 데이터는 책임감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규범적 제재의 의미와 본질을 잘 알고 이해하며 그들의 순종은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동기에 기반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사회성 척도의 목적도 바로 앞에서 보듯, 매우 규칙 파괴적인 것과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성향 사이에서 반사적으로 관습을 고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연속체 (continuum) 를 따라 개인과 집단을 배열(array)하는 것이다. 그러나, 책임감 척도와 사회성 척도가 사회적 규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혹은 그들의 처방 (prescription) 이 윤리적으로 옳으며 칭송받을 만한 것들로 여겨지는 감정을 위해 필요한 영향들을 가져오지 않는다. 또한, 책임감과 사회성 척도가 낮은 사람들은 제한에 대해 특정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즐겁고, 패기 넘치는 탈피와 같은 일에 대해 이를 테면 축제에 참여하는 기간이나 재난으로부터 피신하거나 갑작스러운 긴장의 완화, 맹렬한 경쟁 상황과 같은 경우에서 전조 (presage) 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회적인 제재에 대한 카텍시스 (:심적 에너지가 어떤 대상에 집중함, cathexis)와 함께 시작하여 변덕, 혈기왕성함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정서와 함께 끝나는3번째 척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이 이론과 척도의 개발 과정은 이전 매뉴얼에 상세히 보고 되었다. (Gough, 1987, pp.45-52)

1956년 CPI 480 버전에서, 자기 통제 척도는 50개의 항목이었다. 1986년 CPI 462버전에서 자기 통제 척도는 38항목으로 감소하였다. 현재의 434 항목 버전의 검사에서 자기 통제 척도는 동일한 38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6000명 (남녀 각 3000명)의 전체 프로파일 준거 집단에서의 38항목에 대한 요인 분석은 10개의 요인을 1.00 혹은 그 이상의 고유값들 (eigen value) 로 확인하였다. 이 중 4개의 요인들은 kaiser normal varimax method를 사용한 회전 (rotation) 을 통해 임의로 얻어진 것이다. 첫번째 요인은 자기통제에 주로 초점을 맞춘 19개 항목을 포함했는데, 예를 들면, “나는 화가 나면, 성질이 고약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한다” (“거짓”), “나는 종종 멈추고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거짓”), “가끔 나는 무언가를 박살내고 싶어진다” (“거짓”), “나는 종종 성급하다는 말을 듣는다” (“거짓”) 이다. 요인 2는 겸손하며 사심이 없는 것을 표현하는 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예를 들면, “나는 관심의 중심에 서는 것을 좋아한다” (“거짓”), “나는 때때로 내 성취에 대해 뽐내는 것을 좋아한다” (“거짓”) 이다. 요인 3은 규칙을 어기는 성향을 부정하는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제에 연관되지 않으려 한다” (“참”), “가끔 나는 규칙을 어기는 것이나 내가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는 것을 즐긴다” (“거짓”) 이다. 네 번째 요인은 쾌락적 혹은 공격적 감정들의 억제를 나타내는 3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크고 시끄러운 파티를 좋아한다” (“거짓”) 이다.

행위 빈도 자료는 88명의 남성과 89명의 여성 표본 집단에서 분석되었고, 각각은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행동의 발생 빈도를 평가받는다. 자기 통제 척도와 가장 정적 상관이 큰 5개 행위와 가장 부적 상관이 큰 5개 행위가 아래에 제시되어있다.

말하는 사람의 말에 경청하였다 (.20)

교회에 다녔다 (.23)

종교 활동에 깊게 참여하게 되었다 (.18)

공개석상에서 연설하였다 (.17)

혼자 점심을 먹었다 (.17)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려 무언가 말했다 (-.25)

파티에서 춤을 추었다 (-.28)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 (-.29)

춤추는 데 섹시한 차림으로 입었다 (-.28)

한 번 춤추기 위해 옷차림에 많은 돈을 썼다 (-.30)

자기 통제 척도에서 높은 점수와 연관된 5개 행위 중 4개가 기분을 돋우거나 사회적으로 칭찬 받을 만한 행동과 관련이 있다. 자기 통제 척도에서 낮은 점수와 연관된 모든 행동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충동에 대해 특히 성적 충동에 대한 거리낌없는 표현과 관련이 있다.

표 5.10은 관찰자로부터 묘사된 6개의 표본 집단에서 자기 통제 척도와 가장 정적 상관이 큰 12개 형용사와 가장 부적 상관이 큰 12개 형용사를 보여주고 있다. 자기 통제 척도에서 높은 점수와 연관된 여러 개의 형용사는 척도의 이름 즉 자기통제적인, 내성적인, 인내심있는, 체계적인 과 양립 가능 하다. 이 척도의 38항목의 내적 주제 중 하나는 겸손함과 자기 강화 (self-aggrandizement) 를 향하는 경향의 부재를 강조한다. 온건하고 겸손하다는 형용사 묘사는 이 모습이 적어도 어느정도 관찰자들로부터 인정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자기 통제 척도가 높은 사람은 양심적이며, 믿을 수 있으며, 관습적, 보수적이며, 온화한 모습도 보인다.

자기통제 척도가 낮은 사람의 것으로 예상되는 쾌락주의적이며, 인생을 즐기는 모습은 관찰자들의 모험심이 강하고, 짖궂으며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묘사에서 볼 수 있다. 충동의 통제에 관한 문제 역시 고집불통인, 충동적인, 무모한, 부주의한, 신경질적인 이라는 형용사들을 통해 언급된다. 이기적인 요소는 뽐내는 이라는 묘사 속에서 언급된다.

200개의 가장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에 대한 회귀 분석은 관찰자들의 형용사 체크 리스트 (Adjective Chek List, ACL) 묘사가 본래의 표본집단의 부표본 (subsample) 에 의해 처음으로 표준화 되었던 1356명의 표본집단 (남성 806명, 여성 550명) 안에서 도출되었다. 분석은 8단계 후에 임의로 종료되었다. 자기 통제 척도의 점수를 예측하는 데 가장 최적인 8개 형용사 조합은 .37 (R2=.14)의 다중 상관 (multiple correlation)이 있다. 다음의 형용사 3개는 positive beta weight을 가지고 있다: 기민한, 남을 잘 도와주는, 평화를 사랑하는. Negative beta weight을 가지고 있는 5개 형용사는 모험심이 강한, 변덕이 심한, 태평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예민한 이다. 방법이 다소 피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통제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자 한다. 자기 통제 척도가 낮은 사람들은 예상된대로, 경험 추구적이며, 변덕이 심하고 태평하다. 예민함에 관한 항목은 활기넘치는 자기 주장과 달리 취약함의 요소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California Q-Set 에서 항목 100개는 5명 혹은 그 이상의 평가 관찰자들의 패널로부터의 Q-sort로 묘사된 547명의 남성과 393명의 여성의 표본집단들에서 자기 통제 척도의 점수와 상관이 있었다. 자기 통제 척도와 가장 정적 상관이 큰 4개 항목과 가장 부적 상관이 큰 4개 항목이 547명의 남성과 393명의 여성에 대한 상관계수와 함께 아래에 제시되어있다.

진정으로 믿을 수 있고 책임감있는 사람이다 (.25, .31)

꼼꼼하다 (.23, .26)

욕구와 충동을 과하게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과도하게 긴장한다, 만족을 불필요하게 미룬다 (.24, .33)

윤리적으로 일관된 태도로 행동; 그 행동은 자신의 기준과 일치한다 (.21, .35)

다양한 욕구를 상대적으로 직접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만족을 미룰 줄 모른다 (-.24, -.32)

반항적이며 순응적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21, -.29)

특질상 한계를 거부하고 한계 범위를 늘리려고 시도한다; 모면할 수 있는 것을 본다 (-.31, -.34)

제 멋대로이다 (-.23, -.26)

과도한 통제는 자기통제 척도가 높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으며, 과소 통제는 자기 통제 척도가 낮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중요한 발견이며, 다른 것들 중에서도, 자기통제 척도의 최적의 점수는 그 중간 범위 어딘 가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자기 통제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믿을 수 있고 꼼꼼하며, 그들 자신의 기준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보여진다. 자기 통제 척도가 낮은 사람들은 반항적이고 순응하지 않으며 제 멋대로이고 통제나 한계에 직면할 때 조바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547명의 남성과 379명의 여성 집단의 인터뷰 면접관들로부터의 체크리스트 묘사는 체크한 항목에 1, 빈칸으로 남겨둔 항목엔 0으로 dummy weigh을 부여하였고 자기 통제 척도 점수와 상관이 있었다. 자기 통제 척도와 가장 정적 상관이 큰 4개 항목과 가장 부적 상관이 큰 4개 항목이 남성과 여성의 각 상관계수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경우에서는 비록 모두 다 확률이 .05이거나 그보다 클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상관은 아주 낮다.

수줍어하고 과묵하다 (.13, .13)

종교적 신념이 강하다 (.15, .14)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 (.19, .19)

미래에 대해 안정적이고 낙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10, .18)

인터뷰 하는 동안 흥분하였으며 가만히 있지 못했다 (-.13, -.14)

말할 때 손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였다 (-.10, -.12)

움직임의 템포가 빠르다 (-.10, -.11)

고등학교 때 혹은 그 이전에 첫 성경험을 했다 (-.22, -.10)

분명하게도, 자기 통제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하면서 망설였으며 표현을 절제하였다. 그들은 또한 미래에 대해 낙천적으로 말하였다. 자기 통제 척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해 면접관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은 그들의 행동 스타일과 태도이다 –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손을 사용하여 제스쳐를 하며 움직임의 템포가 빠르다는 것이었다. 성적 행동에 대한 내용과 그것의 이른 징후에 대한 항목 1개는 자기 통제 척도 점수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성적 표현에 대해 억제된 반응과 자기 통제 척도 점수가 낮은 사람들 중에서 성적 표현의 상대적으로 열려 있다는 징후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50개 항목 리스트에서 관찰자로부터 얻은Q-sort 묘사는 아내나 파트너에 의해 묘사된 200명의 남성 표본 집단과 남편 혹은 파트너에 의해 묘사된 200명의 여성 표본 집단, 그리고 3명의 평가 관찰자로 구성된 패널에 의해 묘사된 111명의 남성 표본 집단에 사용 가능하였다. 자기 통제 척도와 가장 정적 상관이 큰 3항목과 가장 부적 상관이 큰 3항목이 200명의 남성, 200명의 여성, 111명의 남성 표본 집단 순의 상관계수들과 함께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인내심 있고, 자제력 있는; 절제하고, 자족적인 행동 (.10, .23, .24)

양심있고 진지한 사람 (.23, .19, .16)

체계적인, 유능한, 인내심 있는, 근면한; 성취에 가치를 둔다 (.14, .20, .23)

충동적인, 거리낌이 없는; 쉽게 화내고 짜증내는 (-.13, -.19, -.18)

고집불통인, 반항적인, 다른 사람에게 분개하는; 자기 수양이 부족한; 경솔하고 파괴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09, -.17, -.20)

변덕부리는 버릇이 있는; 종종 어렵고 반항적인 (-.12, -.12, -.10)

위에서 제시된 18개 항목 중 오로지 10개만이 유의수준 0.5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므로 자기 통제 척도와 Interpersonal Q-Sort 와의 상관은 약하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 기반하는 어떠한 해석이라도 매우 잠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다른 자료들로부터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단서들에도 불구하고, Q-sort 항목들과 다른 분석들이 보여준 것과의 유사성을 밝히는 것은 여전히 흥미롭다. 즉, 자기 통제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 규율적이며, 양심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이는 반면, 자기 통제 척도가 낮은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고집불통이며 변덕부리는 버릇이 있는 보여진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자기 통제 척도 점수는 과소통제에서 과도 통제까지 가는 연속체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 통제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과도하게 긴장하며, 즐거움을 추구하고 칭찬할 만하고 강직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원한다. 특히, 그들은 공공연하고 노골적인 공격적, 성적 충동들에 대한 표현을 꺼린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통제는 종종 과도하며 대략 32점 혹은 그 이상의 원점수 수준에서 그들의 억압은 희생을 치른다. 그 희생 중 하나는 누르고 부인되었던 분노가 폭발하고 파괴적인 분출구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희생은 성적인 혹은 공격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 더 솔직하고 열려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려드는 태도이다.

자기 통제 척도가 낮은 사람들은 덜 꺼리며 그들의 감정에 대해 더 열려 있다. 그러나 그들은 곤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심각한 갈등을 야기 할 수 있는 고집 불통이며, 제어가 잘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성향이다. 또 다른 문제는 오래 지속되고 능숙한 관계를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낮은 자기 통제 척도 점수와 관련된 이기주의나 자기 도취이다.

책임감, 사회성, 자기 통제 점수의 형태상 영향 (configural implication) 은 책임감은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규범의 형태를 예견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간단한 토론을 할 만하다; 그래서 사회적 규범에 대한 자율적이고 마찰 없는 준수와 관련된다; 그리고 자기 통제는 규범적 제제가 옳고 적절하다는 감정과 함께 자기절제에 대한 전조이다. 책임감 척도의 완만한 상승 패턴과 다소 평균 아래의 사회성 점수와 자기 통제 점수를 고려해보라. 이러한 척도 조합 패턴 형태 (configuration) 는 창의성과 죄책감 없는 인생의 즐거움과 관련이 되어 있으나 동시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규범 준수 행동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 패턴은 약간의 평균 아래의 책임감 점수와 평균 아래의 사회성 점수, 그리고 꽤 높은 자기 통제 점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척도 조합 패턴 형태는 충동의 과도한 억압, 공격적 감정에 관한 통찰력의 부족, 폭발적이거나 통제되지 않는 파괴적 행동의 분출구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낸다. McAllister (1996, p.75) 는 이러한 3개 척도에 관한 다른 척도 조합 패턴 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사회성이 낮고 자기 통제가 높은 척도 조합 패턴에 대해 코멘트 했다.

**호감성 (Gi, Good Impression) 척도**

호감성 척도의 발달은 chapter 4 에서 “타당하지 않은 Protocols의 탐지” 라고 설명되어있다. 호감성은 사실 두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호의적인 속성들과 선행들을 주장하기 위한 지나치게 격렬한 시도에 당황한 protocols를 확인하는 작업을 돕기 위한 것,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 대한 무관심의 투영에서부터 존경스럽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열망에까지 이르는 다양한 표현 관리(impression management)의 연속체를 정의하기 위한 것. 긍정편향에 대한 호감성의 암시는 대략 raw score 30점과 그 이상에서부터 시작한다. 18점에서 29점까지에 대해, 심리학적 범위는 타인에 대한 반응에 대한 걱정의 증가를 표시한다. 14점과 그 이하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은 그들의 행동과 믿음이 어떠한 호감을 얻기위한 시도에 의해 유도되었다는 생각에 대해 거부한다고 (흔히들 단정적으로) 진술한다.

6000명의 사람들(각각 성에 대해 3000명) 이라는 샘플을 대상으로 한 호감성 척도 안에 있는 40개의 항목에 대한 인자 분석(factor analysis)은 1.00 혹은 그 이상의 고유값을 가진 10가지의 요인을 발견했다. 이들 중 네개는 로테이션을 위해 Kaiser의 일반 배리맥스 방식(normal varimax method)의 수단에 의해 임의로 유지되고 있다. 요인 1은 자기 고양적 편향 혹은 자기중심적인 동기를 부정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언제나 원칙을 따른다: 즐거움 보다는 일이 먼저” (“참”), “나는 때때로 나의 성취를 뽐내는 것을 좋아한다.” (“거짓”), 그리고 “나는 기회가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던지 자랑하는 하는 경향이 있다.” (“거짓”). 요인 2는 침착함 그리고 변덕 혹은 짜증의 부재를 주장하는 항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때때로 나는 기분이 안좋아지고 아무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거짓”) 그리고 “내가 만약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나는 약간 화가 나고 불평이 많아진다.” (“거짓”). 요인 3은 감독을 기꺼이 자진하여 받아들이고,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 아래에서 일하고, 그리고 어떠한 인간관계에서의 갈등도 피할 의사를 진술하는 항목들을 포함한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나는 명령을 받고 해야할 일을 듣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참”), “나는 가족 구성원과 다툰 적이 거의 없다.” (“참”), 그리고 “나는 항상 행동하기 전에 다른사람의 기분을 고려하려고 노력한다.” (“참”). 요인 4는 타인의 윤리성과 호의에 관한 신념을 표현하는 항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그것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것이다.” (“거짓”)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곤경에 처했을 때 몰래 기뻐한다.” (“거짓”).

호감성에 대한 행동의 빈번성(Act frequency) 암시는 177명의 사람들(88명의 남자, 89명의 여자) 에게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의 애인 혹은 배우자에 의해 행동의 빈도성이 채점되는 방식으로 검사되었다. 호감성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상호관계의 다섯개의 행동과 가장 부정적 상호관계의 다섯개의 행동은 아래와 같다.

말하는 사람에게 귀기울여 들어준다 (.21)

상사와 저녀을 같이 먹은 적이 있다 (.16)

교회에 다닌다 (2.5)

종교적 행동에 깊게 빠져있다 (.19)

모임 혹은 학교 축제에서 적극적이었다 (.15)

그/그녀를 얻기 위하여 애정을 주지 않았다 (-.28)

다른 사람이 술을 사도록 냅두었다 (-.25)

그/그녀가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거부하였다 (-.25)

다른사람의 관점에 대해 듣기 싫어하였다 (-.29)

그/그녀의 마음을 바꾸기를 거부하였다. (-.26)

Table 5.11

다섯개의 행동 중 호감성에서의 높은 점수와 연관되어있는 두개는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모임의 일에서 역할을 맡는 것이다. 또 다른 두개의 행동은 타인에 대한 조금 더 즉각적이거나 개인적인 관심과 관련되어있다. 호감성에서의 낮은 점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행동들은 다른이들의 요구 혹은 수요에 대한 저항과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가지려는 고집을 암시한다. 호감성에 낮은 점수(raw score가 12점 혹은 그 이하)를 얻은 개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이러한 다섯개의 행동과 일치하는 껄끄럽고 고립된 행동을 드러내왔다. 관찰자에 의한 여섯가지 다른 샘플의 사람들에 대한 형용사적 묘사들은 Table 5.11에서 보여주듯이 호감성과 연관되어있다. 가장 큰 양의 상관의 12개 형용사들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의 12개 형용사들은 table에 인용되어있다. 이러한 관계들을 분석하는데 있어 이러한 연구에 참여한 1828명의 응답자 중 누구라도 호감성 척도에서 긍정편향 범위의 점수를 얻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은 기억되어야 한다. 호감성 점수가 적당히 오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쾌활하고 마음이 잘 맞는 다른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표현했다. 관찰자들은 그들을 협동적이고 안목이 높은 사람으로 보았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 또한 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평범하고, 빈틈없고, 조용한 면모를 보였다. 그들의 행동은 어딘가 형식적인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관습적이고 보수적으로 묘사되었다.

호감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꽤 다르게 묘사되었는데, 따지기 좋아하고, 불만족스럽고, 불평이 많고, 신경질 적인 과 같은 형용사들의 집단이었다. 또 다른 집단은 고집불통의, 충동적인, 배반하는, 그리고 무례한 과 같은 형용사들과 함께 자기 주장적인이라는 형용사와 연관되어있다. 즐거움을 쫓고 짖굳은 것은 세번째 집단이 된다. 그리고 그 리스트는 부주의함과 감정적인으로 마무리된다.

1356명의 사람들과 Subsample에 의해 표준화된 형용사적 묘사로 이루어진 샘플에서, 호감성 척도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200개의 표현으로의 회귀가 수행되었고 여덟개의 단계에 대한 분석은 임의적으로 끝이 났다. 이 시점에서, 다중 상관은 .31(R-제곱=.10)이었다. 단 하나의 항목만이 positive beta weight를 가지고 있었다. Negative beta weight를 가진 일곱개의 형용사들은 어색한, 변화적인, 시니컬한, 태평한, 민감한, 신경질적인, 그리고 재치있는 이다.

*California Q-Set*에서의 100개의 항목들과 호감성 척도의 관계는 547명의 남성과 393명의 여성을 샘플로 연구되었다. 각각의 개인들은 다섯명 혹은 그 이상의 평가 보조 관찰자(assessment staff observer) 패널에 의해 *Q-sort*에 묘사되었다. 이러한 별개의 공식들은 각각의 피평가자에 대한 합의로 합쳐졌고, 그리고 Q-sort 항목들은 호감성 척도의 점수와 상관되었다.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네개의 항목들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네개의 항목들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계수와 함께 아래에 나와있다.

꼼꼼하다 (.20, .22)

다방면에서 보수적인 가치를 선호한다 (.15, .24)

도덕적이다 (.14, .26)

호의적이고 사려깊게 행동한다 (.17, .18)

행동과 태도에 변화가 많고 예측할 수 없다 (-.12, -.27)

배반적이고 규범을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다 (-.18, -.26)

특이하게 밀어붙이고 제한을 넓히려 한다; 그 혹은 그녀가 무엇을 잘해내는지 본다 (-.21, -.24)

제멋대로 한다 (-.13, -.27)

호감성에서의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꼼꼼하고, 보수적이고, 도덕적이며, 사려깊다고 묘사된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쉽게 변하고, 순응하지 않고, 다루기 힘들고, 자기멋대로 행동한다고 묘사된다.

호감성 척도와 인터뷰어들의 인상의 관계성은 99개의 항목 체크 리스트에도 기록되어있듯이 대부분 발표하기에는 너무나도 작다. 단 하나의 항목만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눈에 띄게 (p<.05) 음의 상관을 보였고 , 네개의 항목만이 남자와 여자 양쪽의 subsample에 눈에 띄는 양의 상관을 보였다. 호감성에서의 낮은 점수와 연관된 항목은, “첫 성경험을 고등학교 혹은 그 이전에 경험하였다” 였고 504명의 남자에게 -.19 379명의 여자에게 -.13의 계수를 보였다.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네개의 항목은, “공손함과 예의바른 행동을 집에서 강조받았다” (.12, .14), “행복한 결혼을 하였다” (.11, .10), “미래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14, .22), 그리고 “신경질적인 분위기, 갈등, 그리고 다른 형태의 불안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11, .13)이다.

*Interpersonal Q-sort* 50개 항목에 대하여 호감성과의 관련성은 약간 더 강하다. 이 연구는 세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아내 혹은 연인에 의해 묘사된200명의 남성, 남편 혹은 연인에 의해 묘사된 200명의 여성, 그리고 세명의 평가 보조 관찰자(assessment staff observers)에 의해 묘사된 111명의 남성. 가장 큰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세개의 항목과 가장 큰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 세개의 항목은 남성, 여성 그리고 111명의 남성 피평가자들(assessees)에 대한 계수와 함께 아래에 제시되어있다.

성실하고 진지한 사람 (.17, .14, .16)

잘 정돈되어 있고, 능력있고, 참을성 있고, 근면하다; 가치의 성취(values achievement) (.11, .18, .25)

타인을 대할 때 젠틀하고, 사려깊고, 눈치가 빠르다; 고맙게 느껴지고 도움이 되는 (.14, .15, .14)

충동적이고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19, -.22, -.14)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니컬한;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 불만족하는; 타인의 걱정과 문제에 무관심한(-.10, -.18, -.16)

비판적이고 거침없이 말하는;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생각을 폄하하는 (-.14, -.09, -.19)

호감성의 적절한 상승과 관련되어있는 인내, 눈치, 그리고 타인에 대한 걱정은 양의 상관관계의 항목과 명백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평균 이하의 호감성 점수와 연관된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고 비판적으로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얕보는 성향은 음의 상관관계 항목들과 명백하게 연관되어있다.

요약하자면, 평균 이상이면서 지나치게 높은 정도는 아닌 응답자는 그들 자신을 협력적이고, 도움이 되고, 사려깊다고 여기며 실제로 타인에데고 똑같이 묘사된다. 이러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도덕적인 경향과 기회주의적 면모이다. 직장에서 호감성에서의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흔히 상사에게 환심을 사려 하면서 자신의 후임은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호감성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공격적으로 무관심 할 정도로 그들 자신의 진실성을 가치있게 여긴다. 그들은 또한 쉽게 불평하고, 비판하며, 보수적인 동료의 표면적 의도와 좋은 면모에 대해 회의적이다.

**동조성 (Cm, Communality) 척도**

동조성 척도는 문제에 대해 부주의한, 랜덤의, 알 수 없는, 혹은 극단적으로 드문 패턴의 응답에 의해 무효하게 된protocols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특정 날짜까지 테스트된 모든 그룹의 응답자 중 대부분에 의해 “참”이라고 답해진 것과 대부분에 의해 “거짓”이라고 답해진 것에 점수가 부여된다. 이러한 “동조성” 반응은, 하지만, 비영어권 버전의 검사 시행을 기다려야한다. 여기 몇몇 예시와 각 성에 대한 3000명의 사람들의 profile norm 샘플을 통해 어느정도 퍼센트가 “참”이라고 답하였는지 나와있다:

나의 부모님들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95% 와 91%)

교육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 (90% 와 93%)

만약 내가 운전을 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나가도록 냅둔다. (10% 와 6%)

투표는 성가신 것에 불과하다 (3% 와 4%)

동조성 척도에서, 처음 두개의 항목은 “참”에 점수가 부여되고 마지막 두개의 항목은 “거짓”에 점수가 부여된다.

자극제시효과(Modality effect)으로 인해, 점수는 척도의 높은 쪽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38개의 항목에 대하여 규범 평균(norm means)은 34.5 정도로 나온다. 점수의 긴 꼬리는 자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응답자, 시험에 대한 접근 방향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확연하게 다른 응답자 들을 포함하며 아래쪽으로(점수가 낮은 쪽으로) 갈수록 길어진다.

Chapter 4에서, 부적절한 protocols를 탐지하기 위한 동조성 척도의 사용은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되었다. 이번 chapter에서는, 타당하다고 간주되는 protocol을 위한 척도의 의미에 더 집중할 것이다. 첫번째 단계는 38개의 항목에 대한 6000명의 profile norm sample요인 분석(factor analysis)에서부터 온다. 열개의 항목들은 고유값이 1.00 혹은 그 이상이 나왔고, 이 중 네개는 임의로 Kaiser의 normal varimax의 방법에 의한 교대롤 위해 보유되었다. 요인 1은 인간 본성에 대해 시니컬 하거나 적대적인 시각에 반대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은 교육을 받는다” (“거짓”), “사람들은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들의 커뮤니티를 위해 행동할 것을 기대되어서는 안된다” (“거짓”), 그리고 “솔직한 사람이 세상에서 앞서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짓”)가 있다. 요인 2는 자기 자신과 사회에 대해 낙관주의를 표현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회는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거짓”) 그리고 “나는 주로 삶이 가치있다고 느낀다” (“참”) 이 있다. 요인 3에는 삶의 경험을 통해 이득을 얻는다는것을 인지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우리가 삶에서 시행착오와 고생을 통해 더 나아진다고 믿는다” (“참”) 그리고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떠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참”)이 있다. 요인 4는 보통의 감정과 애정을 인정하는 항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굉장히 화가 났던 순간들이 있다” (“참”)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동정을 얻기 위해 그들의 문제를 과장한다” (“참”)이 있다.

행동 빈도 자료(Act frequency data)는 177명의 사람들(88명의 남성, 89명의 여성)의 샘플을 통해 분석되었다. 각각의 사람들은 배우자 혹은 연인에 의해 지난 세달 간 특정 행동에 대해 어떠한 빈도수를 보였는지 측정되었다. 동조성에 대해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다섯개의 행동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다섯개의 행동은 아래에 나와있다.

회의를 위해 제 시간에 도착한다 (.20)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농담을 한다 (.19)

교회에 다닌다 (.22)

휴일에 축하 카드를 보낸다 (.20)

물건을 사기 전 가격을 살핀다 (.27)

연인의 전화에 전전긍긍한다 (-.18)

식당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 (-.20)

혼자 중얼거린다(-.17)

주말에 아무 계획이 없다(-.16)

대화 중에 시선을 맞추는 것을 피한다 (-.16)

상관관계는 꽤 작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양립되는 생각들이다. 동조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회의 시간을 잘 지키고, 긴장적 상황을 풀기 위해 유머를 던지고, 교회에 다니고, 연휴에 카드를 보내고, 물건을 사기 전에는 값을 확인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관습적이며 평범한 행동들이다. 동조성에서의 낮은 점수가 연관된 항목들은 연인 혹은 배우자의 연락에 전전긍긍하고, 식사를 혼자 하고, 똑바로 말하는 대신 중얼거리고, 주말 계획을 잡지 않고, 아이컨택을 피하는 것들이다. 작기는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비관습적이거나 적어도 양식에서 어긋나는 행동들이다.

관찰자들에 의해 보고된 동조성 척도와 연관되어 있는 형용사적 묘사들은 1828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여섯개의 샘플을 통해 연구되었다.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진 12개의 형용사들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진 12개의 형용사들은 Table 5.12에 나타나 있다.

동조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응답자들은, 사실, 관습적이라고 묘사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실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합리적인 등의 형용사를 아우르는 합리성이라는 주제가 있다. 또 다른 주제는 효율적인, 정돈된, 그리고 실용적인이라는 용어로 설명된다. 높은 점수를 받은 이들은 또한 야망있고, 보수적이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성숙하며 그리고 안정적이라고 묘사된다. 동조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비관습적이고, 게으를만큼 부정적이기까지 하며, 감정 기복이 심하고, 쉽게 그만두고, 꿈도 야망도 없다고 묘사된다. 또 다른 주제는 평범한 것에 무관심하고, 다시말해, 건망증이 심하고, 부주의하며 쉽게 잊어버린다고 설명할 수 있다. 게다가 쉽게 변하고, 충동적이며, 난폭하기까지 하다.

1356명의 사람들 샘플에서, 200개의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형용사에 대한 표준화 점수는 8 단계에서 임의적으로 연구를 멈추면서 동조성으로 퇴행했다. 이러한 여덟개의 항목에 대해 다중 상관은 .32(R-제곱 =.10)였다. 이 중 두개의 형용사는 positive beta weight를 가지고 있었다: 정돈된, 책임감있는. 여섯개는 negative beta weight를 가지고 있었다: 냉담한, 매력적인, 어색한, 개인주의적인, 논리적인, 내향적인.

California Q-set를 이용한 관찰자들의 묘사는 547명의 남성과 393명의 여성에 대한 동조성 점수와 관련되어있다. 각각의 남자와 여자들은 다섯명 혹은 그 이상의 심사위원 패널들에게 Q-sort를 받았다. 이러한 독립적인 공식들은 각각의 피평가자를 위한 하나의 합의된 분류체계로 합쳐졌고Q-set에 있던 100개의 항목들은 동조성과 연관되었다.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네개의 항목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네개의 항목에 대한 계수는 아래에 나와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첫번째 계수는 547명의 남성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는 393명의 여성에 대한 것이다.

진실로 믿을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 (.14, .16)

꼼꼼하다 (.15, .14)

조언이나 위로를 부탁할 수 있다 (.13, .23)

사회적 균형과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 없는 것으로 나타남 (.16, .24)

삶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의미를 느끼지 못함 (-.12, -.19)

자기실패적이다(self-defeating) (-.15, -.27)

배반적이고 순종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다 (-.15, -.20)

감정 기복이 심하다 (-.12, -.21)

동조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믿을 수 있고, 꼼꼼하며, 준비되어있으며, 조언을 구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묘사된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자멸적이고, 비순응적이며, 감정기복이 심하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삶의 역사 인터뷰(Life history interviews)는 504명의 남성과 379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각각의 인터뷰 이후에, 인터뷰어들은 99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관찰한 것과 사실적 정보를 기록하였다. 체크된 항목들은 1점, 체크되지 않은 항목은 0점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점수들은 동조성 점수와 연관성을 띄었다.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네개의 항목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네개의 항목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계수와 함께 아래에 나와있다.

잘 정돈되어있고 단정하게 입는다 (.15, .16)

행복하게 결혼하였다 (.14, .13)

미래에 대해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14, .19)

부정적인 세태, 갈등, 그리고 다른 형태의 불안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보인다 (.12, .24)

가정이나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다 (-.11, -.16)

한번도 혹은 거의 연애를 하지 못했다 (-.09, -.10)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기 능력을 의심한다 (-.13, -.12)

마르고, 연약해보인다 (-.12, -.10)

위에서 보여주는 상관관계가 .05혹은 그 이상의 타당성으로 뚜렷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는 매우 적다. 따라서 일반적인 관계성에 대한 취지가 의미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높거나 낮은 동조성 점수에 대한 특정 연관성은 매우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즉, 동조성에서의 높은 점수가, 사회 안에 속해있는 평범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해야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동조성에서의 낮은 점수는 고립되어있고, 불만족을 나타내며, 부정확하고, 주변을 겉도는(peripherality) 것을 나타낸다.

50개의 *Interpersonal Q-Sort* 항목에서 나온 항목들은 세개의 표본(sample)에 대해 동조성과 상관성을 보였다: 연인 혹은 아내에 의해 묘사된200명의 남성, 연인 혹은 남편에 의해 묘사된 200명의 여성, 그리고 세명의 스태프 패널 관찰자들에 의해 묘사된 111명의 남성 피평가자들. 동조성에 대해 가장 큰 양의 상관을 보인 세개의 항목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보인 세개의 항목은 아래에 나와있다. 남성, 여성, 그리고 남성 피평가자들에 대한 상관계수와 함께.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경계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다; 불평하지 않고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음 (.10, .15, .11)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쉽게 “적응”(fit in) 할 수 있다. (.13, .10, .19)

독립적이고, 똑똑하며, 자립적이다; 가치 성취적 (.05, .06, .28)

신뢰가 떨어지고 시니컬 한;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 불만족하는; 타인의 걱정이나 고민에 대해 무관심한 (-.03, -.18, -.21)

의지할 수 없는; 동기가 없는; 정해진 목표를 향해 일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는 (-.14, -.05, -.17)

걱정에 사로잡혀있는; 긴장된, 항상 기분이 좋지 않은 (-.13, -.17, -.19)

이러한 상관성의 작은 규모 때문에, 암시된 관계성은 미약하고 단지 제안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조성이 높은 것과 연관되어 있는 세개의 항목은, 합쳐졌을 때, 사회적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동조성이 낮은 것과 연관되어있는 세개의 항목은, 합쳐졌을 때, 주변적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요약하자면, 동조성에서의 평균 점수는 protocol의 타당성에 순응하고 적응을 잘하는 사람, 사람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목표나 가치를 옹호하며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더해서 관습적이고 지나치게 순응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낮은 점수(raw score 25점 미만)를 받은 사람들은 불규칙적이거나 무작위의 응답을 연상시키고 protocol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욕이 떨어지고, 자기의심적이며, 소외되어있고, 대체로 불안정할 수 있다. 반면, 적당히 낮은 점수(raw score 30점 에서부터34점까지)를 받은 사람들은 독립적인 마음가짐을 보이며, 창의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할 수 있다.

**안녕감 (Wb, Well-Being) 척도**

안녕감은 진짜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와 환자인 척 보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개발된 이전의 척도(Gough, 1954)에서 파생되었다. 진실된 것과 위장된 것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은 이후에 정상 샘플에서의 지지율과 비교하여 확인되었다. 환자들과 정상인들 모두에서 핵심적으로 동일한 지지율을 보인 것들은 문항으로 유지되었다. 74개의 척도 문항들은 Dissimulation(위장)라는 의미에서Ds라고 불렸고, 기존의 74개 버전과 축약된 40개 버전(Friedman, Webb, & Lewak, 1989; Woychyshyn, McElheran, & Romney, 1992) 모두의 MMPI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1956년, 처음으로 480개 문항 버전 CPI가 발표되었을 때, 44개 문항 버전의 Ds 척도가 포함되어있었고, 다만 Ds와 반대 방향으로 채점되고 이름이 Well-being(안녕감)이라는 의미의 Wb로 바뀌었다. 1986년의 462 버전 CPI에서는, 안녕감 척도가 38개 문항으로 축소되었다. 434 CPI를 개발하기 위하여,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던 문항들은 462에서 탈락하였다. 탈락한 7개의 문항은 안녕감 척도에서 온 것이었다. 예를 들어, “나는 뒷목의 고통을 거의 느껴본 적이 없다.”(“참”), “나는 배가 아프다.”(“거짓”)과 같은 것이 었다. 안녕감 척도의 길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CPI 에서 온 일곱개의 다른 항목으로 대체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대부분의 시간이 행복하다.”(“참”) 과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내용 변화로 인한 효과 중 하나는 정신적 육체적 웰빙에서 정신적 웰빙으로의 역점의 이동이었다. 문항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3000명의 남성과 3000명의 여성에 모두에 대해 과거의 안녕감 척도와 현재의 안녕감 척도 간의 상관관계는 .96이었다.

이전과 같이, 안녕감 척도는 검사의 해석적 기능뿐만 아니라 타당도까지 제공하였다. 매우 낮은 점수는 (raw score 20 혹은 그 이하) 개인의 문제가 과장되거나 혹은 부당하게 강조될 가능성을 높이고, 고의적으로 부정 편향을 시도할 가능성까지 높인다. Raw score 20에서 38까지의 범위에서는, 아래에 나온 것과 준하는 수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허용된다.

6000명의 사람들 표본에 대해 38개의 안녕감 척도 항목에 대한 인자 분석이 실시되었다. 8개의 요인이 1.00 혹은 그 이상의 고유값과 함께 확인되었다. 그 중 네개는 교대를 위해 Kaiser의 normal varimax method에 의해 독단적으로 보유되었다. 요인 1은 총체적이고 진실된 감정의 지표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의 지표가 되는 문항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가끔 나는 몸과 마음이 허물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거짓”), “나는 일이 잘못되어 가면 빠르게 포기하고 싶어진다.”(“거짓”)과 같은 것들이다. 요인 2는 다른사람들과의 신뢰 그리고 삶의 대우는 공평하다는 생각을 제안하는 문항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나는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더 성공했을 것이다.”(“거짓”), “삶은 항상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준다.”(“거짓”) 과 같은 것들이다. 요인 3은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극단적인 분노의 부재를 제안하는 문항들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내 가족 중 일부는 나를 매우 짜증나게 하고 귀찮게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거짓”), “가끔 나는 무언가 해를 끼치고 싶은 강한 욕구가 든다.”(“거짓”) 등이 있다. 요인 4는 행복과 의욕의 지표가 되는 문항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나는 대부분의 시간이 행복하다.”(“참”),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행복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거짓”)등이 있다.

안녕감에 대한 Act frequency analysis는 배우자 혹은 연인으로부터 행동 리스트가 측정된 187명의 사람들(88명의 남성과 89명의 여성)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다섯개의 행동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다섯개의 행동은 아래와 같다.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하여 들어준다 (.25)

회의 시간에 맞춰서 도착한다 (.25)

경쟁적인 스포츠 행사에 참여한다 (.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룹을 구성한다 (.22)

식당에 갔을 때 친구가 추천해 준 새로운 음식을 의식적으로 시도해본다 (.23)

사적인 질문을 받으면 얼굴이 발개진다 (-.21)

사적인 문제를 과장한다 (-.20)

모르는 사람이 “안녕”이라고 하면 무시한다 (-.16)

그/그녀의 뒤에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15)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운다 (-.16)

높은 안녕감 점수와 연관된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경쟁에 참여하며,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모든 이러한 특정한 행동들은 충분한 에너지와 안녕감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낮은 안녕감 점수와 연관된 행동들은, 타인에게 거리를 두고, 불충분함을 느끼고,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것 등이 있다.

안녕감 점수가 실제 삶에서의 좋은 건강, 웰빙, 기타 등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어떠한 증거라도 있는가? 한 연구(Bayer, Whissel-Buechy, & Honzik, 1980)에서 두 명의 의료진들은 통합된 측정 방법을 기준으로 51명의 50세 남성과 77명의 50세 여성에 대하여 전반적인 건강 정도를 측정하였다. 시험 결과, 이러한 기준과 CPI의 안녕감 척도 간의 상관관계는 남성에 경우 .27 여성의 경우 .43 이었다. 또 다른 연구(Picano, 1989)에서는 21살 때의 CPI 결과와 42-45세의 여성 75명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잘 적응하는 지 여부를 관련시켰다. 심리학적 안녕감에 대하여 안녕감 척도는 .27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육체적 안녕감에 대하여서는 .21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둘 모두와 전반적인 적응 정도에 대해서는 .33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두개의 연구에서는 삶의 전반에 있어 안녕감 척도와 다양한 기준에서의 원만한 심리학적 기능 사이에서 적당한 긍정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Table 5.13 은 응답자가 관찰자에 의해 묘사되었던 ACL이 수행된 6개의 표본의 안녕감에 대하여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12개의 형용사와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12개의 형용사를 나열하였다. 이 표를 보면 안녕감에서의 낮은 점수가 높은 점수보다 얼마나 더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놀라울 것이다. 이것은 마치 안녕감에서의 높은 점수의 극단은 “이 사람은 감정 상태가 괜찮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안정적으로 보이며, 일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도로 제한된 특성을 보일 뿐이다. 낮은 안녕감 점수와 연관된 형용사들 중 하나는 낮은 의욕과 희생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씁쓸한, 불평불만의, 자기연민의 같은 것들이다. 또 다른 형용사들로는 긴장, 산만한, 짜증, 걱정 등이 존재한다.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방어적, 의심많은, 징징거리는 으로 설명된다.

1356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sub sample 에 의해 형용사들을 표준화했을 때, 8단계 이후 임의적으로 멈추었던 분석에서, 200개의 가장 흔히 사용된 단어는 안녕감 척도로 퇴보(regress)되었다. 여덟개의 안녕감 점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여덟개의 형용사에 대한 다중 상관은 .32(R제곱=.10)였다. Positive beta weight의 형용사들은 적절한, 정돈된, 이었고 Negative weight는 모험적인, 혼동하는, 불만족하는, 시니컬한, 착한, 그리고 조용한 이었다.

547명의 남성과 393명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추정 표본 에서, 다섯 혹은 그 이상의 관찰자 스탭 패널들은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 *California Q-Set* 중 Q-sort를 수행하였다. 스태프들의 분류는 각각의 피평가자에 대하 하나의 동일한 공식과 안녕감 척도 점수와 연관된 100개 항목이었다.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네개의 항목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네개의 항목은 남녀 각각에 대한 계수와 함께 아래에 나와있다.

생산적이고, 일을 잘 끝마친다 (.15, .27)

자기 걱정에 주관적으로 무관심하다;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 (.16, .26)

**Table 5.13**

발랄하다 (.15, .16)

사회적 균형과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편안한 상태에서 사회적인 모습을 보인다 (.21, .18)

불안정한 자기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다; 낮은 통합 정도를 가지고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직적이지 않고 적응을 잘 못한다. (-.17, -.21)

개인적인 황상 혹은 백일몽, 소설적인 추측에 사로잡혀있다 (-.18, -.21)

자멸적이다 (-.23, -.19)

삶에 있어 본인이 피해자이고 속임수에 넘어갔다고 느낀다; 자기연민적이다 (-.18, -.21)

안녕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생산적이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발랄하고, 사회성이 좋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불안정한 자기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고, 자멸적이며 자기연민적이고, 환상과 백일몽에 사로잡혀있다. 아마, 이러한 황상과 소설적인 추측들은 어느정도 불만족스러웠던 삶의 경험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9개 항목의 일대기 인터뷰어 체크리스트에서 나온 항목들은 504명의 남성과 379명의 여성에 대하여 만족감 척도와 상관관계를 가졌다. 체크리스트는 90분의 인터뷰 이후에 작성되었다. 체크 된 문항은 1, 체크되지 않은 문항은 0으로 채점되었다.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네개의 문항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네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는 전반적으로 행복했다 (.15, .17)

행복한 결혼을 하였다 (.29, .10)

미래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21, .26)

회의주의, 갈등 혹은 다른 형태의 불안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보인다 (.18, .18)

학교나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다 (-.16, -.11)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다 (-.21, -.14)

많은 걱정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 (-.21, -.17)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고 자기 능력을 의심한다 (-.19, -.21)

안녕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피면접자들은 일반적으로 행복해 보이고 그들 자신의 삶에 만족하였다. 심리학적 안녕감 개념은 이러한 묘사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안녕감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만족스럽고, 자기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걱정한다. 50개 문항의 *Interpersonal Q-sort*에 있는 문항들은 세개의 표본에서 안녕감 척도와 상관관계를 가진다: 배우자 혹은 연인에 의해 묘사된 200명의 남성, 배우자 혹은 연인에 의해 묘사된 200명의 여성, 각각의 남성에 대해 독립적인 공식들을 합쳐 하나의 평가를 통해 세명의 관찰자 스태프에 의해 묘사된 111명의 남성. 안녕감에 대하여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세개의 문항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세개의 문항은 세 표본에 대한 계수와 함께 아래에 나와있다.

태세를 갖추고 있고 자신감이 있다; 압박 혹은 비판에 의해 문제를 겪지 않는다 (.16, .15, .25)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행동과 태도에서 에너지가 넘친다; 불평하지 않고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 (.15, .13, .18)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쉽게 적응한다 (.16, .21, .26)

어색하고 사회적으로 잘 행동하지 못한다; 수줍어하고 어색해한다 (-.08, -.15, -.27)

걱정하고 사로잡혀있다; 긴장하고, 일반적으로 기분이 안좋다 (-.17, -.25, -.41)

고집불통의, 배반적인, 타인에게 화를 잘 내는; 자기 훈련이 부족한; 거칠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14, -.19, -.17)

안녕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감 있고, 압박에 잘 대처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고 묘사된다. 안녕감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사회성이 떨어지고, 긴장되어있으며, 고집불통의 면모를 보인다고 묘사된다.

요약하자면, 안녕감에서의 매우 낮은 점수는 과장된 혹은 심지어 허위의 걱정을 암시한다. 그러나 약간 낮은 점수는 걱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들에 의해 괴로워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확신지 서지 않는 응답자들에 의해 획득된다. 반면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삶에 만족감을 느끼고 능숙하며 삶의 상황이 좋고 만족하는 낌새가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이 과해져 나르시스트적인 자기 만족감 혹은 잘난체로 이어질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즉, 최고 수준의 만족감일지라도 심리학적 웰빙이라는 점에서는 좋은 암시라는 것이다.

**관용성 (Tolerance, To) 척도**

처음 개발되었을 때(Gough, 1951), 관용성 척도는 편견(Prejudice, Pr)이라고 불렸었다. 그 이유는, 관용성 척도가 그 당시에 널리 쓰였던 척도인 California F scale(Adorno, Frenkel Brunswik, Levinson, & Sanford, 1950) 과 Levinson-Sanford Anti-Semitism scale (Levinson & Sanford, 1944) 에 대하여 입증되었고, 비관용(intolerance)의 방향으로 입력되었기 때문이다. 1956년에 CPI가 출판됐을 때, 이 척도의 채점 방식이 뒤집혔고 현재의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

그 사이에, 관용성 척도는 인구통계학과 관찰자 중심의 비관용 색인들(observer-based indices of intolerance)에 대하여 입증되어왔다. 가장 최근의 연구들 중 하나는(Dunbar, 1995), 76명의 Euro-White college 학생들의 샘플에 대하여 반 유태주의에 대한 현대적 측정과 관용성 간의 상관관계를 -.54 라고 기록했다. 반면에, 74명의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의 샘플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거의 찾아지지 않았다.

다른 최근 연구는(Gough & Bradley, 1993) 430명의 남성과 428명의 여성 샘플에서, 관용성 척도를 관찰자 중심의 비관용 색인에 대해 연관 지었다. 12개의 비관용성 형용사들로 이루어진 묶음은 형용사 평정 목록(ACL)을 위해 규정되었고, 여기에 포함된 용어들은 의심이 많은, 편협한(intolerant), 그리고 편견이 있는 이러한 용어들인데 이들은 indicative로 채점되었다. 그리고 공정한, 합리적인, 관용적인 이러한 용어들은 contraindicative로 채점되었다. 비관용성 색인에 대한 중간항목(interitem) 알파계수는 연구된 하위샘플들에서 범위가 .71에서 .88까지 였고, 중앙값은 .79 였다. 430명의 남성들과 428명의 여성들의 완전히 합쳐진 샘플에서, 관용성과 기준 색인 사이의 상관관계는 남성에 대해서는 -.30 이었고 여성에 대해서는 -.28 이었다.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상관계수들은 California F Scale(총 샘플에 대해서 r = .08) 을 포함한 어떤 다른 자기보고 측정들에 대해서도 가장 높았다.

부록C에 전체가 나와있는, CPI와 다른 검사 및 측정들간의 상관관계들 중에 몇몇은 여기서 언급될지도 모른다. Comrey의 신뢰척도에서, 남성에 대한 상관계수는 .51 이었고 여성에 대한 상관계수는 .58 이었다. 객관성에 관한 Guilford-Zimmerman Temperament Survey (GZTS)척도에서의 상관계수는 남성에 대해 .58 이었고 여성에 대해 .50 이었다. 그리고 호의에 대한 GZTS 척도는 남성에 대한 상관계수가 .54 였고 여성에 대한 상관계수는 .48 이었다. 개인적 통합(personal integration)에 대한 Omnibus Personality Inventory 척도는, 남성에 대한 상관계수가 .55 였고 여성에 대한 상관계수는 .49 였다. 그리고 OPI에서의 Altruism 척도에서는 남성에 대한 상관계수가 .60, 여성에 대한 상관계수가 .54 였다.

434폼에서 32개 항목의 관용성 척도는 462폼 버전과는 다른 세 가지 항목들을 갖는다. 관용성 척도의 이전 그리고 현재 버전 사이의 상관관계는 3000명의 남성들과 3000명의 여성들의 샘플의 표준 프로파일 모두에서 .98이었다. 6000명의 사람들의 표준샘플에서 중간항목 matrix의 요인 분석은 1.00 이거나 보다 큰 고유값을 가지는 일곱 가지 요인들을 확인했다. 이 중 네 가지는 Kaiser의 normal varimax method 의 평균에 의한 교대(rotation)를 위해 임의적으로 유지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타인의 진실성과 호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항목들을 포함했다. 예를 들어,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거짓말 할 것 이라고 생각한다” (“거짓”),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들통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솔직해진다” (“거짓”),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심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싫어한다” (“거짓”). 두 번째 요인은 타인에게 그리고 생활 사건들에 의해 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을 암시하는 항목들을 포함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종종 내 뒤에서 나에 대해 얘기한다” (“거짓”). “나는 일주일에 여러 번 무언가 끔직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다고 느낀다” (“거짓”), 그리고 “나는 내가 종종 이유 없이 벌을 받아왔다고 느낀다” (“거짓”). 세 번째 요인은 타인을 걱정하는 것을 암시하는 항목들로 이루어져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돌본다면 그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거짓”). 네 번째 항목은 공정성과 공평성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항목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나는 누군가 투표 하는 것이 부당하게 가로막혀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난다” (“참”),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으려 노력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는다” (“거짓”).

행동 빈도 분석들은 177명의 사람들(88명의 남성, 89명의 여성) 의 샘플에서 이루어졌고, 각각의 사람들은 배우자 혹은 파트너로부터 리스트에 있는 행동들의 빈도에 대해 평가되었다. 관용성에 대하여 가장 양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다섯 가지 행동들과, 가장 음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다섯 가지 행동들이 아래에 기록되어있다.

주말에 자진하여 친구들을 위한 저녁을 만든다 (.20)

칙칙한(drably) 옷을 입는다 (.25)

파티에서 수줍어하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한다 (.21)

그룹에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21)

솔선해서 파티를 계획한다 (.24)

파티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 (-.19)

그/그녀가 바닥에서 발견한 물건을 되돌려 놓지 않는다 (-.23)

그/그녀의 뒤에서 뒷담화를 한 사람들을 고소한다 (-.23)

한번 춤추러 가기 위한 옷을 사는 데에 큰 돈을 쓴다 (-.19)

비록 그/그녀가 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마리화나를 필 때 마리화나를 피웠다. (-.19)

높은 점수의 관용성과 연관되는 행동들은 그룹에서 타인들의 안녕과 행복을 고취하거나 그룹이 모두의 편안을 위해 기능하도록 돕는다. 칙칙한 옷을 입는다는 항목은 자신에 대한 이목을 최소화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모두의 행복을 고취한다는 관용성의 개념과 양립할 수 있다. 낮은 점수의 관용성과 연관되는 행동들은 타인을 무시하고, 잃어버린 물건을 되돌려놓지 않고, 누군가의 뒤에서 뒷담화 하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이목을 끌만한 옷을 사는 데 돈을 쓰고, 그리고 마리화나 흡연에 굴복하는 것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다양하지만, 그것들 모두가 대인관계에 지장을 주거나 분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 관용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조화를 촉진하고, 모두를 위한 연대감을 촉진하며 호의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결론 짓는 것이 일리 있어 보인다. 관용성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더 자기 중심적이고, 타인의 감정에 거의 신경 쓰지 않으며, 실제 혹은 상상의 모욕에 대해 타인을 비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관찰자들에 의한 형용사적 기술들에서 관용성과 가장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표 5.14에 나와있다 [126p. Table 5.14]. 높은 점수의 관용성과 관련이 있는 하나의 명확한 무리는 협력하는, 공정한, 타당한, 진실된, 그리고 눈치 있는 이라는 용어들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관용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타인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론의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관대한 이라는 형용사 이다. 관용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또한 명확한 사고, 통찰력 있는, 그리고 지적인 이라는 기술들에 의해 제안된 것처럼 안정적인 판단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높은 득점자들 사이에 다른 중요한 속성들은 고마워하는, 선견지명이 있는, 그리고 친절한 이라는 단어들에 의해 보여진다.

관용성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불신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편견이 있고, 의심하고, 그리고 복수심이 있다고 묘사되고, 이 무리는 관용성 척도의 명시된 목적과 완전히 일치한다. 자신에 대한 과잉집중과 타인에 대한 무관심은 오만한, 자랑하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이라는 형용사들에 의해 암시된다. 많은 것들에 대한 불만족은 억울해 하는, 까다로운, 유치한, 신경질적인 이라는 묘사들로부터 추론될 수 있다. 관용성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분명히 비관용과 편견을 암시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요 감정인 타인으로부터의 고립감과 보복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넘어선다.

하위 샘플에서 표준화된 형용사적 묘사들을 사용한 1356개의 결합된 샘플에서, 회귀 분석은 200개의 가장 빈번하게 체크되는 단어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은 여덟 단계 후에 종료되었다. 관용성 점수를 예측하기 위한 여덟 개 형용사들의 가장 좋은 조합은 .31 ( = .09) 의 다중 상관관계를 갖는다. 양성적인 beta weights와 관련된 형용사들은 교양 있는, 선견지명이 있는, 그리고 지적인 이라는 형용사 들이다. 음성적인 beta weights와 관련된 형용사들은 냉담한, 익살스러운, 엄격한, 강한, 그리고 의심이 많은 이라는 형용사 들이다.

California Q-Set 항목들은 547명의 남성들과 393명의 여성들의 샘플에서 관용성과 상관관계에 있다. 각각의 사람들은 Q분류에서 다섯 명 혹은 그 이상의 평가 관찰자 패널들에 의해 묘사되었다. 가장 양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네 가지 항목들과, 가장 음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네 가지 항목들은 아래에 남성들과 여성들에 대한 상관계수와 함께 나와있다.

넓은 범위의 관심사를 가진다 (.16, .17)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12, .21)

지적인 그리고 인지적인 문제들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긴다 (.22, .29)

철학적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 예를 들어, 종교, 가치, 그리고 삶의 의미 등 (.20, .19)

외벌형의 (extrapunitive); 비난을 옮기거나 투영하는 경향이 있다 (-.12, -.16)

교활하고 부정직하고 교묘하게 조종하고 (manipulative), 기회주의적이다 (-.12, -.18)

대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의심한다; 그들의 동기에 의문을 갖는다 (-.14, -.10)

특질상 제한을 밀어내거나 늘리기 위해 노력한다; 그 혹은 그녀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본다 (-.17, -.18)

높은 점수의 관용성과 관련된 Q분류 항목들은 모두 지적인 혹은 인지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높은 점수의 관용성은, 사람에 대한 본능적이고 자발적인 호의 보다, 합리적이고 사색적인 근거에 더욱 기반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관용성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외벌형이고, 교활하고, 의심이 많고, 그리고 저항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질들은 비관용과 연관이 있지만, 오로지 이 하나의 관점은 넘어선다 (go beyond). 즉, 관용성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타인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고 가능하다면 그들을 착취한다.

면접자의 체크 리스트 기술들은 집중적인 인생사(intensive life history) 인터뷰에서 보여졌던 504명의 남성들과 379명의 여성들의 샘플에 대하여 분석되었다. 가장 양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네 가지 항목들과, 가장 음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네 가지 항목들은 남성들과 여성들에 대한 상관계수와 함께 아래에 나와있다. 관계는 .05 수준의 중요성에 미치지 못하는, 여성들에 대한 두 개의 상관계수와 남성들에 대한 한 가지 상관계수와 함께 경계선상 레벨에 있다.

고등학교 때 우등생 이었다 (.13, .17)

생각과 사회적 행동에 대해 사실적이다 (.07, .19)

미래에 대한 안정적이고 낙관적인 견해를 가진다 (.10, .14)

신경증과 강박, 그리고 다른 형태의 불안정으로부터 자유로워 보인다 (.10, .15)

문법 그리고/혹은 단어 사용에 실수를 한다 (-.24, -.15)

고등학교 때 부진한 학생이었다고 스스로 여긴다 (-.15, -.07)

일반적으로 삶에 불만족 한다 (-.10, -.08)

고등학교 때 혹은 그 전에 첫 성경험을 했다 (-.26, -.15)

높은 점수의 관용성과 관련된 체크 리스트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적응 (good adjustment), 현실적 태도, 그리고 고등학교 때의 우수한 학업 성취를 나타낸다. 낮은 점수의 관용성과 관련된 항목들은 좋지 않은 구술 능력과 고등학교 때의 부진, 성적 관계의 이른 발현, 그리고 일반적인 불만족을 암시한다. 위에 인용되지 않은 항목은 남성들에 대해 -.23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기복이 심한; 남성적 모습” 이라는 서술 이다. 다시 말해, 504개의 샘플에서 낮은 점수의 관용성을 기록한 남성들은 기복이 심하고 남자다워 보였다.

대인관계에 관련된 Q분류 항목들에서, 관용성과 가장 양성적인 관계에 있는 세 개의 항목들과, 가장 음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세 가지 항목들은 아래에 인용되어 있고, 200명의 남성들과 200명의 여성들, 그리고 111명의 남성 피검자들의 하위 샘플에 대한 상관계수도 함께 나와있다.

솔직하고, 행동이 직접적이다; 견해가 성숙하고 현실적이다 (.18, .06, .17)

말이 유창하다; 스스로를 쉽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14, .02, .26)

효과적인 리더이다; 타인의 반응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18, .04, .22)

의심이 많고 냉소적이다; 대부분의 것에 불만족 한다; 타인의 걱정과 문제에 무관심하다 (-.08, -.13, -.22)

고집불통이고 반항적이고 타인에게 분개한다; 자기 통제가 부족하다; 경솔하고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09, -.15, -.19)

변덕스럽다; 종종 어렵고 다루기 힘들다 (-.16, -.10, -.15)

높은 관용성 점수와 관련된 항목들은 두 개의 남성 샘플에 대해서 보통 정도의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해서는 0에 가까웠다. 이 때문에, 오로지 매우 잠정적인 언급 만이 정당화 될 수 있었다. 남성들에 대해서, 높은 점수의 관용성은 성숙함, 언어적 유창함, 그리고 리더십 자질에 대한 암시들을 가지고 있을 지 모른다. 낮은 점수의 관용성과 관련된 세 가지 항목들은 남성과 여성 둘 다에 대하여 의심이 많고, 타인에 대해 분개하고, 변덕스러움에 대한 약간의 암시를 전달한다.

요약하면, 높은 점수의 관용성은 관용의 전조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타인을 기꺼이 수용하며 자신의 관점과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질은 따뜻함과 긍정적인 감정에서가 아니라 인지적이고 반성적 태도(reflective attitudes)에서 비롯 되는 것으로 보인다. 관용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지적이고, 인지적 문제들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그들의 예상에 대해 현실적이고, 안정적이며 그리고 심각한 갈등이나 심리적 문제들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보인다. 개개인에 대해서, 이러한 특성들이 지나치게 총명하거나 지나치게 무심한 쪽으로 바뀌는 높은 포인트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즉, 관용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긍정적 암시가 척도의 가장 위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낮은 점수의 관용성은 비관용, 타인에 대한 의심, 그리고 그들의 동기에 대한 불신을 가리킨다. 그러나 또한 내적 갈등, 넓은 범위의 불만족, 그리고 타인에 대한 보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안하는 점에서 그 이상이다. 관용성 점수가 매우 낮고 충동 조절과 관련된 사회성과 자기통제가 낮으면, 대인 폭력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된다.

**순응적 성취(AC / Achievement via Conformance)척도**

순응적 성취 척도는 원래 고등학교 학업 성취의 예측 변수로 개발되었다 (Gough, 1949a, 1953c). 동기와 우월한 학업적 성취와 연관된 다른 요인들에 대한 가설들에 근거한 항목들이 고등학교 학업 성적과의 상관관계로 평가되었으며 정적 혹은 부적 상관이 있는 항목들이 순응적 성취 척도의 이전 버전들에 포함되었다. 1956년 CPI 480 버전에서 순응적 성취 척도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3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64년에는 (Gough, 1964a) 5개 고교에서 571명의 남학생과 813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남녀 학생 집단 모두에서 순응적 성취 척도와 누적 평점(GPA) 간의 .35의 상관을 찾아냈다. 9개 고교에서 649명의 남학생과 722명의 여학생의 교차 타당화 표본(cross – validating sample)들에서, 순응적 성취 척도와 평점 간의 상관은 남학생 표본에서 .37, 여학생 표본에서 .40 이었다. 연구 그리스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문화 연구는 (Repapi, Gough, Lanning, & Stefanis, 1983) 순응적 성취 척도와 평점 간의 상관이 19개 중학교에서 표집된 800명 이상의 여학생 집단에서 .21, 700명 이상의 남학생 집단에서 .26이라고 보고하였다. Appendix C에, 전 지역에서 25개 고교에서 추출된 2,432명의 남학생과 2,852명의 여학생 표본들에서의 순응적 성취 척도와 고교 평점 간의 상관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 상관계수는 남학생 .40, 여학생 .40 이었다.

동일한 25개 고교에서, 1,760명의 남학생과 2,019명의 여학생 중 졸업 혹은 중퇴한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다 (이 연구는 Gough, 1966b에서도 볼 수 있음). 이분법 (1-0 기반으로 스코링된)과 순응적 성취 척도와의 상관은 남학생 .16, 여학생 .13이었다. 졸업생 1,514명의 남학생과 1,799명의 여학생 졸업자들 중에서 그들의 대학에서의 출석과 결석에 관한 정보가 주어졌다 (이 연구는 Gough, 1968a 에서도 볼 수 있음). 순응적 성취 척도와 이 1-0 이분법 과의 상관은 남학생 졸업자 표본에서 .33, 여학생 졸업자 표본에서 .27이었다. 마지막으로, 3개 대학의 995명의 남자 대학생과 441명의 여자 대학생에서, 순응적 성취 척도와 대학 4년간의 평점 간 상관관계는 남자 대학생 .14, 여자 대학생 .11이었다. 순응적 성취 척도에 대한 이러한 정보와 그리고 또 다른 정보들로부터, 이 척도는 고교 수준에서의 학업적 성취에 대한 예측력이 있는 척도이며, 졸업과 대학 진학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예측력이 있는 척도이지만, 대학에서의 학업적 성취에 대해서는 미미하게 예측하는척도이다. 규정된 목표와 정해진 평가의 기준, 그리고 다소 규칙적인 생활이 있는 환경에서는, 순응적 성취는 우월한 성취에 관한 성향을 측정한다. 성취에 관한 기준이 더 다양해고, 덜 표준화 되어있으며,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더 허용한다면, 순응적 성취는 그 예측력이 약해진다. 이러한 결과들은 순응적 성취 척도를 규정된 환경과 순응이 보상받는 환경에서의 에서의 우월한 성취와 연관된 성취 욕구로 개념화 하도록 이끌었다.

Domino(Domino, 1968, 1971)로부터 수행된 두 개의 중요한 연구들은 명확하게 순응하는 환경과 독립적인 환경에서의 학업적 성취에 초점을 두었다. 순응적 성취 척도는 순응적인 환경에서의 기준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나, 독립적인 목표 설정과 목표 도달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환경과는 상관이 없거나 심지어 부적 상관이 있었다. 한 실험에서, Domino는 순응적 성취의 점수에 따라서, 그리고 바로 다음장에서 논의할 독립적 성취 척도 (Ai, Achievement via Independence) 의 점수에 따라서 하위집단들을 구성하였다. 순응적 성취 척도와 독립적 성취 척도에 따라 구성된 두 하위집단은 순응적 성취 척도가 높은 학생들과 독립적 성취 척도가 낮은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또 다른 두 하위 집단은 독립적 성취 척도가 높은 학생들과 순응적 성취 척도가 낮은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수업 지시사항 또한 다양하였는데, 한 하위집단은 교수요목 (syllabus)의 명확성을 강조하며, 읽기 자료를 할당하며, 그 읽기 자료를 기반으로 한 시험이 있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다른 한 하위 집단은 이와 다르게, 개인적인 목표 설정에 자유를 주며, 읽기자료를 할당하기 보다는 제안하는 형태 였으며, 그 읽기 자료와 별로 연관되지 않은 시험이 있는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순응적 성취 척도가 높은 학생들은 체계적인 수업에서 학습 결과가 가장 좋았으며, 체계적이지 않은 수업에서는 결과가 좋지 않았다. 반대로, 독립적 성취 척도가 높은 학생들은 체계화된 수업들에서 성취가 좋지 않았으나 비체계적인 수업에서는 학습 결과가 좋았다. 순응적 성취와 독립적 성취의 패턴들은 CPI 문항들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현재까지 계속 나타나고 있다 (McAllister, 1996).

434 문항 버전에서 순응적 성취는 462 문항 버전과 480 문항 버전과는 다른 항목 하나가 추가 되었다. 현 38항목 버전은 이전 버전과 프로파일 준거 표본들 각 3,000명의 남녀 집단에서 .99의 상관이 있었다. 전체 6,000명의 준거 표본에서 38개 항목에 대한 요인 분석은 고유값 (eigen vaule) 1.00 혹은 그 이상으로 9개 요인을 찾아내었다. 그 중 4개 요인들은 Kaiser’s normal varimix방법을 통한 회전 (rotation) 으로 임의적으로 획득되었다. 요인 1은 사고를 집중할 수 있는 능력과 인내하려는 노력을 가리키는 항목들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나는 종종 내 머리 속을 맴도는 쓸데 없는 생각들로 방해받는다” (“거짓”), “나는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다” (“거짓”), “나는 내가 엄격한 규칙과 규제 하에서 일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거짓”). 요인 2는 규칙에 대한 수용과 순응성을 의미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학창시절 나는 가끔 잘못된 행동을 해서 교장실로 불려갔다” (“거짓”), “학창시절 내 품행에 대한 기록은 꽤 나쁜 편이었다” (“거짓”). 요인 3은 학교에 대한 선호 정도를 표현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학교를 좋아했다” (“참”), “나는 학교에 대해 많이 신경쓴 적이 없었다” (“거짓”). 요인 4는 계획성과 미래를 향한 지향성과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학창시절 나는 항상 일찍부터 어떤 과목을 수강할 지 계획하였다” (“참”), “나는 미리 내 활동들을 계획해 놓는 것을 좋아한다” (“참”).

행위 빈도 자료는 177명의 사람들 ( 88명의 남성, 89명의 여성) 의 표본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도출되었고, 각 대상자는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행위 리스트에서의 각 행위의 빈도를 평가받았다. 순응적 성취 척도와 가장 정적 상관이 큰 다섯 가지 행위와 가장 부적 상관이 큰 다섯 가지 행위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 경청했다 (.28)

자신의 커리어를 상세히 계획하였다 (.18)

테니스를 하였다 (.21)

교회에 다녔다 (.24)

소속 집단이나 캠퍼스의 일에 적극적이었다 (.22)

농담 하나에도 크게 웃었다 (-.22)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을 받았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다 (-.24)

자신에 대한 비밀을 털어놓았다 (-.21)

알고 있는 누군가를 피하려고 돌아서 갔다 (-.21)

개인적 질문들에 한 단어로 대답하였다 (-.26)

높은 순응적 성취 점수와 관련된 행위들은 계획하기, 교회 다니기,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기, 이에 더해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경청하기, 테니스 하기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적극적이고 적응력 있는 사람들이 할만한 것들이다. 낮은 순응적 성취 점수와 관련된 행위들은 고립적이고 자기보호적인 성향들을 가리킨다. 다른 행위들의 관점에서 보면, “농담 하나에도 크게 웃기”는 뛰어난 유머 감각 보다는 과도한 반응 혹은 방어적인 반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관찰자들로부터의 형용사 묘사들이 표 5.15에 제시되어 있는데, 해당 표는 순응적 성취 척도와 가장 정적 상관이 큰 12개 형용사와 가장 부적 상관이 큰 12개의 형용사를 나열한 것이다. 높은 순응적 성취 점수와 관련이 있는 한 형용사 덩어리는 뛰어난 조직과 개인적 자원 활용, 특히 효율적인, 근면한, 총명한, 체계적인, 조직화된 으로 모샤한다. 형용사 성실한, 신뢰할 수 있는, 성숙한 은 사회적 규범들에 수용하고 적응할 능력을 의미한다. 명확한 사고 (clear-thinking), 생각이 깊은, 총명한 은 뛰어난 인지적 능력과 함께하며 야망이 있는 이라는 단어는 성취 동기를 의미한다.

자기 규율과 목표의 추구를 위해 인내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단어들은 낮은 순응적 성취 점수와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면 경솔한, 산만한 (distractible), 충동적인, 반항적인, 무모한, 가만히 있지 못하는, 무질서한, 의욕이 없는 이다. 즐거움 추구, 짖궂은 이라는 묘사는 자기애적인 이익 (narcissistic gain) 에 대한 강조를 의미하며, 혼란스러워 하는, 그만 두려하는 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지의 부족을 나타낸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 200개의 회귀분석은 1,356명의 혼합 표본 (composite sample) 에 부표본 (subsample) 준거값에 기반한 각 형용사에 대한 표준적인 점수를 사용하여 실시 되었다. 순응적 성취 점수를 추정하는 가장 최고의 8개 형용사 조합은 다중 상관 .43 (R2=.19)이 있다. Positive beta weight 의 형용사들은 아먕이 있는, 조직화된(organized), 외향적인 이다. Negative beta weight의 형용사들은 활동적인, 모험심이 있는, 어색한, 냉소적인, 태평한 이다.

Block’s *California Q-Set* 에서 100개 행목은 547명의 남성과 393명의 여성 표본들에서 순응적 성취와 상관이 있었다. 그 측정치들 각각은 5명 혹은 그 이상의 평가관들의 패널로부터 실시된Q-sort 로 묘사되었던 것이다. 그 중 가정 정적 상관이 큰 4개 문항과 가장 부적 상관이 큰 4개 문항이 아래 남성과 여성 각 표본에서의 상관 계수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진정으로 책임감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21, .28)

꼼꼼하다 (.24, .25)

생산적이다; 일을 다 끝마친다 (.18, .34)

자기에 대한 열망의 수준이 높다 (.34, .22)

인생의 개인적인 의미가 부족함을 느낀다 (-.21, -.25)

행동과 태도 면에서 예상하기 힘들고 변덕스럽다 (-.18, -.32)

자기 파괴적이다 (-.24, -.23)

반항적이고 순응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22, -.28)

순응적 성취 척도가 높은 사람은 책임감이 있으며, 꼼꼼하고, 생산적이고, 야망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순응적 성취 척도가 낮은 사람은 변덕스럽고 자기 파괴적이며, 반항적이고 그들의 삶에 의미가 별로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하면, 순응적 성취 척도가 높은 사람은 높은 열망과 성취 욕구를 가졌으며, 생산성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순응성을 바탕으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한다.

개인사에 대한 인터뷰 (Life history interviews)가 504명의 남성과 370명의 여성에게 실시되었고, 그 후 99개의 항목 체크 리스트가 인터뷰 면접관들에 의해 실행되었다. 1-0의 항목 채점 방식을 사용하여, 순응적 성취 척도와 가장 정적 상관이 큰 4개 항목과 가장 부적 상관이 큰 4개 항목이 아래에 남녀 집단에 대한 상관계수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단정하며 잘 차려 입는다 (.20, .15)

전체 인생사 중 가정사가 꽤 행복했다 (.15, .26)

고등학교 시절 학업 우수 학생이었다 (.21, .20)

미래에 대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15, .31)

학창시절과 가정사가 불행하였다 (-.20, -.17)

고등학교 시절 경계에 있거나, 비행 소년 같은 존재였다 (-.22, -.15)

스스로 고등학교 시절 낙제생이 었다고 여긴다 (-.23, -.17)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며 자신의 능력에 의구심을 가진다 (-.15, -.27)

인터뷰 속에서, 순응적 성취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적절한 복장으로 잘 갖춰입고 나타났으며, 그들의 가정사를 행복한 것으로 회상하였으며, 고교시절 우수학생이었다고 말했으며, 미래에 대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기대에 대해 묘사하였다. 순응적 성취 척도가 낮은 사람들은 불행한 어린시절, 고교시절 반항적인 행동, 그리고 학업적으로 부진함을 회상하였으며, 그들의 대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이야기 하였다.

남녀 각 200명의 표본들, 관찰자들로부터 50개 항목의 Interpersonal Q-Sort 로 묘사된 111명의 남성 피평가자들, 그리고 순응적 성취 척도와 가장 정적 상관이 큰 3개 항목과 가장 부적 상관이 큰 3개 항목들이 아래에 인용되었다. 상관계수는 남성 200명, 여성 200명, 111명의 피평가자 순으로 재시되어있다.

잘 체계화된, 능력이 있는, 인내심 있는, 근면한; 성취에 가치를 두다 (.15, .17, .40)

독립적인, 총명한, 자립적인; 성취에 가치를 두다 (.18, .21, .19)

효율적인 리더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반응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23, .13, .25)

의심이 많고 냉소적이다; 대부분의 것들에 불만족한다; 다른 사람들의 걱정거리와 문제들에 무관심하다 (-.14, -.16, -.28)

체계적이지 않다; 지적인 문제들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시키기 힘들다 (-.13, -.23, -.22)

기분에 좌지우지 된다; 종종 어렵고 반항적이다 (-.20, -.14, -.12)

이러한 표본들에서, 순응적 성취 척도가 높은 사람은 체계적이며, 독립적이고, 성취에 가치를 둔다. 그들의 리더십 잠재력도 언급되어 있다. 순응적 성취 척도가 낮은 사람들은 의심이 많고, 냉소적이며, 체계적이지 않고 기분에 좌지우지 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요약하면, 순응적 성취 척도는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통제를 능숙하게 하고, 목표를 추구하는데 인내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낸다. 목표와 수단 모두 명확히 규정된 환경에서, 그들은 매우 뛰어나지만 체계가 모호하고 잘 정의되어 있지 않는 환경에서는 그들은 불편해하며 그들의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순응적 성취가 낮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며, 혼란스러워 하고, 개인적 즐거움과 단기적 이익을 학교와 직장에서 인정받는 성공 보다 더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능력에 확신이 부족하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쉽게 주의력이 흐려지는 경향이 있다. 순응적 성취뿐 만 아니라 책임감과 사회성 척도에서도 낮은 점수는 종종 비행청소년과 규칙을 따르는 행동에 심각한 문제들을 가진 이들 중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순응적 성취가 비교적 낮지만, 독립적 성취가 높으며 전체 프로파일에서 개인적 자원이 많다는 것과 연관되었을 때는 뛰어난 창의적인 잠재력이 있다는 징후일 수 있다.

**독립적 성취 (Ai, Achievement via Independence) 척도**

앞서 언급된 대로, 순응적 성취 척도는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척도 (Gough, 1953a) 가 구성되었다. 대학 수준에서의 학업 성취에 관한 가설을 담고 있는 항목들을 모아, 여러 대학생 집단에서 그 항목들과 학업 성적 간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학업 성적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항목들은 독립적 성취 척도의 첫 번째 버전에 포함되었다. 1956년 CPI 480 버전에 독립적 성취 척도는 32항목으로 이루어졌다. 1986년 CPI 462 버전에서는 독립적 성취 척도는 이전에 비해 좀 더 많아진 36항목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434 버전에서도 해당 36항목이 그대로 포함되었다.

대대적으로 행해진 독립적 성취 척도 (Gough & Lanning, 1986) 의 타당화 연구에서는 동시에, 2년 동안, 그리고 4년 동안의 GPA를 기준으로 활용하여 여러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표본 집단들에서 그 중 한 표본 집단의 1347명의 남자 대학생 그룹에서 .22, 또 다른 표본 집단의 326명의 남자 대학생 그룹에서 .31의 독립적 성취와 GPA 간의 상관을 보고하였다. 여자 대학생들의 독립적 성취와 GPA 간 상관은 한 표본 집단 중 1842명의 여자 대학생 그룹에서 .25, 다른 표본 집단의 570 명의 여자 대학생 그룹에서 .31이었다. 초기 연구에서 (Gough, 1964a) 독립적 성취와 고등학교 GPA 간 상관은 14개 고교에서 571명의 남학생 표본 집단과 649명의 남학생 표본 집단에서 각각 .30과 .33이었다. 동일한 14개 고고에서 813명의 여학생 표본집단과 722명의 여학생 표본 집단에서, 상관은 각각 .35와 .42였다. 따라서, 순응적 성취 척도가 대학에서의 학업 성적에 대한 약한 예측변수에 불과한 것에 반해 독립적 성취 척도는 고등학교 학업 성적의 상당히 좋은 예측변수이다.

Pfeifer 와 Sedlacek (1974) 의 한 연구에서는 CPI와 다른 척도들을 가지고 79명의 흑인 학생들의 대학에서의 학업 성적을 예측하는 시도를 하였다. 독립적 성취 척도와의 상관은 .35로 나왔다. 4개 고교의 졸업생 중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남학생은 .28, 여학생은 .31의 **점2연상관** (point-biserial correlation)이 있었다. (Gough, 1968a)

대학 학업 성적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들뿐 아니라, 순응적 성취와 독립적 성취 사이에 다른 차이들도 있는가? Werner (1988) 는 성적인 (sexual) 혹은 생식적 (reproductive) 지식 테스트에서 뚜렷하게 높거나 낮은 점수를 얻은 108명의 남자와 82명의 여자를 검토하였다.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 모두에서, 고득점자와 저득점자 사이의 차이들은 순응적 성취 척도에서는 작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지만 (p>05), 독립적 성취 척도에서는 그 차이가 크고 유의미하였다. (p<01) 순응적 성취 척도와 독립적 성취 척도에 대한 또 다른 정보는 Appendix C 에서 찾을 수 있으며, 적절한 차이점이 아래에 인용되어 있다.

독립적 성취 척도 보다 순응적 성취 척도에 더 높은 상관이 있는 척도들

16PF Factor G (Dutiful, Persevering): 순응적 성취 척도의 경우, .29 (남성) 그리고 .36 (여성) vs독립적 성취 척도의 경우, .01 (남성) 그리고 .05 (여성)

Comrey Personality Scales, Orderly: 순응적 성취 척도의 경우, .22 (남성) 그리고 .43 (여성) vs독립적 성취 척도의 경우, -.04 (남성) 그리고 .08 (여성)

Goldberg’s Big-Five marker for Dependability: 순응적 성취 척도의 경우, .22 (남성) 그리고 .27 (여성) vs독립적 성취 척도의 경우, -.14 (남성) 그리고 -.12 (여성)

Hogan Personality Inventory, Prudence: 순응적 성취 척도의 경우, .57 (남성) 그리고 .54 (여성) vs독립적 성취 척도의 경우, .02 (남성) 그리고 .15 (여성)

순응적 성취 척도 보다 독립적 성취 척도에 더 높은 상관이 있는 척도들

16PF Factor Q-1 (Liberal, Free-thinking): 순응적 성취의 경우, -.06 (남성) 그리고 -.03 (여성) vs 독립적 성취의 경우, .22 (남성) 그리고 .32 (여성)

Myers-Briggs Type Indicator, Intuitive: 순응적 성취의 경우, -.10 (남성) 그리고 -.20 (여성) vs 독립적 성취의 경우, .31 (남성) 그리고 .29 (여성)

NEO-AC: Openness to Experience: 순응적 성취의 경우, .05 (남성) 그리고 .04 (여성) vs 독립적 성취의 경우, .30 (남성) 그리고 .30 (여성)

Omnibus Personality Inventory, Autonomy: 순응적 성취의 경우, -.13 (남성) 그리고 -.10 (여성) vs 독립적 성취의 경우, .43 (남성) 그리고 .61 (여성)

순응적 성취 척도의 관련 요인은 신중함 (prudence), 신뢰할 수 있음 (dependability), 자기 규율적인 (self-discipline), 정리 습관 (orderly habit)을 강조(stress)한다. 독립적 성취 척도의 관련 요인은 경험에 열린자세, 자율성, 생각의 독립성, 직관적인 (감각으로 지배된 것에 반대되는) 지각 선호를 강조한다. 따라서, 순응적 성취 척도와 독립적 성취 척도 간 남성은 .55 (N=5000), 여성은 .50 (N=5000) 의 상관에도 불구하고 척도들은 그들의 영향(implication)면에서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차이들이 있다. 순응적 성취 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정의가 잘 되어 있는 된 환경에서 그들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으며 목표와 수단 모두 합의되어 성립된 환경에서 성취를 극대화 할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독립적 성취에서의 높은 점수는 새롭고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는 능력과 성취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을 시사한다. 순응적 성취의 심리학적인 역동 (psychological dynamic) 은 이러한 이유에서 형태-강화 (form-enhancement) 로 규정될 수 있는 반면 독립적 성취의 심리학적인 역동은 형태-창조 (form-creation) 로 규정될 수 있다.

전체 프로파일 준거 집단 (N=6000) 에서의 독립적 성취 척도의36개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은 8개 요인을 1.00 혹은 그 이상의 고유값 (eigen value) 들로 확인하였다. 이 중 4개의 요인들은 kaiser normal varimax method를 사용한 회전 (rotation) 을 통해 임의로 얻어진 것이다. 요인1은 주로 인습 타파적이고 독립적인 신념들을 표현하는 항목들 예를 들면, “오직 바보만이 우리 미국인이 사는 방식을 바꾸려 시도할 것이다” (“거짓”), “대부분의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사실들에 대해 알 수 있다면 하나의 정답이 있을 뿐이다” (“거짓”), “정부 기관에 불복종하는 것은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다” (“거짓”) 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2의 항목들은 자기에 대한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이대로 계속 흘러가면, 앞으로 대단한 사람이 될거라고 계속 희망을 가지기는 꽤 힘들 것이다” (“거짓”), “나는 가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라고 느낀다” (“거짓”) 이다. 요인3은 흥미의 폭에 관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시를 좋아한다” (“참”), “나는 세계적인 이슈들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을 좋아한다” (“참”) 이다. 요인4는 평범한 공포심을 부정하는 항목들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나는 지진에 대한 생각에 몹시 두렵다” (“거짓”), “나는 뱀에 대해 큰 공포심을 갖고 있지 않다” (“참”) 이다.

독립적 성취의 행위 빈도 실행 (act frequency implication) 은 88명의 남성과 89명의 여성에 대해 그들의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특정 행동에 대한 빈도를 보고하게 하여 발견된 것이다. 총 177명의 표본집단에서 독립적 성취 척도와 정적 상관이 가장 큰 다섯가지 행동과 부적 상관이 가장 큰 다섯가지 행동이 독립적 성취 척도와의 상관과 함께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그/그녀의 파트너가 이성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다 (.27)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 경청했다 (.28)

비록 요청하지 않더라도 조언을 해주었다 (.22)

모임에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24)

그날의 정치적 이슈를 토론했다 (.22)

호의를 얻기 위해서 우정을 쌓았다 (-.22)

그 사람의 자동차를 이용하기 위해 그와 친구가 되어 주었다(-.20)

그/그녀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린 지인을 용서했다 (-.20)

그/그녀가 일하고 있는 곳에 친구가 취직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19)

그/그녀의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였다 (-.21)

독립적 성취 척도에서의 높은 점수와 관련된 행위들은 주도권을 잡고 그의 파트너의 행동의 자유를 묵인하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현재의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행위들에는 “사는 것과 살도록 해주는 (live and let live)” 일종의 선호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독립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 행해진 것들이다. 독립적 성취 척도에서 낮은 점수와 관련된 행위들은 친구와 지인들과 관련된다 – 두 타인 사이에서 관계를 이용하려 하는 것; 소문과 가십에 대처하는 것; 의 두 가지 경우에서, 그리고 친구가 취직하는 것을 돕는 경우에서이다. 다섯 가지 행위들은 모두 타인에 대한 의존성과 타인의 의견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독립적 성취가 높거나 낮은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관찰자들이 형용사 체크 리스트로 (Adjective Chek List, ACL) 그들의 인상들을 기록한 6가지 샘플로 Table 5.16에 제시되어 있다. 독립적 성취와 정적 상관이 가장 큰 12개의 형용사와 부적 상관이 가장 큰 12개의 형용사가 표에 제시 되어 있다. 독립적 성취 척도에서의 높은 점수와 연관되는 가장 큰 단어 덩어리는 자신의 능력과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면, 능력이 있는, 명확한 사고를 하는, 통찰력 있는, 총명한,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다. 진취적이며 선견지명이 있는 단어들로부터 뒷받침되는 개별 형용사도 나타난다. 게다가 독립적 성취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기민하고 성찰적이다.

독립적 성취에서 낮은 점수와 연관되는 형용사들은 생각이 명확하지 못하고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묘사하는데, 예를 들면, 혼란스러워하는, 관심사가 편협한, 경솔한, 단순한 이다. 타인과 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의심이 많은, 까다로운, 편협한, 의심스러운 이라는 묘사로 제시된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들에 대처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좀 더 일반적인 문제는 무관심한, 유치한, 차분하지 못한, 약한 이라는 형용사로 제시된다.

8단계 후 임의로 끝나는 200개의 가장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들에 대한 회귀 분석은 1356명의 복합 표본으로부터 도출되었다. 이 때 다중 상관은 .36 (R2=.13)이다. Positive beta weights인 형용사들은 선견지명이 있는, 총명한, 온건한, 철저한 이다. Negative beta weights인 형용사들은 다정한, 실용적인, 엄격한, 단순한 이다.

California Q-Set 항목들은 547명의 남성과 393명의 여성의 표본들에서 독립적 성취 척도와 상관이 있었다. 각 평가대상은 평 5명 혹은 그 이상의 관찰자로 구성된 패널들에 의한 Q-sort 로 묘사되었다. 각각의 독립적인 표현들은 한 사람 당 합의된 Q-sorting으로 합쳐졌다. 독립적 성취 척도와의 가장 정적 상관이 큰4 항목과 가장 부적 상관이 큰 4항목이 남성 그룹과 여성 그룹의 상관계수와 함께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흥미가 다양하다 (.21, .34)

높은 지적 수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 .42)

지적인 혹은 인지적인 문제에 진정으로 가치를 둔다 (.31, .45)

자신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열망을 가지고 있다 (.27, .33)

여러 분야에서 보수적인 가치관을 선호한다 (-.15, -.30)

불확실하고 복잡한 것에 대해 불편해 한다 (-.15, -.30)

좌절과 역경에 부딛혔을 때 가능하면 포기하고 물러선다 (-.12, -.25)

자기 파괴적이다 (-.19, -.19)

독립적 성취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총명하고 지적인 문제에 가치를 두며, 관심의 폭이 넓고, 높은 수준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특성들로 보건대, 성취가 뒤쳐질 수 있을까? 독립적 성취 척도가 낮은 사람들은 보수적이며 애매한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며 자기 파괴 적이고 장애 혹은 고난을 마주하였을 때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립적 성취 척도가 낮은 사람들이 독립적인 노력과 자기 주도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잘 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별로 놀랍지 않을 것이다.

면접관들의 반응은 인생사에 대한 인터뷰에 응한 504명의 남성과 379명의 여성에 대한 99개 항목 체크리스트에 등록된다. 독립적 성취와 정적 상관이 가장 큰 4개 항목과 부적 상관이 가장 큰 4개항목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를 구사한다 (.21, .22)

위트있고 활기 넘치며, 흥미로운 대화상대이다 (.12, .18)

고등학교 시절 학업우수학생이었다 (.20, .32)

몹시 자기 확신적이며, 어느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을 거라 느낀다 (.12, .11)

문법에서 실수하고/하거나 단어 사용에 실수가 있다 (-.28, -.23)

고등학교 시절 혹은 그 이전에 첫 성경험을 했다 (-.23, -.24)

자기에 대해 확신이 부족하며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 (-.12, -.23)

아이들을 좋아한다 (-.18, -.18)

독립적 성취 척도가 높은 응답자들은 위트있고 자기 확신이 있으며, 고등학교 시절 우등생이었으며 폭넓고 다양한 어휘를 구사한다고 묘사된다. 독립적 성취 척도가 낮은 응답자들은 자기 확신이 부족하고 문법적 실수를 잘하며 고등학교나 그 이전에 성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묘사된다.

독립적 성취 척도가 낮은 것과 연관되어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에 대한 항목은 흥미로운 발견이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다른 이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모습이 독립적 성취가 높은 사람들에게서 언급되었다. 타인에게 거리를 두고, 자신에 애정을 집중하는 것이 아마도 아이들에 대해 더 낮은 관심과 흥미로 연결된 듯 하다.

50개의 Interpersonal Q-Sort 항목들은 아내나 파트너로부터 묘사된 200명의 남성과 남편이나 파트너로부터 묘사된 200명의 여성, 그리고 각각 3명의 관찰자로부터 묘사된 111명의 남성 평가대상자들의 표본들에서 독립적 성취와 상관이 있었다. 독립적 성취와 정적 상관이 가장 큰 3항목과 부적 상관이 가장 큰 3항목이 남성, 여성, 그리고 111명의 평가 대상자들의 상관계수와 함께 아래에 제시되어있다.

독립적인, 총명한, 자립적인; 성취에 가치를 두다 (.25, .17, .33)

관찰력있는, 직관력있는; 타인의 행동의 미묘함과 뉘앙스에 빠르게 반응하는 (.13, .15, .30)

언어가 유창한; 분명하게 자기를 잘 표현한다 (.20, .10, .38)

둔한, 능력과 이해력이 부족한 (-.15, -.10, -.27)

야심이 없는, 사고방식과 행동이 흔하고 관습적인 (-.05, -.13, -.31)

따뜻하고 가식 없는; 편안하고 단순한 사람 (-.12, -.13, -.22)

독립적 성취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총명하며 직관력이 있고 언어가 유창한 것으로 인식된다. 독립적 성취 척도가 낮은 사람들은 둔하고 야심이 없어 보이는데 또 한편으로 따뜻하고 복잡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독립적 성취 척도는 독립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환경에서의 우월한 성취를 예측한다. 독립적 성취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관심사가 다양하며 총명하고 명확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로 보인다. 그들은 잘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며 스스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동시에, 그들은 약간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는데, 독립적 성취 척도가 높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무관심할 수 있고 인간적인 따스함이 부족한 사람들 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독립적 성취 척도가 낮은 사람들은 모든 교육 단계에서 학업적 성취에 위험이 있으며, 그들의 능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잘 정의 되지 않고 애매한 상황에 불편해 하며, 관심의 폭이 좁다. 그들은 지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일에 잘 대처하지 못하며 쉽게 주의가 분산되고 혼란스러워 한다. 그들은 그들에게 별로 요구나 기대가 없는 복잡하지 않은 환경에서만 잘 지낼 수 있는 따뜻하고 단순하며 보수적인 사람들이다. 좌절했거나 압박 하에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자기 파괴적이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지적 효율성 (Ie, Intellectual efficiency) 척도**

지적 효율성 척도(Gough, 1953b)는 개인의 지적 자원에 대하여 접근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이 척도는 또한 지적 능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시 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항 분석 또한 Kuhlman-Anderson 시험(Kuhlman & Anderson, 1940)과 같은 능력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관계를 처리하였다. 이러한 단체에 기반하여 능력을 측정한 결과는 CPI가 관리되는 도시에 있는 고등학생과 같이 큰 표본에서 이용될 수 있었다.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지적 능력에 대한 직접적 측정의 초기 분석에서, .40에서 .50 범위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왔다.

Appendix C에서, 지적 효율성과 몇몇 지적 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2625명의 남고생과 3096명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어떠한 종류의 지적능력평가를 실시하던 간에, 지적 효율성과의 상관관계는 .43과 .44였다. 735명의 남자 대학생과 452명의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어휘 능력을 측정했을 때는, 상관관계가 남성의 경우 .29 여성의 경우 .22였다. 창의성 프로젝트에서는 158명의 남성과 27명의 여성에게 각자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WAIS) 관리직이 주어졌다. 매우 똑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표본에서(158명의 사람들에 대한 WAIS 평균 점수가 약 132였다), 지적 효율성은 WAIS total IQ와 남성의 경우 .28 여성의 경우 .54의 상관성을 가졌다. Appendix C에서도 보고되었듯이, 지적효율성은 또한 고등학교 성적과 크게 상관관계를 가지고(2432명의 남성의 경우 .43 2852명의 여성의 경우 .45), 대학 진학과도(남성의 경우 .35 여성의 경우 .32), 또한 대학에서의 4년간 학점과도 995명의 남성과(r= .16) 441명의 여성(r= .17)에 대해 상관관계를 보였다. 지적 효율성과 다른 검사의 척도 간에 나타나는 몇몇 상관관계도 굉장히 흥미롭다. Comrey의 Emotional Stability 척도와는 남성의 경우 .42 여성의 경우 .46 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Goldberg의 Big-5에서 Intellect 점수와는 남성의 경우 .38 여성의 경우 .44; GZTS Emotional Stability 척도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54 여성의 경우 .43; Theoretical Orientation 에서 OPI척도와는 남성의 경우 .54 여성의 경우 .52; Personal Integration은 각각 .52와 .53; Hogan의 Ambition 척도와는 남성의 경우 .56 여성의 경우 .52; Barron의 Ego Strenght 척도의 경우 남성은 .48 여성은 .57; Barron의 Originality 척도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43 여성의 경우 .45.

몇몇 연구들에서는 지적 효율성을 좋은 건강과 효과적인 기능 등의 목록과 연관시켜왔다. 50세의 전반적인 육체적 건강은, 두명의 의료진에 의해 판단된 바에 의하면, 43세에 시행된 CPI 척도와 연관성이 있었다(Bayer, Whissell-Buechy, & Honzik, 1980). 51명의 남성에 대하여 지적 효율성과의 상관관계는 .28이었고 77명의 여성에 대해서는 .41이었다. 또 다른 연구(Cartwright, Wink, & Kmetz, 1995)에서는 여성 의료진을 건강이 좋은 사람과 정신 건강이 안좋은 사람과 육체적 건강이 안좋은 사람으로 구분했다. 46세에 지적 효율성 척도의 평균은 각각 35.51, 31.75, 그리고 32.90이었다. 건강이 좋은 그룹의 평균은 건강이 좋지 않은 다른 그룹의 평균보다 눈에 띄게 (p<.01) 높았다.

480 버전의 CPI에서, 지적효율성 척도는 53개 문항을 가지고 있었다. 462 버전에서 이는 42 문항으로 줄었다. 434 버전에서, 지적 효율성은 똑같이 42문항을 가지고 있었으나, 462에서 탈락한 문항들로 인해 다섯개의 다른 문항들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큰 숫자의 문항이 탈락한 이유는 지적 효율성이 일반적으로 좋은 건강과 육체적 효율성에 속해있었고 이 중 다섯개가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가 부여한 제한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462 버전과 434 버전간의 상관관계는 .97로 둘 다 3000명의 남자와 3000명의 여성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다.

지적 효율성 42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은 6000명의 총체적인 일반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1.00 혹은 그 이상의 고유값을 가지는 열가지의 요인이 확인되었고, 그 중 넷은 교대를 위하여 Kaiser의 normal varimax method를 사용하여 임의적으로 보유되었다. 처음으로 교대된 요인은 좋은 의욕의 표현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루어져있다. 예를 들어 “나는 걱정해야 하는 것 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거짓”), “ 나는 종종 걱정거리를 나눈다.”(“거짓”), “미래는 나에게 희망이 없어보인다.”(“거짓”) 등이 있다. 요인 2는 흔한 걱정이나 두려움을 거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예를 들어, “폭풍우는 나를 무섭게 한다.”(“거짓”), “나는 문 손잡이로부터 세균 혹은 병에 감염되는 것이 무섭지 않다.”(“참”). 요인 3은 좋은 지적 능력과 지적 활동에 대한 참여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나는 일년에 적어도 열 권의 책을 읽는다”(“참”), “나는 꽤 속독하는 편이다”(“참”), “나는 학교에서 부진아였다”(“거짓”)등이 있다. 요인 4는 과학에 초점을 맞춘 항목들이다. 즉, “나는 과학에 대해 읽는 것을 좋아한다”(“참”), “나는 과학을 좋아한다”(“참”) 등이 있다.

관찰자에 의한 형용사적 묘사는 Table 5.17에 나와있다. 각각의 여섯개의 표본에서, 관찰자들은 그들이 받은 인상을 300개의 형용사 체크 리스트에 기록하였다. 지적 효율성과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12개의 형용사와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12개의 형용사는 표에 나와있다. 대부분의 형용사들은 지적 효율성에서의 높은 점수와 관련된 지적 능력 혹은 지적 기능과 연관되어있다. 예를 들면, 유능한, 명확한 사고, 영리한, 통찰력있는, 똑똑한 그리고 합리적인 과 같은 것들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또한 자신감이 있고 독립적이며 깨어있고 솔선수범한다. 지적 효율성에서의 낮은 점수와 연관되어 있는 형용사들은 지적 활동에 덜 집중하고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도 하다. 한 집단은 낮은 의욕과 적응능력과 연관되어있다: 격렬한, 우울한, 긴장된, 약한. 인지적 부족은 헷갈린다 혹은 관심사가 좁다와 같은 용어로 암시된다. 억압된 경향은 무관심한, 조용한, 간단한, 느린, 등으로 그리고 상호인관관계가 부족한 것은 어색한 또는 의존적인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1356명의 사람들 표본으로 이루어진 부표본에 의해 표준화 된 형용사 점수를 사용하여 200개의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형용사들에 대한 회귀분석이 수행되었고 8단계에서 분석은 끝이 났다. 지적 효율성 점수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여덟개의 설명의 조합은 .36(R제곱=.13)의 다중상관을 보였다. Positive beta weight를 갖는 형용사들은 문명화된, 이상적인, 반영적인 이 있다. Negative beta weight를 갖는 형용사들은 복잡한, 상냥한, 부끄러운, 의심스러운, 그리고 일시적인 등이 있다. 547명의 남성과 39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California Q-set*를 이용한 관찰자들의 묘사는 분석되었다.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섯 혹은 그 이상의 판정단 패널에 의해 Q-sort가 주어졌다. 합의된 Q-sort는 각각의 피 평가자에 대해 도출되었고, 100개의 항목은 지적효율성 점수와 상호관계를 이루었다.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갖는 네개의 문항과 가장 큰 음의 상과ㅏㄴ을 가지는 네개의 문항은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한 상관계수와 함께 아래에 나와있다.

지적 혹은 인지적 부분을 가치있게 여긴다. (.23, .37)

스스로에 대해 높은 열망 수준을 가지고 있다 (.25, .28)

사회적 균형과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이다 (.23, .24)

말이 유창하다;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다 (.19, .37)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겁에 질려 포기하고 물러난다 (-.17, -.30)

자기방어 체계가 취약하다; 통합의 정도가 낮다; 스트레스 혹은 트라우마적 상황에서 비조직적이며 적응을 잘 못한다 (-.17, -.29)

자멸적이다 (-.23, -.25)

삶에 있어서 속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자기연민적이다 (-.21, -.25)

지적 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지적 인지적 부분을 가치있게 여기고,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침착하고, 스스로를 잘 표현한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방해받았을 때 포기하고 물러나며, 자기방어가 약하고, 자멸적이며 자기연민적이다. “높은 지적 능력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문항 또한 남성의 경우 .15 여성의 경우 .34의 상관계수를 보이며 지적 효율성 점수와 연관되어 있다.

면접관에게 504명의 남성과 379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대기 인터뷰를 통한 인상을 99개의 항목 체크리스트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네개의 할목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네개의 항목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상관계수와 함꼐 아래에 나와있다.

넓고 다양한 단어를 사용한다 (.24, .23)

고등학교 때 우등생이었다 (.17, .23)

자신감이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고 느낀다 (.21, .16)

좋은 인상을 남긴다; 효과적인 인간관계 기술을 가지고 있다 (.19, .16)

생각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15, -.13)

문법 혹은 단어 사용에 있어 실수를 한다. (-.23, -.18)

많은 걱정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20, -.14)

자기 자신과 능력에 대해 확신이 없다 (-.21, -.18)

지적 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면접에서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자신감이 있었으며, 좋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또한 고등학교에서 우등생이었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언어 사용에 실수를 하고, 걱정이 많으며, 자멸적이다.

아내 혹은 연인에 의해 묘사된 200명의 남성과 남편 혹은 연인에 의해 묘사된 200명의 여성 그리고 관찰자 패널에 의해 묘사된 111명의 남성 피평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Interpersonal Q-sort*에서 추출한 50개 문항은 지적 효율성과 연관이 있었다.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세개의 문항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세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남성과 여성 그리고 남성 피평가자에 대한 상관계수도 같이 제시되어있다.

독립적, 똑똑한, 스스로를 믿는; 가치 추구적인 (.16, .21, .23)

언어적으로 유창한; 스스로를 명확하고 쉽게 설명한다 (.13, .22, .43)

효과적인 리더이다; 응답을 끌어낼 수 있고 다른사람들과 협동할 수 있다(.18, .17, .35)

따분한;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15, -.15, -.26)

분위기에 휩쓸리는; 어렵고 저항하는 (-.21, -.04, -.26)

통상적인 결혼을 했다; 변화와 불확실한 것에 불안을 느낀다 (-.02, -.17, -.25)

이러한 묘사들에서, 지적 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독립적이고, 똑똑하며, 유창하고, 잠재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따분했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변화 혹은 불확실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불안해하였다.

요약하자면, 지적 효율성에서의 높은 점수는 좋은 지적 능력, 효과적인 능력의 활용, 그리고 좋은 삶의 감각을 암시한다. 그 보상은 육체적 신체적 건강, 우등한 학업적 성취;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의 긍정적 반응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 지적효율성 점수의 평균 곡선은 보이지 않는다. 즉, 응답자가 지나치게 똑똑해지거나, 지나치게 인지적 노력에 몰두하거나, 지나치게 성공을 쫓게 되는 최고점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지적 효율성에서의 낮은 점수는 평균 이하의 지적 능력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일상과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루는데 있어 다방면에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지적 효율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상황에 약하고, 피해의식이 있으며, 종종 자멸적이다.

**예민성 (Psychological-Mindedness / Py) 척도**

1940년대 후반과 1950년대 초반에, 개인적 친분에 기반하고 몇몇 대학의 선배 학자들의 비 공식적인 지명으로 선택된 25명의 뛰어난 젊은 심리학자들의 샘플에 300개의 실험적 항목들이 주어졌다. 이러한 개인들의 이름은 드러날 수 없었지만 그 당시 그들의 직업에 따라, 그들이 그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행하는 것 이상을 실현해 왔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들의 많은 상과 인정들은, 지역, 국가, 그리고 심리학 협회 에서의 회장직, 심리학에 대한 연구와 전문가적 기여에 대한 금메달, 국립 과학원에의 선출, 그리고 작은 도서관을 채우기에 충분한 책, 논문, 서평, 그리고 논평들, 이러한 것들을 포함했다. 25명의 젊은 전문가들의 그룹을 위한 항목들은 다른 분야 혹은 다른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의 샘플과 대조를 이루었다. 장래성이 있는 75개의 항목들은 유지되었고, 몇몇 대학의 심리학과 대학원 세미나에 등록된 남성과 여성 학생들에게 부여되었다. 이 세미나들의 전임 강사들은 이 학생들을 위해 심리학에서 우수한 직장(superior work)을 위한 경쟁력과 잠재력에 대한 연구 평가를 제공했다. 평가는 항목들과 관련이 되었고, 22개 항목들은 첫 번째 분석에서의 지지율(endorsement rates)에 대한 일치성과 평가(ratings)에 대해 두드러지는 연관성을 가졌다. 이 22가지 항목들은 1956년 480폼 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예민성 척도의 초기 버전을 구성했다.

예민성 척도 구성의 전략은 두 가지 목적을 얻기 위해 고안되었다: 첫 번째는, 심리학 분야에 흥미를 가지고 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흥미를 가지는 동일한 능력의 사람들 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기 위함 이다; 두 번째는, 심리학 분야의 일의 질과 관련하여, 그러한 일을 평가하기 위해 주로 도입되는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목적의 달성은 표 5.18의 데이터에 의해 시사된다. 부록B에 전부 나와있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의 샘플 모두가 유효했던 22개 그룹에 대해 예민성의 평균은 크기에 따라 대략적으로 배열됐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해 가장 높은 점수의 샘플은 심리학 대학원생 이었고, 이어서 수학자, 의대생, 사회복지 대학원생, 의예과 학생, 검안대학 학생, 그리고 마취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뒤따랐다. 집합체의 중간은 경찰 지원자, 약사, 간호대학 학생, 건축과 학생, 그리고 일반적인 대학생들의 샘플에서 찾아졌다. 프로파일 표준 샘플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치 밑으로 점수가 매겨진 그룹들은 고등학생, 정신병환자, 미성년 범죄자, 그리고 수감자들 이다. 아마도, 이러한 모음들과 일치하는 하나의 테마는 심리적 마음상태(psychological-mindedness) 혹은 심리학에 대한 흥미 일 것이다.

예민성 척도의 규정된 목표들에 적절한 또 하나의 다른 증거는, 300명의 대학생(남성 150명, 여성 150명)샘플에 대해 스트롱 흥미 검사(Strong Interest Inventory)의 심리학자 척도와 예민성 척도가 갖는 상관관계가 .46 이라는 것이다.

심리학적 행동을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심리학적 노력의 성과와 관련하기 위한 두 번째 목표에 대하여, 심리학 학부생들의 네 가지 샘플들에서(N=5,103) 예민성과 학점 간의 평균 상관관계는 .24였다 (Gough, 1964b). 다른 연구는(Sandoval, 1993) 50명의 학교 심리학자들의 샘플에서 CPI점수를 직무 소진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MBI; Maslach & Jackson, 1986))점수에 연관 지었다. MBI의 처음 두 가지 척도들은 극도의 피로와 그것의 증상들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췄다. 반면에 세 번째 척도(개인 업적(Personal Accomplishment))는 직업적 피로에 저항하고 대응하게 하는 속성들을 측정했다. 예민성과 개인 업적 척도 간의 상관관계는 .30 (p <. 05)였다. 세 번째 연구는(Burkhart, Gynther, & Christian, 1978) MMPI를 수행한 60명의 대학생들을 포함했고, 처음에는 기본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는 fake good 이거나 fake bad인 것에 대한 지시와 함께 했다. 총 기록은, 명백하고 매우 명백한 항목들이 아니라, 매우 미묘하고 다소 미묘한 아이템들로 구성되었다. 표준 상태 하에서, 예민성은 미묘한 항목들의 승인(endorsement)과 명백함의 회피에 대해 두드러진 상관관계를 가졌다(p < .01). 반면에 대학 입학 학력고사(American College Test(Act))에 의해 측정된 지능은 그렇지 않았다. 저자는 미묘한 항목들에 대한 이러한 민감성이 “예민성이 또한 대인커뮤니케이션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더욱 날카롭게 구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라고 결론지었다.

1986년 버전의 CPI(462폼)에서 예민성 척도는, 신뢰성의 단일 시행 지표(single-trial index)를 증진시키기 위해 28가지 항목들로 늘어났다. 6가지의 새로운 항목들은 각각의 새로운 항목이 이미 검사의 480폼에 포함되어 있다는 조건과 함께 두 개의 초기 항목 분석의 재검토에 근거하여 선택되었다. 척도의 28가지 항목들 중 두 가지는 장애인 보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금지와의 갈등에서부터 나왔고 434폼에서 누락되어야만 했다. 434폼의 두 가지 다른 항목들은 예민성 척도의 28가지 항목의 길이를 유지하기 위해 대체되었다. 예민성 척도의 두 가지의 28가지 항목 버전들의 상관계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프로파일 표준 샘플에 대해 .97이었다. 챕터 3에 나와있듯이, 예민성의 6000명의 사람들의 프로파일 표준 샘플에 대한 중간항목 알파계수는 .62였고, 이는 내용의 보통 수준의 이질성을 나타냈다.

예민성 척도의 28가지 항목들에 대한 요인 분석은 프로파일 표준 샘플의 6000명의 사람들의 샘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고유값 1.00 혹은 그 이상을 가지는 확인된 일곱 가지 항목들은, 네 가지는 Kaiser’s normal varimax 방식으로 교대되기 위해 임의적으로 유지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자신의 지적 능력을 총괄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항목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나는 과제나 일에 집중하는 것이 힘들다” (“거짓”), “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거짓”), 그리고 “나는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없다” (“거짓”). 두 번째 요인은 작은 관습, 개인적 정돈, 기타 등등에 대한 무관심을 암시하는 항목들을 가진다. 대표적인 항목들은 “나는 옷을 막 입는 사람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거짓”) 그리고 “나는 항상 내 물건들을 알맞은 순서로 말끔하게 유지하는 것을 좋아한다” (“거짓”). 세 번째 요인은 지적 노력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는 항목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연구 하는 것은 나에게 흥미로운 일이다” (“참”) 그리고 “나는 과학에 대해 읽는 것을 좋아한다” (“참”). 네 번째 요인은 단독 개체이고, 그것의 한 가지 항목은 “나는 절대로 내가 확신할 때까지 사람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 (“거짓”)

높거나 낮은 점수의 예민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들은 177명의 사람들(남성 88명, 여성89명)의 샘플에 대한 Buss-Craik 행동빈도검사의 분석에서 발견되었다. 각각의 사람들은 배우자나 파트너에 의해 행동의 빈도에 대해 측정되었다. 예민성과 가장 양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다섯 가지 행동들과 가장 음성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다섯 가지 행동들이 아래에 명시되어있다.

친구가 그 혹은 그녀에 대해 비난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는다 (.24)

시대를 앞서는 아이디어를 지지한다 (.24)

친구가 제안했을 때 식당에서 새로운 음식을 기꺼이 시도한다 (.27)

점심 값을 계산한다(picked up the tab for lunch) (.25)

어려운 과제에 놓여있는 친구를 도와준다 (.21)

대규모의 그룹 앞에서 말할 때 얼굴이 빨개진다 (-.16)

그 혹은 그녀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 지인을 용서한다 (-.16)

누군가 그 혹은 그녀의 차를 허락 없이 사용했을 때 불평하지 않는다 (-.17)

그 혹은 그녀의 뒤에서 험담을 한 사람들을 고소한다 (-.20)

작은 실수에 대해 계속해서 사과한다 (-.16)

[Table 5.19] 높은 점수의 예민성과 관련된 행동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흥미, 비난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열린 마음, 그리고 지능적 일에 대해 기꺼이 남을 돕는 것을 나타낸다. 낮은 점수의 예민성과 관련된 행동들은 사과하는 행동, 사람들의 이목에 당황하는 것, 착취하는(exploitative) 친구들과의 갈등 회피, 그리고 뒤에서 하는 발언에 대한 민감함을 포함한다.

여섯 가지 샘플들에 대해 예민성과 연관하는 형용사 체크 리스트(Adjective Check List)들이 표5.19에 나와있고, 이는 12개의 가장 양성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형용사들과 12개의 가장 음성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형용사들의 리스트 이다. 예민성의 높거나 낮은 점수들과 형용사 간의 관계는 다른 척도들에 비해 다소 약하고 특히 대학생 남성과 여성의 하위 샘플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주의와 함께, 높은 점수와 관련이 있는 설명들을 먼저 살펴보자. 하나의 주제는 좋은 지적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명확한 사고, 통찰적인, 똑똑한, 이성적인, 그리고 사색적인, 이러한 것이 있다.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또한 기민하고 선견지명이 있으며 진취적이고 자신감 있고 철저하다고 묘사된다.

예민성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냉담하고 의존적이고 단순하고 야망이 없으며 약하다고 보여진다. 그들은 또한 자기 연민에 빠지는(self-pitying) 그리고 불평하는(whiny) 이라는 형용사들에 의해 제안되는 바로는, 불평하는 버릇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조용한 편이고 미신을 믿는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아무 의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낮은 점수의 예민성과 관련된 모든 12가지 용어들은 대인관계 혹은 개인의 내적인 몇몇 문제들을 묘사한다.

관찰자의 묘사를 위해 표준화된 점수를 사용한 1356명의 사람들의 합성 샘플에서, 200개의 가장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들은 여덟 가지 단계 후에 분석을 중단하면서 예민성 척도의 점수로 퇴보되었다(regressed onto). 예민성 점수를 측정하기 위한 여덟 가지 묘사들의 가장 좋은 조합은 .35( =. 12) 의 다중 상관관계를 가졌다. 다섯 가지 형용사들은 양성적인 beta weights를 가졌다: 따지기 좋아하는, 독창적인, 논리적인, 철저한, 그리고 관대한. 세 가지는 음성적인 beta weights를 가졌다: 착한, 강한, 그리고 의심하는.

캘리포니아 Q-set의 100가지 항목들은, 다섯 혹은 그 이상의 관찰자 패널들에 의해 Q분류에 근거하여 묘사된 547명의 남성과 393명의 여성들의 샘플의 예민성 점수와 연관되었다. 가장 양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네 가지 항목들과 가장 음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네 가지 항목들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상관계수와 함께 아래에 인용되어있다.

넓은 범위의 관심사를 가진다 (.20, .26)

높은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21, .32)

지적이고 인지적인 문제들에 정말로 가치를 둔다 (.30, .40)

스스로에 대한 높은 수준의 포부를 가진다 (.25, .27)

불확실하고 복잡한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11, -.24)

좌절과 역경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포기하고 그만둔다 (-.18, -.23)

스스로와 타인에 대해 “인기” “합당한 일” “사회적 압박” 등의 전형적 용어들로 판단한다 (-.12, -.23)

제멋대로 한다 (-.16, -.12)

명확한 인지적 주제는 넓은 관심의 폭과 우월한 지적 능력과 같은 높은 점수의 예민성과 관련된 Q분류 항목들에서 관찰 가능하고, 지적 문제들에 대해 가치를 둔다. 성취에 대한 강한 열망은 또한 열망에 대한 항목들에서 예견된다. 낮은 점수의 예민성은 복잡한 것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좌절되거나 역경을 만난 상황에서의 인내심 부족, 자신과 타인에 대해 평가할 때의 인습적 태도, 그리고 제멋대로 하는 모습과 연관되어 있다.

인생사 인터뷰 동안 관찰된 행동들과 기억들은, 남성 504명과 여성 379명에 대해 면접을 진행한 면접자에 의해 99개 항목의 체크 리스트에 기록되었다. 예민성과 가장 양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네 가지 항목들과 가장 음성적 상관관계에 있는 네 가지 항목들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상관계수와 함께 아래에 나와있다.

범위가 넓고 다양한 종류의 어휘를 사용한다 (.14, .22)

재치 있고 활기차며 이야기를 흥미롭게 하는 사람이다 (.11, .18)

고등학교 때 우등생이었다 (.10, .19)

매우 자신감 있고, 거의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느낀다 (.13, .17)

문법 그리고/혹은 단어 사용에 실수를 한다 (-.20, -.19)

고등학교 때 혹은 그 이전에 처음 성경험을 했다 (-.21, -.16)

스스로를 고등학교 때 부진아 였다고 여긴다 (-.13, -.12)

스스로에 대해 확신이 없고,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한다 (-.10, -.18)

비록 상관계수의 규모가 작지만, 높은 점수의 예민성과 관련된 것들은 자신감, 기백, 그리고 지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나타낸다. 낮은 점수의 예민성과 관련된 것들은 자기회의, 교육적 결핍, 그리고 지적이지 않고 인지적이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것을 나타낸다.

50개 항목의 대인관계 Q분류는 남성 200명, 여성 200명, 그리고 living-in 평가에서 연구된 남성 111명에 대한 묘사를 얻기 위해 사용되었다. 예민성과 가장 양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세 가지 항목들과 가장 음성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세 가지 항목들은 세 가지 샘플들에 대한 상관계수와 함께 아래에 인용되어 있다.

관찰력과 통찰력이 있다; 타인의 행동의 미묘한 뉘앙스에 빠르게 반응한다 (.14, .14, .27)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하는 것에 재능이 있다 (.13, .11, .35)

말이 유창하다; 스스로를 쉽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17, .11, .27)

야망이 없다; 생각과 행동이 평범하고 관습적이다 (-.08, -.21, -.27)

사회적으로 쉽게 불편하고 어색해한다; 타인과 함께일 때 부끄러워하고 거리낀다 (-.10, -.14, -.25)

일상을 고집한다; 변화와 불확실성에 불안해한다 (-.10, -.16, -.15)

예민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통찰력 있고, 타인의 미묘한 행동에 관찰력 있으며 창의적이고 말이 유창하다고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야망이 없고, 평범하고, 사회적으로 쉽게 불편해하고, 일상을 고집한다고 묘사된다.

요약하자면, 예민성 척도는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개념화된 종류의 심리적 마음상태를 측정한다.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심리적 현상과 그 분야 자체에 대해 관심이 있는 편이다. 학업적 추구에 있어서 그들은 잘 하고, 그들의 유창한 언변, 우월한 지능, 그리고 창의적 잠재력에 의지한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은 다소 거리를 둔다; 항상 따뜻하거나 협조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친밀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이 준 것보다 더 받는 경향이 있다.

가능할 때 지능적이고 대인관계에 대한 복잡함을 회피하고 관습적 견해를 가지는 예민성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쉽게 불편해한다. 그들은 삶의 우여곡절에 의해 이용당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고, 대응할 때에 직접적인 방법 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에 의지한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을지 모르는 어떠한 종류의 재능이건 간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

**융통성 (Fx, Flexibility) 척도**

융통성 척도는 권위주의적인 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발견된 엄격함 (rigidity) 의 요인을 얻으려는 시도 속에서Nevitt Sanford와의 협업 하에 구성되었다 (Adorno, Frenkel-Brunswik, Levinson, & Sanford, 1950). 은 엄격함에 대해서 해롭고 편협한 태도에 대한 더 명확한 측정과 더불어 함축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F scale rigidity 은 특정한 정치사회적 관점과의 관련성으로 인해 당혹스러운 점이 있다. 융통성 척도에 대한 도전은 이를 테면,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와 모두와 연관되지 않으면서, 엄격함-유연성 축의 좀 더 완전한 (purer) 척도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척도 개발의 방법론은 솔직히 주관적이었다. 즉, 문항들은 Gough와 Sanford가 이해한 것과 같이 심리학적 단단함과 유연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80개의 문항들은 모아졌고 두명의 관리자가 있는 교실의 학생들, Institute of personality Assessment and Research의 피평가자들 등등의 다양한 표본들이 관리되었다. 정신력 측정용 분석은 개인의 문항들과 초기 구성의 총점 사이에서 대립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항의 pool은 22개로 줄어들었고 각각의 문항은 다른것들의 총체와 함께 정렬되었다.

이러한 초기 척도는 Gough-Sanford Rigidity 척도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러한 형태로 많은 검사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예를 들면 Rokeach, 1960). 1956년에, 480 CPI가 발표되었을 때, 이 척도는 점수 측정 방식이 뒤집히고 융통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1986년에 발표된 Form 462에서 융통성 문항은 28개로 늘어났다. 이 때의 척도는 그대로 Form 434까지 이어졌다.

Appendix C에서도 보여줬듯이, 융통성은 학습능력의 측정이나 지적능력과는 0 혹은 거의 0 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2625명의 남성과 308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표본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시험되는 융통성은 표준화된 능력 검사 점수와 .04 와 .06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성격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했을 때, 유용한 정보가 될만한 발견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Comrey 척도에서 orderliness는 남성에 대해서 -.56 여성에 대해서는 -.62의 상관관계가 구해졌고, Conformitiy는 각각 -.30과 -.47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NEO-AC 척도에서 Conscientiousness에 대해 남성의 경우 -.54 여성의 경우 -.56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OPI 척도의 Complexity에 대해 각각 .69와 .54의 상관관계를, OPI 척도의 practical outlook에 대해서 각각 -.65와 -.74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RF 척도의 Cognitive Structure에 대해 남성의 경우 -.49 여성의 경우 -.58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Lazare-Klerman-Amor 척도의 Obsessional Personality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59 여성의 경우 -.62의 상관관계를; 그리고 Barron척도의 Complexity에 대해서는 각각 .60과 .55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흥미로웠던 Fx 척도의 적용은 Gaenham(1974)에 의해 행해졌는데, 그는 낮은 Fx 점수가 정치적 결정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6000명의 표본을 상대로 한 28개의 Fx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은 1.00 혹은 그 이상의 고유값을 가지는 일곱개의 요소를 발견하였다. 이 중 네개는 교대를 위해 Kaiser의 normal varimax method에 의해 임의적으로 보유되었다. 요인 1은 모호성에 대한 관용의 지표가 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자주 사람들이 조금 더 분명하기를 바란다” (“거짓”),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단 하나의 답변만이 있다” (“거짓”) 등이 있다. 요인 2는 강박적이지 않은 조짐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그러할 공간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거짓”), “나는 항상 나의 것들을 단정하고 깔끔하고 순서대로 유지하는 것을 좋아한다”(“거짓”) 등이 있다. 요인 3은 숨김없이 편견과 속단을 자백하는 문항들이다. 예를 들어, “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에는 단 한번도 사람을 판단해 본 적이 없다” (“거짓”), “솔직한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다”(“거짓”) 등이 있다. 요인 4는 심각한 혹은 처벌적인 초자아 통제의 부재를 암시하는 문항들이다. 예를 들어 “내 생각에 나는 옳고 그름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엄격하다”(“거짓”), “나는 스스로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해야한다고 느낀다”(“거짓”) 등이 있다.

Fx와 연관되어 있는 행동 빈도 세부사항은 177명의 사람들(88명의 남성, 89명의 여성)에 대해 연인 혹은 배우자가 행동 빈도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검사되었다.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다섯개의 행동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다섯개의 행동은 아래에 나와있다.

저녁에 놀러 나갔을 때 자진해서 비용을 부담한다 (.30)

버스 정류장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건다 (.31)

모르는 사람의 안부인사는 무시한다 (.29)

저녁 파티에서 친구들에게 환상적인 저녁을 대접한다 (.30)

파티에서 약간의 농담으로 군중을 즐겁게한다 (.27)

일상적인 대화를 계획한다 (-.16)

파티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싸움을 건 적이 있다 (-.16)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비싼 차를 운전한다 (-.17)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회의의 결과물을 통제했다. (-.17)

교회에 다닌다 (-.19)

Fx에서의 높은 점수와 관련된 행동들은 자발적이고 활기차며 마음이 맞고 재밌어 보이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다. Fx의 낮은 점수와 연관되어 있는 행동들은 조금 더 신중하고, 계획적이며, 그리고 결과를 의식한다.

여섯개 표본의 사람들에 대한 ACL 묘사 와의 관련성에서,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12개의 형용사와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12개의 형용사는 Table 5.20에 나와있다. Fx의 높은 점수와 연관되어 있는 한 집단은 새로운 경험에 대해 기뻐하고 정해진 길에 있어 조급하다: 모험적인, 쉽게 변하는, 기쁨을 찾는, 자발적인, 비관습적인, 그리고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 또 다른 집단은 유머를 가리킨다: 똑똑한, 유머있는, 창의적인, 총명한. 묘사는 자발성과 통제의 포기가 때떄로 도를 넘을 수도 있다고 무질서하게 제안하고, 개인주의적인 이라는 형용사가 기쁨을 찾는 것에 있어 지나치게 개인에 집중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너무 집중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Fx에서의 낮은 점수와 연관되어 있는 형용사들은 강요(조심스러운, 보수적인, 관습적인, 고의의, 산업적인, 그리고 공들인 등의 형용사), 좁은 범위의 관심, 야단법석함, 편견, 그리고 얌전함을 암시한다. 하지만, 더불어 높은 점수와의 연관성에서는 떨어지던 실용성의 요소 또한 존재한다.

1356명의 사람들 표본으로 구성된 200개의 가장 흔히 사용되는 형용사들에 대한 회귀 분석은 Fx 점수를 측정하기에 가장 적절한 여덟개 세트의 묘사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최적의 세트는 Fx와 .40의 다중상관을 보인다(R제곱=.16). positive beta weight를 가지는 형용사들은 호기심 많은, 상상하는, 그리고 합리적인 이다. Negative beta weight를 가지는 형용사들은 다정한, 보수적인, 산업적인, 정돈된, 그리고 엄격한 이다.

California Q-set의 100개 문항에 대한 분석은 547명의 남성과 393명의 여성에 대해 수행되었고, 각각은 다섯 혹은 그 이상의 패널 판정단에 의해 Q-sort에 묘사되었다. 이러한 독립적인 공식들은 각각의 피검자에 대해 동일한 종합 공식으로 합쳐졌다.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갖는 네개의 문항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갖는 네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으며,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한 상관 계수도 함께 나와있다.

높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18, .21)

기발한 생각을 한다; 비관습적인 사고 과정을 가지고 있다 (.18, .33)

오감을 만족시키는 겨엄을 즐긴다 (촉각, 미각, 후각, 그리고 육체적 접촉) (.16, .22)

배반적이고 규범을 따르지 않는 (.22, .36)

꼼꼼하다 (-.22, -.34)

다방면에서 보수적인 가치를 선호한다 (-.26, -.40)

도덕적이다 (-.20, -.31)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관습적인 용어로 판단한다. 예를 들면 “인기”, “해야하는 올바른 일”, “사회적 압박”, 등등 (-.23, -.30)

Fx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Fx와 능력의 관련성이 거의 0에 수렴한다는 점이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부분에서 우월하다고 비춰졌다. 그들은 또한 혁신적이고, 비관습적인 사고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반항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즐긴다고(친구에게 “환상적인” 식사를 대접하는 행동을 기억하라) 보여졌다. Fx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세심하고, 보수적이며, 도덕적이고, 관습적인 기준과 판단을 내린다고 묘사되었다. 99개 문항의 면접관 체크리스트에서 나온 산출은 높은 점수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빈약했지만, 낮은 점수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주었다. 아래는 Fx에 대하여 가장 큰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네개의 문항과 가장 큰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네개의 문항이다.

표정이 활기차다 (.17, .05)

부주의하고, 외모나 꾸미는 것에 있어서 단정하지 못하다. (.11, .12)

넓고 다양한 단어를 사용한다 (.15, .13)

재치있고 활기차며 흥미로운 대화를 하는 사람이다 (.16, .17)

더욱더 엄격하고 권위적이다 (-.15, -.12)

강한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19, -.21)

행복한 결혼을 하였다 (-.11, -.19)

아이들을 좋아한다 (-.22, -.25)

면접이 진행된 504명의 남성에 대하여 05. 혹은 그 이상에 대해 .09의 상관성은 굉장히 뚜렷한 것이다; 그리고 379명의 여성에 대해 0.5 혹은 그 이상에 대해 1.0의 상관성은 뚜렷한 수치이다. 즉, Fx와 높은 상관을 가지는 네개의 문항에 대해 매우 낮은 상관계수 조차도 단 하나의 문항만이 .05 이하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항들을 통해, 단정하지 못한 복장으로 나타나고, 다양한 단어들로 활기차게 이야기하고, 역동적인 표정을 보여주는, Fx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면접대상자들에 대해 약한 인상을 받았다. 이러한 묘사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찰에 의해 발생하는 Fx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과 양립할 수 있다.

Fx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강한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고, 행복하게 결혼하였으며, 아이들을 좋아한다. 그들의 엄격한 아버지는 순응하고, 관습을 따르고, 통제된 매너 안에서 행동하는 성향을 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200명의 남성, 200명의 여성, 그리고 111명의 남성 피검자에 대해 Interpersonal Q-sorts가 실시되었다. 50개의 문항에 대하여, Fx에 대해 세개의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것들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것들은 세 표본에 대한 상관계수와 함께 아래에 나와있다.

똑똑하고 상상력이 좋은; 자발적이고 즐거운 사람(.28, .24, .29)

의존적이지 않고;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며; 지시된 명령을 향해 일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17, .09, .33)

창의적인 생각에 대해 재능이 있다 (.17, .20, .28)

양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다 (-.17, -.20, -.21)

행동이 신중하고 체계적이다; 태도가 융통성이 없고 완고하다 (-.19, -.15, -.29)

상상력이 부족하고 무미건조하다; 느리고 신중하다; 열정이 부족하다 (-.21, -.17, -.18)

Fx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영리하고 재미있고 생각이 독창적이지만, 또한 신뢰할 수 없고 미리 정해진 목표의 추구에 충실하지 못한다고 묘사된다.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신중하며 양심적이자만, 또한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으며 상상력이 없다고 묘사된다.

요약하자면, 높은 점수ㄱ, 의 Fx는 열정, 창의성, 자발성,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한 원만한 적응 능력, 그리고 모험정신을 포함하는 호의적 태도들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와 함께, 특히 25점이나 그 이상의 매우 높은 원점수에서, 신뢰할 수 없고 지나치게 변덕스러우며 무언가 느리게 진행되거나 규칙화 된것으로 보일 때 쉽게 화를 낸다.

마찬가지로 낮은 점수의 Fx는 목적에 대한 진지함, 신중함, 현실성, 그리고 완고한 도덕적 신념과 원칙을 나타낸다. 그러나 동시에, 낮은 점수와 관련되는 중요한 부정적 특성들도 있다. 엄격함, 도덕주의자 같은 판단, 그리고 느린 행동이, 원점수 6점이나 7점 이하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특성들이다.

**대인민감성 (F/M, Feminity / Masculinity) 척도**

F/M 척도의 본래 목적은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통속적인 관념들과 일치하는 관점에 따라 응답자들을 배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에 대한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인식은 잘 성립되어 있으며 (Williams & Best, 1982, 1990), 심지어 다섯 살의 아이들도 이러한 지식에 대해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30개 국가(nation)에 대한 연구에서, Williams 과 Best는 모든 국가의 아이들과 성인들이 사용하고 이해하던 형용사 특징 묘사의 공통적인 핵심을 찾아내었다. 그 단어들 중에는 공격적인, 단호한, 튼튼한 이 남성과 남성성에 연관된다. 단어들 중 온화한, 감성적인, 따뜻한 이 여성과 여성성에 연관된다. 통속적 심리학과 양립할 수 있는 F/M 척도와, 경험적으로 도출된 높거나 낮은 점수들과의 서술적 상관 요인들은 반드시 이러한 결과물들과 일치할 것이다.

F/M 척도의 부수적인 필요 사항은 모든 문화권의 모든 지역의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것이다. 즉, 여성성과 남성성의 통속적인 관념과 일치하기 위해서, 여성은 반드시 대체로 F/M 척도에서 남성보다 높은 점수를 가져야 한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그러한 구별을 획득하는 것에 대한 실패는 이 척도의 타당성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동성애에 대한 통속적 관념들은 이성애자 남성 보다 동성애자 남성에게 더 많은 여성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결과는 동성애자 남성에게서 다소 높은 점수, 동성애자 여성에게선 다소 낮은 점수가 나오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들은, 확실하다면, 두 가지 이유에서 잘해봐야 중간정도의 결과였다. 첫째로, 임상적으로 잘 알려진 대로, 동성애적 행동에 대한 다른 경로들이 있으며, 그 중에 오직 하나 만이 성격의 여성성 혹은 남성성과 연관이 있다. 둘째로, 동성애적 행동에 대한 억압 혹은 부정으로 이끌고 가는 명확한 강한 범문화적인 금기가 있다.

이 척도에 대한 첫 번째 버전 (Gough, 1952a)은 남성과 여성의 자기 보고를 분별할 수 있는 300개의 항목 중 선택된 58개 항목을 가지고 있었다. 이 척도는 교차 타당화 표본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훌륭한 식별력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예측하는 방향성 속에서 나이와 학력, 지적 능력의 수준이 매치되는 38명의 동성애자 남성과 38명의 이성애자 남성 사이의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 척도는 그러나, 너무 CPI 에 포함되기 까지 너무 오래 걸렸으며, 480문항 버전의 검사가 1956년 출판되고 나서, 따라서 38개의 항목으로 축소되었다. 1986년 출판된 CPI 462 문항 버전에서, 이 척도는 32항목으로 더 축소되었다. 이 32항목의 척도가 현재 CPI 434항목 버전에서까지 바뀌지 않은 채로 유지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을 분별하는 척도의 능력에 대한 첫 번째 비교문화 연구 (Gough, 1966a)는 6개 국가에 대한 자료를 보고 하였다: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터키, 미국, 베네수엘라. 남성과 여성에 대한 척도 사이의 차이들은 모든 사례 속에서 유의하였다 (p < .01). 그 차이들에 대한 점 2 연상관 (point biserial correlations) 은 중간값 .54에 .47에서부터 .71 까지다.

비교문화 연구 자료의 확장 모음본 (compilation) 은 표 5.21에 17국가에 대해 제시되어 있다. 11개의 새로운 활용에 대한 정보는 M. A. Torki 로부터 이집트와 쿠웨이트에 대해 (Torki, 1988); A. B. Weinert 교수로부터 독일에 대해; J.Levin 과 E. S. Karni 박사로부터 일본에 대해 (Nishiyama, 1975); K. Chun and Y. Chung 박사로부터 한국에 대해 (Gough, Chun, & Chung, 1968); I. Ahmad 박사로부터 파키스탄에 대해 (Ahmad, Anis-ul-Haque, & Anila, 1994); L. Wu 박사로부터 중국에 대해; H. Pitariu 교수로부터 루마니아에 대해 (Pitariu, 1981); N. Seisdedos 박사로부터 스페인에 대해; Y. Ying 교수로부터 대만에 대해 (Ying, 1991)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았다.

표 5.21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모든 17가지의 차이점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p < .01). F/M 척도의 남성에 대한 중간값은 14.32이며, 여성에 대한 중간값은 18.54이다. 점 2 연상관은 낮게는 .37에서부터 높게는 .71까지에 걸쳐져 있다. .37의 상관은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들 311명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얻어졌으며, .71의 상관계수는 미국의 성인 중 두 개의 이성애자 표본들로부터 얻어졌다. 남성 표본에서 F/M 척도의 최고 평균은 일본 대학생들의 15.89 였다. 여성 표본에서 F/M 척도의 최저 평균은 파키스탄의 대학생들의 17.02였다. 이제까지의 가능한 모든 정보들로부터, 이 척도는 어느 문화권에서나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목표에 있어서 성공해왔음을 볼 수 있다.

F/M 척도의 항목계량적 (itemmetric) 분석은 표 5.21에 언급된 국가들 중 9 국가에서 실시되어 왔으며, 그러한 정보가 모든 17개 국가에 대해서,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에서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비록 F/M 척도의 총점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 기대되는 방향성 속에서 구별지을 수 있지만, 개별 항목들에 관해서 차이들은 틀림없이 잘 발견될 것이다. 모든 표본들에 대해서 남녀 구별화를 계속 유지하는 항목들을 언급하는 것 또한 상당한 관심사이다. 그 중 하나의 항목은, 모든 9개 국가에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자주 “그렇다”라고 응답되는 “폭풍은 나를 겁에 질리게 한다”와 같은 항목이다. 모든 9개 국가의 남녀 비교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자주 “그렇다”라고 응답되는 (그리고 따라서 “아니다”라는 응답에 점수를 부여하는) 한 항목의 예는 “나는 차량 정비공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반대되는 한 항목의 한 가지 예는 “나는 누군가 인도에 침을 뱉는 것을 보면 상당히 불쾌해진다.” 이다. 9개 국가 중 8개 국가의 남녀 비교에서 여성은 상당히 더 자주 남성 보다 이 항목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변한다; 그러나, 일본의 표본들에서, 그 퍼센트지는 여성이 53, 남성이 56였다.

항목 계량(itemmetric) 자료는 또한 발생 가능할 수 있는 오역이나 낮은 질의 번역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다. “나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꽤 자부한다”라는 아이템을 고려해보아라. 여덟 개의 나라에서 남성의 “그렇다”라는 답변의 평균값은 26.25로, 총 5에서 50까지 분포해있었다. 여성의 “그렇다”는 답변은 14.88의 평균값으로 4에서 37까지 분포해있었다. 하지만, 어느 한 나라에서, 남성의 평균값은 74였고 여성의 평균값은 62였다. 이 한 나라에서 남성과 여성이 모두 국제 문제에 대한 광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아이템을 해석하는데 있어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 게 더 그럴싸한가?

테이블 5.21에 있는 자료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한 검사 결과를 보여준다. F/M 척도에 있어서 미국 내의 다수와 소수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어떻게 볼 것인가? Baldwin (1987)은 14년 이상의 기간 동안 Midwestern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F/M 척도를 적용해보았다. 그 기간 동안 남성과 여성 모두 평균값과 표준 편차가 비교적 지속적이었다. 흑인 남성들의(N=664) 32개의 F/M 아이템을 평균한 값은 14.80이었다; 백인 남성들(N=554)의 평균값은 14.43이었다. 흑인 여성(N=1,528)의 평균값은 18.70이었다; 백인 여성들(N=936)의 평균값은 18.32였다. 흑인과 백인 부표본의 점수 차는 작았고 통계상으로 유효하지 않았다. 한편, 성별의 평균 차는 컸고 통계상의 0.01 수준을 넘어서며 유효했다. 또한, Baldwin의 두 남성 표본은 테이블 5.21에 있는 남성의 중앙값인 14.32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의 두 여성 표본의 평균값은 테이블 5.21에 있는 여성 중앙값인 18.54에 가까웠다.

F/M 척도의 역할과 성 암시에 대한 연구의 특정한 다른 방식들(lines)이 언급될 수 있다. Mazen과 Lamkau(1990)은 직업을 전통적인 여성의 혹은 비전통적인으로 구분했고, 전자에 속해있는 여성들이 후자에 속해있는 여성들보다 F/M척도에서 두드러지게 높은 점수를 가진 것을 발견했다. 초기 연구(Block, von der Lippe, & Block, 1973)는 F/M 점수가 낮은 남성들은 기술적 영역, 회계, 경찰사무, 그리고 건설에 마음이 끌리는 것을 발견했다. 높은 점수의 남성들은 교육, 돕는 직업, 오락, 그리고 사회과학에 관련된 직업을 더 자주 선택했다. 높은 점수의 여성들은 사무직, 접수담당, 디자인, 그리고 미용사 일에 자주 채용되었다. 낮은 점수의 여성들은 종종 매니저, 관리자, 그리고 과학자가 되었다.

최근 연구(Gough, 1995)는 여성의 36가지 샘플들을 그들의 F/M 척도에 대한 평균 점수에 기반하여 배열했다. 맨 위에는 대학에 가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있었고, 아이들을 위한 책을 쓰는 작가, 광고 작가, 공인 간호사, 전통적인 여성의 일에 종사하는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책의 비평가 순으로 배열되었다. 맨 아래에는 법학, 건축과, 검안과, 약학과 학생들 이었고, 전통적인 남성 직장에 종사하는 여성들, 소년범죄자, MBA지원자, 그리고 경찰관 지원자 들이 있었다.

부록B의 남성에 대한 표준에서, F/M척도가 가장 높게 나온 다섯 개 샘플들은, 아이들을 위한 책을 쓰는 작가, 창작가, 수학자, 그리고 예술대학 학생 이었다. F/M의 평균이 가장 낮은 다섯 개의 샘플들은 미 육군사관학교의 사관생도, 엔지니어, 군 장교, high school disciplinary problems, 그리고 경찰관 이었다. F/M 척도의 점수들은, 다른 측정에서는 바로 구할 수 없는, 직업적 선호와 장래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측정하기 위한 다른 척도들과 F/M척도의 관계는 부록C에 기록되어있다. 남성성에 대한 Comrey의 척도를 이용하여, 남성에 대한 F/M척도의 상관관계는 -.33 이고 여성에 대해서는 -.31 이다; 남성성에 대한 Guilford-Zimmerman척도를 이용하여, 두 성별 모두에 대해 상관관계가 -.53이다; MMPI의 Mf척도의 원점수를 이용하여, 남성에 대한 상관관계는 .49 이고 여성에 대해서는 .42 이다. CPI의 F/M척도는 이러한 다른 측정들과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5가지 요인들의 관점에 대해, 자기보고에 의해 측정된 것처럼, 부록 C는 NEO-AC와 Goldberg의 형용사적 표시에서 비롯한 측정들을 가진다. FFM의 주제에 대한 F/M의 관계는 어떠한가? NEO-AC의 다섯 개 요인 척도들을 이용하여, F/M에 대한 상관관계는 남성에 대해서는 범위가 -.06부터 .38까지었고, 여성에 대해서는 -.17부터 .30까지었다. Goldberg의 다섯 가지 표시들을 이용하여, F/M에 대한 상관관계는 남성에 대해서는 범위가 -.24부터 .33이었고 여성에 대해서는 -.28부터 .19까지었다. F/M척도가 평가한 것이 무엇이든, 이러한 자기보고 FFM 측정에서 그것은 사라져 보이거나 기껏 해도 약하게 보인다.

다수의 작가들(e.g. Bem, 1974; Constantinople, 1973’ Spence & Helmreich, 1979)은 자기보고 영역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척도들이 서로 0 혹은 거의 0인 상관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발견으로부터, 몇몇 심리학자들은 MF가 두 개의 독립적이거나 혹은 단극적인 주제들로 구성된다고 결론지어왔고, 그리고 MF를 여성성과 남성성 이라는 극을 가진 양극의 범위로 개념화 하는 것이 잘못 됐다고 결론지어 왔다.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한 측정들은 Bem의 성 역할 목록(Sex-Role Inventory) (Bem, 1981) 그리고 Spence의 성격 특성 설문지(Personality Attributes Questionnaire) 이다. CPI와 관련하여, Kanner (1976)가 F/M의 두 가지 하위 척도들을 찾았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이들은 직설적인(indicative)항목들 (“참”으로 평가되는) 그리고 금지하는(contraindicative)항목들 (“거짓”으로 평가되는) 에 의해 형성되었고 이들은 서로 근본적으로 0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Kanner의 방식에서, 15개의 “참”항목들은 “F”척도를 대체하고 17개의 “거짓”항목들은, 반대로 채점하여, “M”척도를 대체한다. Baucom (1976, 1980) 은 또한 독립적이거나 단극적인 FEM 그리고 MAS 척도들을 CPI를 위해 개발했다. 무슨 말이냐면, 단극적인 측정을 사용하여 작업하길 소망하는 심리학자들을 위해 이러한 종류의 척도들이 CPI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Baucom의 두 가지 척도들은 그의 두 가지 측정에 대한 훌륭한 연구 논문 때문에 추천되었다 (Baucom, 1983; Baucom & Aiken, 1984; Baucom, Besch, & Callahan, 1985; Baucom & Danker-Brown, 1979, 1983, 1984; Baucom & Sanders, 1978; Baucom & Weiss, 1986).

자기관(self-view)의 영역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에 대하여, 몇몇 흥미로운 연구들이 CPI 단극성 MF 측정(CPI unipolar MF measures)을 사용함으로써 드러날 수 있었다. Kanner의 두 가지 하위척도들을 사용한 하나의 연구는 표 5.22에 요약되어있다. CPI를 사용한 전국적인 고등학교 테스트에서 지명된 학생들은 9학년, 10학년, 11학년, 그리고 12학년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F와 M 하위척도들에 대한 점수들은 추세를 대변하여 측정되었다. 남성에 대해서는, F 하위척도의 점수들이 네 개의 샘플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평균에 대한 F비율은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M 하위척도 에서, 연도 별 지속적인 (변화 없는) 증가가 있었으며, F 비율은 매우 유의하였다. 다시말해, 10대 소년들의 자기 심리 속에서 “남성적인” 요소가 4년 동안 더 강해졌다.

여성에게는, M 척도의 추세선이 상대적으로 4년 동안 일정하였으며, 평균에 대한 F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F 하위척도에 대한 추세선은 변화 없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유의 수준 .02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시말해, 10대 소녀들의 자기 심리 속에서 “여성적인” 요소는 4년 동안 더 강해졌다. 두 가지 발달 상의 추세는 각 4개 학년의 동일한 학생들에 대한 종단 연구 보다는 횡단 연구 표본들로부터 도출되었다. 또한, 그 표본들이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도, 교차-타당도 검증은 필요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춘기를 겪는 이러한 시기 동안 자기-성별 자기-심리의 성장을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오직 단극적인 관점들 (unipolar views) 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척도들은 MF 영역 속에서 허용되므로, 심각하고 언제나 간과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바로 측정의 영역에서, 두 차원들이 전형적으로 -.90 에서 -.99의 순서로 음의 상관이 크다는 것이다. 한 예로서, 버클리의 성격 측정과 성격 조사 연구 기관의 측정 프로젝트 속에서, 99명의 남성과 99명의 여성 대학생들은 각 평가 대상자 당 이틀 동안의 프로그램 속에서 연구되었다. 각 학생은 12명에서 18명의 관찰자로부터 여성성과 남성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특성들의 리스트로 평가 되었다. 전자는 “특징적으로 행동의 방식과 태도가 여성적인,” 것으로 정의 되었고, 후자는 “특징적으로 행동의 방식과 태도가 남성적인” 것으로 정의되었다. 판단자간 신뢰도(interjudge reliability)들은 양쪽 평가 모두 .96이었다. 남성 단독 표본에 대한 두 평가는 -.89의 상관이 있으며, 여성 단독 표본에 대한 두 평가는 -.95의 상관이 있었다. 유사한 결과들이 형용사 체크 리스트 *(Adjective Check List)* 에서 여성적인 그리고 남성적인 형용사들에서도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관찰자들의 관점에서, MF가 양 극의 연속체라는 것을 제시한다. CPI의 주된 목표는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대인관계적 개념들이라는 방식에 맞추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극적인 F/M 척도를 포함하는 것은 전적으로 합리적이다.

동성애자 남성과 여성의 CPI F/M 척도에 대해서는 거의 출판된 연구들이 없다. 초록을 통해 F/M 척도를 사용한 여성에 대한 한 개의 연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son & Greene, 1971). 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동성애자 여성은 이성애자 여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F/M 점수를 가지고 있었다. 남성 표본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밝혀졌지만, 오직 두 개 만이 일반화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표본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 (Siegelman, 1972, 1978). Siegelman 의 연구에서, 미국과 영국의 동성애자 남성 모두 이성애자 남성에 비해 높은 F/M 점수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F/M 척도에 대한 가설과 일치하며, 또한 그러한 현상에 관한 통속 심리학과도 부합한다. 그러나, F/M 척도가 동성애에 대한 진단 척도로 쓰기 위해 제공된 것도 아니며 그런 목적으로 고안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한 진단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자들에게는, 보다 임상적인 목적을 가진 MMPI와 *Rorshach* 와 같은 검사들이 더 적합하다.

F/M 척도의 본래 목적은, 위에서 언급된 대로,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통속심리학과의 일치하는 연속체 (continuum) 를 정의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양 극의 낮은 쪽에 있는 사람은 “남성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여야 하며, 높은 쪽에 있는 사람은 “여성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여야 한다. 게다가, 해석장개 유용한 구별들은 남성 표본들과 여성 표본들 내에서 잘 나타나야 한다. 이 척도의 가치는, 바꿔 말하면, 단순히 척도의 유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가 아니라 척도가 제공하는 정보 속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 보기로 넘어가겠다.

F/M 척도의 32개 항목에 대한 요인 분석은 6,000명의 프로파일 준거 집단에게 실시되었다. 고유값 이 1.00 혹은 그 이상인 8개 요인들이 발견되었고, 그중 4개 요인들은 Kaiser’s normal varimax 방법으로 요인회전되어 임의적으로 얻어진 것이다. 요인1은 주로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직업과 활동들에 대한 선호를 언급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었는데, 예를 들면, “나는 기계학 관련 잡지를 좋아한다” (“아니다”), “나는 건설업자로 일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니다”), “나는 군인이 되고 싶다” (“아니다”) 이다. 요인 2는 상처에 취약한 감정을 의미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었는데, 예를 들면, “가끔 나는 몸과 마음이 허물어 질 것 같다고 느낀다” (“그렇다”), “나는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 이다. 요인 3은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직업에 대한 선호를 표현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간호사 되고 싶다” (“그렇다”), “나는 드레스 디자이너의 일을 좋아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 요인4는 거칠고 직설적인 농담들에 대한 불쾌함에 대해 언급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서로 농담을 주고 받는 무리 속에 있고 싶다” (“거짓”), “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직설적인 농담을 즐긴다는 것을 인정한다” (“아니다”).

행위 빈도 분석들이 177명 (남성 88명, 여성 89명) 의 표본 속에서 도출되는데, 각각은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Buss-Craik 행위 리스트로 행동 빈도를 평가 받았다. F/M 척도와 양의 상관이 가장 큰 다섯 가지 행위와 음의 상관이 가장 큰 다섯 가지 행위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그 혹은 그녀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도록 누군가를 설득하였다 (.26)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26)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지인의 생일을 기억했다 (.24)

다른 사람에게 홀대당한 것에 대해 불평했다 (.26)

기념일에 친구들에게 카드를 보냈다 (.29)

히치하이커를 태워줬다 (-.30)

성관계를 먼저 요구했다 (-.35)

위원회에서 역할을 맡다 (-.34)

차량의 창문을 열어 옆 차량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냈다 (-.30)

그/그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였다 (-.30)

F/M 척도에서 높은 점수와 관련된 행동은 모두 대인관계를 다루는 것으로, 즉, 누군가가 그것을 하도록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 시선 회피, 다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기, 홀대에 대해 불평, 기념일에 카드 보내기 이다. F/M 척도가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다져가는 행동들을 하며,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화답하지 않았을 때 실망한다. 그러나, 그들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접촉은 피한다.

F/M 척도가 낮은 사람들은 성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는 것; 히치하이커를 태우거나 옆 차량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과 같은 다른 사람에게 빠르고 겁 없는 접근; 그리고 그가 벌 수 있는 돈에 대해 생각하는 것들과 연관된다.

이러한 행동들은 177명의 사람들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도출되었다. 만약 88명의 남성과 89명의 여성 각각을 분석했다면 행동이 어땠을 것인가? F/M 척도가 성별 차이를 강조하는 일반적 척도들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들은 바람직하다. 남성 표본에 대해서, F/M 척도와 양의 상관이 가장 큰 다섯 가지 행동과 음의 상관이 가장 큰 다섯 가지 행동들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가게에서 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을 때 불평하지 않았다 (.31)

개인적 질문들을 많이 물어 보았다 (.28)

그가 알고있는 누군가를 피하기 위해서 빙 돌아서 갔다 (.28)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홀대했는지에 대해 불평했다 (.37)

그가 친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비밀 편지 (confidential letter) 를 썼다 (.37)

그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 주었다 (-.35)

차 창문을 내리고 옆 차량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냈다 (-.29)

사고 이후에 그 상황을 지휘하여 주도했다 (-.36)

친구가 차를 고치는 것을 도와주었다 (-.35)

회의에서 첫 번째로 말을 하였다 (-.34)

여러 새로운 항목들이 위의 리스트에 제시되어 있다. F/M 척도가 높은 남성들은 돈이 과하게 청구되었을 때 항의하지 않았고, 낯선 사람에게 그들의 아파트 키를 빌려 주었으며, 누군가와 직접 만나는 것을 꺼려했으며, 홀대 받은 것에 대해 불평하였고, 사적인 관계의 지인에게 비밀 편지를 썼다. 마지막 항목은 거리가 있는 관계에서의 친밀함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었다.

F/M 척도가 낮은 남성들은 그들의 차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빌려주었으며, 옆 차량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으며, 사고 장면에서 역할을 맡았으며, 친구가 차량을 고치는 것을 도왔고, 만남의 자리에서 제일 처음으로 말을 하였다. 이러한 행동들은 과업-중심적인 행동, 계획, 그리고 일종의 자발적인 자기 획신과 관련된다.

F/M 척도와 양의 상관이 가장 큰 다섯 가지 행동이 아래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에 음의 상관이 가장 큰 다섯 가지 행동이 같이 제시 되어 있다.

반대에 수긍하는 것에 저항하였다 (.18)

눈에 잘 띄지 않고 보수적으로 옷을 입었다 (.19)

아무와도 이야기 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득찬 방안으로 들어갔다 (.20)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였다 (.23)

다른 사람에게 직설적인 농담을 하였다 (-.35)

친구로부터 책을 빌리고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 (-.34)

친구들과 놀러 가느라 그녀의 일을 팽개쳤다 (-.33)

그녀의 경쟁자들에 대해 험담하였다 (-.38)

환영회에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다 (-.33)

F/M 척도가 높은 여성들은 배우자나 파드너들로부터 시선을 맞추는 것을 회피하며 그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으로 옷을 입고 행동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그들은 또한 주장이 없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F/M 척도가 낮은 여성들은 직설적인 농담을 하는 것을 즐기며, 빌린 것을 돌려주는 것에 대해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위해 일하는 것을 멈출 준비가 되어 있으며, 경쟁자들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경향이 있고, 환영회에서 중요한 사람을 찾는 데 자발적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F/M 척도의 높은 점수와 연관된 행동들은, 대부분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향하게 하지 않개 하는 것이며, 자기 주장이나 자기 홍보/어필 (self-promotion) 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낮은 점수와 연관된 행동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활발한 주장과 무대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의지를 수반하는 완전히 다른 사회적 스타일을 묘사한다.

행동 지표에 대한 논의를 끝내기 전에, 위에 언급된 것 보다 조금 상관이 낮은 몇몇 행동들이 아마도 언급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F/M 척도의 높거나 낮은 점수를 가진 남성들에 대한 그림을 채우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가적인 행동들이 F/M 척도의 높은 점수와 연관된다: “오후 내내 책을 읽었다” (*r* = .26), “큰 파티를 열었다” (*r* = .22), “거리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와 포옹하였다” (*r* = .22), “고개를 숙이고 길을 걸었다” (*r* = .23). 다음의 행동이 추가적 행동들 중에서 남성의 F/M 척도의 낮은 점수와 연관되었다: “농구를 하였다” (*r* = -.24), “그가 심부름을 하는 동안, 그의 차문을 잠가놓지 않고 떠났다” (*r* = -.24), “손쉽게 그의 위치의 권위를 이용하였다” (*r* = -.28), “스포츠를 위해 사람들을 모았다” (*r* = -.24).

다음의 행동이 추가적 행동들 중에서 여성의 F/M 척도의 높은 점수와 연관되었다: “그녀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r* = .18), “영업사원의 보조업무 제의를 회피했다” (*r* = .17). 중에서 여성의 F/M 척도의 낮은 점수와 연관된 구체적, 추가적 행동들은 이러한 행동들을 포함했다: “편의를 위해 불법주차를 하였다” (*r* = -.27),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와 사귀는 것에 동의하였다” (*r* = -.28), “유혹적인 옷을 입업다” (*r* = -.31), “나이트 클럽에 갔다” (*r* = -.32).

남녀의 F/M 척도의 높거나 낮은 점수와 연관된 형용사들은 표 5.23에 제시되어 있다. 도출된 형용사의 양은 어느 folk 척도에서 보다도 더 약한데, 아마도 관찰자들이 두 성별에 대해서 성역할과 연결적인 행동을 특징화하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F/M 점수와 연관된 형용사들은 일반적으로 감동성 (emotionality)과 신경과민의 요소와 더불어 의존성, 순종성, 민감성에 대한 선호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남녀에 대한 전형적인 코멘트가 아니라, 오히려 각 성별에 대한 높은 F/M 점수와 연관된 사실에 대한 묘사라는 것이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만일 누군가 높은 F/M 점수를 가졌다면, 이러한 묘사들이 넓은 오류와 가능성의 한계 속에서 예상될 수 있다. 낮은 F/M 점수와 연관된 묘사들은 공격성, 투지, 남성성, 자기확신, 독립성을 포함한다.

남녀 각각에게서 분석된 형용사적 상관요인들이 F/M 척도의 점수를 해석하는 데 더 중요하다. 표 5.24는 언급된 3개 표본들 속 남성에 대해 양의 상관이 가장 큰 12개의 단어와 음의 상관이 가장 큰 12개의 단어를 제시한다.

F/M 점수가 높은 남성들은 여성스러우며 또한 불평하며 불안해 하며, 몹시 예민하고, 감정적이고, 우울하며, 자기 연민하며, 민감한 것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주제는 수줍어하고 소심한 형용사로부터 제시된 것이다. 전반적으로 다소 무례한 인상이 이상한 이라는 형용사로부터 추론될 수도 있지만, 더 호의적인 반응들이 사색적인 이라는 단어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오해의 여지 없이 수줍음, 기운과 힘의 부족, 자신에 대한 상당한 연민표현에 대한 것이다.

남성의 낮은 F/M 점수와 관련된 형용사들은 남성적인 과 공격성, 자기주장, 야망, 자신감, 독립성, 강건함 과 같은 관습적으로 남성적 특성들을 함께 포함한다. 비록 약하지만 기회주의적인 이라는 형용사와의 세 음의 상관관계의 단어들이 언급될 수도 있다. 다른 형용사들은 외향적인, 실용적인, 강한 이다. 전반적인 그림은 활동적인, 강한, 자기주장적인 사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선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의 것이다.

표 5.25는 F/M 점수가 높거나 낮은 여성에 대한 가장 두드러지는 형용사적인 묘사 24개를 언급하고 있다. 형용사적 여성성은 잰틀한, 보통의, 부드러운, 따뜻한 마음의, 감정적인, 이기적이지 않은, 따뜻한 처럼 틀에 박힌 표현과 함께 높은 점수와의 상관성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주제는 의존적인, 순종적인과 같은 형용사를 통해 나타났다. 이러한 형용사들이 사실은 “여성성”이라는 개념을 특징화거나 “여성스러운” 여자와 같은 추상적인 어떤 것을 묘사하기 위한 어떠한 의도도 없이 특정 인물을 묘사하기 위하여 관찰자에 의해 사용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주목되어야 한다. 형용사들은, 다시 말해, 한번에 연구되었던 꽤 정확한 여성 표본에 대해, F/M 척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실험에 의해 밝혀졌다.

여성에 대해 F/M 척도에서의 낮은 점수와 연관되어 있는 형용사들은 예를 들면 자신있는, 건강한, 독립적인, 자신만만한, 강한 등등의 몇몇 함축적인 능력과 효과를 포함한다. 자기주장 또한 하나의 주제인데, 공격적인, 단호한, 강력한, 고집불통의 같은 표현들이 있다. 심리학적 힘은 강하고 터프한 묘사에 의해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빈틈없는 그리고 고집불통의 같은 형용사들은 의지의 단단함의 함축을 전한다.

세 번의 회귀분석 – 첫번째는 1356명의 사람들에 대해 두번째는 806명의 남성에 대해, 그리고 세번째는 550명의 여성에 대해 대해 F/M 점수를 특정하기 위하여 - 은 200개의 가장 자주 사용되는 형용사라는 결과를 냈다. 각각의 분석은 8번째 단계에서 독단적으로 종료되었다. 총 샘플에서, 8개의 형용사들에 대한 가장 좋은 조합은 다중 상관 .26(R제곱=.07)을 생성하였다. Positive beta weight를 가지는 형용사들은 예술의, 여성스러운, 공들이는, 반영적인, 그리고 민감한 이다. Negative beta weight를 가지는 형용사들은 멋진, 용감한, 그리고 건강한 이다.

806명의 남성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여덟개 단어 집단은 .41(R제곱=.17)의 다중상관을 가진다. Positive weight는 예술의, 매력있는, 공들인, 민감한, 관습적이지 않은, 그리고 걱정하는 이 할당되었다. Negative weight으로는 모험적인과 경계하는 이었다.

550명의 여성에 대한 다중상관은 .37(R제곱=.14)였다. 긍정적인 지표는 열정적인, 여성스러운, 남과 잘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순종적인 이었다. 부정적인 지표는 공격적인, 용감한, 건강한, 그리고 느긋한 이었다.

California Q-Set에서 나온 문항들은 각각 다섯명 혹은 그 이상의 관찰자에 의해 Q-sort에서 묘사되었던 547명의 남성과 393명의 여성에 대해 F/M 척도와 연관이 있었다. 두 표본에 대하여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갖는 네개의 문항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갖는 네개의 문항은,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한 상관계수와 함께 아래에 나와있다.

불안 그리고 긴장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다 (.19, .22)

기본적으로 걱정이 많다 (.13, .16)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사람으로서 고유의 적절성을 가지고 걱정한다. (.13, .18)

감정 기복이 있다 (.15, .14)

확고한 패션 철학이 있다 (-.13, -.16)

자기 자신에 대해 주관적으로 무지하다;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26, -.13)

적대적인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18, -.13)

F/M 척도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은 남성과 여성 양쪽 모두는 다른사람들에게 불안해하고, 그들 자신의 적절성에 대하여 걱정하고, 감정 기복이 있고, 그들의 불안을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낸다는 인상을 주었다. 평균 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이들은 단호하고, self-concern에 대해 알지 못하고, 세력 지향적이고, 직접적이며, 적대감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였다.

각각의 성에 대한 F/M이 연관된 Q-sort 문항들로 돌아갔을 때, 몇몇 새로운 정보들이 나타났다. 남성에 대한 F/M 척도에서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네개의 문항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네개의 문항은 아래에 나와있다.

평범하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연관짓는다; 비관습적인 사고 과정을 가지고 있다 (.24)

불안과 긴장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다 (.19)

감각적인 표현을 즐긴다; 심미적으로 반응한다 (.30)

철학적인 문제를 걱정한다; 예를 들면 종교, 가치, 삶의 의미 등등 (.20)

다른 사람들을 “유명세”, “옳은 일”, “사회적 압박”과 같은 관습적인 용어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20)

주관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고찰(self-concern)을 하지 않는다(unaware); 스스로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 (-.26)

이성에 대해 관심이 있다 (-.22)

남성적으로 행동한다 (-.35)

남성 표본 단독에 대하여, 관념적인, 창의적인, 그리고 심미적인 성향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F/M 점수 상승에 기인한 신체화 경향과 함께 높은 점수와 연관되어 있다. F/M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남성은 다른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고찰하지 않으며,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고, 남성적으로 행동한다.

여성 표본 단독을 대상으로 한 Q-sort 문항 분석은 또한 새로운 정보를 보여준다. 이는 아래에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네 개의 문항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네개의 문항으로 나와있다.

불안과 긴장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난다 (.22)

진실로 순종적이다; 지배를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24)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확인 받고 싶어한다 (.19)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든 인간으로서의 적절성을 고민한다 (.18)

비판적이고, 회의적이며, 쉽게 감명받지 않는다 (-.25)

외벌적인; 비난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22)

자기 자신에 대해 높은 포부를 가지고 있다 (-.28)

스스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치있게 여긴다 (-.31)

F/M 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여성은 걱정과 긴장을 신체화 하고, 지배를 받아들이며, 타인에게 재확인을 받고 싶어하고, 스스로의 적절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F/M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여성들은 회의적이고, 외벌적이며, 포부가 있고, 자주권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F/M 척도에 대해 504명의 남성과 379명의 여성 피검사자 대한 면접관들의 묘사는 오로지 몇몇 문항만을 명백하게 생성한다. 첫 번째 세트는 504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F/M에 대해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네 개의 문항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네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린, 여성스러운 외모 (.17)

부모와 상당한 마찰과 불화가 있다 (.15)

이성과 데이트 한 경험이 아주 적거나 없다 (.18)

많은 걱정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15)

거칠고 남성다운 외모 (-.19)

몹시 자신감있고, 거의 모든 상황에서 적응할 수 있다고 느낀다 (-.16)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21)

신경증적인 세태, 갈등,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불안정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보인다 (-.17)

F/M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남성들은 여성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고, 부모와 상당한 갈등이 있는 가정에서 자랐으며,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고, 고등학교 때 데이트를 굉장히 조금 혹은 하지 못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F/M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남성들은 남성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고, 자신감이 넘치며,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신경증적인 세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묘사되었다.

F/M과 여성에 대하여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네 개의 문항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네 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자기 자신에 대해 확신이 없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한다 (.15)

강한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 (.18)

행복하게 결혼하였다 (.23)

아이들을 좋아한다 (.23)

침착하고 의도적인 (-.12)

건강해보이고, 잘 발달했으며, 영양상태도 좋은 (-.11)

고등학교 때 우등생이었다 (-.22)

자신감이 넘치고 어떠한 상황이던지 적응할 수 있다고 느낀다 (-.13)

379명의 여성 표본의 상관성에 대한 0.5 레벨의 중요성은 r=.10 에 의해 성취되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상관계수의 크기가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도, 전부 0.5 혹은 그 이상의 레벨이라는 것이다. F/M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여성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강한 종교적 믿음이 있으며, 행복한 결혼을 하였고, 아이를 좋아한다고 묘사된다. 이러한 문항들은 편견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면접관들은 F/M 척도 혹은 어떠한 척도에 대해서도 그 점수에 대해 알 지 못했고 그저 각각의 여성에 대해 관찰한 대로 최선을 다해 묘사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성에 대해 F/M에서의 낮은 점수와 연관된 체크리스트 문항들은 침착하고, 계획적이며, 건강해보이고, 자신감이 있다는 묘사를 포함한다. 게다가, 이러한 낮은 점수를 받은 여성들은 고등학교 때 우등생이었다는 보고가 있다.

Interpersonal Q-Sort 묘사는 아내 혹은 연인에 의해 Q-sort가 이루어진 200명의 남성, 남편 혹은 연인에 의해 Q-sort가 이루어진 200명의 여성, 세 명의 관찰자 스태프 패널에 의해 Q-sort가 이루어진 111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검사되었다. F/M에 대해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세 개의 문항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세 개의 문항은 남성, 여성, 그리고 남성 피검자에 대한 상관계수와 함께 아래에 나와있다.

어색하고, 사회적으로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색해하는 (.12, .15, .15)

쉽게 당황하는; 열등하고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16, .14, .08)

걱정하고 집착하는; 긴장된, 일반적으로 기분이 안좋은 (.14, .09, .20)

열망이 있는; 착수한 모든 것에서 성공할 것 같은 (-.08, -.18, -.15)

기획력이 있고 외향적인; 사회적 참여를 즐기는 (-.10, -.09, -.24)

동적이고 태도가 원기 왕성한; 판단에 있어 냉정하고 솔직한 (-.02, -.10, -.34)

이러한 상관성에 있어서 작은 규모 때문에, 해석은 잠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F/M에 대한 높은 점수와 관련되어 있는 세 개의 항목 모두 어떠한 종류의 걱정, 억제, 혹은 부적절한 감정을 보고했다. F/M의 낮은 점수와 관련되어 있는 세 개의 항목들은 계획, 야망, 기업과 같은 것들을 보고한다.

연구 결과는 단지 주의가 남성에게만 집중되었을 때만 달랐다.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세 개의 문항 중 단지 하나의 새로운 문항이 발견된 것이다: “감정에 크게 좌우된다; 때때로 어렵고 저항하는,” 이와 관련하여 200명의 남성에 대하여 .10의 상관계수가 111명의 피검자에 대하여 .30의 상관계수가 나타났다. 또한 . F/M에서의 낮은 점수와 연관 된 세개 중 단 하나의 새로운 문항이 확인되었다: “태세를 갖추고 있고 자신만만한; 압박이나 비판으로 인해 곤란을 겪지 않는,” 이와 관련하여 200명의 남성에 대해 .22의 관련성을 111명의 피검자에 대하여 .24의 관련성을 보였다.

어딘가 더 특별했던 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F/M 점수의 높고 낮음과 관련된 문항에서 발견되었다. 가장 큰 양의 상관을 가지는 세 개의 문항과 가장 큰 음의 상관을 가지는 세 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관대한, 허용되는, 자애로운, 사려깊은, 자선적인 (.22)

순종적인, 쉽게 항복하는; 자신감이 부족한 (.18)

정해진 방식대로 결혼한; 변화나 불확실한 것에 대해 불안해 한다 (.21)

야망있는; 대부분의 것들에서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 (-.18)

잘 믿지 못하고 시니컬한;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 불만족 스러워 하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 혹은 걱정에 무관심한 (-.21)

독립적인, 똑똑한, 자기 의존적인 ; 가치 성취적인 (-.19)

남편 혹은 배우자는 여성을 관대한, 이익이 되는 과 같은 표현 뿐만 아니라 순종적인, 자신감이 부족한, 결혼을 정해진 길대로 하는 과 같은 표현으로 F/M 점수를 더 높게 묘사하였다. 그들은 낮은 F/M 점수의 여성을 열망있는, 똑똑한, 그리고 유능한, 하지만 또한 잘 믿지 못하고 시니컬한이라고 묘사하였다.

요약하자면, F/M 척도에 따를 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은 검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 그것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유용성과 그러한 정보가 가능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검사 그리고 척도들의 범위까지이다. MF 척도의 양극단에 대한 개인적인 이의는, 그것이 열정이라고 하더라도, 한쪽으로 치워진 순간들을 위한 것이어서 F/M 척도에 의해 전당된 정보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MF 영역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방법이던 불법을 걱정하며 교조적인 시각을 위해 똑 같은 주의가 주어진다. F/M 척도의 목표는 남자든 여자든 간에 위신을 떨어뜨리거나 낙인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을 친 개인에 대한 완벽한 이해에 도달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사실상 F/M 척도가 중요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유용한 정보를 공급한다는 점이 우리의 주장이다.

높거나 낮은 F/M 점수의 지표(implication)는 시험을 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사회를 향한 만남(head-on social encounter)을 싫어하거나 피하고, 세상의 이목에서 벗어나고 강력한 정밀조사 빠져나오기 위하여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입기도 한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친구를 세심하게 배려하고, 예민한 경향이 있고, 부드러우며, 걱정이 많고, 감정의 기복이 있으며, 쉽게 당황하고, 많은 금지사항을 가지고 있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중심이 되는 것에 무관심하고, 사실상 옷이나 행동을 통해 이모글 끌기도 한다. 그들은 성적인 것 까지 계획을 세우고, 자신감이 넘치며, 강하고, 단호하며, 진취력이 있다. 그들은 힘을 가치있게 여기고 추구하며 적대감이나 화를 쉽게 표현한다.

그곳에는, 물론, F/M의 높고 낮은 점수에 대해 특정 성별에 한정된 암시(implication)도 있다. 높은 점수를 받은 남자는 면접관에 의해 외모적으로 여성스럽고 섬세하며 여성스럽게 행동한다고 묘사되었다. 면접관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을 긴장된, 예민한, 쉽게 기분이 상하는, 감정적인 사람으로 본다. 반대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들은 상상을 잘 하고 창의적이며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의식하고 있고 감각적인 경험을 즐긴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F/M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남자는 남성적으로 보이고, 남성적으로 행동하며, 스트레스 혹은 긴급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있고, 자신감이 넘치며, 독립적이고, 원기 왕성하고, 강하며, 모험심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관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고, 자기성찰을 잘 하지 않으며, 다른사람의 불평이나 비판은 한귀로 흘리는 경향이 있다.

여성에 대한 F/M에서의 높은 점수에 대해, 일부 구체적인 암시는 이목이 집중되거나 현란한 행동이라면 강력하게 피하는 것, 다른 사람들 존중할 의지가 있는것,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 한 것은 싫어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들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은 여성적이고, 부드러우며, 따뜻하고, 하지만 동시에 약하고 의존적이라고 본다. 그들은 타인들로부터 재확신을 받고싶어한다.

F/M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여성들은 쾌락주의적이고, 무대의 한가운데 역할을 즐길 것이고, 그들 자신에 대해 높은 열망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추구하고 동시에 필요로 한다. 다른 이들은 그들을 적극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신감이 넘치고 하지만 동시에 요구가 많고, 고집이 세며, 계획적이라고 보았다.

검사 결과를 보고 할 때, 두 개의 프로파일 형식이 사용된다. 하나는 동성 샘플이고 다른 하나는 혼합된 6000명 샘플이다. 어떠한 개인에게라도 두 프로파일에 대한 시각적 점검은 F/M 척도에서 만의 차이를 드러낼 것이다. 모든 샘플에서 나온 형식에서는, 여성의 표준 점수가 50이상이고 남성에 대해서는 50 이하이다. 표준점수 50은 동성 프로파일 형태에서 여성에 대해서는 39, 남성에 대해서는 61과 같다.